

---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

---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21.1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교육기반본부장 홍유진

교육연수센터팀장 임선영

교육연수센터대리 조은애

교육연수센터 장혜린

**등록**

KACES-2132-R001

**ISBN**

978-89-6748-414-9(9337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5999

E-mail. [contact@arte.or.kr](mailto:contact@arte.or.kr)

[www.arte.or.kr](http://www.arte.or.kr)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출처를 표시하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경석 글로벌알앤씨(주) 연구부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조아영 글로벌알앤씨(주) 연구부 대리

정현혜 글로벌알앤씨(주) 연구부 대리

#### 연구보조원

김주원 글로벌알앤씨(주) 연구부 연구원

**글로벌알앤씨(주)**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목차

---

요약	1
I. 서론	17
II. 자격소지자	35
III. 문화예술 관련 기관	221
1. 종합분석(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223
2. 의무배치기관	233
3. 문화예술 관련 기관	260
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73
IV. 심층 인터뷰 결과	283
1. 심층 인터뷰 개요	285
2. 심층 인터뷰 주요 결과	287
V. 결론 및 제언	293
참고문헌	301
부록	305

## 표 목차

[표 1] 2016-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개요	2
[표 2] 2016-2021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 항목 비교	4
[표 3] 2016-2021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 항목 비교	6
[표 4] 2018-2021 문화예술 관련 기관 설문 항목 비교	8
[표 5]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9
[표 6]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9
[표 7]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10
[표 8]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관련 세부 법령	19
[표 9] 자격취득요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상황	19
[표 10] 연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상황	19
[표 11] 2016-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개요	21
[표 12] 설문조사 개요	23
[표 13] 2016-2021 시계열자료 개요	24
[표 14] 2016-2021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 항목 비교	27
[표 15] 2016-2021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 항목 비교	29
[표 16] 2018-2021 문화예술 관련 기관 설문 항목 비교	31
[표 17]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32
[표 18]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33
[표 19]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33
[표 20]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37
[표 21]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38
[표 22] [예술강사]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39
[표 23]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40
[표 24]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41
[표 25]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43
[표 26] 2016-2021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분석	44

[표 27]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45
[표 28] [예술강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46
[표 29]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47
[표 30]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48
[표 31] 경제비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	49
[표 32] [고졸/비전공자] 경제비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	50
[표 33] [예술강사] 경제비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	50
[표 34] [예술전공자] 경제비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	51
[표 35] [국가무형문화재] 경제비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	51
[표 36]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52
[표 37] [고졸/비전공자]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53
[표 38] [예술강사]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53
[표 39] [예술전공자]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54
[표 40] [국가무형문화재]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54
[표 41]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	55
[표 42] [고졸/비전공자]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	55
[표 43] [예술강사]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	56
[표 44] [예술전공자]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	56
[표 45] [국가무형문화재]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	56
[표 46] 경제활동자의 경제활동 형태	57
[표 47]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자의 경제활동 형태	58
[표 48] [예술강사] 경제활동자의 경제활동 형태	59
[표 49] [예술전공자] 경제활동자의 경제활동 형태	60
[표 50]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자의 경제활동 형태	61
[표 51]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62
[표 52] [고졸/비전공자]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62
[표 53] [예술강사]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63
[표 54] [예술전공자]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63
[표 55] [국가무형문화재]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64

[표 56]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65
[표 57] [고졸/비전공자]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66
[표 58] [예술강사]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66
[표 59] [예술전공자]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67
[표 60] [국가무형문화재]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67
[표 61] 관련 분야 종사 여부	68
[표 62] 2016-2021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비교 분석	69
[표 63] [고졸/비전공자] 관련 분야 종사 여부	70
[표 64] [예술강사] 관련 분야 종사 여부	71
[표 65] [예술전공자] 관련 분야 종사 여부	72
[표 66]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종사 여부	73
[표 67] 경제활동 형태별 관련 분야 종사 여부	74
[표 68]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 형태별 관련 분야 종사 여부	74
[표 69] [예술강사] 경제활동 형태별 관련 분야 종사 여부	75
[표 70] [예술전공자] 경제활동 형태별 관련 분야 종사 여부	75
[표 71]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 형태별 관련 분야 종사 여부	76
[표 72]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자격 취득 시기별 현 소속기관	77
[표 7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자격 취득 시기별 현 소속기관	77
[표 74] [예술강사]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자격 취득 시기별 현 소속기관	78
[표 75]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자격 취득 시기별 현 소속기관	78
[표 76]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자격 취득 시기별 현 소속기관	79
[표 77] 타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현 소속기관	79
[표 78]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80
[표 79] 현 담당업무별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81
[표 80]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82
[표 81] [예술강사]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83
[표 82]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84
[표 83]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85
[표 84]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86

[표 85] 현 담당업무별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87
[표 86]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88
[표 87]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89
[표 88]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90
[표 89]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91
[표 90] 타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92
[표 91] 현 담당업무별 타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93
[표 92]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94
[표 9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95
[표 94] [예술강사]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96
[표 95]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97
[표 96]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98
[표 97]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기간	99
[표 98]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기간	100
[표 99]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기간	101
[표 100]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기간	102
[표 101]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기간	103
[표 102] 타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104
[표 103]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 담당 업무	105
[표 104]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106
[표 105] [예술강사]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106
[표 106]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107
[표 10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108
[표 108]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주 담당 업무	109
[표 109]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주 담당 업무	110
[표 110] [예술강사]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종사자 주 담당 업무	110
[표 111]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종사자 주 담당 업무	111
[표 112]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종사자 주 담당 업무	112
[표 11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113

[표 114]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114
[표 115]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115
[표 116]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116
[표 11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117
[표 118] 자격증 취득 기간	118
[표 119]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기간	119
[표 120]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기간	120
[표 121]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기간	121
[표 122]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기간	122
[표 123] 자격취득 동기	124
[표 124] 2016-2021 자격요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동기 비교 분석	125
[표 125] [고졸/비전공자] 자격취득 동기	126
[표 126] [예술강사] 자격취득 동기	127
[표 127] [예술전공자] 자격취득 동기	128
[표 128]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취득 동기	129
[표 129] 자격취득 시점별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130
[표 130] [고졸/비전공자] 자격취득 시점별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130
[표 131] [예술강사] 자격취득 시점별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131
[표 132] [예술전공자] 자격취득 시점별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131
[표 133]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취득 시점별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132
[표 134]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133
[표 135]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134
[표 136] [예술강사]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135
[표 137]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136
[표 138]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137
[표 139] 자격취득 당시 희망 직무	139
[표 140] [고졸/비전공자] 자격취득 당시 희망 직무	140
[표 141] [예술강사] 자격취득 당시 희망 직무	141
[표 142] [예술전공자] 자격취득 당시 희망 직무	142

[표 143]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취득 당시 희망 직무	143
[표 144] 자격 취득 전후 직무 비교	144
[표 145] [고졸/비전공자] 자격 취득 전후 직무 비교	145
[표 146] [예술강사] 자격 취득 전후 직무 비교	146
[표 147] [예술전공자] 자격 취득 전후 직무 비교	147
[표 148] [국가무형문화재] 자격 취득 전후 직무 비교	148
[표 149]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149
[표 150]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150
[표 151]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151
[표 152]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152
[표 153]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153
[표 154]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비교 분석	154
[표 155] [고졸/비전공자]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비교 분석	155
[표 156] [예술강사]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비교 분석	156
[표 157] [예술전공자]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비교 분석	157
[표 158]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59
[표 159] 2017-2021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비교 분석	160
[표 160]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1
[표 161] [예술강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2
[표 162] [예술전공자]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3
[표 163]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4
[표 164] 경제활동 분야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5
[표 165]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 분야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5
[표 166] [예술강사] 경제활동 분야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6
[표 167] [예술전공자] 경제활동 분야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6
[표 168]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 분야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7
[표 169]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현 소속기관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8
[표 170]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현 소속기관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9
[표 171]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현 소속기관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69

[표 172]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현 소속기관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70
[표 173]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현 소속기관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170
[표 174]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172
[표 175] 2017-2021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비교 분석	173
[표 176] [고졸/비전공자]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174
[표 177] [예술강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175
[표 178] [예술전공자]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176
[표 179]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177
[표 180]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179
[표 181] 2017-2021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안 된 이유 비교 분석	180
[표 182] [고졸/비전공자]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181
[표 183] [예술강사]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182
[표 184] [예술전공자]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183
[표 185] [국가무형문화재]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184
[표 186]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185
[표 187] 2016-2021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비교 분석	186
[표 188]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187
[표 189] [예술강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187
[표 190] [예술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188
[표 191]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188
[표 192]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189
[표 193]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190
[표 194] [예술강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191
[표 195] [예술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192
[표 196]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193
[표 197]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194
[표 198]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195
[표 199] [예술강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196
[표 200] [예술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197



[표 201]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198
[표 202]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199
[표 203]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200
[표 204] [예술강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201
[표 205] [예술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202
[표 206]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203
[표 207] 구직 시 도움 된 이유	204
[표 208] 2016-2021 구직 시 도움 된 이유 비교 분석	205
[표 209] 구직 시 도움 된 이유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206
[표 210] 구직 시 도움 된 이유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207
[표 211] 구직 시 도움 된 이유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208
[표 212]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	209
[표 213] 2016-2021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 비교 분석	210
[표 214]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211
[표 215]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212
[표 216]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213
[표 217]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214
[표 218]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215
[표 219]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216
[표 220]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217
[표 221]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218
[표 222]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 가능 또는 희망 지역	219
[표 22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 분석	224
[표 22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비교 분석	224
[표 22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비교 분석	224
[표 22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비교 분석	225
[표 22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비교 분석	225
[표 228]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비교 분석	225
[표 229]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비교 분석	226

[표 230]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227
[표 23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비교 분석	228
[표 23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비교 분석	228
[표 233]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229
[표 234]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및 업무 수행 수준 비교	230
[표 235]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비교 분석	231
[표 236]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비교 분석	231
[표 237]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시점 및 배치 예상 인원 수 비교 분석	231
[표 238]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232
[표 239] [의무배치기관] 소속기관 유형	233
[표 240]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234
[표 241] [의무배치기관] 2019~20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 분석	235
[표 242] [의무배치기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236
[표 243] [의무배치기관] 2019~20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비교 분석	237
[표 244]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238
[표 245]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배치 여부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유형	239
[표 246]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자격증 소지율	240
[표 247]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241
[표 248] [의무배치기관] 2019~2021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비교 분석	242
[표 249]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243
[표 250]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244
[표 251] [의무배치기관] 2019~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비교 분석	245
[표 252]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246
[표 253] [의무배치기관] 2019~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비교 분석	247
[표 254]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및 실제 담당 업무	248
[표 255]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249
[표 256]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자격소지자 미배치 이유	250
[표 257]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251
[표 258]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희망 배치 형태	252

[표 259]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예상 인원 수	252
[표 260] [의무배치기관] 2019~2021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비교 분석	253
[표 261] [의무배치기관] 배치율 및 배치 의향률	254
[표 262] [의무배치기관]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255
[표 263]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자격소지자 배치 의향 없는 이유	256
[표 264]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257
[표 265] [의무배치기관] 원활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위한 필요사항	258
[표 266]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259
[표 267] [문화예술 관련 기관] 소속기관 유형	260
[표 268]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260
[표 269]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261
[표 270]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262
[표 271] [문화예술 관련 기관] 기관유형별 배치 여부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유형	263
[표 27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자격증 소지율	264
[표 273]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265
[표 274]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266
[표 275]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267
[표 276]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267
[표 277]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및 실제 담당 업무	268
[표 278]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269
[표 279]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270
[표 280]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희망 배치 형태	271
[표 28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예상 인원 수	271
[표 28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272
[표 28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273
[표 28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273
[표 28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274
[표 28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275
[표 28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275

[표 288]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276
[표 28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277
[표 29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277
[표 29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277
[표 29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및 실제 담당 업무	278
[표 29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280
[표 294] 심층 인터뷰 설계	285
[표 295] 심층 인터뷰 조사내용	286
[표 296]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희망여부	340
[표 297] [자격소지자] 자격취득 희망 동기	342
[표 298]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및 시간 지불 의사	343
[표 299]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344
[표 300]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시 희망 직무	345
[표 301] [자격소지자] 2급 역량 대비,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 적합한 직무	346
[표 302]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 적합한 직무	347
[표 303]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보유해야 할 역량	348
[표 304]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349
[표 305] [의무배치기관] 확대 운영 시, 기관에서 강화되어야 할 업무 영역	350
[표 306] [의무배치기관] 확대 운영 시, 1급 문화예술교육사 필요성	351
[표 307] [의무배치기관]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	352
[표 308] [의무배치기관]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필요성	353
[표 309] [의무배치기관]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354
[표 310] [의무배치기관]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예상 인원 수	354
[표 311] [의무배치기관]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시점	355
[표 31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356
[표 313] [문화예술 관련 기관] 확대 운영 시, 기관에서 강화되어야 할 업무 영역	357
[표 314] [문화예술 관련 기관] 확대 운영 시, 1급 문화예술교육사 필요성	357
[표 315] [문화예술 관련 기관]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	358
[표 316] [문화예술 관련 기관]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필요성	358

[표 317]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359
[표 318]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예상 인원 수	359
[표 319]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시점	360

## 그림 목차

[그림 1]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52
[그림 2]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 담당 업무	105
[그림 3]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의 주 담당 업무	109
[그림 4] 자격취득 동기	123
[그림 5] 자격취득 당시 희망직무	138
[그림 6] 업무 도움 정도	158
[그림 7] 업무에 도움 된 이유	171
[그림 8]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178
[그림 9] 구직 시 도움 정도	185
[그림 10] 구직 시 도움 된 이유	204
[그림 11]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	209
[그림 1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유형	223
[그림 13]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238
[그림 14]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243
[그림 15]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249
[그림 16]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시점	251
[그림 17]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255
[그림 18]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262
[그림 19]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266
[그림 20]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269
[그림 2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시점	270
[그림 22]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272
[그림 2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274
[그림 2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276
[그림 2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279
[그림 2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형태	280
[그림 2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281

---

## 요약

---

### 1. 조사 목적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경제활동 조사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현황조사의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조사 개요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관한 연구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경제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에 대해 2016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총 여섯 차례 조사를 진행함
  - 1차 연도(2016년)와 2차 연도(2017년)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3차 연도(2018년)부터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 단체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5차 연도(2020년)에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5차 연도(2020년)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조사 대상을 기존 '20년 제1차 누적 기준 20,475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6,368명)로 한정하였고, '20년 제2차 정규 기준 신규 자격취득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가 추가되었음. 따라서 4차 연도(2019년)까지의 조사 대상과 차이가 있으므로, 시계열 분석에 주의를 요함
  - 6차 연도(2021년)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조사 대상을 '21년 제1차 누적 기준 24,066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8,847명)로 한정하였으며, '21년 제2차 정규 기준 신규 자격취득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5차 연도(2020년)까지의 조사 대상과 차이가 있으므로, 시계열 분석에 주의를 요함

[표 1] 2016-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개요

구분	1차 연도 (2016년)	2차 연도 (2017년)	3차 연도 (2018년)	4차 연도 (2019년)	5차 연도 (2020년)	6차 연도 (2021년)
조사 대상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조사 규모	- 자격소지자 10,069명 - 의무배치기관 1,847개	- 자격소지자 12,284명 - 의무배치기관 1,918개	- 자격소지자 14,820명 - 의무배치기관 1,951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794개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429개	- 자격소지자 17,586명 - 의무배치기관 2,082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47개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322개	- 자격소지자 6,368명 - 의무배치기관 2,135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52개	- 자격소지자 8,847명 - 의무배치기관 2,221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07개
조사 방법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FGD(Focus Group Discussion)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IDI(In-Depth Interview)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기간	- 2016년 8월~9월	- 2017년 8월~9월	- 2018년 7월~8월	- 2019년 9월~10월	- 2020년 9월~11월	- 2021년 10월~12월

### 3. 조사 방법

- 설문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1차 연도(2016년)에서 6차 연도(2021년)까지 취합된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및 기관 종사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IDI(In-Depth Interview)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전문가는 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FGI를 진행함



## 4. 설문 구성

### 가. 설문조사

- 본 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배치현황 파악을 위해 설계된 조사로 매년 동일한 설문구조가 반복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연도별로 조사내용에 부분적인 차이를 보임
  - 1차 연도(2016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의무배치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함. 자격소지자용 설문은 자격요건별로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자격취득 동기, 경제활동 현황, 자격증의 업무 및 구직 시 도움 정도 등을 조사함. 의무배치기관용 설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현황, 배치 형태, 담당업무, 향후 배치 의향 등을 조사함
  - 2차 연도(2017년)는 1차 연도 조사 결과 검토를 통해 설문내용과 구조를 일부 변경함. 자격소지자의 경우, 자격요건별로 통합설문지 형태로 설문구조를 변경하였고, 결과활용도가 낮은 자격취득 이전 경력과 구직기간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와 문화예술교육사 역량에 관한 내용을 한시적으로 추가함. 의무배치기관용 설문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 인력 소속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변화를 추적하도록 변경함
  - 3차 연도(2018년)의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은 2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되 자격취득 전후 직무 및 과거 경제활동 형태 등을 포함했으며, 2급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한시적으로 추가함. 의무배치기관 외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사업 참여단체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조사 결과 활용도가 낮은 배치인원의 자격취득 시기 및 4대 보험적용 여부, 연봉 수준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고, 그 외의 설문구조는 거의 일치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인력 등의 항목을 추가함
  - 4차 연도(2019년)는 3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되,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에서는 사업 참여의향, 사업 참여 및 활동 희망 지역을 묻는 문항과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에서는 사업 참여의향,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묻는 문항을 구성함
  - 5차 연도(2020년)는 인턴십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4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였고,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에서는 모집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수 분야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였음. 또한, 코로나19 상황 반영 및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문항에 관련 보기를 추가하였음

- 6차 연도(2021년)는 5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였고, 1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수요와 관련된 파트를 추가하였음.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기관의 자격소지자 배치 현황을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일부 문항 추가 및 기존 문항의 보기를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음

[표 2] 2016-2021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 항목 비교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유
		가,나	다,라	마						
일반 사항	자격증 취득 기간								신규	
	자격증 취득 동기	○	○	○	○	○	○	○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직무					○	○	○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	○	○	○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			○	○	○	○	○	
	이수분야			○	○	○	○	삭제	삭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 활동	경제활동 여부	○	○	○	○	○	○	○	○	
	과거 경제활동 여부					○	○	○	○	
	과거에는 경제활동 하였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신규	
	과거 경제활동 직무유형					○	○	○	○	
	[비경제활동] 구직 활동 여부 및 분야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비경제활동] 구직 기간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비경제활동] 구직 희망 기관유형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경제활동 형태					○	○	○	○	
	[경제활동]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여부	○	○	○	○	○	○	○	○	
	[경제활동] 현 근무 기관 유형	○	○	○	○	○	○	○	○	
	[경제활동] 현 근무 기관 또는 단체명	○	○	○	○	○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소속기관/단체에서의 근무 형태	○	○	○	○	○	○	○	○	
	[경제활동] 총 활동(근무) 기간	○	○	○	○	○	○	○	○	
	[경제활동] 소속기관/단체에서의 주요업무	○		○	○	○	○	○	○	
	[경제활동] 예술강사 구분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기간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영역					○	○	○	○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영역별 참여기간					○	○	○	○	
	[경제활동]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			○	○	○	○	○	
	[경제활동] 업무에 도움 이유	○			○	○	○	○	○	
	[경제활동] 업무에 비도움 이유	○			○	○	○	○	○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유
		가,나	다,라	마						
구직시 도움 정도	자격증 취득 시기	○	○	○	○	○	○	○	○	
	구직 시 도움 정도	○	○	○	○	○	○	○	○	
	구직 시 도움 이유	○	○	○	○	○	○	○	○	
	구직 시 비도움 이유	○	○	○	○	○	○	○	○	
문화 예술 교육사 2급 교육 과정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이수유형					○	삭제	삭제	삭제	
	교육과정 이수기관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 도움여부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유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효과적인 교육방법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추가/보충과목					○	삭제	삭제	삭제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신규	○	○	사업명 변경
	지원사업 참여희망 지역						신규	○	○	
1급 수요	1급 자격 취득 희망여부								신규	
	1급 자격 취득 희망 동기								신규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시간 지불 의사								신규	
	1급 취득 비희망 이유								신규	
	1급 취득 이후 희망 직무								신규	
	1급 소지자의 적합한 직무								신규	
	1급 소지자의 적합한 직무 (2급 비교)								신규	
	1급 소지자의 필요 역량								신규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 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호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에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라.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표 3] 2016-2021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 항목 비교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유
항목 일반 사항	기관 유형	○	○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	○	○	○	○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신규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소지 유무			신규	○	○	○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	○	○	○	○	○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신규	○	○	○	
배치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	○	○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인원 및 근무 형태	○	○	○	○	○	○	
	문화교육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자격 취득 시기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문화교육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대상 4대 보험 적용 여부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1년 평균 연봉 수준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미배치 이유						신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신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주 담당업무	○	○	○	○	○	○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수행 만족도	○	○	○	○	○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	○	○	○	○	○	
배치 계획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신규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	○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	○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없는 이유	○	○	○	○	○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신규	○	○	사업명 변경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신규	○	○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				신규	○	○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유
1급 수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신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강화 업무 영역						신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1급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여부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필요 여부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신규	

※ 1차 연도(2016년)와 2차 연도(2017년)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라고 명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3차 연도(2018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로 설문 위당을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표 4] 2018-2021 문화예술 관련 기관 설문 항목 비교

항 목	세부 문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유
일반사항	기관/단체 유형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	○	○	○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소지 유무	○	○	○	○	
	문화예술교육사 인지여부	○	○	○	○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인원 및 근무 형태	○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미배치 이유				신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신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주 담당업무	○	○	○	○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수행 만족도	○	○	○	○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계획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 전일제/단시간)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없는 이유	○	○	○	○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	○	○	○	
1급 수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신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강화 업무 영역				신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1급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여부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필요 여부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신규	

※ 2018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외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배치기관 대상 조사와의 결과 비교를 위해 설문 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함

## 5. 조사 응답 현황

### 가. 설문조사

- 자격소지자 8,847명('21년 제1차 누적 기준 24,066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8,8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응답률은 70.1%로 나타남

[표 5]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취득자 구분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A)	응답자 (B)	응답률(%) (B)/(A)*100
전 체		온라인+전화조사	8,847	6,205	70.1
자격 취득 요건	고졸/비전공자	온라인+전화조사	71	63	88.7
	예술강사	온라인+전화조사	1,144	922	80.6
	예술전공자	온라인+전화조사	7,162	4,846	67.7
	국가무형문화재	온라인+전화조사	470	374	79.6

- 의무배치기관 2,22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1,169곳(응답률 52.6%)이 조사에 참여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타 법령상<sup>1)</sup> 의무배치기관에 포함됨.

[표 6]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문화의 집	전수 회관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기타 <sup>2)</sup>	합계
조사 리스트 기준 (곳)	1,113	459	88	279	109	152	17	4	2,221
	-국립 : 3 -지자체 : 876 -교육청 : 234	-국공립 : 428 -대학 : 31	-국공립 : 85 -대학 : 3						
응답 기관 (곳)	558	269	45	142	55	82	14	4	1,169
응답률 (%)	50.1	58.6	51.1	50.9	50.5	53.9	82.4	100.0	52.6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호

2) 4차 연도(2019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활용)와 관련한 국가 정책사업인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관 중 「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었으나, 5차 연도(2020년)부터는 응답을 완료한 기관 중 「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으로 분류의 기준이 변경되었음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0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590곳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 응답률은 53.3%로 나타남

[표 7]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 분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미디어센터	평생교육기관	기타 <sup>3)</sup>	합 계
조사리스트 기준(곳)	147	222	50	670	18	1,107
응답기관(곳)	89	123	29	332	18	590
응답률(%)	60.5	55.4	58.0	49.4	100.0	53.3

## 6. 조사 결과

### 가. 자격소지자

- (경제활동)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은 65.5%로 2020년 경제활동 참가율(44.8%)보다 20.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단, 2020년 실태조사는 '20년 신규 자격취득자가 조사 대상에 별도로 포함되어 2020년과 2021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함
- 연령별로는 30대 이상(30대 75.8%, 40대 78.4%), 50대 73.0%)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46.2%)와 60대 이상(41.6%)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대는 99.6%가 예술전공자이며, 83.0%가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 미만(1년 미만 32.2%, 1~2년 50.7%)임. 이는 청년 취업률과 무관하지 않으며,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문화예술교육사들을 위한 정책 사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른 자격요건에 비해 고졸/비전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율(52.4%)이 낮은 편이므로, 고졸/비전공자를 위한 정책 사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교육사의 56.8%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43.2%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대로 20년 조사와 모집단 특성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전년도 기관·시설·단체에 종사자가 38.5%였던 점을 볼 때, 프리랜서 비율은 줄고 기관·시설·단체에 종사자 비율은 증가함
  - 연령이 20대(53.7%)인 경제활동자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40대 이상(40대 68.1%, 50대 68.5%, 60대 이상 64.7%)인 경제활동자는 프리랜서 활동 비율이 높음. 자격소지자의 연령에 따라 기관·시설·단체 취업에 대한 유리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자격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자격소지자의 경우 기관·

3) 온라인으로 응답을 완료한 기관 중 기관유형 및 기관명을 확인 할 수 없는 기관



시설·단체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5년 이상인 자격소지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교육사의 82.7%가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였으며, 이중 교육 관련 분야가 52.6%, 비교육 분야는 30.1%였음.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비율은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에서 특히 높았음. 한편, 타 분야는 17.2%로 20년 9.6%에서 7.6%p 증가함
- 경제활동 중인 자격소지자는 56.8%가 프리랜서, 43.2%가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근무 형태는 정규직이 30.8%, 비정규직이 69.2%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 환경 특성으로 볼 수 있음

○ (비경제활동) 2021년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비경제활동 중인 교육사를 대상으로 구직 활동 여부를 파악함. 비경제활동자는 2,139명(34.5%)이며, 이 중 47.7%가 구직 활동 중이었으며, 52.3%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비경제활동 이유로 과거 국·공립·공공기관과 정부부처·지자체에서 일했던 교육사의 경우 ‘기존 일자리 계약 기간 만료’가, 과거 프리랜서 교육사는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변화로 일자리가 줄어서’가 각각 높았음

- 현재 비경제활동 교육사의 61.3%가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었으며, 과거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교육사가 구직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음
- 현재 비경제활동 교육사 중 구직자의 68.4%가 자격취득 기간이 3년 이하인 교육사로 나타났으며, 과거 경제활동을 했으나, 현재 비경제활동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변화로 일자리가 줄어서’, ‘기존 일자리 계약기간 만료’ 등이 높게 나타나 자격취득 직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 비구직자 또한 71.0%가 자격취득 기간이 3년 이하인 교육사이며, 현재 비경제활동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 ‘학업 지속’, ‘전망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학업 지속’이라는 응답이 높음

○ (자격증 취득 동기) 자격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년 이상인 경우는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격증 취득 당시 희망 직무) 교육사 자격증 취득 당시 희망 직무로는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이 가장 많음
  - 단, 교육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전공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연령이 낮은 교육사일수록, 자격취득 기간이 짧을수록 해당 분야 업무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높음
  
-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문화예술 교육 분야, 문화예술 관련 비교육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는 모두 자격증이 현업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우세함.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높음
  - 단,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자격취득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자격취득 3년 이하 교육사는 ‘프로그램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5년 이상 교육사는 ‘현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가 주된 이유였음
  - 반면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지난 교육사에게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높았으며, 3년 이하 교육사에게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가 높았음
  -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음. 그 이유에 대해 심층인터뷰 의견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사’가 여러 영역의 분야를 하나로 포괄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는지 연결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기관들의 의견이 있었음. 의무배치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를 배치할 때 단순 자격증 소지 여부가 아닌 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운영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지 등의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는 실제 현장에서 자격증 소지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대부분의 자격소지자가 예술전공자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업무에 필요한 ‘오피스’ 능력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아닌 행정업무까지 포괄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자격소지자가 현장에서 자격증의 도움 정도를 낮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자격증 도움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017년 평균 2.84점, 2018년 평균 2.95점, 2019년 평균 3.07점, 2020년 평균 3.33점, 2021년 평균

2.96점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도와 달리 2020년은 '20년 신규 자격취득자를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모집단의 특성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 (자격증 구직 시 도움 정도)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역시 교육사의 현재 위치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교육사의 경우 구직에 도움 되었다는 의견이 45.1%로 높음. 반면, 현재 구직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46.3%로 부정적 평가가 약간 높음
  - 구직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와 '구인 또는 채용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구직자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자격취득 기간별로 보면, 자격취득 3년 이하 교육사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와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가 높았으며, 5년 이상 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과거 경제활동 종사 분야로 살펴보면, 과거 프리랜서 활동 경험자는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가 높지만, 과거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경험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응답이 높았음. 한편, 과거 공공기관·정부부처·지자체에서 종사했던 구직자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의 고용 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높았음
  - 구직 시 도움 정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016년 평균 2.66점, 2017년 평균 2.63점, 2018년 평균 3.00점, 2019년 평균 3.23점, 2020년 평균 3.48점, 2021년 평균 3.00점으로 나타남. 단, 다른 연도는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만 구직 시 도움 정도를 파악했으나, 2021년(6차 연도)에는 경제활동 후 취득자와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의 참여 의향은 2019년 39.3%, 2020년 42.2%, 2021년 41.9%로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기준으로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3,811명의 자격소지자 중 93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간 문화예술교육사 배출자 대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나. 의무배치기관<sup>4)</sup>

- 의무배치기관의 76.8%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0.2%로 나타남. 교육사 배치율은 15.1%였으며, 미배치 기관의 향후 배치 의향률은 15.4%로 나타남. 올해 조사 결과는 2020년 실태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음
  - 기관유형별로 보면, 올해 역시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관과 미술관의 배치율과 배치 의향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도서관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배치율, 향후 배치 수요가 매우 낮다는 점이 의무배치기관으로서 문제점으로 확인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이 미배치 이유를 보면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박물관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가 높았음
  - 한편, 교육사 배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은 ‘예산 부족’이라는 구조적/환경적 요인으로 교육사 배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의무배치기관에서 교육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도서관은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역량’ 응답이 높았으나,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전수회관에서는 ‘강의 역량’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역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기관 인터뷰에서는 의무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예사, 에듀케이터, 사서, 평생교육사 등의 전문인력과 교육사를 비교했을 때 전문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주로 지적됨. 이는 교육사 자격제도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임. 타 전문인력은 3급 혹은 4급부터 1급까지 단계별 취득 조건이 까다로운 데 반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현재 2급만 운영되고 있는 점도 교육사의 전문성 측면에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으로 파악됨
- 의무배치기관의 주요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인지도는 2019년 55.3%, 2020년 46.9%, 2021년 50.2%임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18.2%, 2020년 16.3%, 2021년 15.1%임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률은 2019년 18.5%, 2020년 15.0%, 2021년 15.4%임

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5차 연도(2020년) 결과 분석부터 전체 기관 구분에 포함되어 4차 연도(2019년) 결과를 재산출하였으며, 이를 포함해 3개년만 시계열 분석함

## 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9.0%였으며, 교육사 배치율은 11.5%였으며, 미배치 기관의 향후 배치 의향률은 13.6%로 나타남
  -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현재 미배치 이유와 향후 미배치 의향 이유 모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공통으로 1, 2순위로 나타남. 특히 문화예술 관련 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평생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가 운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 I. 서론

---





# I. 서론

## 1. 조사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시민의 문화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즉 문화 복지의 동력이 될 ‘전문 매개 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도입되었다. 또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맞닿아 악화되었던 예술전공자의 미취업과 그동안 미비했던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역량 강화 및 효율적 경력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2012년 2월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시작하였다.

법률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 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2013년 2월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 제1차 누적 기준 24,066명의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었다. 또한 3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 시설은 최소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8]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관련 세부 법령

의무배치기관	관련 세부 법령
국·공립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표 9] 자격취득요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상황

예술전공자	예술강사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비전공자	합 계
18,086명	4,194명	1,491명	295명	24,066명
75.2%	17.4%	6.2%	1.2%	100.0%

※ 2021년도 제1차 기준

[표 10] 연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상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계
3,469명	2,117명	2,196명	3,023명	2,567명	2,316명	2,778명	3,090명	2,510명	24,066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양현미 외, 2004)」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인력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본 방향성을 제공한 임학순 외(2011)의 연구와 해당 자격제도의 교육과정을 개발한 이경화 외(2012)의 연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통과 이후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개발 방향을 탐색한 임학순·전결(2012) 연구와 같이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적 담론이나 전문성 또는 역량개발에 관한 연구 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가치와 발전방안(권영임·차수정, 2015)」은 교육과정 및 연수 교육의 발전방안, 현장에서의 발전방안 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관한 연구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경제활동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2016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총 여섯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연도(2016년)와 2차 연도(2017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3차 연도(2018년)부터 조사내용과 조사대상, 조사방법에 변동이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는 자격취득 전후 비교를 위한 설문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의무배치기관 외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성화 요인과 배치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4차 연도(2019년) 조사설계 당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총 15,688명('19년 3월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사 기간이 9월로 변경됨에 따라 '19년 제1차 자격소지자까지 포함한 총 17,586명으로 표본 수를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표본 수가 많아진 만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사업 참여단체 표본 수는 축소하였다.

5차 연도(2020년) 조사설계 당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6,368명('20년 제1차 누적 기준 20,475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5,299명 + '20년 제2차 정규기준 신규 자격취득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0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규 자격취득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실사 기간을 11월까지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4차 연도(2019년)까지 별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기타 법령상<sup>5)</sup> 의무배치기관에 포함되므로 5차 연도(2020년)부터는 기존 의무배치기관 구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호

6차 연도(2021년) 조사설계 당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8,847명(‘21년 제1차 누적 기준 24,066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5차 연도에서 추가했던 당해 연도 신규 자격취득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4차 연도(2019년)까지 별도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기타 법령상<sup>6)</sup> 의무배치기관에 포함되므로 5차 연도(2020년)부터는 기존 의무배치기관 구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에 대한 설문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11] 2016-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개요

구분	1차 연도 (2016년)	2차 연도 (2017년)	3차 연도 (2018년)	4차 연도 (2019년)	5차 연도 (2020년)	6차 연도 (2021년)
조사 대상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 자격소지자 - 의무배치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조사 규모	- 자격소지자 10,069명 - 의무배치기관 1,847개	- 자격소지자 12,284명 - 의무배치기관 1,918개	- 자격소지자 14,820명 - 의무배치기관 1,951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794개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429개	- 자격소지자 17,586명 - 의무배치기관 2,082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47개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 322개	- 자격소지자 6,368명 - 의무배치기관 2,135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52개	- 자격소지자 8,847명 - 의무배치기관 2,221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07개
조사 방법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FGD(Focus Group Discussion)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IDI (In-Depth Interview) 및 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기간	- 2016년 8월~9월	- 2017년 8월~9월	- 2018년 7월~8월	- 2019년 9월~10월	- 2020년 9월~11월	- 2021년 10월~12월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호

## 2. 조사 방법

6차 연도(2021년)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성화 방안을 위해 설문조사, 6차 연도(2021년)까지 취합된 자료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무배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및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및 기관 종사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IDI(In-Depth Interview)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전문가는 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FGI를 진행하였다.

### 가. 설문조사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대상 경제활동 실태조사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에 대한 만족도 및 경제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기본방식으로 하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 편의에 따라 전화 및 모바일조사를 병행하였다.

####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실태조사

- 의무배치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실태, 만족도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를 의무배치해야 하는 기관 담당자<sup>7)</sup>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응답자 편의에 따라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방식을 병행하였다.

#### ○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 운영현황 실태조사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범위를 확대를 위해 의무배치기관 외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현황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7) 기관담당자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여하고 있고, 정확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담당자를 의미함

[표 12]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조사규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8,847명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2,221개	- 문화예술 관련 기관 1,107개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조사내용	- 경제활동 현황 - 자격 도움 정도 - 1급 수요 등	- 문화예술교육사 소지자 배치 현황 - 문화예술교육사 향후 배치 의향 - 1급 자격소지자 배치 수요 등	
조사기간	- 2021년 10월 7일 ~ 11월 17일 (약 5주)	- 2021년 10월 11일 ~ 11월 17일 (약 5주)	- 2021년 10월 11일 ~ 11월 17일 (약 5주)

## 나. 시계열자료 분석

객관적인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는 1차 연도(2016년)에서 5차 연도(2020년)까지 조사가 진행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와 의무배치기관의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5차 연도(2020년) 자격소지자의 모집단의 변화(기존 자격소지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 및 신규 자격취득자의 추가)와 6차 연도(2021년) 자격소지자의 모집단의 변화(기존 자격소지자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로 인해 시계열 분석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의무배치기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전체 기관 구분 내 포함으로 4차 연도(2019년) 데이터를 5차 연도(2020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출하였으며, 6차 연도(2020년)의 결과값을 포함하여 3개년 자료만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4차 연도(2019년) 보고서의 결과값과 다를 수 있으며,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6차 연도(2021년) 설문 문항 개선 과정에 따라 5차 연도(2020년)까지의 문항별 설문응답 대상자가 변경되어 절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문항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13] 2016~2021 시계열자료 개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문화 예술 교육사 자격 소지자	총 4,606명 - 고졸/비전공자 89명 - 예술전공자 2,103명 - 예술강사 2,048명 - 국가 무형문화재 366명	총 4,447명 - 고졸/비전공자 138명 - 예술전공자 2,261명 - 예술강사 1,430명 - 국가 무형문화재 618명	총 4,642명 - 고졸/비전공자 135명 - 예술전공자 2,891명 - 예술강사 1,074명 - 국가 무형문화재 542명	총 4,864명 - 고졸/비전공자 125명 - 예술전공자 3,154명 - 예술강사 1,093명 - 국가 무형문화재 492명	총 4,934명 - 고졸/비전공자 59명 - 예술전공자 3,712명 - 예술강사 808명 - 국가 무형문화재 355명	총 6,205명 - 고졸/비전공자 63명 - 예술전공자 4,846명 - 예술강사 922명 - 국가 무형문화재 374명
문화 예술 교육사 의무 배치 기관	총 1,116개 - 공립도서관 594개 - 국·공립 박물관 291개 - 국·공립 미술관 43개 - 문예회관 (공연장) 164개 - 문화의집 16개 - 전수회관 8개	총 625개 - 공립도서관 301개 - 국·공립 박물관 107개 - 국·공립 미술관 22개 - 문예회관 (공연장) 127개 - 문화의집 25개 - 전수회관 43개	총 941개 - 공립도서관 473개 - 국·공립 박물관 196개 - 국·공립 미술관 33개 - 문예회관 (공연장) 117개 - 문화의집 46개 - 전수회관 76개	총 930개 - 공립도서관 390개 - 국·공립 박물관 191개 - 국·공립 미술관 57개 - 문예회관 (공연장) 140개 - 문화의집 63개 - 전수회관 64개 - 기타 25개	총 1,278개 - 도서관 652개 - 박물관 268개 - 미술관 51개 - 문예회관 (공연장) 164개 - 문화의집 56개 - 전수회관 67개 -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16개 - 기타 4개	총 1,169개 - 도서관 558개 - 박물관 269개 - 미술관 45개 - 문예회관 (공연장) 142개 - 문화의집 55개 - 전수회관 82개 -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14개 - 기타 4개

※ 2020년과 2021년 의무배치기관의 기관 구분 '기타'는 데이터를 집계하였으나, 2019년과 기관 구분의 정의가 다르고, 사례수가 적어 시계열 분석에서는 제외함

### 3. 설문 구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는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이므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설문구조가 반복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다만 연도별로 부분적으로 조사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설문지는 크게 자격소지자 용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용으로 나뉜다.

#### 1) 1차 연도(2016년)

설문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제활동 현황과 의무배치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에 따라 설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소지자용 설문은 자격요건별로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자격취득 동기, 경제활동 현황, 자격증의 업무 및 구직 시 도움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의무배치기관용 설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현황, 배치 형태, 담당업무, 향후 배치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 2) 2차 연도(2017년)

이전 조사내용 및 결과검토를 통해 설문내용과 구조를 일부 변경하였다. 자격소지자의 경우, 자격소지자 자격요건별로 통합설문지 형태로 설문구조를 변경하였다.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과 구직 기관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와 문화예술교육사 역량에 관한 내용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의무배치기관용 설문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 인력 소속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변화를 추적하도록 변경하였다.

#### 3) 3차 연도(2018년)

설문은 크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용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용으로 나뉜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용 설문은 2차 연도까지 조사를 진행한 의무배치기관과 새롭게 추가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 관련 사업 참여단체용 설문으로 나뉘는데 그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 자격소지자용 설문은 2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되 자격취득 전후 희망직무 및 과거 경제활동 형태 등을 포함했으며, 2급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였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용 설문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및 인력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결과 활용도가 낮은 배치인원의 자격취득 시기 및 4대 보험적용 여부, 연봉 수준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 4) 4차 연도(2019년)

3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되,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에서는 사업 참여의향, 사업 참여 및 활동 희망 지역을 묻는 문항과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에서는 사업 참여의향,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 5) 5차 연도(2020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4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였고,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에서는 모집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수 분야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코로나 19 상황 반영 및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문항에 관련 보기를 추가하였다.

#### 6) 6차 연도(2021년)

5차 연도 설문 형태를 유지하였고, 1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수용과 관련된 파트를 추가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기관의 자격소지자 배치 현황을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일부 문항 추가 및 기존 문항의 보기를 세분화하여 추가하였다. 특히, 자격소지자 설문의 경우, 일부 문항의 로직을 세분화하였다.



[표 14] 2016-2021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 항목 비교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유
		가,나	다,라	마						
일반 사항	자격증 취득 기간								신규	
	자격증 취득 동기	○	○	○	○	○	○	○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당시 희망직무					○	○	○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	○	○	○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원	○			○	○	○	○	○	
	이수분야			○	○	○	○	삭제	삭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 활동	경제활동 여부	○	○	○	○	○	○	○	○	
	과거 경제활동 여부					○	○	○	○	
	과거에는 경제활동 하였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신규	
	과거 경제활동 직무유형					○	○	○	○	
	[비경제활동] 구직 활동 여부 및 분야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비경제활동] 구직 기간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비경제활동] 구직 희망 기관유형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경제활동 형태					○	○	○	○	
	[경제활동]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여부	○	○	○	○	○	○	○	○	
	[경제활동] 현 근무 기관 유형	○	○	○	○	○	○	○	○	
	[경제활동] 현 근무 기관 또는 단체명	○	○	○	○	○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소속기관/단체에서의 근무 형태	○	○	○	○	○	○	○	○	
	[경제활동] 총 활동(근무) 기간	○	○	○	○	○	○	○	○	
	[경제활동] 소속기관/단체에서의 주요업무	○		○	○	○	○	○	○	
	[경제활동] 예술강사 구분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기간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영역					○	○	○	○	
	[경제활동] 예술강사 활동영역별 참여기간					○	○	○	○	
	[경제활동]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			○	○	○	○	○	
	[경제활동] 업무에 도움 이유	○			○	○	○	○	○	
	[경제활동] 업무에 비도움 이유	○			○	○	○	○	○	
구직시 도움 정도	자격증 취득 시기	○	○	○	○	○	○	○	○	
	구직 시 도움 정도	○	○	○	○	○	○	○	○	
	구직 시 도움 이유	○	○	○	○	○	○	○	○	
	구직 시 비도움 이유	○	○	○	○	○	○	○	○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유
		가,나	다,라	마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이수유형					○	삭제	삭제	삭제	
	교육과정 이수기관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 도움여부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유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효과적인 교육방법					○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추가/보충과목					○	삭제	삭제	삭제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신규	○	○	사업명 변경
	지원사업 참여희망 지역						신규	○	○	
1급 수요	1급 자격 취득 희망여부								신규	
	1급 자격 취득 희망 동기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시간 지불 의사								신규	
	1급 취득 비희망 이유								신규	
	1급 취득 이후 희망 직무								신규	
	1급 소지자의 적합한 직무								신규	
	1급 소지자의 적합한 직무 (2급 비교)								신규	
	1급 소지자의 필요 역량								신규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 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에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표 15] 2016-2021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 항목 비교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유
항목 일반 사항	기관 유형	○	○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	○	○	○	○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신규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소지 유무			신규	○	○	○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	○	○	○	○	○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신규	○	○	○	
배치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	○	○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인원 및 근무 형태	○	○	○	○	○	○	
	문화교육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자격 취득 시기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문화교육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대상 4대 보편 적용 여부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1년 평균 연봉 수준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미배치 이유						신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신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주 담당업무	○	○	○	○	○	○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수행 만족도	○	○	○	○	○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	○	○	○	○	○	
배치 계획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신규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	○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	○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없는 이유	○	○	○	○	○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신규	○	○	사업명 변경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신규	○	○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				신규	○	○	

항목	세부 문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유
1급 수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신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강화 업무 영역						신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1급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여부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필요 여부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신규	

※ 1차 연도(2016년)와 2차 연도(2017년)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라고 명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3차 연도(2018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로 설문 위당을 수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표 16] 2018-2021 문화예술 관련 기관 설문 항목 비교

항 목	세부 문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유
일반사항	기관/단체 유형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	○	○	○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소지 유무	○	○	○	○	
	문화예술교육사 인지여부	○	○	○	○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인원 및 근무 형태	○	○	○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미배치 이유				신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신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 주 담당업무	○	○	○	○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수행 만족도	○	○	○	○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계획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 전일제/단시간)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	○	○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없는 이유	○	○	○	○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	○	○	○	
1급 수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신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강화 업무 영역				신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1급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여부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필요 여부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계획 인원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신규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시점				신규	

※ 2018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외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로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단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배치기관 대상 조사와의 결과 비교를 위해 설문 항목을 동일하게 구성함

## 4. 조사 응답 현황

자격소지자 조사 대상자는 '21년 제1차 누적 기준 24,066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8,8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6,205명(응답률 70.1%)으로 완료하였다.

[표 17] 자격소지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취득자 구분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A)	응답자 (B)	응답률(%) (B)/(A)*100
전 체		온라인+전화조사	8,847	6,205	70.1
자격 취득 요건	고졸/비전공자	온라인+전화조사	71	63	88.7
	예술강사	온라인+전화조사	1,144	922	80.6
	예술전공자	온라인+전화조사	7,162	4,846	67.7
	국가무형문화재	온라인+전화조사	470	374	79.6

의무배치기관은 일차적으로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대학'의 경우, 사립을 제외한 국·공립 대학으로 한정하였다. 문예회관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건립한 문예회관은 제외하였다. 전수회관의 경우,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내 게재된 전수교육관 리스트에서 발췌하였다. 응답을 완료한 기관 중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17개 광역지역센터 중 14개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4차 연도(2019년)까지는 의무배치기관 응답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기타 법령상<sup>8)</sup> 의무배치기관에 해당하므로 5차 연도(2020)부터 전체 기관 구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2,221곳의 의무배치기관에 전자공문 발송을 통해 조사목적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업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응답자 편의에 따라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방식을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 1,169곳의 의무배치기관이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률 52.6%로 완료하였다.

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3항

[표 18] 의무배치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문화의 집	전수 회관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기타 <sup>9)</sup>	합계
조사 리스트 기준 (곳)	1,113 -국립 : 3 -지자체 : 876 -교육청 : 234	459 -국공립 : 428 -대학 : 31	88 -국공립 : 85 -대학 : 3	279	109	152	17	4	2,221
응답 기관 (곳)	558	269	45	142	55	82	14	4	1,169
응답률 (%)	50.1	58.6	51.1	50.9	50.5	53.9	82.4	100.0	52.6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내 「생활문화센터 현황」, 「2020년 전국 문화 기반시설 총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홈페이지 내 「전국미디어센터 현황」, 「2020 평생교육통계자료집」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1,107곳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공문 발송을 통해 조사목적 및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응답을 완료한 기관 중 온라인으로 응답을 완료하여 기관명과 기관 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기관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 편의에 따른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 590곳에서 조사에 참여하여 53.3%로 완료하였다.

[표 19] 문화예술 관련 기관 대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 분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미디어센터	평생교육기관	기타 <sup>10)</sup>	합 계
조사리스트 기준(곳)	147	222	50	670	18	1,107
응답기관(곳)	89	123	29	332	18	590
응답률(%)	60.5	55.4	58.0	49.4	100.0	53.3

9) 4차 연도(2019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활용)와 관련한 국가 정책사업인 ‘2019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관 중 「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었으나, 5차 연도(2020년)부터는 응답을 완료한 기관 중 「문화기반시설총람」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으로 분류의 기준이 변경되었음

10) 온라인으로 응답을 완료한 기관 중 기관 유형 및 기관명을 확인 할 수 없는 기관

## 5. 일러두기

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해석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각 통계표 내 비율 및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표기된 수치로 단순 합산, 계산할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표본 수 30명에 못 미치는 분석은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5차 연도(2020년)과 모집단 구성이 동일하지 않으며, 6차 연도(2021년)에 문항이 신설되고, 일부 로직이 변경됨에 따라 시계열 분석 시 결과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

## Ⅱ. 자격소지자

---



## Ⅱ. 자격소지자\_종합분석

### 1. 응답자 특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응답자 특성을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전공자’가 7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술강사’(14.9%)가 뒤를 이어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80.8%)이 남성(19.2%)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64.8%(20대 42.7% + 30대 2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52.5%로 가장 많고, 자격취득 기간별로는 3년 미만이 56.0%(1년 미만 21.8% + 1~2년 3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차 연도(2021년)의 자격소지자 설문 대상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에 한하므로, 전체 자격소지자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20]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 체		(6,205)	100.0
자격요건별	고졸/비전공자	(63)	1.0
	예술강사	(922)	14.9
	예술전공자	(4,846)	78.1
	국가무형문화재	(374)	6.0
성별	남성	(1,189)	19.2
	여성	(5,016)	80.8
연령별	20대	(2,698)	43.5
	30대	(1,363)	22.0
	40대	(1,104)	17.8
	50대	(744)	12.0
	60대 이상	(296)	4.8
거주지별 <sup>11)</sup>	수도권	(3,308)	53.3
	부산/경남권	(827)	13.3
	대구/경북권	(557)	9.0
	대전/충청권	(610)	9.8
	광주/전라권	(722)	11.6
	강원,제주	(181)	2.9
자격 취득기간별	1년 미만	(1,350)	21.8
	1~2년	(2,127)	34.3
	3~4년	(982)	15.8
	5~6년	(765)	12.3
	7년 이상	(981)	15.8

11)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부산/경남권(부산,경남,울산), 대전/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라권(광주,전북,전남)

고졸/비전공자는 여성(82.5%)이 남성(17.5%)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57.1%로 가장 많고, 자격취득 기간별로는 5년 이상이 65.1%(5~6년 41.3% + 7년 이상 2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
전 체		(63)	100.0
성별	남성	(11)	17.5
	여성	(52)	82.5
연령별	20대	(1)	1.6
	30대	(13)	20.6
	40대	(26)	41.3
	50대	(13)	20.6
	60대 이상	(10)	15.9
거주지별 <sup>12)</sup>	수도권	(36)	57.1
	부산/경남권	(4)	6.3
	대구/경북권	(4)	6.3
	대전/충청권	(4)	6.3
	광주/전라권	(12)	19.0
	강원, 제주	(3)	4.8
자격 취득기간별	1년 미만	(1)	1.6
	1~2년	(4)	6.3
	3~4년	(17)	27.0
	5~6년	(26)	41.3
	7년 이상	(15)	23.8

1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경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예술강사는 여성(81.3%)이 남성(18.7%)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모두 30대 이상이였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36.1%로 가장 많고, 자격취득 기간별로는 7년 이상이 7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예술강사]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
전 체		(922)	100.0
성별	남성	(172)	18.7
	여성	(750)	81.3
연령별	20대	-	-
	30대	(252)	27.3
	40대	(430)	46.6
	50대	(206)	22.3
	60대 이상	(34)	3.7
거주지별 <sup>13)</sup>	수도권	(333)	36.1
	부산/경남권	(177)	19.2
	대구/경북권	(82)	8.9
	대전/충청권	(124)	13.4
	광주/전라권	(153)	16.6
	강원, 제주	(53)	5.7
자격 취득기간별	1년 미만	(3)	0.3
	1~2년	(3)	0.3
	3~4년	(46)	5.0
	5~6년	(193)	20.9
	7년 이상	(677)	73.4

1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경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예술전공자는 여성(82.6%)이 남성(17.4%)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모두 20대가 55.5%로 과반수 이상이였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57.3%로 가장 많고, 자격취득 기간별로는 2년 미만이 69.4%(1년 미만 27.2% + 1~2년 4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
전 체		(4,846)	100.0
성별	남성	(842)	17.4
	여성	(4,004)	82.6
연령별	20대	(2,688)	55.5
	30대	(1,049)	21.6
	40대	(567)	11.7
	50대	(411)	8.5
	60대 이상	(131)	2.7
거주지별 <sup>14)</sup>	수도권	(2,776)	57.3
	부산/경남권	(554)	11.4
	대구/경북권	(435)	9.0
	대전/충청권	(457)	9.4
	광주/전라권	(511)	10.5
	강원, 제주	(113)	2.3
자격 취득기간별	1년 미만	(1,317)	27.2
	1~2년	(2,045)	42.2
	3~4년	(843)	17.4
	5~6년	(459)	9.5
	7년 이상	(182)	3.8

14)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경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국가무형문화재는 여성(56.1%)이 남성(43.9%)보다 많지만 비슷한 분포였고, 연령별로는 모두 50대 이상이 62.9%(50대 30.5% + 60대 이상 32.4%)로 과반수 이상이였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43.6%로 가장 많고, 자격취득 기간별로는 1년 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 정도였다.

[표 24]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
전 체		(374)	100.0
성별	남성	(164)	43.9
	여성	(210)	56.1
연령별	20대	(9)	2.4
	30대	(49)	13.1
	40대	(81)	21.7
	50대	(114)	30.5
	60대 이상	(121)	32.4
거주지별 <sup>15)</sup>	수도권	(163)	43.6
	부산/경남권	(92)	24.6
	대구/경북권	(36)	9.6
	대전/충청권	(25)	6.7
	광주/전라권	(46)	12.3
	강원, 제주	(12)	3.2
자격 취득기간별	1년 미만	(29)	7.8
	1~2년	(75)	20.1
	3~4년	(76)	20.3
	5~6년	(87)	23.3
	7년 이상	(107)	28.6

15)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경남권(부산, 경남, 울산),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 2. 경제활동 현황

### 가. 경제활동 여부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5%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의 비율은 47.7%, 비구직자의 비율은 52.3%였다.

자격요건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예술강사가 90.7%로 가장 높았으며, 국가무형문화재가 74.9%로 뒤를 이었다. 고졸/비전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율(52.4%)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30대 75.8%, 40대 78.4%, 50대 73.0%), 자격취득 기간 5년 이상(5~6년 77.8%, 7년 이상 86.4%)에서 70.0% 이상의 참가율을 보였다.

반면, 20대(46.2%)와 60대 이상(41.6%), 자격 취득기간이 3년 미만(1년 미만 42.3%, 1~2년 43.3%)인 자격소지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과 자격 취득기간별로 경제활동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년 취업률과 무관하지 않으며,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격소지자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비경제활동자 전체 중 구직활동은 예술강사(59.3%), 30대~50대(30대 51.2%, 40대 50.6%, 50대 5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구직은 국가무형문화재(54.3%), 20대(54.3%) 및 60대 이상(55.3%)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25]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 수 (명)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구직 활동 중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205)	(4,066)	65.5	(2,139)	34.5	(1,021)	47.7	(1,118)	52.3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63)	(33)	52.4	(30)	47.6	(14)	46.7	(16)	53.3
	예술강사	(922)	(836)	90.7	(86)	9.3	(51)	59.3	(35)	40.7
	예술전공자	(4,846)	(2,917)	60.2	(1,929)	39.8	(913)	47.3	(1,016)	52.7
	국가무형문화재	(374)	(280)	74.9	(94)	25.1	(43)	45.7	(51)	54.3
성별	남성	(1,189)	(770)	64.8	(419)	35.2	(199)	47.5	(220)	52.5
	여성	(5,016)	(3,296)	65.7	(1,720)	34.3	(822)	47.8	(898)	52.2
연령별	20대	(2,698)	(1,452)	53.8	(1,246)	46.2	(569)	45.7	(677)	54.3
	30대	(1,363)	(1,033)	75.8	(330)	24.2	(169)	51.2	(161)	48.8
	40대	(1,104)	(865)	78.4	(239)	21.6	(121)	50.6	(118)	49.4
	50대	(744)	(543)	73.0	(201)	27.0	(107)	53.2	(94)	46.8
	60대 이상	(296)	(173)	58.4	(123)	41.6	(55)	44.7	(68)	55.3
거주지 별	수도권	(3,308)	(2,043)	61.8	(1,265)	38.2	(600)	47.4	(665)	52.6
	부산/경남권	(827)	(561)	67.8	(266)	32.2	(128)	48.1	(138)	51.9
	대구/경북권	(557)	(363)	65.2	(194)	34.8	(91)	46.9	(103)	53.1
	대전/충청권	(610)	(437)	71.6	(173)	28.4	(77)	44.5	(96)	55.5
	광주/전라권	(722)	(522)	72.3	(200)	27.7	(101)	50.5	(99)	49.5
	강원, 제주	(181)	(140)	77.3	(41)	22.7	(24)	58.5	(17)	41.5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350)	(779)	57.7	(571)	42.3	(287)	50.3	(284)	49.7
	1~2년	(2,127)	(1,206)	56.7	(921)	43.3	(411)	44.6	(510)	55.4
	3~4년	(982)	(638)	65.0	(344)	35.0	(165)	48.0	(179)	52.0
	5~6년	(765)	(595)	77.8	(170)	22.2	(92)	54.1	(78)	45.9
	7년 이상	(981)	(848)	86.4	(133)	13.6	(66)	49.6	(67)	50.4

※ base: 전체(n=6,20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21년 경제활동 참가율(65.5%)은 수치상으로 2020년 경제활동 참가율(44.8%)보다 20.7% 상승하였다. 단, 다른 연도와 달리 2020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년 신규 자격취득자를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모집단 특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오히려 2019년 경제활동 참가율(65.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26] 2016-2021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분석

		사례수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	GAP <sup>16)</sup>
전 체	2016년	(4,606)	85.8	
	2017년	(4,447)	79.6	-6.2
	2018년	(4,642)	70.8	-8.8
	2019년	(4,864)	65.9	-4.9
	2020년	(4,934)	44.8	-21.1
	2021년	(6,205)	65.5	+20.7
고졸/비전공자	2016년	(89)	69.7	
	2017년	(138)	62.3	-7.4
	2018년	(135)	57.8	-4.5
	2019년	(125)	57.6	-0.2
	2020년	(59)	45.8	-11.8
	2021년	(63)	52.4	+6.6
예술강사	2016년	(2,048)	98.3	
	2017년	(1,430)	93.1	-5.2
	2018년	(1,074)	90.8	-2.3
	2019년	(1,093)	88.4	-2.4
	2020년	(808)	72.6	-15.8
	2021년	(922)	90.7	+18.1
예술전공자	2016년	(2,103)	73.3	
	2017년	(2,261)	71.0	-2.3
	2018년	(2,891)	61.3	-9.7
	2019년	(3,154)	55.9	-5.4
	2020년	(3,712)	37.8	-18.1
	2021년	(4,846)	60.2	+22.4
국가무형 문화재	2016년	(366)	91.8	
	2017년	(618)	83.8	-8.0
	2018년	(542)	85.6	+1.8
	2019년	(492)	82.3	-3.3
	2020년	(355)	54.1	-28.2
	2021년	(374)	74.9	+20.8

※ 비경제활동자는 보기의 세분화로 인해 시계열 분석이 불가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16) GAP :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고졸/비전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4%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의 비율은 46.7%, 비구직자의 비율은 53.3%였다.

다른 자격요건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이므로 고졸/비전공자를 위한 정책 사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27] [고졸/비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구직 활동 중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3)	(33)	52.4	(30)	47.6	(14)	46.7	(16)	53.3
성별	남성	(11)	(5)	45.5	(6)	54.5	(3)	50.0	(3)	50.0
	여성	(52)	(28)	53.8	(24)	46.2	(11)	45.8	(13)	54.2
연령별	20대	(1)	(0)	0.0	(1)	100.0	(1)	100.0	(0)	0.0
	30대	(13)	(7)	53.8	(6)	46.2	(3)	50.0	(3)	50.0
	40대	(26)	(14)	53.8	(12)	46.2	(5)	41.7	(7)	58.3
	50대	(13)	(8)	61.5	(5)	38.5	(2)	40.0	(3)	60.0
	60대 이상	(10)	(4)	40.0	(6)	60.0	(3)	50.0	(3)	50.0
거주지 별	수도권	(36)	(17)	47.2	(19)	52.8	(12)	63.2	(7)	36.8
	부산/경남권	(4)	(0)	0.0	(4)	100.0	(2)	50.0	(2)	50.0
	대구/경북권	(4)	(3)	75.0	(1)	25.0	(0)	0.0	(1)	100.0
	대전/충청권	(4)	(3)	75.0	(1)	25.0	(0)	0.0	(1)	100.0
	광주/전라권	(12)	(9)	75.0	(3)	25.0	(0)	0.0	(3)	100.0
	강원, 제주	(3)	(1)	33.3	(2)	66.7	(0)	0.0	(2)	10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1)	100.0	(0)	0.0	(0)	0.0	(0)	0.0
	1~2년	(4)	(1)	25.0	(3)	75.0	(1)	33.3	(2)	66.7
	3~4년	(17)	(9)	52.9	(8)	47.1	(3)	37.5	(5)	62.5
	5~6년	(26)	(16)	61.5	(10)	38.5	(6)	60.0	(4)	40.0
	7년 이상	(15)	(6)	40.0	(9)	60.0	(4)	44.4	(5)	55.6

※ base: 고졸/비전공자 전체(n=6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강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0.7%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의 비율은 59.3%, 비구직자의 비율은 40.7%였다.

[표 28] [예술강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 수 (명)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구직 활동 중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22)	(836)	90.7	(86)	9.3	(51)	59.3	(35)	40.7
성별	남성	(172)	(153)	89.0	(19)	11.0	(12)	63.2	(7)	36.8
	여성	(750)	(683)	91.1	(67)	8.9	(39)	58.2	(28)	41.8
연령별	20대	-	-	-	-	-	-	-	-	-
	30대	(252)	(225)	89.3	(27)	10.7	(19)	70.4	(8)	29.6
	40대	(430)	(386)	89.8	(44)	10.2	(21)	47.7	(23)	52.3
	50대	(206)	(195)	94.7	(11)	5.3	(8)	72.7	(3)	27.3
	60대 이상	(34)	(30)	88.2	(4)	11.8	(3)	75.0	(1)	25.0
거주지 별	수도권	(333)	(300)	90.1	(33)	9.9	(20)	60.6	(13)	39.4
	부산/경남권	(177)	(157)	88.7	(20)	11.3	(11)	55.0	(9)	45.0
	대구/경북권	(82)	(75)	91.5	(7)	8.5	(2)	28.6	(5)	71.4
	대전/충청권	(124)	(116)	93.5	(8)	6.5	(6)	75.0	(2)	25.0
	광주/전라권	(153)	(141)	92.2	(12)	7.8	(9)	75.0	(3)	25.0
	강원, 제주	(53)	(47)	88.7	(6)	11.3	(3)	50.0	(3)	5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	(3)	100.0	(0)	0.0	(0)	0.0	(0)	0.0
	1~2년	(3)	(3)	100.0	(0)	0.0	(0)	0.0	(0)	0.0
	3~4년	(46)	(35)	76.1	(11)	23.9	(8)	72.7	(3)	27.3
	5~6년	(193)	(179)	92.7	(14)	7.3	(8)	57.1	(6)	42.9
	7년 이상	(677)	(616)	91.0	(61)	9.0	(35)	57.4	(26)	42.6

※ base: 예술강사 전체(n=92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의 비율은 47.3%, 비구직자의 비율은 52.7%였다.

연령별로는 20대(46.2%)와 60대 이상(55.0%)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30대(72.5%)와 40대(70.4%)는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 [예술전공자]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구직 활동 중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846)	(2,917)	60.2	(1,929)	39.8	(913)	47.3	(1,016)	52.7
성별	남성	(842)	(495)	58.8	(347)	41.2	(165)	47.6	(182)	52.4
	여성	(4,004)	(2,422)	60.5	(1,582)	39.5	(748)	47.3	(834)	52.7
연령별	20대	(2,688)	(1,445)	53.8	(1,243)	46.2	(568)	45.7	(675)	54.3
	30대	(1,049)	(761)	72.5	(288)	27.5	(139)	48.3	(149)	51.7
	40대	(567)	(399)	70.4	(168)	29.6	(89)	53.0	(79)	47.0
	50대	(411)	(253)	61.6	(158)	38.4	(86)	54.4	(72)	45.6
	60대 이상	(131)	(59)	45.0	(72)	55.0	(31)	43.1	(41)	56.9
거주지 별	수도권	(2,776)	(1,600)	57.6	(1,176)	42.4	(550)	46.8	(626)	53.2
	부산/경남권	(554)	(338)	61.0	(216)	39.0	(102)	47.2	(114)	52.8
	대구/경북권	(435)	(256)	58.9	(179)	41.1	(86)	48.0	(93)	52.0
	대전/충청권	(457)	(299)	65.4	(158)	34.6	(69)	43.7	(89)	56.3
	광주/전라권	(511)	(340)	66.5	(171)	33.5	(86)	50.3	(85)	49.7
	강원, 제주	(113)	(84)	74.3	(29)	25.7	(20)	69.0	(9)	31.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317)	(753)	57.2	(564)	42.8	(284)	50.4	(280)	49.6
	1~2년	(2,045)	(1,156)	56.5	(889)	43.5	(395)	44.4	(494)	55.6
	3~4년	(843)	(539)	63.9	(304)	36.1	(144)	47.4	(160)	52.6
	5~6년	(459)	(326)	71.0	(133)	29.0	(72)	54.1	(61)	45.9
	7년 이상	(182)	(143)	78.6	(39)	21.4	(18)	46.2	(21)	53.8

※ base: 예술전공자 전체(n=4,84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4.9%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의 비율은 45.7%, 비구직자의 비율은 54.3%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9.0%)은 경제활동을 모두 하지 않는 비율이, 30대(81.6%)와 40대(81.5%)는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0]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여부

		사례수 (명)	활동한 적 있었다 (프리랜서 포함)		활동하지 않고 있다		구직 활동 중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74)	(280)	74.9	(94)	25.1	(43)	45.7	(51)	54.3
성별	남성	(164)	(117)	71.3	(47)	28.7	(19)	40.4	(28)	59.6
	여성	(210)	(163)	77.6	(47)	22.4	(24)	51.1	(23)	48.9
연령별	20대	(9)	(7)	77.8	(2)	22.2	(0)	0.0	(2)	100.0
	30대	(49)	(40)	81.6	(9)	18.4	(8)	88.9	(1)	11.1
	40대	(81)	(66)	81.5	(15)	18.5	(6)	40.0	(9)	60.0
	50대	(114)	(87)	76.3	(27)	23.7	(11)	40.7	(16)	59.3
	60대 이상	(121)	(80)	66.1	(41)	33.9	(18)	43.9	(23)	56.1
거주지 별	수도권	(163)	(126)	77.3	(37)	22.7	(18)	48.6	(19)	51.4
	부산/경남권	(92)	(66)	71.7	(26)	28.3	(13)	50.0	(13)	50.0
	대구/경북권	(36)	(29)	80.6	(7)	19.4	(3)	42.9	(4)	57.1
	대전/충청권	(25)	(19)	76.0	(6)	24.0	(2)	33.3	(4)	66.7
	광주/전라권	(46)	(32)	69.6	(14)	30.4	(6)	42.9	(8)	57.1
	강원, 제주	(12)	(8)	66.7	(4)	33.3	(1)	25.0	(3)	75.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9)	(22)	75.9	(7)	24.1	(3)	42.9	(4)	57.1
	1~2년	(75)	(46)	61.3	(29)	38.7	(15)	51.7	(14)	48.3
	3~4년	(76)	(55)	72.4	(21)	27.6	(10)	47.6	(11)	52.4
	5~6년	(87)	(74)	85.1	(13)	14.9	(6)	46.2	(7)	53.8
	7년 이상	(107)	(83)	77.6	(24)	22.4	(9)	37.5	(15)	62.5

※ base: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7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3. 비경제활동자

#### 가. 과거 경제활동 여부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5.5%이며, 비경제활동 비율은 34.5%로 나타났다. 현재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률을 보면, 61.3%가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비구직자의 69.6%가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반면, 구직자의 경우 47.8%가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었다.

2021년 10월 기준 조사된 응답 비율을 바탕으로, 전체 문화예술교육사 24,066명 중 경제활동자는 15,763(65.5%)명, 비경제활동자는 8,303명(34.5%)으로 추정되었다. 비경제활동자 중 3,961명(47.7%)은 현재 구직 중이며, 4,342명(52.3%)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자 4,342명 중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어 한 번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격소지자는 3,022명(69.6%)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단순 추정치일 뿐, 전체 문화예술교육사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이 다름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31] 경제비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

		사례수 (명)	있음		없음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139)	(828)	38.7	(1,311)	61.3
비경제 활동자	구직자	(1,021)	(488)	47.8	(533)	52.2
	비구직자	(1,118)	(340)	30.4	(778)	69.6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n=2,13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고졸/비전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4%이며, 비경제활동 비율은 47.6%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졸/비전공자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7%, 없는 경우가 43.3%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2] [고졸/비전공자] 경제비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

		사례수 (명)	있음		없음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0)	(17)	56.7	(13)	43.3
비경제 활동자	구직자	(14)	(9)	64.3	(5)	35.7
	비구직자	(16)	(8)	50.0	(8)	50.0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졸/비전공자(n=30)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0.7%이며, 비경제활동 비율은 9.3%로 대부분의 예술강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예술강사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75.6%, 없는 경우가 24.4%로 나타났으며, 현재 구직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자는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다(28.6%)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예술강사] 경제비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

		사례수 (명)	있음		없음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6)	(65)	75.6	(21)	24.4
비경제 활동자	구직자	(51)	(40)	78.4	(11)	21.6
	비구직자	(35)	(25)	71.4	(10)	28.6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예술강사(n=8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예술전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이며, 비경제활동 비율은 39.8%로 나타났으며,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4.9%, 비경제활동 비율은 25.1%였다.

예술전공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역시 현재 구직자는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예술전공자 45.0%, 국가무형문화재 65.1%), 비구직자는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예술전공자 71.9%, 국가무형문화재 56.9%)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예술전공자] 경제비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

		사례수 (명)	있음		없음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929)	(696)	36.1	(1,233)	63.9
비경제 활동자	구직자	(913)	(411)	45.0	(502)	55.0
	비구직자	(1,016)	(285)	28.1	(731)	71.9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예술전공자(n=1,92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35] [국가무형문화재] 경제비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

		사례수 (명)	있음		없음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4)	(50)	53.2	(44)	46.8
비경제 활동자	구직자	(43)	(28)	65.1	(15)	34.9
	비구직자	(51)	(22)	43.1	(29)	56.9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n=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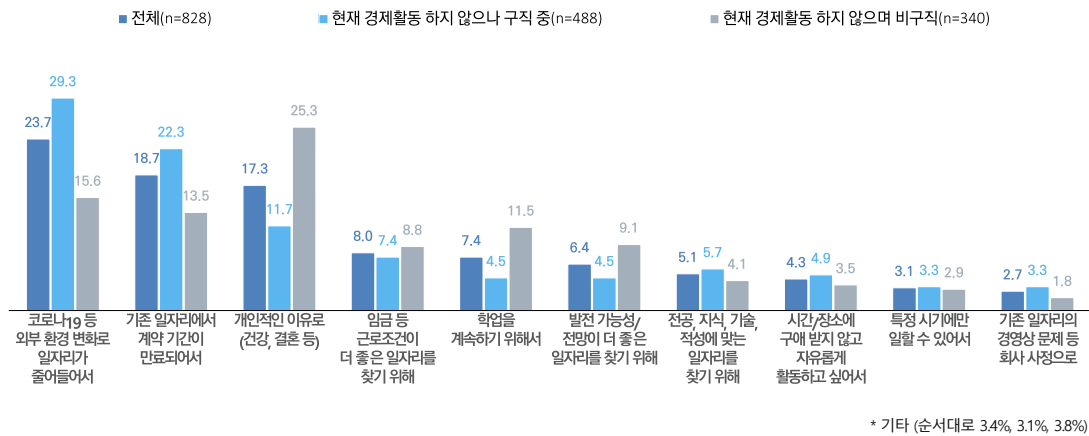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나.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과거 경제활동자의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구직자의 경우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29.3%), ‘기존 일자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22.3%)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비구직자의 경우 ‘개인적인 이유’(25.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구직자는 구직자 대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11.5%)와 ‘발전가능성/전망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9.1%)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n=828, 단위 : %)



[표 36]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전 체		(828)	23.7	18.7	17.3	8.0	7.4	6.4	5.1	4.3	3.1	2.7
경제 비활동자	구직자	(488)	29.3	22.3	11.7	7.4	4.5	4.5	5.7	4.9	3.3	3.3
	비구직자	(340)	15.6	13.5	25.3	8.8	11.5	9.1	4.1	3.5	2.9	1.8
① 코로나19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② 기존 일자리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③ 개인적인 이유로(건강, 결혼 등)			④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⑥ 발전 가능성/전망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⑦ 전공, 지식, 기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⑧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⑨ 특정 시기에만 일할 수 있어서			⑩ 기존 일자리의 경영상 문제 등 회사 사정으로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자(n=82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고졸/비전공자는 과거에는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코로나19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41.2%)의 이유로 현재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7] [고졸/비전공자]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	%	%	%	%	%
전 체		(17)	41.2	11.8	11.8	11.8	5.9	5.9
경제 비활동자	구직자	(9)	33.3	11.1	22.2	11.1	11.1	0.0
	비구직자	(8)	50.0	12.5	0.0	12.5	0.0	12.5
① 코로나19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② 기존 일자리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③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④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⑤ 기존 일자리의 경영상 문제 등 회사 사정으로      ⑥ 특정 시기에만 일할 수 있어서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고졸/비전공자(n=17), 기타 11.8%는 표에서 제외

현재 구직 중인 예술강사는 ‘기존 일자리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25.0%),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12.5%), ‘전공, 지식, 기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10.0%) 현재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예술강사]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전 체		(65)	30.8	21.5	16.9	9.2	6.2	4.6	3.1	3.1	1.5	1.5
경제 비활동자	구직자	(40)	30.0	<u>25.0</u>	10.0	<u>12.5</u>	<u>10.0</u>	5.0	2.5	2.5	0.0	2.5
	비구직자	(25)	32.0	16.0	28.0	4.0	0.0	4.0	4.0	4.0	4.0	0.0
① 개인적인 이유로(건강, 결혼 등)      ② 기존 일자리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③ 코로나19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④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⑤ 전공, 지식, 기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⑥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⑦ 기존 일자리의 경영상 문제 등 회사 사정으로      ⑧ 특정 시기에만 일할 수 있어서 ⑨ 발전 가능성/전망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⑩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예술강사(n=65), 기타 1.5%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구직 중인 예술전공자는 ‘코로나19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29.7%), ‘기존 일자리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23.1%)가 높게 나타난 반면, 비구직인 예술전공자는 ‘개인적인 이유로’(26.3%),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13.7%)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9] [예술전공자]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전 체		(696)	22.4	19.1	16.7	8.6	8.0	7.0	5.5	3.6	3.0	2.7
경제 비활동자	구직자	(411)	29.7	23.1	10.0	5.1	7.1	5.1	5.8	4.4	3.4	3.4
	비구직자	(285)	11.9	13.3	26.3	13.7	9.5	9.8	4.9	2.5	2.5	1.8
① 코로나19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② 기존 일자리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③ 개인적인 이유로(건강, 결혼 등)                              ④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⑥ 발전 가능성/전망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⑦ 전공, 지식, 기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⑧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⑨ 특정 시기에만 일할 수 있어서                                  ⑩ 기존 일자리의 경영상 문제 등 회사 사정으로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예술전공자(n=696), 기타 3.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국가무형문화재는 과거에는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코로나19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44.0%)의 이유로 현재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0] [국가무형문화재] 과거에는 경제활동 했으나, 현재에는 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전 체		(50)	44.0	14.0	12.0	12.0	6.0	4.0	4.0
경제 비활동자	구직자	(28)	50.0	14.3	10.7	10.7	3.6	0.0	3.6
	비구직자	(22)	36.4	13.6	13.6	13.6	9.1	9.1	4.5
① 코로나19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② 개인적인 이유로(건강, 결혼 등) ③ 기존 일자리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④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⑤ 발전 가능성/전망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⑥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⑦ 특정 시기에만 일할 수 있어서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국가무형문화재(n=50), 기타 4.0%는 표에서 제외

## 다. 과거 경제활동 유형

전체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프리랜서’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예술단체’(18.8%), ‘사기업’(13.4%) 등의 순이었다.

구직자의 경우 과거 ‘프리랜서’(51.2%)가, 비구직자는 과거 ‘사기업’(15.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나 과거 경제활동을 경험이 있는 자격소지자의 경우, 과거에는 민간영역에서의 자격증 활용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41]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

		사례 수 (명)	프리랜서		예술단체		사기업		국·공립· 공공기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828)	(400)	48.3	(156)	18.8	(111)	13.4	(97)	11.7	(92)	11.1	(77)	9.3	(54)	6.5
비경제 활동자	구직자	(488)	(250)	51.2	(96)	19.7	(60)	12.3	(60)	12.3	(60)	12.3	(50)	10.2	(33)	6.8
	비구직자	(340)	(150)	44.1	(60)	17.6	(51)	15.0	(37)	10.9	(32)	9.4	(27)	7.9	(21)	6.2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자(n=828), 복수응답, 기타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고졸/비전공자는 ‘예술단체’(29.4%)와 ‘국·공립·공공기관’(23.5%)에서 종사하거나 ‘프리랜서’(23.5%)로 활동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 [고졸/비전공자]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

		사례 수 (명)	예술단체		국·공립· 공공기관		프리랜서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7)	(5)	29.4	(4)	23.5	(4)	23.5	(3)	17.6	(2)	11.8	(1)	5.9	(1)	5.9
비경제 활동자	구직자	(9)	(4)	44.4	(3)	33.3	(1)	11.1	(2)	22.2	(1)	11.1	(0)	0.0	(0)	0.0
	비구직자	(8)	(1)	12.5	(1)	12.5	(3)	37.5	(1)	12.5	(1)	12.5	(1)	12.5	(1)	12.5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고졸/비전공자(n=17), 복수응답, 기타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예술강사는 70.8%가 ‘프리랜서’로 활동했으며, 현재 구직중인 예술강사는 ‘예술단체’(27.5%)에서 종사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 [예술강사]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

		사례 수 (명)	프리랜서		예술단체		초,중, 고등학교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대학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65)	(46)	70.8	(15)	23.1	(8)	12.3	(7)	10.8	(6)	9.2	(2)	3.1	(1)	1.5
비경제 활동자	구직자	(40)	(27)	67.5	(11)	27.5	(6)	15.0	(5)	12.5	(4)	10.0	(2)	5.0	(1)	2.5
	비구직자	(25)	(19)	76.0	(4)	16.0	(2)	8.0	(2)	8.0	(2)	8.0	(0)	0.0	(0)	0.0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예술강사(n=65), 복수응답, 기타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예술전공자는 47.0%가 ‘프리랜서’로 활동했으며, 특히 현재 구직 중인 예술전공자(49.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 [예술전공자]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

		사례 수 (명)	프리랜서		예술단체		사기업		국·공립· 공공기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696)	(327)	47.0	(122)	17.5	(104)	14.9	(80)	11.5	(77)	11.1	(70)	10.1	(41)	5.9
비경제 활동자	구직자	(411)	(205)	49.9	(73)	17.8	(56)	13.6	(49)	11.9	(49)	11.9	(47)	11.4	(26)	6.3
	비구직자	(285)	(122)	42.8	(49)	17.2	(48)	16.8	(31)	10.9	(28)	9.8	(23)	8.1	(15)	5.3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예술전공자(n=696), 복수응답, 기타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는 ‘프리랜서’(46.0%)로 종사했거나 ‘예술단체’(28.0%)에서 종사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5] [국가무형문화재] 비경제활동자의 과거 경제활동 유형

		사례 수 (명)	프리랜서		예술단체		국·공립· 공공기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50)	(23)	46.0	(14)	28.0	(6)	12.0	(6)	12.0	(5)	10.0	(4)	8.0	(3)	6.0
비경제 활동자	구직자	(28)	(17)	60.7	(8)	28.6	(3)	10.7	(5)	17.9	(2)	7.1	(1)	3.6	(1)	3.6
	비구직자	(22)	(6)	27.3	(6)	27.3	(3)	13.6	(1)	4.5	(3)	13.6	(3)	13.6	(2)	9.1

※ base :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국가무형문화재(n=50), 복수응답, 기타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4. 경제활동자

##### 가. 경제활동 형태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의 56.8%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으며, 43.2%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강사(79.3%)와 고졸/비전공자(60.6%)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았으며, 예술전공자는 ‘기관·시설·단체’(49.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53.7%)는 ‘기관·시설·단체’에서, 40대~60대 이상(40대 68.1%, 50대 68.5%, 60대 이상 64.7%)은 ‘프리랜서’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취득 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인 경제활동자(1년 미만 51.1%, 1~2년 54.0%)는 ‘기관·시설·단체’ 비율이 높고, 5년 이상인 취득자(5~6년 67.4%, 7년 이상 73.0%)는 ‘프리랜서’ 비율이 높았다.

[표 46] 경제활동자의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066)	(1,757)	43.2	(2,309)	56.8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33)	(13)	39.4	(20)	60.6
	예술강사	(836)	(173)	20.7	(663)	79.3
	예술전공자	(2,917)	(1,450)	49.7	(1,467)	50.3
	국가무형문화재	(280)	(121)	43.2	(159)	56.8
성별	남성	(770)	(368)	47.8	(402)	52.2
	여성	(3,296)	(1,389)	42.1	(1,907)	57.9
연령 별	20대	(1,452)	(779)	53.7	(673)	46.3
	30대	(1,033)	(470)	45.5	(563)	54.5
	40대	(865)	(276)	31.9	(589)	68.1
	50대	(543)	(171)	31.5	(372)	68.5
	60대 이상	(173)	(61)	35.3	(112)	64.7
거주지 별	수도권	(2,043)	(913)	44.7	(1,130)	55.3
	부산/경남권	(561)	(259)	46.2	(302)	53.8
	대구/경북권	(363)	(138)	38.0	(225)	62.0
	대전/충청권	(437)	(171)	39.1	(266)	60.9
	광주/전라권	(522)	(213)	40.8	(309)	59.2
자격 취득 기간별	강원, 제주	(140)	(63)	45.0	(77)	55.0
	1년 미만	(779)	(398)	51.1	(381)	48.9
	1~2년	(1,206)	(651)	54.0	(555)	46.0
	3~4년	(638)	(285)	44.7	(353)	55.3
	5~6년	(595)	(194)	32.6	(401)	67.4
	7년 이상	(848)	(229)	27.0	(619)	73.0

※ base : 경제활동자(n=4,06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의 60.6%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으며, 39.4%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자의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3)	(13)	39.4	(20)	60.6
성별	남성	(5)	(0)	0.0	(5)	100.0
	여성	(28)	(13)	46.4	(15)	53.6
연령별	20대	-	-	-	-	-
	30대	(7)	(5)	71.4	(2)	28.6
	40대	(14)	(6)	42.9	(8)	57.1
	50대	(8)	(2)	25.0	(6)	75.0
	60대 이상	(4)	(0)	0.0	(4)	100.0
거주지별	수도권	(17)	(7)	41.2	(10)	58.8
	부산/경남권	-	-	-	-	-
	대구/경북권	(3)	(1)	33.3	(2)	66.7
	대전/충청권	(3)	(1)	33.3	(2)	66.7
	광주/전라권	(9)	(4)	44.4	(5)	55.6
	강원, 제주	(1)	(0)	0.0	(1)	10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1)	100.0	(0)	0.0
	1~2년	(1)	(0)	0.0	(1)	100.0
	3~4년	(9)	(5)	55.6	(4)	44.4
	5~6년	(16)	(6)	37.5	(10)	62.5
	7년 이상	(6)	(1)	16.7	(5)	83.3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n=33)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의 79.3%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으며, 20.7%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각각 60대 이상 제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48] [예술강사] 경제활동자의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36)	(173)	20.7	(663)	79.3
성별	남성	(153)	(41)	<u>26.8</u>	(112)	73.2
	여성	(683)	(132)	19.3	(551)	80.7
연령별	20대	-	-	-	-	-
	30대	(225)	(43)	19.1	(182)	80.9
	40대	(386)	(77)	19.9	(309)	80.1
	50대	(195)	(48)	<u>24.6</u>	(147)	75.4
	60대 이상	(30)	(5)	16.7	(25)	<u>83.3</u>
거주지별	수도권	(300)	(62)	20.7	(238)	79.3
	부산/경남권	(157)	(35)	22.3	(122)	77.7
	대구/경북권	(75)	(11)	14.7	(64)	<u>85.3</u>
	대전/충청권	(116)	(24)	20.7	(92)	79.3
	광주/전라권	(141)	(32)	22.7	(109)	77.3
	강원, 제주	(47)	(9)	19.1	(38)	80.9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	(2)	66.7	(1)	33.3
	1~2년	(3)	(1)	33.3	(2)	66.7
	3~4년	(35)	(4)	11.4	(31)	<u>88.6</u>
	5~6년	(179)	(31)	17.3	(148)	<u>82.7</u>
	7년 이상	(616)	(135)	21.9	(481)	78.1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n=83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의 50.3%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으며, 49.7%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격취득 기간이 짧을수록(1년 미만 제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이, 자격취득 기간이 길수록(1~2년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표 49] [예술전공자] 경제활동자의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917)	(1,450)	49.7	(1,467)	50.3
성별	남성	(495)	(260)	<u>52.5</u>	(235)	47.5
	여성	(2,422)	(1,190)	49.1	(1,232)	50.9
연령별	20대	(1,445)	(777)	<u>53.8</u>	(668)	46.2
	30대	(761)	(403)	<u>53.0</u>	(358)	47.0
	40대	(399)	(158)	39.6	(241)	<u>60.4</u>
	50대	(253)	(95)	37.5	(158)	<u>62.5</u>
	60대 이상	(59)	(17)	28.8	(42)	<u>71.2</u>
거주지별	수도권	(1,600)	(801)	50.1	(799)	49.9
	부산/경남권	(338)	(184)	<u>54.4</u>	(154)	45.6
	대구/경북권	(256)	(112)	43.8	(144)	<u>56.3</u>
	대전/충청권	(299)	(139)	46.5	(160)	<u>53.5</u>
	광주/전라권	(340)	(165)	48.5	(175)	51.5
	강원, 제주	(84)	(49)	<u>58.3</u>	(35)	41.7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753)	(387)	<u>51.4</u>	(366)	48.6
	1~2년	(1,156)	(626)	<u>54.2</u>	(530)	45.8
	3~4년	(539)	(246)	45.6	(293)	<u>54.4</u>
	5~6년	(326)	(133)	40.8	(193)	<u>59.2</u>
	7년 이상	(143)	(58)	40.6	(85)	<u>59.4</u>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n=2,91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56.8%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으며, 43.2%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53.0%)와 60대 이상(48.8%)은 프리랜서인 경우가, 50대(70.1%)는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0]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자의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80)	(121)	43.2	(159)	56.8
성별	남성	(117)	(67)	<u>57.3</u>	(50)	42.7
	여성	(163)	(54)	33.1	(109)	<u>66.9</u>
연령별	20대	(7)	(2)	28.6	(5)	71.4
	30대	(40)	(19)	47.5	(21)	52.5
	40대	(66)	(35)	<u>53.0</u>	(31)	47.0
	50대	(87)	(26)	29.9	(61)	<u>70.1</u>
	60대 이상	(80)	(39)	<u>48.8</u>	(41)	51.3
거주지별	수도권	(126)	(43)	34.1	(83)	<u>65.9</u>
	부산/경남권	(66)	(40)	<u>60.6</u>	(26)	39.4
	대구/경북권	(29)	(14)	48.3	(15)	51.7
	대전/충청권	(19)	(7)	36.8	(12)	63.2
	광주/전라권	(32)	(12)	37.5	(20)	62.5
	강원, 제주	(8)	(5)	62.5	(3)	37.5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2)	(8)	36.4	(14)	63.6
	1~2년	(46)	(24)	<u>52.2</u>	(22)	47.8
	3~4년	(55)	(30)	<u>54.5</u>	(25)	45.5
	5~6년	(74)	(24)	32.4	(50)	<u>67.6</u>
	7년 이상	(83)	(35)	42.2	(48)	57.8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n=28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 형태가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거 ‘예술단체’ 종사자가 현재 프리랜서(63.0%)로 활동하게 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현재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4,066)	(1,757)	43.2	(2,309)	56.8
국·공립·공공기관		(424)	(286)	67.5	(138)	32.5
정부부처, 지자체		(173)	(95)	54.9	(78)	45.1
예술단체		(691)	(256)	37.0	(435)	63.0
사기업		(336)	(215)	64.0	(121)	36.0
초·중·고등학교		(463)	(168)	36.3	(295)	63.7
대학교		(259)	(107)	41.3	(152)	58.7
프리랜서		(1,884)	(334)	17.7	(1,550)	82.3

※ base : 현재 경제활동자(n=4,06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의 경제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 형태가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52] [고졸/비전공자]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현재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33)	(13)	39.4	(20)	60.6
국·공립·공공기관		(8)	(7)	87.5	(1)	12.5
정부부처, 지자체		(3)	(1)	33.3	(2)	66.7
예술단체		(5)	(4)	80.0	(1)	20.0
사기업		(3)	(1)	33.3	(2)	66.7
초·중·고등학교		(1)	(0)	0.0	(1)	100.0
대학교		(1)	(1)	100.0	(0)	0.0
프리랜서		(14)	(0)	0.0	(14)	100.0

※ base : 현재 경제활동 중인 고졸/비전공자(n=33)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의 경제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예술강사]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현재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836)	(173)	20.7	(663)	79.3
국·공립·공공기관		(50)	(25)	<u>50.0</u>	(25)	50.0
정부부처, 지자체		(32)	(11)	<u>34.4</u>	(21)	65.6
예술단체		(191)	(42)	22.0	(149)	78.0
사기업		(23)	(8)	34.8	(15)	65.2
초·중·고등학교		(85)	(20)	23.5	(65)	76.5
대학교		(61)	(16)	<u>26.2</u>	(45)	73.8
프리랜서		(615)	(56)	9.1	(559)	<u>90.9</u>

※ base : 현재 경제활동 중인 예술강사(n=83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는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 형태가 일부 차이가 있었다.

과거 예술단체(59.6%), 초·중·고등학교(60.2%), 대학교(53.5%)에서 종사하던 예술전공자가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과거 프리랜서(22.8%)로 활동하던 예술전공자가 현재에는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4] [예술전공자]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현재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2,917)	(1,450)	49.7	(1,467)	50.3
국·공립·공공기관		(326)	(232)	<u>71.2</u>	(94)	28.8
정부부처, 지자체		(125)	(77)	<u>61.6</u>	(48)	38.4
예술단체		(391)	(158)	40.4	(233)	<u>59.6</u>
사기업		(303)	(202)	<u>66.7</u>	(101)	33.3
초·중·고등학교		(349)	(139)	39.8	(210)	<u>60.2</u>
대학교		(170)	(79)	46.5	(91)	<u>53.5</u>
프리랜서		(1,130)	(258)	<u>22.8</u>	(872)	77.2

※ base : 현재 경제활동 중인 예술전공자(n=2,91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제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국가무형문화재] 과거 직업과 현재 경제활동 형태 비교 분석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현재 경제활동 형태	사례수 (명)	기관·시설·단체 종사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280)	(121)	43.2	(159)	56.8
국·공립·공공기관		(40)	(22)	55.0	(18)	45.0
정부부처, 지자체		(13)	(6)	46.2	(7)	53.8
예술단체		(104)	(52)	50.0	(52)	50.0
사기업		(7)	(4)	57.1	(3)	42.9
초·중·고등학교		(28)	(9)	32.1	(19)	67.9
대학교		(27)	(11)	40.7	(16)	59.3
프리랜서		(125)	(20)	16.0	(105)	84.0

※ base : 현재 경제활동 중인 국가무형문화재(n=28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과거의 직업 및 소속기관이 현재와 동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과거에 ‘국·공립·공공기관’에 종사하던 자격소지자가 현재는 ‘정부부처, 지자체’(25.5%), ‘대학교’(15.2%)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초·중·고등학교’에서 종사하던 자격소지자가 현재는 ‘대학교’(21.7%)에서 종사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문화예술 분야 (교육 포함)]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예술단체	사기업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프리랜서 (예술강사 포함)
		%	%	%	%	%	%	%
전체	(2,754)	13.5	5.3	23.3	8.0	15.3	8.2	62.4
국·공립·공공기관	(274)	65.7	5.8	10.6	7.3	4.7	3.6	21.9
정부부처, 지자체	(98)	25.5	48.0	15.3	4.1	7.1	5.1	33.7
예술단체	(211)	6.2	1.9	72.5	5.2	5.2	7.6	30.8
사기업	(150)	8.7	1.3	12.7	51.3	6.7	6.7	33.3
초·중·고등학교	(116)	6.0	1.7	7.8	4.3	70.7	1.7	25.9
대학교	(46)	15.2	6.5	10.9	2.2	21.7	82.6	37.0
프리랜서	(1,981)	7.0	3.9	22.0	6.1	14.9	7.7	78.2

※ base :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n=2,75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과거의 직업 및 소속기관이 현재와 동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57] [고졸/비전공자]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문화예술 분야 (교육 포함)]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예술단체	사기업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프리랜서 (예술강사 포함)
		%	%	%	%	%	%	%
전체	(24)	29.2	8.3	20.8	4.2	4.2	4.2	45.8
국·공립·공공기관	(5)	100.0	0.0	20.0	0.0	0.0	0.0	0.0
정부부처, 지자체	(1)	0.0	100.0	0.0	0.0	0.0	0.0	0.0
예술단체	(4)	25.0	0.0	75.0	0.0	0.0	0.0	0.0
사기업	(1)	100.0	0.0	0.0	0.0	0.0	100.0	0.0
초·중·고등학교	-	-	-	-	-	-	-	-
대학교	-	-	-	-	-	-	-	-
프리랜서	(13)	0.0	7.7	7.7	7.7	7.7	0.0	84.6

※ base :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종사 고졸/비전공자(n=24)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현재와 과거의 직업 및 소속기관이 ‘국·공립·공공기관’(54.3%), ‘예술단체’(74.3%), ‘프리랜서’(88.6%)에서 일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8] [예술강사]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문화예술 분야 (교육 포함)]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예술단체	사기업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프리랜서 (예술강사 포함)
		%	%	%	%	%	%	%
전체	(754)	6.4	4.2	24.8	2.9	10.7	8.1	79.8
국·공립·공공기관	(35)	54.3	8.6	8.6	2.9	5.7	5.7	25.7
정부부처, 지자체	(19)	15.8	36.8	15.8	5.3	5.3	0.0	47.4
예술단체	(35)	0.0	0.0	74.3	2.9	5.7	2.9	34.3
사기업	(9)	0.0	0.0	22.2	22.2	0.0	0.0	66.7
초·중·고등학교	(18)	0.0	5.6	5.6	11.1	44.4	0.0	44.4
대학교	(14)	7.1	0.0	28.6	0.0	28.6	92.9	50.0
프리랜서	(621)	4.0	3.4	23.8	2.4	10.3	7.2	88.6

※ base :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종사 예술강사(n=75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과거의 직업 및 소속기관이 현재와 동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과거에 ‘국·공립·공공기관’에 종사하던 예술전공자가 현재는 ‘정부부처, 지자체’에 종사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예술전공자]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문화예술 분야 (교육 포함)]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예술단체	사기업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프리랜서 (예술강사 포함)
		%	%	%	%	%	%	%
전체	(1,751)	15.9	5.8	20.2	11.1	17.9	7.9	56.3
국·공립·공공기관	(212)	66.0	5.7	10.8	9.0	5.2	3.8	22.2
정부부처, 지자체	(70)	27.1	52.9	12.9	4.3	7.1	4.3	30.0
예술단체	(124)	8.1	1.6	66.1	7.3	4.0	7.3	33.9
사기업	(140)	8.6	1.4	12.1	53.6	7.1	6.4	31.4
초·중·고등학교	(95)	7.4	1.1	7.4	3.2	75.8	2.1	22.1
대학교	(29)	20.7	10.3	0.0	3.4	20.7	75.9	34.5
프리랜서	(1,033)	7.7	3.9	20.2	7.6	19.6	7.7	75.8

※ base :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종사 예술전공자(n=1,75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현재와 과거의 직업 및 소속기관이 ‘예술단체’(87.5%), ‘프리랜서’(73.4%)에서 일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0] [국가무형문화재] 과거 경제활동과 현재 경제활동 비교 분석(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과거 직업 및 소속 기관 [문화예술 분야 (교육 포함)]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예술단체	사기업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프리랜서 (예술강사 포함)
		%	%	%	%	%	%	%
전체	(225)	17.3	5.3	43.6	1.3	11.6	11.6	53.8
국·공립·공공기관	(22)	72.7	4.5	9.1	0.0	0.0	0.0	18.2
정부부처, 지자체	(8)	37.5	25.0	37.5	0.0	12.5	25.0	37.5
예술단체	(48)	4.2	4.2	87.5	2.1	8.3	12.5	22.9
사기업	-	-	-	-	-	-	-	-
초·중·고등학교	(3)	0.0	0.0	33.3	0.0	66.7	0.0	33.3
대학교	(3)	0.0	0.0	33.3	0.0	0.0	100.0	0.0
프리랜서	(139)	12.9	5.0	35.3	1.4	13.7	10.8	73.4

※ base : 과거와 현재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종사 국가무형문화재(n=22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나.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올해 문화예술 관련 종사 여부는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와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전체 비율은 ‘교육 관련 분야’와 ‘비교육 분야’의 응답자의 수를 합산하여 재산출하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의 82.8%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교육 관련 분야’는 63.6%, ‘비교육 분야’는 36.4%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교육 관련 분야’는 예술강사(77.9%), 40대 이상(40대 73.4%, 50대 68.6%, 60대 이상 65.1%)에서 높았으며, ‘비교육 분야’는 예술전공자(40.7%)와 국가무형문화재(44.5%), 20대(46.2%)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격취득 기간이 길수록 ‘교육 관련 분야’에, 짧을수록 ‘비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타 분야에 종사한다는 전체 비율은 17.2%였으며, 예술전공자(22.2%), 20대(26.0%), 자격취득 기간이 3년 미만(1년 미만 22.3%, 1~2년 24.3%)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61]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						타 분야	
			교육 관련 분야		비교육 분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066)	(3,365)	82.8	(2,140)	63.6	(1,225)	36.4	(701)	17.2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33)	(29)	87.9	(20)	69.0	(9)	31.0	(4)	12.1
	예술강사	(836)	(810)	96.9	(631)	77.9	(179)	22.1	(26)	3.1
	예술전공자	(2,917)	(2,270)	77.8	(1,347)	59.3	(923)	40.7	(647)	22.2
	국가무형문화재	(280)	(256)	91.4	(142)	55.5	(114)	44.5	(24)	8.6
성별	남성	(770)	(624)	81.0	(331)	53.0	(293)	47.0	(146)	19.0
	여성	(3,296)	(2,741)	83.2	(1,809)	66.0	(932)	34.0	(555)	16.8
연령 별	20대	(1,452)	(1,075)	74.0	(578)	53.8	(497)	46.2	(377)	26.0
	30대	(1,033)	(874)	84.6	(558)	63.8	(316)	36.2	(159)	15.4
	40대	(865)	(789)	91.2	(579)	73.4	(210)	26.6	(76)	8.8
	50대	(543)	(475)	87.5	(326)	68.6	(149)	31.4	(68)	12.5
	60대 이상	(173)	(152)	87.9	(99)	65.1	(53)	34.9	(21)	12.1
거주지 별	수도권	(2,043)	(1,629)	79.7	(990)	60.8	(639)	39.2	(414)	20.3
	부산/경남권	(561)	(486)	86.6	(333)	68.5	(153)	31.5	(75)	13.4
	대구/경북권	(363)	(316)	87.1	(193)	61.1	(123)	38.9	(47)	12.9
	대전/충청권	(437)	(364)	83.3	(241)	66.2	(123)	33.8	(73)	16.7
	광주/전라권	(522)	(447)	85.6	(300)	67.1	(147)	32.9	(75)	14.4
	강원, 제주	(140)	(123)	87.9	(83)	67.5	(40)	32.5	(17)	12.1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779)	(605)	77.7	(342)	56.5	(263)	43.5	(174)	22.3
	1~2년	(1,206)	(913)	75.7	(520)	57.0	(393)	43.0	(293)	24.3
	3~4년	(638)	(520)	81.5	(307)	59.0	(213)	41.0	(118)	18.5
	5~6년	(595)	(523)	87.9	(364)	69.6	(159)	30.4	(72)	12.1
	7년 이상	(848)	(804)	94.8	(607)	75.5	(197)	24.5	(44)	5.2

※ base : 경제활동자(n=4,06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 중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은 2021년 82.8%, 타 분야에 종사한다는 응답은 17.2%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예술 관련 종사 여부는 5차연도(2020년)까지는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에게만 질문하였으나, 6차연도(2021년)부터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까지 확장하여 질문하여, 올해 결과와 과거 연도와 직접적인 추이 비교는 어렵다.

[표 62] 2016-2021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 비교 분석

		사례수 (곳)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	GAP <sup>17)</sup>	%	GAP
전 체	2016년	(3,952)	89.4		10.6	
	2017년	(3,542)	88.8	-0.6	11.2	0.6
	2018년	(1,381)	86.2	-2.6	13.8	2.6
	2019년	(1,188)	87.8	1.6	12.2	-1.6
	2020년	(851)	90.4	2.6	9.6	-2.6
	2021년	(4,066)	82.8	7.6	17.2	-7.6
고졸/비전공자	2016년	(62)	77.4		22.6	
	2017년	(86)	70.9	-6.5	29.1	6.5
	2018년	(50)	68.0	-2.9	32.0	2.9
	2019년	(28)	85.7	17.7	14.3	-17.7
	2020년	(12)	100.0	14.3	0.0	-14.3
	2021년	(33)	87.9	-12.1	12.1	12.1
예술강사	2016년	(2,013)	97.9		2.1	
	2017년	(1,332)	97.4	-0.5	2.6	0.5
	2018년	(229)	95.6	-1.8	4.4	1.8
	2019년	(228)	96.5	0.9	3.5	-0.9
	2020년	(130)	98.5	2.0	1.5	-2.0
	2021년	(836)	96.9	-1.6	3.1	1.6
예술전공자	2016년	(1,541)	78.4		21.6	
	2017년	(1,606)	81.6	3.2	18.4	-3.2
	2018년	(853)	82.2	0.6	17.8	-0.6
	2019년	(750)	84.0	1.8	16.0	-1.8
	2020년	(629)	88.1	4.1	11.9	-4.1
	2021년	(2,917)	77.8	-10.3	22.2	10.3
국가무형 문화재	2016년	(336)	91.4		8.6	
	2017년	(518)	91.9	0.5	8.1	-0.5
	2018년	(249)	95.2	3.3	4.8	-3.3
	2019년	(182)	92.9	-2.3	7.1	2.3
	2020년	(80)	93.8	0.8	6.3	-0.9
	2021년	(280)	91.4	-2.4	8.6	2.4

※ 2018년부터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6차연도(2021년)에는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를 포함하여 현재 경제활동자에게 모두 진행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17) GAP : 조사연도와 조사 직전연도와의 차이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의 87.9%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교육 관련 분야’는 69.0%, ‘비교육 분야’는 31.0%로 나타났다.

[표 63] [고졸/비전공자]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분야		비교육 분야		타 분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3)	(29)	87.9	(20)	69.0	(9)	31.0	(4)	12.1
성별	남성	(5)	(5)	100.0	(4)	80.0	(1)	20.0	(0)	0.0
	여성	(28)	(24)	85.7	(16)	66.7	(8)	33.3	(4)	14.3
연령 별	20대	-	-	-	-	-	-	-	-	-
	30대	(7)	(7)	100.0	(5)	71.4	(2)	28.6	(0)	0.0
	40대	(14)	(11)	78.6	(7)	63.6	(4)	36.4	(3)	21.4
	50대	(8)	(7)	87.5	(5)	71.4	(2)	28.6	(1)	12.5
	60대 이상	(4)	(4)	100.0	(3)	75.0	(1)	25.0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17)	(14)	82.4	(10)	71.4	(4)	28.6	(3)	17.6
	부산/경남권	-	-	-	-	-	-	-	-	-
	대구/경북권	(3)	(3)	100.0	(2)	66.7	(1)	33.3	(0)	0.0
	대전/충청권	(3)	(3)	100.0	(3)	100.0	(0)	0.0	(0)	0.0
	광주/전라권	(9)	(8)	88.9	(4)	50.0	(4)	50.0	(1)	11.1
자격 취득 기간별	강원, 제주	(1)	(1)	100.0	(1)	100.0	(0)	0.0	(0)	0.0
	1년 미만	(1)	(1)	100.0	(1)	100.0	(0)	0.0	(0)	0.0
	1~2년	(1)	(0)	0.0	(0)	0.0	(0)	0.0	(1)	100.0
	3~4년	(9)	(7)	77.8	(4)	57.1	(3)	42.9	(2)	22.2
	5~6년	(16)	(15)	93.8	(11)	73.3	(4)	26.7	(1)	6.3
	7년 이상	(6)	(6)	100.0	(4)	66.7	(2)	33.3	(0)	0.0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n=33)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의 96.9%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교육 관련 분야’는 77.9%, ‘비교육 분야’는 22.1%로 나타났다.

[표 64] [예술강사]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분야		비교육 분야		타 분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36)	(810)	96.9	(631)	77.9	(179)	22.1	(26)	3.1
성별	남성	(153)	(148)	96.7	(107)	72.3	(41)	27.7	(5)	3.3
	여성	(683)	(662)	96.9	(524)	79.2	(138)	20.8	(21)	3.1
연령 별	20대	-	-	-	-	-	-	-	-	-
	30대	(225)	(220)	97.8	(174)	79.1	(46)	20.9	(5)	2.2
	40대	(386)	(374)	96.9	(292)	78.1	(82)	21.9	(12)	3.1
	50대	(195)	(187)	95.9	(143)	76.5	(44)	23.5	(8)	4.1
	60대 이상	(30)	(29)	96.7	(22)	75.9	(7)	24.1	(1)	3.3
거주지 별	수도권	(300)	(293)	97.7	(240)	81.9	(53)	18.1	(7)	2.3
	부산/경남권	(157)	(155)	98.7	(126)	81.3	(29)	18.7	(2)	1.3
	대구/경북권	(75)	(72)	96.0	(48)	66.7	(24)	33.3	(3)	4.0
	대전/충청권	(116)	(113)	97.4	(84)	74.3	(29)	25.7	(3)	2.6
	광주/전라권	(141)	(132)	93.6	(102)	77.3	(30)	22.7	(9)	6.4
자격 취득 기간별	강원, 제주	(47)	(45)	95.7	(31)	68.9	(14)	31.1	(2)	4.3
	1년 미만	(3)	(3)	100.0	(1)	33.3	(2)	66.7	(0)	0.0
	1~2년	(3)	(2)	66.7	(2)	100.0	(0)	0.0	(1)	33.3
	3~4년	(35)	(33)	94.3	(24)	72.7	(9)	27.3	(2)	5.7
	5~6년	(179)	(176)	98.3	(141)	80.1	(35)	19.9	(3)	1.7
	7년 이상	(616)	(596)	96.8	(463)	77.7	(133)	22.3	(20)	3.2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n=83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의 77.8%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교육 관련 분야’는 59.3%, ‘비교육 분야’는 40.7%로 나타났다.

자격취득 기간별로 살펴보면, 자격취득 기간이 길수록 ‘교육 관련 분야’에서, 짧을수록 ‘비교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65] [예술전공자]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분야		비교육 분야		타 분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917)	(2,270)	77.8	(1,347)	59.3	(923)	40.7	(647)	22.2
성별	남성	(495)	(369)	74.5	(169)	45.8	(200)	54.2	(126)	25.5
	여성	(2,422)	(1,901)	78.5	(1,178)	62.0	(723)	38.0	(521)	21.5
연령 별	20대	(1,445)	(1,069)	74.0	(574)	53.7	(495)	46.3	(376)	26.0
	30대	(761)	(607)	79.8	(362)	59.6	(245)	40.4	(154)	20.2
	40대	(399)	(344)	86.2	(248)	72.1	(96)	27.9	(55)	13.8
	50대	(253)	(204)	80.6	(133)	65.2	(71)	34.8	(49)	19.4
	60대 이상	(59)	(46)	78.0	(30)	65.2	(16)	34.8	(13)	22.0
거주지 별	수도권	(1,600)	(1,203)	75.2	(674)	56.0	(529)	44.0	(397)	24.8
	부산/경남권	(338)	(271)	80.2	(175)	64.6	(96)	35.4	(67)	19.8
	대구/경북권	(256)	(214)	83.6	(129)	60.3	(85)	39.7	(42)	16.4
	대전/충청권	(299)	(235)	78.6	(145)	61.7	(90)	38.3	(64)	21.4
	광주/전라권	(340)	(278)	81.8	(177)	63.7	(101)	36.3	(62)	18.2
	강원, 제주	(84)	(69)	82.1	(47)	68.1	(22)	31.9	(15)	17.9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753)	(582)	77.3	(332)	57.0	(250)	43.0	(171)	22.7
	1~2년	(1,156)	(871)	75.3	(499)	57.3	(372)	42.7	(285)	24.7
	3~4년	(539)	(428)	79.4	(249)	58.2	(179)	41.8	(111)	20.6
	5~6년	(326)	(262)	80.4	(175)	66.8	(87)	33.2	(64)	19.6
	7년 이상	(143)	(127)	88.8	(92)	72.4	(35)	27.6	(16)	11.2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n=2,91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91.4%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교육 관련 분야’는 55.5%, ‘비교육 분야’는 44.5%로 나타났다.

자격취득 기간별로 살펴보면, 자격취득 기간이 길수록(5~6년 제외) ‘교육 관련 분야’에서, 짧을수록(5~6년 제외) ‘비교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66]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						타 분야	
			교육 관련 분야		비교육 분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80)	(256)	91.4	(142)	55.5	(114)	44.5	(24)	8.6
성별	남성	(117)	(102)	87.2	(51)	50.0	(51)	50.0	(15)	12.8
	여성	(163)	(154)	94.5	(91)	59.1	(63)	40.9	(9)	5.5
연령 별	20대	(7)	(6)	85.7	(4)	66.7	(2)	33.3	(1)	14.3
	30대	(40)	(40)	100.0	(17)	42.5	(23)	57.5	(0)	0.0
	40대	(66)	(60)	90.9	(32)	53.3	(28)	46.7	(6)	9.1
	50대	(87)	(77)	88.5	(45)	58.4	(32)	41.6	(10)	11.5
	60대 이상	(80)	(73)	91.3	(44)	60.3	(29)	39.7	(7)	8.8
거주지 별	수도권	(126)	(119)	94.4	(66)	55.5	(53)	44.5	(7)	5.6
	부산/경남권	(66)	(60)	90.9	(32)	53.3	(28)	46.7	(6)	9.1
	대구/경북권	(29)	(27)	93.1	(14)	51.9	(13)	48.1	(2)	6.9
	대전/충청권	(19)	(13)	68.4	(9)	69.2	(4)	30.8	(6)	31.6
	광주/전라권	(32)	(29)	90.6	(17)	58.6	(12)	41.4	(3)	9.4
	강원, 제주	(8)	(8)	100.0	(4)	50.0	(4)	50.0	(0)	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2)	(19)	86.4	(8)	42.1	(11)	57.9	(3)	13.6
	1~2년	(46)	(40)	87.0	(19)	47.5	(21)	52.5	(6)	13.0
	3~4년	(55)	(52)	94.5	(30)	57.7	(22)	42.3	(3)	5.5
	5~6년	(74)	(70)	94.6	(37)	52.9	(33)	47.1	(4)	5.4
	7년 이상	(83)	(75)	90.4	(48)	64.0	(27)	36.0	(8)	9.6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n=28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형태별로 종사 분야를 보면,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비교육 분야’(44.9%) 및 ‘타 분야’(26.4%)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프리랜서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89.7%)에서도 ‘교육 분야’(68.9%)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7] 경제활동 형태별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						타 분야	
			분야		교육 분야		비교육 분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066)	(3,365)	82.8	(2,140)	63.6	(1,225)	36.4	(701)	17.2
경제 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1,757)	(1,293)	73.6	(712)	55.1	(581)	44.9	(464)	26.4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2,309)	(2,072)	89.7	(1428)	68.9	(644)	31.1	(237)	10.3

※ base : 경제활동자(n=4,06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고졸/비전공자는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와 프리랜서 모두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비교육 분야’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68]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 형태별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						타 분야	
			분야		교육 분야		비교육 분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3)	(29)	87.9	(20)	69.0	(9)	31.0	(4)	12.1
경제 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13)	(12)	92.3	(5)	41.7	(7)	58.3	(1)	7.7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20)	(17)	85.0	(15)	88.2	(2)	11.8	(3)	15.0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n=33)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는 ‘비교육 분야’(29.7%)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9] [예술강사] 경제활동 형태별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분야		비교육 분야		타 분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36)	(810)	96.9	(631)	77.9	(179)	22.1	(26)	3.1
경제 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173)	(158)	91.3	(111)	70.3	(47)	29.7	(15)	8.7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663)	(652)	98.3	(520)	79.8	(132)	20.2	(11)	1.7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n=83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는 상대적으로 ‘비교육 분야’(46.2%) 및 ‘타 분야’(29.8%)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프리랜서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85.3%)에서도 ‘교육 분야’(63.8%)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0] [예술전공자] 경제활동 형태별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분야		비교육 분야		타 분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917)	(2,270)	77.8	(1,347)	59.3	(923)	40.7	(647)	22.2
경제 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1,450)	(1,018)	70.2	(548)	53.8	(470)	46.2	(432)	29.8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1,467)	(1,252)	85.3	(799)	63.8	(453)	36.2	(215)	14.7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n=2,91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는 상대적으로 ‘비교육 분야’(54.3%)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프리랜서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95.0%)에서도 ‘교육 분야’(62.3%)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1]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 형태별 관련 분야 종사 여부

		사례수 (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						타 분야	
			분야		교육 분야		비교육 분야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80)	(256)	91.4	(142)	55.5	(114)	44.5	(24)	8.6
경제 활동 형태	기관·시설·단체 종사	(121)	(105)	86.8	(48)	45.7	(57)	54.3	(16)	13.2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159)	(151)	95.0	(94)	62.3	(57)	37.7	(8)	5.0

※ base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n=28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현 소속기관을 보면, ‘국·공립·공공기관’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예술단체’(22.4%), ‘사기업’(19.3%) 등의 순이었다.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20.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는 ‘국·공립·공공기관’(30.1%)과 ‘예술단체’(28.1%)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시기별로 살펴보면, 경제 활동 전 취득자는 ‘사기업’(26.5%)에, 경제 활동 후 취득자는 ‘국·공립·공공기관’(28.6%)과 ‘예술단체’(25.8%)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2]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자격 취득 시기별 현 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예술단체		사기업		초,중, 고등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대학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93)	(331)	25.6	(289)	22.4	(250)	19.3	(162)	12.5	(117)	9.0	(58)	4.5
기관· 시설·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712)	(156)	21.9	(126)	17.7	(130)	18.3	(145)	20.4	(61)	8.6	(41)	5.8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581)	(175)	30.1	(163)	28.1	(120)	20.7	(17)	2.9	(56)	9.6	(17)	2.9
자격 취득 시기	경제활동 전 취득	(626)	(140)	22.4	(117)	18.7	(166)	26.5	(81)	12.9	(51)	8.1	(22)	3.5
	경제활동 후 취득	(667)	(191)	28.6	(172)	25.8	(84)	12.6	(81)	12.1	(66)	9.9	(36)	5.4

※ base :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1,29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의 현 소속기관을 보면, ‘국·공립·공공기관’이 41.7%로 가장 많았다.

[표 7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자격 취득 시기별 현 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예술단체		사기업		정부부처, 지자체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2)	(5)	41.7	(4)	33.3	(1)	8.3	(1)	8.3
기관· 시설·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5)	(2)	40.0	(2)	40.0	(0)	0.0	(1)	20.0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7)	(3)	42.9	(2)	28.6	(1)	14.3	(0)	0.0
자격 취득 시기	경제활동 전 취득	(6)	(2)	33.3	(2)	33.3	(0)	0.0	(1)	16.7
	경제활동 후 취득	(6)	(3)	50.0	(2)	33.3	(1)	16.7	(0)	0.0

※ base :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12)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의 현 소속기관을 보면, ‘예술단체’(25.3%), ‘국·공립·공공기관’(23.4%) 등의 순이었다.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의 경우 ‘대학교’(13.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는 ‘예술단체’(38.3%)와 ‘사기업’(1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4] [예술강사]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자격 취득 시기별 현 소속기관

		사례수 (명)	예술단체		국·공립· 공공기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사기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58)	(40)	25.3	(37)	23.4	(25)	15.8	(16)	10.1	(19)	12.0	(11)	7.0
기관· 시설·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111)	(22)	19.8	(27)	24.3	(21)	18.9	(15)	13.5	(13)	11.7	(6)	5.4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47)	(18)	38.3	(10)	21.3	(4)	8.5	(1)	2.1	(6)	12.8	(5)	10.6
자격 취득 시기	경제활동 전 취득	(20)	(4)	20.0	(1)	5.0	(5)	25.0	(3)	15.0	(2)	10.0	(3)	15.0
	경제활동 후 취득	(138)	(36)	26.1	(36)	26.1	(20)	14.5	(13)	9.4	(17)	12.3	(8)	5.8

※ base :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15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의 현 소속기관을 보면, ‘국·공립·공공기관’(26.0%), ‘사기업’(23.3%) 등의 순이었다.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21.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는 ‘국·공립·공공기관’(30.4%)과 ‘예술단체’(24.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 취득 시기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전 취득자는 ‘사기업’(27.6%)에, 경제활동 후 취득자는 ‘국·공립·공공기관’(30.6%)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5]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자격 취득 시기별 현 소속기관

		사례수 (명)	국·공립· 공공기관		사기업		예술단체		초·중, 고등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대학교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018)	(265)	26.0	(237)	23.3	(188)	18.5	(132)	13.0	(88)	8.6	(39)	3.8
기관· 시설·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548)	(122)	22.3	(122)	22.3	(75)	13.7	(120)	21.9	(44)	8.0	(23)	4.2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470)	(143)	30.4	(115)	24.5	(113)	24.0	(12)	2.6	(44)	9.4	(16)	3.4
자격 취득 시기	경제활동 전 취득	(586)	(133)	22.7	(162)	27.6	(107)	18.3	(75)	12.8	(46)	7.8	(17)	2.9
	경제활동 후 취득	(432)	(132)	30.6	(75)	17.4	(81)	18.8	(57)	13.2	(42)	9.7	(22)	5.1

※ base :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1,01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현 소속기관을 보면, ‘예술단체’(54.3%), ‘국·공립·공공기관’(22.9%)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는 ‘국·공립·공공기관’(3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6]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자격 취득 시기별 현 소속기관

		사례수 (명)	예술단체		국·공립·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기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105)	(57)	54.3	(24)	22.9	(9)	8.6	(5)	4.8	(3)	2.9	(1)	1.0
기관· 시설·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48)	(27)	56.3	(5)	10.4	(4)	8.3	(4)	8.3	(3)	6.3	(1)	2.1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57)	(30)	52.6	(19)	33.3	(5)	8.8	(1)	1.8	(0)	0.0	(0)	0.0
자격 취득 시기	경제활동 전 취득	(14)	(4)	28.6	(4)	28.6	(3)	21.4	(1)	7.1	(2)	14.3	(0)	0.0
	경제활동 후 취득	(91)	(53)	58.2	(20)	22.0	(6)	6.6	(4)	4.4	(1)	1.1	(1)	1.1

※ base :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10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타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현 소속기관을 보면, ‘사기업’(58.8%)이 과반이었다.

자격요건별 타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소속기관은 사례수가 적어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 77] 타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별 현 소속기관

		사례수 (명)	사기업		국·공립· 공공기관		초,중, 고등학교		정부부처, 지자체		대학교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464)	(273)	58.8	(47)	10.1	(40)	8.6	(29)	6.3	(27)	5.8	(48)	10.3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예술강사	(15)	(2)	13.3	(0)	0.0	(9)	60.0	(1)	6.7	(1)	6.7	(2)	13.3
	예술전공자	(432)	(263)	60.9	(46)	10.6	(29)	6.7	(25)	5.8	(26)	6.0	(43)	10.0
	국가 무형문화재	(16)	(7)	43.8	(1)	6.3	(2)	12.5	(3)	18.8	(0)	0.0	(3)	18.8

※ base : 타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46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다.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 1) 근무 형태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의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69.2%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30.8%)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예술강사(78.4%), 자격취득 기간이 1년 미만인 소지자(74.2%) 및 7년 이상인 소지자(72.7%)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48.5%), ‘문화예술교육 컨설팅’(44.0%)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소지자는 ‘정규직’으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73.3%)과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70.6%)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소지자는 비정규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8]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12)	(219)	30.8	(493)	69.2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5)	(4)	80.0	(1)	20.0
	예술강사	(111)	(24)	21.6	(87)	78.4
	예술전공자	(548)	(177)	32.3	(371)	67.7
	국가무형문화재	(48)	(14)	29.2	(34)	70.8
성별	남성	(126)	(44)	34.9	(82)	65.1
	여성	(586)	(175)	29.9	(411)	70.1
연령 별	20대	(260)	(74)	28.5	(186)	71.5
	30대	(197)	(66)	33.5	(131)	66.5
	40대	(149)	(47)	31.5	(102)	68.5
	50대	(76)	(23)	30.3	(53)	69.7
	60대 이상	(30)	(9)	30.0	(21)	70.0
거주지 별	수도권	(322)	(102)	31.7	(220)	68.3
	부산/경남권	(124)	(30)	24.2	(94)	75.8
	대구/경북권	(68)	(22)	32.4	(46)	67.6
	대전/충청권	(72)	(24)	33.3	(48)	66.7
	광주/전라권	(93)	(29)	31.2	(64)	68.8
	강원, 제주	(33)	(12)	36.4	(21)	63.6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51)	(39)	25.8	(112)	74.2
	1~2년	(236)	(73)	30.9	(163)	69.1
	3~4년	(108)	(43)	39.8	(65)	60.2
	5~6년	(89)	(29)	32.6	(60)	67.4
	7년 이상	(128)	(35)	27.3	(93)	72.7

※ base :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7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표 79] 현 담당업무별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12)	(219)	30.8	(493)	69.2
현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114)	(46)	40.4	(68)	59.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68)	(33)	48.5	(35)	51.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234)	(77)	32.9	(157)	67.1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476)	(140)	29.4	(336)	70.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22)	(67)	30.2	(155)	69.8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168)	(53)	31.5	(115)	68.5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44)	(18)	40.9	(26)	59.1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25)	(11)	44.0	(14)	56.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57)	(18)	31.6	(39)	68.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60)	(21)	35.0	(39)	65.0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75)	(20)	26.7	(55)	73.3
	기타	(25)	(8)	32.0	(17)	68.0

※ base :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7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의 80.0%는 ‘정규직’, 20.0%는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표 80]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	(4)	80.0	(1)	20.0
성별	남성	-	-	-	-	-
	여성	(5)	(4)	80.0	(1)	20.0
연령 별	20대	-	-	-	-	-
	30대	(3)	(3)	100.0	(0)	0.0
	40대	(2)	(1)	50.0	(1)	50.0
	50대	-	-	-	-	-
	60대 이상	-	-	-	-	-
거주지 별	수도권	(3)	(3)	100.0	(0)	0.0
	부산/경남권	-	-	-	-	-
	대구/경북권	-	-	-	-	-
	대전/충청권	(1)	(0)	0.0	(1)	100.0
	광주/전라권	(1)	(1)	100.0	(0)	0.0
	강원, 제주	-	-	-	-	-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1)	100.0	(0)	0.0
	1~2년	-	-	-	-	-
	3~4년	(2)	(1)	50.0	(1)	50.0
	5~6년	(2)	(2)	100.0	(0)	0.0
	7년 이상	-	-	-	-	-
현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3)	(2)	66.7	(1)	33.3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2)	(1)	50.0	(1)	5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2)	66.7	(1)	33.3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1)	(0)	0.0	(1)	10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2)	66.7	(1)	33.3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3)	(2)	66.7	(1)	33.3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2)	(2)	100.0	(0)	0.0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3)	(2)	66.7	(1)	33.3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	(1)	100.0	(0)	0.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3)	(3)	100.0	(0)	0.0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1)	(0)	0.0	(1)	100.0
	기타	-	-	-	-	-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5)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의 78.4%는 ‘비정규직’, 21.6%는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표 81] [예술강사]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1)	(24)	21.6	(87)	78.4
성별	남성	(26)	(6)	23.1	(20)	76.9
	여성	(85)	(18)	21.2	(67)	78.8
연령 별	20대	-	-	-	-	-
	30대	(29)	(5)	17.2	(24)	82.8
	40대	(51)	(13)	25.5	(38)	74.5
	50대	(28)	(5)	17.9	(23)	82.1
	60대 이상	(3)	(1)	33.3	(2)	66.7
거주지 별	수도권	(40)	(8)	20.0	(32)	80.0
	부산/경남권	(25)	(4)	16.0	(21)	84.0
	대구/경북권	(8)	(1)	12.5	(7)	87.5
	대전/충청권	(16)	(5)	31.3	(11)	68.8
	광주/전라권	(17)	(5)	29.4	(12)	70.6
	강원, 제주	(5)	(1)	20.0	(4)	8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0)	0.0	(1)	100.0
	1~2년	-	-	-	-	-
	3~4년	(3)	(1)	33.3	(2)	66.7
	5~6년	(28)	(5)	17.9	(23)	82.1
	7년 이상	(79)	(18)	22.8	(61)	77.2
현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13)	(3)	23.1	(10)	76.9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10)	(3)	30.0	(7)	7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21)	(6)	28.6	(15)	71.4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102)	(22)	21.6	(80)	78.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9)	(6)	31.6	(13)	68.4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7)	(2)	28.6	(5)	71.4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4)	(1)	25.0	(3)	75.0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4)	(1)	25.0	(3)	75.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3)	(0)	0.0	(3)	100.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8)	(0)	0.0	(8)	100.0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16)	(2)	12.5	(14)	87.5
	기타	(4)	(1)	25.0	(3)	75.0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11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의 67.7%는 ‘비정규직’, 32.3%는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격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소지자는 비정규직, 3년 이상인 소지자는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55.6%)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소지자는 ‘정규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70.4%)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전공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2]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48)	(177)	32.3	(371)	67.7
성별	남성	(72)	(32)	44.4	(40)	55.6
	여성	(476)	(145)	30.5	(331)	69.5
연령 별	20대	(259)	(74)	28.6	(185)	71.4
	30대	(159)	(55)	34.6	(104)	65.4
	40대	(85)	(31)	36.5	(54)	63.5
	50대	(38)	(12)	31.6	(26)	68.4
	60대 이상	(7)	(5)	71.4	(2)	28.6
거주지 별	수도권	(263)	(84)	31.9	(179)	68.1
	부산/경남권	(82)	(23)	28.0	(59)	72.0
	대구/경북권	(53)	(19)	35.8	(34)	64.2
	대전/충청권	(54)	(19)	35.2	(35)	64.8
	광주/전라권	(71)	(22)	31.0	(49)	69.0
자격 취득 기간별	강원, 제주	(25)	(10)	40.0	(15)	60.0
	1년 미만	(147)	(38)	25.9	(109)	74.1
	1~2년	(228)	(69)	30.3	(159)	69.7
	3~4년	(90)	(39)	43.3	(51)	56.7
	5~6년	(52)	(20)	38.5	(32)	61.5
현 담당 업무	7년 이상	(31)	(11)	35.5	(20)	64.5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92)	(39)	42.4	(53)	57.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45)	(25)	55.6	(20)	44.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201)	(65)	32.3	(136)	67.7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345)	(113)	32.8	(232)	67.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89)	(56)	29.6	(133)	70.4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149)	(47)	31.5	(102)	68.5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36)	(14)	38.9	(22)	61.1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17)	(8)	47.1	(9)	52.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53)	(17)	32.1	(36)	67.9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41)	(17)	41.5	(24)	58.5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46)	(14)	30.4	(32)	69.6
	기타	(21)	(7)	33.3	(14)	66.7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54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70.8%는 ‘비정규직’, 29.2%는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표 83]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8)	(14)	29.2	(34)	70.8
성별	남성	(28)	(6)	21.4	(22)	78.6
	여성	(20)	(8)	40.0	(12)	60.0
연령 별	20대	(1)	(0)	0.0	(1)	100.0
	30대	(6)	(3)	50.0	(3)	50.0
	40대	(11)	(2)	18.2	(9)	81.8
	50대	(10)	(6)	60.0	(4)	40.0
	60대 이상	(20)	(3)	15.0	(17)	85.0
거주지 별	수도권	(16)	(7)	43.8	(9)	56.3
	부산/경남권	(17)	(3)	17.6	(14)	82.4
	대구/경북권	(7)	(2)	28.6	(5)	71.4
	대전/충청권	(1)	(0)	0.0	(1)	100.0
	광주/전라권	(4)	(1)	25.0	(3)	75.0
	강원, 제주	(3)	(1)	33.3	(2)	66.7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	(0)	0.0	(2)	100.0
	1~2년	(8)	(4)	50.0	(4)	50.0
	3~4년	(13)	(2)	15.4	(11)	84.6
	5~6년	(7)	(2)	28.6	(5)	71.4
	7년 이상	(18)	(6)	33.3	(12)	66.7
현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6)	(2)	33.3	(4)	66.7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11)	(4)	36.4	(7)	63.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9)	(4)	44.4	(5)	55.6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28)	(5)	17.9	(23)	8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1)	(3)	27.3	(8)	72.7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9)	(2)	22.2	(7)	77.8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2)	(1)	50.0	(1)	50.0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1)	(0)	0.0	(1)	100.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	-	-	-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8)	(1)	12.5	(7)	87.5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12)	(4)	33.3	(8)	66.7
	기타	-	-	-	-	-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48)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은 60.2%로 나타났다. 특히 예술강사(72.3%), 20대(65.9%), 자격취득 기간이 1년 미만(69.9%)인 소지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46.9%),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전략 수립’(45.0%)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소지자는 ‘정규직’으로,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67.6%)과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64.1%)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소지자는 비정규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4]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81)	(231)	39.8	(350)	60.2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7)	(3)	42.9	(4)	57.1
	예술강사	(47)	(13)	27.7	(34)	72.3
	예술전공자	(470)	(189)	40.2	(281)	59.8
	국가무형문화재	(57)	(26)	45.6	(31)	54.4
성별	남성	(140)	(64)	45.7	(76)	54.3
	여성	(441)	(167)	37.9	(274)	62.1
연령 별	20대	(255)	(87)	34.1	(168)	65.9
	30대	(165)	(76)	46.1	(89)	53.9
	40대	(87)	(39)	44.8	(48)	55.2
	50대	(54)	(21)	38.9	(33)	61.1
	60대 이상	(20)	(8)	40.0	(12)	60.0
거주지 별	수도권	(315)	(133)	42.2	(182)	57.8
	부산/경남권	(81)	(25)	30.9	(56)	69.1
	대구/경북권	(44)	(16)	36.4	(28)	63.6
	대전/충청권	(50)	(21)	42.0	(29)	58.0
	광주/전라권	(71)	(25)	35.2	(46)	64.8
	강원, 제주	(20)	(11)	55.0	(9)	45.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33)	(40)	30.1	(93)	69.9
	1~2년	(211)	(83)	39.3	(128)	60.7
	3~4년	(101)	(56)	55.4	(45)	44.6
	5~6년	(64)	(25)	39.1	(39)	60.9
	7년 이상	(72)	(27)	37.5	(45)	62.5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58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85] 현 담당업무별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81)	(231)	39.8	(350)	60.2
현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111)	(50)	45.0	(61)	55.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96)	(45)	46.9	(51)	53.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66)	(67)	40.4	(99)	59.6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145)	(47)	32.4	(98)	67.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13)	(43)	38.1	(70)	61.9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167)	(60)	35.9	(107)	64.1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11)	(7)	63.6	(4)	36.4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19)	(10)	52.6	(9)	47.4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44)	(18)	40.9	(26)	59.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39)	(16)	41.0	(23)	59.0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143)	(62)	43.4	(81)	56.6
	기타	(54)	(24)	44.4	(30)	55.6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58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의 57.1%는 ‘비정규직’, 42.9%는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표 86]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	(3)	42.9	(4)	57.1
성별	남성	-	-	-	-	-
	여성	(7)	(3)	42.9	(4)	57.1
연령 별	20대	-	-	-	-	-
	30대	(2)	(1)	50.0	(1)	50.0
	40대	(3)	(0)	0.0	(3)	100.0
	50대	(2)	(2)	100.0	(0)	0.0
	60대 이상	-	-	-	-	-
거주지 별	수도권	(4)	(2)	50.0	(2)	50.0
	부산/경남권	-	-	-	-	-
	대구/경북권	(1)	(0)	0.0	(1)	100.0
	대전/충청권	(2)	(1)	50.0	(1)	50.0
	광주/전라권	-	-	-	-	-
자격 취득 기간별	강원, 제주	-	-	-	-	-
	1년 미만	-	-	-	-	-
	1~2년	-	-	-	-	-
	3~4년	(2)	(1)	50.0	(1)	50.0
	5~6년	(4)	(1)	25.0	(3)	75.0
현 담당 업무	7년 이상	(1)	(1)	100.0	(0)	0.0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4)	(1)	25.0	(3)	75.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	(0)	0.0	(1)	100.0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	-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3)	(2)	66.7	(1)	33.3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	-	-	-	-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	-	-	-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	-	-	-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	-	-	-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	-	-	-
	기타	-	-	-	-	-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7)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의 72.3%는 ‘비정규직’, 27.7%는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표 87]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7)	(13)	27.7	(34)	72.3
성별	남성	(12)	(4)	33.3	(8)	66.7
	여성	(35)	(9)	25.7	(26)	74.3
연령 별	20대	-	-	-	-	-
	30대	(10)	(4)	40.0	(6)	60.0
	40대	(19)	(6)	31.6	(13)	68.4
	50대	(17)	(3)	17.6	(14)	82.4
	60대 이상	(1)	(0)	0.0	(1)	100.0
거주지 별	수도권	(17)	(5)	29.4	(12)	70.6
	부산/경남권	(8)	(1)	12.5	(7)	87.5
	대구/경북권	(2)	(0)	0.0	(2)	100.0
	대전/충청권	(7)	(3)	42.9	(4)	57.1
	광주/전라권	(9)	(3)	33.3	(6)	66.7
	강원, 제주	(4)	(1)	25.0	(3)	75.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0)	0.0	(1)	100.0
	1~2년	-	-	-	-	-
	3~4년	(1)	(0)	0.0	(1)	100.0
	5~6년	(2)	(1)	50.0	(1)	50.0
	7년 이상	(43)	(12)	27.9	(31)	72.1
현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10)	(3)	30.0	(7)	70.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12)	(4)	33.3	(8)	66.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5)	(3)	20.0	(12)	80.0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30)	(4)	13.3	(26)	86.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1)	10.0	(9)	90.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9)	(3)	33.3	(6)	66.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3)	(2)	66.7	(1)	33.3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3)	(3)	100.0	(0)	0.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	(0)	0.0	(1)	100.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5)	(2)	40.0	(3)	60.0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15)	(3)	20.0	(12)	80.0
	기타	(3)	(0)	0.0	(3)	100.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4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의 67.7%는 ‘비정규직’, 32.3%는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격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소지자는 비정규직, 3~4년인 소지자는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전략 수립’(46.3%)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소지자는 ‘정규직’,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65.5%)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전공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8]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70)	(189)	40.2	(281)	59.8
성별	남성	(99)	(46)	46.5	(53)	53.5
	여성	(371)	(143)	38.5	(228)	61.5
연령 별	20대	(255)	(87)	34.1	(168)	65.9
	30대	(140)	(64)	45.7	(76)	54.3
	40대	(47)	(25)	53.2	(22)	46.8
	50대	(24)	(11)	45.8	(13)	54.2
	60대 이상	(4)	(2)	50.0	(2)	50.0
거주지 별	수도권	(271)	(116)	42.8	(155)	57.2
	부산/경남권	(55)	(17)	30.9	(38)	69.1
	대구/경북권	(35)	(12)	34.3	(23)	65.7
	대전/충청권	(41)	(16)	39.0	(25)	61.0
	광주/전라권	(54)	(20)	37.0	(34)	63.0
자격 취득 기간별	강원, 제주	(14)	(8)	57.1	(6)	42.9
	1년 미만	(128)	(39)	30.5	(89)	69.5
	1~2년	(199)	(77)	38.7	(122)	61.3
	3~4년	(84)	(46)	54.8	(38)	45.2
	5~6년	(42)	(17)	40.5	(25)	59.5
현 담당 업무	7년 이상	(17)	(10)	58.8	(7)	41.2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80)	(37)	46.3	(43)	53.8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68)	(31)	45.6	(37)	54.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37)	(56)	40.9	(81)	59.1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91)	(33)	36.3	(58)	63.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92)	(37)	40.2	(55)	59.8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142)	(49)	34.5	(93)	65.5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7)	(4)	57.1	(3)	42.9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13)	(5)	38.5	(8)	61.5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35)	(15)	42.9	(20)	57.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24)	(8)	33.3	(16)	66.7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98)	(42)	42.9	(56)	57.1
	기타	(50)	(23)	46.0	(27)	54.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47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54.4%는 ‘비정규직’, 45.6%는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표 89]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7)	(26)	45.6	(31)	54.4
성별	남성	(29)	(14)	48.3	(15)	51.7
	여성	(28)	(12)	42.9	(16)	57.1
연령 별	20대	-	-	-	-	-
	30대	(13)	(7)	53.8	(6)	46.2
	40대	(18)	(8)	44.4	(10)	55.6
	50대	(11)	(5)	45.5	(6)	54.5
	60대 이상	(15)	(6)	40.0	(9)	60.0
거주지 별	수도권	(23)	(10)	43.5	(13)	56.5
	부산/경남권	(18)	(7)	38.9	(11)	61.1
	대구/경북권	(6)	(4)	66.7	(2)	33.3
	대전/충청권	(2)	(2)	100.0	(0)	0.0
	광주/전라권	(6)	(1)	16.7	(5)	83.3
	강원, 제주	(2)	(2)	100.0	(0)	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4)	(1)	25.0	(3)	75.0
	1~2년	(12)	(6)	50.0	(6)	50.0
	3~4년	(14)	(9)	64.3	(5)	35.7
	5~6년	(16)	(6)	37.5	(10)	62.5
	7년 이상	(11)	(4)	36.4	(7)	63.6
현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17)	(9)	52.9	(8)	47.1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16)	(10)	62.5	(6)	37.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3)	(8)	61.5	(5)	38.5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24)	(10)	41.7	(14)	58.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1)	(5)	45.5	(6)	54.5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13)	(6)	46.2	(7)	53.8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1)	(1)	100.0	(0)	0.0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3)	(2)	66.7	(1)	33.3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8)	(3)	37.5	(5)	62.5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10)	(6)	60.0	(4)	40.0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30)	(17)	56.7	(13)	43.3
	기타	(1)	(1)	100.0	(0)	0.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5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타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은 61.6%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 타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는 사례수가 적어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 90] 타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64)	(286)	61.6	(178)	38.4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	(1)	100.0	-	-
	예술강사	(15)	(3)	20.0	(12)	80.0
	예술전공자	(432)	(271)	62.7	(161)	37.3
	국가무형문화재	(16)	(11)	68.8	(5)	31.3
성별	남성	(102)	(73)	<u>71.6</u>	(29)	28.4
	여성	(362)	(213)	58.8	(149)	<u>41.2</u>
연령 별	20대	(264)	(159)	60.2	(105)	39.8
	30대	(108)	(74)	<u>68.5</u>	(34)	31.5
	40대	(40)	(19)	47.5	(21)	52.5
	50대	(41)	(27)	65.9	(14)	34.1
	60대 이상	(11)	(7)	63.6	(4)	36.4
거주지 별	수도권	(276)	(175)	63.4	(101)	36.6
	부산/경남권	(54)	(38)	<u>70.4</u>	(16)	29.6
	대구/경북권	(26)	(15)	57.7	(11)	42.3
	대전/충청권	(49)	(26)	53.1	(23)	46.9
	광주/전라권	(49)	(27)	55.1	(22)	44.9
	강원, 제주	(10)	(5)	50.0	(5)	5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14)	(57)	50.0	(57)	<u>50.0</u>
	1~2년	(204)	(137)	<u>67.2</u>	(67)	32.8
	3~4년	(76)	(50)	<u>65.8</u>	(26)	34.2
	5~6년	(41)	(29)	70.7	(12)	29.3
	7년 이상	(29)	(13)	44.8	(16)	55.2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타 분야 종사자(n=46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91] 현 담당업무별 타 분야 종사자 근무 형태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64)	(286)	61.6	(178)	38.4
현 담당 업무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4)	(2)	50.0	(2)	50.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9)	(6)	66.7	(3)	33.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9)	(7)	36.8	(12)	63.2
	문화예술교육 강의/강사 활동	(38)	(19)	50.0	(19)	5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1)	(2)	18.2	(9)	81.8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22)	(11)	50.0	(11)	50.0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1)	(0)	0.0	(1)	100.0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	-	-	-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3)	(0)	0.0	(3)	100.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1)	(1)	100.0	(0)	0.0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23)	(15)	65.2	(8)	34.8
	기타	(368)	(236)	64.1	(132)	35.9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타 분야 종사자(n=46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2) 근무 기간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37.1%가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7년 1개월(85.0개월)이었다.

[표 92]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12)	(143)	20.1	(147)	20.6	(96)	13.5	(62)	8.7	(264)	37.1	85.0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5)	(1)	20.0	(0)	0.0	(1)	20.0	(0)	0.0	(3)	60.0	137.2
	예술강사	(111)	(1)	0.9	(0)	0.0	(1)	0.9	(2)	1.8	(107)	96.4	178.4
	예술전공자	(548)	(140)	25.5	(143)	26.1	(90)	16.4	(59)	10.8	(116)	21.2	54.3
	국가무형문화재	(48)	(1)	2.1	(4)	8.3	(4)	8.3	(1)	2.1	(38)	79.2	214.3
성별	남성	(126)	(20)	15.9	(24)	19.0	(12)	9.5	(9)	7.1	(61)	48.4	120.7
	여성	(586)	(123)	21.0	(123)	21.0	(84)	14.3	(53)	9.0	(203)	34.6	77.3
연령 별	20대	(260)	(106)	40.8	(98)	37.7	(40)	15.4	(14)	5.4	(2)	0.8	20.2
	30대	(197)	(25)	12.7	(32)	16.2	(35)	17.8	(30)	15.2	(75)	38.1	72.6
	40대	(149)	(8)	5.4	(9)	6.0	(16)	10.7	(11)	7.4	(105)	70.5	132.5
	50대	(76)	(4)	5.3	(7)	9.2	(5)	6.6	(5)	6.6	(55)	72.4	175.1
	60대 이상	(30)	(0)	0.0	(1)	3.3	(0)	0.0	(2)	6.7	(27)	90.0	263.7
거주지 별	수도권	(322)	(56)	17.4	(74)	23.0	(53)	16.5	(32)	9.9	(107)	33.2	77.6
	부산/경남권	(124)	(34)	27.4	(21)	16.9	(9)	7.3	(10)	8.1	(50)	40.3	90.1
	대구/경북권	(68)	(11)	16.2	(11)	16.2	(12)	17.6	(7)	10.3	(27)	39.7	102.9
	대전/충청권	(72)	(21)	29.2	(16)	22.2	(6)	8.3	(2)	2.8	(27)	37.5	76.7
	광주/전라권	(93)	(16)	17.2	(16)	17.2	(11)	11.8	(9)	9.7	(41)	44.1	103.1
	강원, 제주	(33)	(5)	15.2	(9)	27.3	(5)	15.2	(2)	6.1	(12)	36.4	68.2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51)	(69)	45.7	(27)	17.9	(21)	13.9	(4)	2.6	(30)	19.9	47.6
	1~2년	(236)	(60)	25.4	(85)	36.0	(34)	14.4	(19)	8.1	(38)	16.1	47.8
	3~4년	(108)	(11)	10.2	(26)	24.1	(19)	17.6	(14)	13.0	(38)	35.2	87.0
	5~6년	(89)	(1)	1.1	(9)	10.1	(15)	16.9	(16)	18.0	(48)	53.9	109.2
	7년 이상	(128)	(2)	1.6	(0)	0.0	(7)	5.5	(9)	7.0	(110)	85.9	179.1
근무 형태	정규직	(219)	(30)	13.7	(43)	19.6	(43)	19.6	(24)	11.0	(79)	36.1	85.0
	비정규직	(493)	(113)	22.9	(104)	21.1	(53)	10.8	(38)	7.7	(185)	37.5	85.0

※ base :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7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의 37.1%가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11년 5개월(137.2개월)이었다.

[표 93]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	(1)	20.0	-	-	(1)	20.0	-	-	(3)	60.0	137.2
성별	남성	-	-	-	-	-	-	-	-	-	-	-	-
	여성	(5)	(1)	20.0	-	-	(1)	20.0	-	-	(3)	60.0	137.2
연령 별	20대	-	-	-	-	-	-	-	-	-	-	-	-
	30대	(3)	(1)	33.3	-	-	(1)	33.3	-	-	(1)	33.3	88.3
	40대	(2)	(0)	0.0	-	-	(0)	0.0	-	-	(2)	100.0	210.5
	50대	-	-	-	-	-	-	-	-	-	-	-	-
	60대 이상	-	-	-	-	-	-	-	-	-	-	-	-
거주지 별	수도권	(3)	(1)	33.3	-	-	(1)	33.3	-	-	(1)	33.3	88.3
	부산/경남권	-	-	-	-	-	-	-	-	-	-	-	-
	대구/경북권	-	-	-	-	-	-	-	-	-	-	-	-
	대전/충청권	(1)	(0)	0.0	-	-	(0)	0.0	-	-	(1)	100.0	180.0
	광주/전라권	(1)	(0)	0.0	-	-	(0)	0.0	-	-	(1)	100.0	241.0
	강원, 제주	-	-	-	-	-	-	-	-	-	-	-	-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1)	100.0	-	-	(0)	0.0	-	-	(0)	0.0	6.0
	1~2년	-	-	-	-	-	-	-	-	-	-	-	-
	3~4년	(2)	(0)	0.0	-	-	(1)	50.0	-	-	(1)	50.0	117.5
	5~6년	(2)	(0)	0.0	-	-	(0)	0.0	-	-	(2)	100.0	222.5
	7년 이상	-	-	-	-	-	-	-	-	-	-	-	-
근무 형태	정규직	(4)	(1)	25.0	-	-	(1)	25.0	-	-	(2)	50.0	126.5
	비정규직	(1)	(0)	0.0	-	-	(0)	0.0	-	-	(1)	100.0	180.0

※ base :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5)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의 대부분이 '7년 이상'(96.4%)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14년 10개월(178.4개월)이었다.

[표 94] [예술강사]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1)	(1)	0.9	-	-	(1)	0.9	(2)	1.8	(107)	96.4	178.4
성별	남성	(26)	(0)	0.0	-	-	(0)	0.0	(1)	3.8	(25)	96.2	219.3
	여성	(85)	(1)	1.2	-	-	(1)	1.2	(1)	1.2	(82)	96.5	165.8
연령 별	20대	-	-	-	-	-	-	-	-	-	-	-	-
	30대	(29)	(1)	3.4	-	-	(1)	3.4	(0)	0.0	(27)	93.1	136.7
	40대	(51)	(0)	0.0	-	-	(0)	0.0	(1)	2.0	(50)	98.0	168.6
	50대	(28)	(0)	0.0	-	-	(0)	0.0	(1)	3.6	(27)	96.4	225.7
	60대 이상	(3)	(0)	0.0	-	-	(0)	0.0	(0)	0.0	(3)	100.0	305.3
거주지 별	수도권	(40)	(0)	0.0	-	-	(0)	0.0	(0)	0.0	(40)	100.0	161.1
	부산/경남권	(25)	(0)	0.0	-	-	(0)	0.0	(0)	0.0	(25)	100.0	166.2
	대구/경북권	(8)	(0)	0.0	-	-	(0)	0.0	(1)	12.5	(7)	87.5	210.1
	대전/충청권	(16)	(0)	0.0	-	-	(0)	0.0	(0)	0.0	(16)	100.0	198.3
	광주/전라권	(17)	(0)	0.0	-	-	(1)	5.9	(1)	5.9	(15)	88.2	213.9
	강원, 제주	(5)	(1)	20.0	-	-	(0)	0.0	(0)	0.0	(4)	80.0	142.4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0)	0.0	-	-	(0)	0.0	(0)	0.0	(1)	100.0	132.0
	1~2년	-	-	-	-	-	-	-	-	-	-	-	-
	3~4년	(3)	(0)	0.0	-	-	(0)	0.0	(0)	0.0	(3)	100.0	107.0
	5~6년	(28)	(1)	3.6	-	-	(0)	0.0	(0)	0.0	(27)	96.4	157.1
	7년 이상	(79)	(0)	0.0	-	-	(1)	1.3	(2)	2.5	(76)	96.2	189.2
근무 형태	정규직	(24)	(0)	0.0	-	-	(1)	4.2	(2)	8.3	(21)	87.5	159.7
	비정규직	(87)	(1)	1.1	-	-	(0)	0.0	(0)	0.0	(86)	98.9	183.5

※ base :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11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의 51.6%가 2년 미만(1년 미만 25.5% + 1~2년 26.1%)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4년 6개월(54.3개월)이었다.

[표 95]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48)	(140)	25.5	(143)	26.1	(90)	16.4	(59)	10.8	(116)	21.2	54.3
성별	남성	(72)	(20)	27.8	(20)	27.8	(8)	11.1	(7)	9.7	(17)	23.6	57.8
	여성	(476)	(120)	25.2	(123)	25.8	(82)	17.2	(52)	10.9	(99)	20.8	53.8
연령 별	20대	(259)	(106)	40.9	(97)	37.5	(40)	15.4	(14)	5.4	(2)	0.8	20.2
	30대	(159)	(23)	14.5	(31)	19.5	(31)	19.5	(30)	18.9	(44)	27.7	60.1
	40대	(85)	(7)	8.2	(7)	8.2	(15)	17.6	(10)	11.8	(46)	54.1	105.7
	50대	(38)	(4)	10.5	(7)	18.4	(4)	10.5	(4)	10.5	(19)	50.0	123.7
	60대 이상	(7)	(0)	0.0	(1)	14.3	(0)	0.0	(1)	14.3	(5)	71.4	183.9
거주지 별	수도권	(263)	(54)	20.5	(73)	27.8	(50)	19.0	(32)	12.2	(54)	20.5	54.4
	부산/경남권	(82)	(34)	41.5	(19)	23.2	(8)	9.8	(9)	11.0	(12)	14.6	43.3
	대구/경북권	(53)	(11)	20.8	(11)	20.8	(11)	20.8	(6)	11.3	(14)	26.4	67.5
	대전/충청권	(54)	(21)	38.9	(15)	27.8	(6)	11.1	(2)	3.7	(10)	18.5	39.8
	광주/전라권	(71)	(16)	22.5	(16)	22.5	(10)	14.1	(8)	11.3	(21)	29.6	69.9
	강원, 제주	(25)	(4)	16.0	(9)	36.0	(5)	20.0	(2)	8.0	(5)	20.0	47.8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47)	(68)	46.3	(27)	18.4	(21)	14.3	(4)	2.7	(27)	18.4	41.6
	1~2년	(228)	(59)	25.9	(85)	37.3	(32)	14.0	(19)	8.3	(33)	14.5	45.5
	3~4년	(90)	(11)	12.2	(24)	26.7	(16)	17.8	(14)	15.6	(25)	27.8	70.8
	5~6년	(52)	(0)	0.0	(7)	13.5	(15)	28.8	(15)	28.8	(15)	28.8	78.9
	7년 이상	(31)	(2)	6.5	(0)	0.0	(6)	19.4	(7)	22.6	(16)	51.6	90.1
근무 형태	정규직	(177)	(28)	15.8	(42)	23.7	(39)	22.0	(22)	12.4	(46)	26.0	68.1
	비정규직	(371)	(112)	30.2	(101)	27.2	(51)	13.7	(37)	10.0	(70)	18.9	47.7

※ base :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54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79.2%가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17년 10개월(214.3개월)이었다.

[표 96]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8)	(1)	2.1	(4)	8.3	(4)	8.3	(1)	2.1	(38)	79.2	214.3
성별	남성	(28)	(0)	0.0	(4)	14.3	(4)	14.3	(1)	3.6	(19)	67.9	191.0
	여성	(20)	(1)	5.0	(0)	0.0	(0)	0.0	(0)	0.0	(19)	95.0	246.8
연령 별	20대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24.0
	30대	(6)	(0)	0.0	(1)	16.7	(2)	33.3	(0)	0.0	(3)	50.0	87.2
	40대	(11)	(1)	9.1	(2)	18.2	(1)	9.1	(0)	0.0	(7)	63.6	158.4
	50대	(10)	(0)	0.0	(0)	0.0	(1)	10.0	(0)	0.0	(9)	90.0	228.8
	60대 이상	(20)	(0)	0.0	(0)	0.0	(0)	0.0	(1)	5.0	(19)	95.0	285.4
거주지 별	수도권	(16)	(1)	6.3	(1)	6.3	(2)	12.5	(0)	0.0	(12)	75.0	248.4
	부산/경남권	(17)	(0)	0.0	(2)	11.8	(1)	5.9	(1)	5.9	(13)	76.5	203.7
	대구/경북권	(7)	(0)	0.0	(0)	0.0	(1)	14.3	(0)	0.0	(6)	85.7	248.0
	대전/충청권	(1)	(0)	0.0	(1)	100.0	(0)	0.0	(0)	0.0	(0)	0.0	24.0
	광주/전라권	(4)	(0)	0.0	(0)	0.0	(0)	0.0	(0)	0.0	(4)	100.0	186.0
	강원, 제주	(3)	(0)	0.0	(0)	0.0	(0)	0.0	(0)	0.0	(3)	100.0	114.3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	(0)	0.0	(0)	0.0	(0)	0.0	(0)	0.0	(2)	100.0	472.0
	1~2년	(8)	(1)	12.5	(0)	0.0	(2)	25.0	(0)	0.0	(5)	62.5	113.6
	3~4년	(13)	(0)	0.0	(2)	15.4	(2)	15.4	(0)	0.0	(9)	69.2	190.1
	5~6년	(7)	(0)	0.0	(2)	28.6	(0)	0.0	(1)	14.3	(4)	57.1	111.1
	7년 이상	(18)	(0)	0.0	(0)	0.0	(0)	0.0	(0)	0.0	(18)	100.0	287.9
근무 형태	정규직	(14)	(1)	7.1	(1)	7.1	(2)	14.3	(0)	0.0	(10)	71.4	158.4
	비정규직	(34)	(0)	0.0	(3)	8.8	(2)	5.9	(1)	2.9	(28)	82.4	237.3

※ base :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48)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32.2%가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6년 5개월(76.6개월)이었다. 예술전공자는 5년 미만(1년 미만 27.2%, 1~2년 30.4%, 3~4년 12.3%) 근무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무형문화재는 7년 이상 (77.2%) 근무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표 97]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81)	(134)	23.1	(146)	25.1	(64)	11.0	(50)	8.6	(187)	32.2	76.6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7)	(1)	14.3	(0)	0.0	(0)	0.0	(1)	14.3	(5)	71.4	116.9
	예술강사	(47)	(0)	0.0	(0)	0.0	(4)	8.5	(2)	4.3	(41)	87.2	184.8
	예술전공자	(470)	(128)	27.2	(143)	30.4	(58)	12.3	(44)	9.4	(97)	20.6	49.5
	국가무형문화재	(57)	(5)	8.8	(3)	5.3	(2)	3.5	(3)	5.3	(44)	77.2	206.1
성별	남성	(140)	(25)	17.9	(26)	18.6	(13)	9.3	(10)	7.1	(66)	47.1	106.0
	여성	(441)	(109)	24.7	(120)	27.2	(51)	11.6	(40)	9.1	(121)	27.4	67.2
연령 별	20대	(255)	(106)	41.6	(104)	40.8	(31)	12.2	(8)	3.1	(6)	2.4	19.1
	30대	(165)	(25)	15.2	(30)	18.2	(24)	14.5	(28)	17.0	(58)	35.2	66.6
	40대	(87)	(2)	2.3	(9)	10.3	(5)	5.7	(8)	9.2	(63)	72.4	149.5
	50대	(54)	(0)	0.0	(1)	1.9	(3)	5.6	(6)	11.1	(44)	81.5	201.5
	60대 이상	(20)	(1)	5.0	(2)	10.0	(1)	5.0	(0)	0.0	(16)	80.0	237.2
거주지 별	수도권	(315)	(85)	27.0	(89)	28.3	(33)	10.5	(25)	7.9	(83)	26.3	63.3
	부산/경남권	(81)	(17)	21.0	(19)	23.5	(4)	4.9	(9)	11.1	(32)	39.5	103.1
	대구/경북권	(44)	(7)	15.9	(10)	22.7	(5)	11.4	(2)	4.5	(20)	45.5	99.8
	대전/충청권	(50)	(13)	26.0	(12)	24.0	(7)	14.0	(5)	10.0	(13)	26.0	68.0
	광주/전라권	(71)	(10)	14.1	(10)	14.1	(14)	19.7	(7)	9.9	(30)	42.3	80.2
	강원, 제주	(20)	(2)	10.0	(6)	30.0	(1)	5.0	(2)	10.0	(9)	45.0	137.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33)	(70)	52.6	(26)	19.5	(10)	7.5	(5)	3.8	(22)	16.5	39.9
	1~2년	(211)	(49)	23.2	(81)	38.4	(25)	11.8	(20)	9.5	(36)	17.1	46.8
	3~4년	(101)	(12)	11.9	(30)	29.7	(20)	19.8	(7)	6.9	(32)	31.7	81.0
	5~6년	(64)	(2)	3.1	(8)	12.5	(5)	7.8	(16)	25.0	(33)	51.6	118.5
	7년 이상	(72)	(1)	1.4	(1)	1.4	(4)	5.6	(2)	2.8	(64)	88.9	188.1
근무 형태	정규직	(231)	(39)	16.9	(52)	22.5	(24)	10.4	(28)	12.1	(88)	38.1	88.0
	비정규직	(350)	(95)	27.1	(94)	26.9	(40)	11.4	(22)	6.3	(99)	28.3	69.1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58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의 71.4%가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9년 9개월(116.9개월)이었다.

[표 98]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	(1)	14.3	(0)	0.0	(0)	0.0	(1)	14.3	(5)	71.4	116.9
성별	남성	-	-	-	-	-	-	-	-	-	-	-	-
	여성	(7)	(1)	14.3	(0)	0.0	(0)	0.0	(1)	14.3	(5)	71.4	116.9
연령 별	20대	-	-	-	-	-	-	-	-	-	-	-	-
	30대	(2)	(1)	50.0	(0)	0.0	(0)	0.0	(0)	0.0	(1)	50.0	46.0
	40대	(3)	(0)	0.0	(0)	0.0	(0)	0.0	(1)	33.3	(2)	66.7	92.0
	50대	(2)	(0)	0.0	(0)	0.0	(0)	0.0	(0)	0.0	(2)	100.0	225.0
	60대 이상	-	-	-	-	-	-	-	-	-	-	-	-
거주지 별	수도권	(4)	(1)	25.0	(0)	0.0	(0)	0.0	(1)	25.0	(2)	50.0	131.0
	부산/경남권	-	-	-	-	-	-	-	-	-	-	-	-
	대구/경북권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84.0
	대전/충청권	-	-	-	-	-	-	-	-	-	-	-	-
	광주/전라권	(2)	(0)	0.0	(0)	0.0	(0)	0.0	(0)	0.0	(2)	100.0	105.0
	강원, 제주	-	-	-	-	-	-	-	-	-	-	-	-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	-	-	-	-	-	-	-	-	-	-	-
	1~2년	-	-	-	-	-	-	-	-	-	-	-	-
	3~4년	(2)	(1)	50.0	(0)	0.0	(0)	0.0	(0)	0.0	(1)	50.0	46.0
	5~6년	(4)	(0)	0.0	(0)	0.0	(0)	0.0	(1)	25.0	(3)	75.0	159.0
	7년 이상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90.0
근무 형태	정규직	(3)	(0)	0.0	(0)	0.0	(0)	0.0	(0)	0.0	(3)	100.0	178.0
	비정규직	(4)	(1)	25.0	(0)	0.0	(0)	0.0	(1)	25.0	(2)	50.0	71.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581)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의 87.2%가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15년 5개월(184.8개월)이었다. 특히 현재 비정규직인 예술강사가 '7년 이상'(97.1%) 근무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9]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7)	(0)	0.0	(0)	0.0	(4)	8.5	(2)	4.3	(41)	87.2	184.8
성별	남성	(12)	(0)	0.0	(0)	0.0	(1)	8.3	(0)	0.0	(11)	91.7	230.2
	여성	(35)	(0)	0.0	(0)	0.0	(3)	8.6	(2)	5.7	(30)	85.7	169.2
연령 별	20대	-	-	-	-	-	-	-	-	-	-	-	-
	30대	(10)	(0)	0.0	(0)	0.0	(3)	30.0	(0)	0.0	(7)	70.0	103.8
	40대	(19)	(0)	0.0	(0)	0.0	(1)	5.3	(1)	5.3	(17)	89.5	197.5
	50대	(17)	(0)	0.0	(0)	0.0	(0)	0.0	(1)	5.9	(16)	94.1	223.5
	60대 이상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96.0
거주지 별	수도권	(17)	(0)	0.0	(0)	0.0	(2)	11.8	(2)	11.8	(13)	76.5	154.1
	부산/경남권	(8)	(0)	0.0	(0)	0.0	(0)	0.0	(0)	0.0	(8)	100.0	200.9
	대구/경북권	(2)	(0)	0.0	(0)	0.0	(0)	0.0	(0)	0.0	(2)	100.0	240.0
	대전/충청권	(7)	(0)	0.0	(0)	0.0	(1)	14.3	(0)	0.0	(6)	85.7	229.9
	광주/전라권	(9)	(0)	0.0	(0)	0.0	(1)	11.1	(0)	0.0	(8)	88.9	128.8
	강원, 제주	(4)	(0)	0.0	(0)	0.0	(0)	0.0	(0)	0.0	(4)	100.0	302.5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108.0
	1~2년	-	-	-	-	-	-	-	-	-	-	-	-
	3~4년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96.0
	5~6년	(2)	(0)	0.0	(0)	0.0	(1)	50.0	(0)	0.0	(1)	50.0	82.0
	7년 이상	(43)	(0)	0.0	(0)	0.0	(3)	7.0	(2)	4.7	(38)	88.4	193.4
근무 형태	정규직	(13)	(0)	0.0	(0)	0.0	(3)	23.1	(2)	15.4	(8)	61.5	149.3
	비정규직	(34)	(0)	0.0	(0)	0.0	(1)	2.9	(0)	0.0	(33)	97.1	198.4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4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의 57.6%가 ‘3년 미만’(1년 미만 27.2% + 1~2년 30.4%)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4년 2개월(49.5개월)이었다. 특히 현재 정규직인 예술전공자는 ‘5년 이상’(5~6년 13.2%, 7년 이상 28.0%) 근무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0]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70)	(128)	27.2	(143)	30.4	(58)	12.3	(44)	9.4	(97)	20.6	49.5
성별	남성	(99)	(23)	23.2	(25)	25.3	(12)	12.1	(10)	10.1	(29)	<u>29.3</u>	57.6
	여성	(371)	(105)	28.3	(118)	31.8	(46)	12.4	(34)	9.2	(68)	18.3	47.3
연령 별	20대	(255)	(106)	<u>41.6</u>	(104)	<u>40.8</u>	(31)	12.2	(8)	3.1	(6)	2.4	19.1
	30대	(140)	(21)	15.0	(30)	21.4	(21)	<u>15.0</u>	(26)	<u>18.6</u>	(42)	<u>30.0</u>	59.3
	40대	(47)	(1)	2.1	(7)	14.9	(4)	8.5	(6)	<u>12.8</u>	(29)	<u>61.7</u>	116.0
	50대	(24)	(0)	0.0	(1)	4.2	(2)	8.3	(4)	16.7	(17)	70.8	156.8
	60대 이상	(4)	(0)	0.0	(1)	25.0	(0)	0.0	(0)	0.0	(3)	75.0	213.5
거주지 별	수도권	(271)	(81)	<u>29.9</u>	(89)	<u>32.8</u>	(29)	10.7	(21)	7.7	(51)	18.8	44.7
	부산/경남권	(55)	(16)	<u>29.1</u>	(17)	30.9	(4)	7.3	(8)	<u>14.5</u>	(10)	18.2	49.1
	대구/경북권	(35)	(7)	20.0	(10)	28.6	(5)	<u>14.3</u>	(2)	5.7	(11)	<u>31.4</u>	62.5
	대전/충청권	(41)	(13)	31.7	(12)	29.3	(6)	<u>14.6</u>	(4)	9.8	(6)	14.6	38.1
	광주/전라권	(54)	(9)	16.7	(9)	16.7	(13)	<u>24.1</u>	(7)	<u>13.0</u>	(16)	<u>29.6</u>	68.5
	강원, 제주	(14)	(2)	14.3	(6)	42.9	(1)	7.1	(2)	14.3	(3)	21.4	70.7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28)	(69)	<u>53.9</u>	(25)	19.5	(10)	7.8	(5)	3.9	(19)	14.8	35.1
	1~2년	(199)	(49)	24.6	(80)	<u>40.2</u>	(25)	12.6	(18)	9.0	(27)	13.6	38.8
	3~4년	(84)	(9)	10.7	(30)	<u>35.7</u>	(18)	<u>21.4</u>	(7)	8.3	(20)	<u>23.8</u>	60.5
	5~6년	(42)	(1)	2.4	(8)	19.0	(4)	9.5	(14)	<u>33.3</u>	(15)	<u>35.7</u>	79.8
	7년 이상	(17)	(0)	0.0	(0)	0.0	(1)	5.9	(0)	0.0	(16)	94.1	153.3
근무 형태	정규직	(189)	(39)	20.6	(51)	27.0	(21)	11.1	(25)	<u>13.2</u>	(53)	<u>28.0</u>	60.4
	비정규직	(281)	(89)	<u>31.7</u>	(92)	<u>32.7</u>	(37)	13.2	(19)	6.8	(44)	15.7	42.1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47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77.2%가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17년 2개월(206.1개월)이었다.

[표 101]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7)	(5)	8.8	(3)	5.3	(2)	3.5	(3)	5.3	(44)	77.2	206.1
성별	남성	(29)	(2)	6.9	(1)	3.4	(0)	0.0	(0)	0.0	(26)	89.7	220.0
	여성	(28)	(3)	10.7	(2)	7.1	(2)	7.1	(3)	10.7	(18)	64.3	191.8
연령 별	20대	-	-	-	-	-	-	-	-	-	-	-	-
	30대	(13)	(3)	23.1	(0)	0.0	(0)	0.0	(2)	15.4	(8)	61.5	120.2
	40대	(18)	(1)	5.6	(2)	11.1	(0)	0.0	(0)	0.0	(15)	83.3	195.8
	50대	(11)	(0)	0.0	(0)	0.0	(1)	9.1	(1)	9.1	(9)	81.8	260.8
	60대 이상	(15)	(1)	6.7	(1)	6.7	(1)	6.7	(0)	0.0	(12)	80.0	252.9
거주지 별	수도권	(23)	(3)	13.0	(0)	0.0	(2)	8.7	(1)	4.3	(17)	73.9	203.0
	부산/경남권	(18)	(1)	5.6	(2)	11.1	(0)	0.0	(1)	5.6	(14)	77.8	224.8
	대구/경북권	(6)	(0)	0.0	(0)	0.0	(0)	0.0	(0)	0.0	(6)	100.0	273.3
	대전/충청권	(2)	(0)	0.0	(0)	0.0	(0)	0.0	(1)	50.0	(1)	50.0	113.5
	광주/전라권	(6)	(1)	16.7	(1)	16.7	(0)	0.0	(0)	0.0	(4)	66.7	104.3
	강원, 제주	(2)	(0)	0.0	(0)	0.0	(0)	0.0	(0)	0.0	(2)	100.0	269.5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4)	(1)	25.0	(1)	25.0	(0)	0.0	(0)	0.0	(2)	50.0	177.3
	1~2년	(12)	(0)	0.0	(1)	8.3	(0)	0.0	(2)	16.7	(9)	75.0	179.8
	3~4년	(14)	(2)	14.3	(0)	0.0	(2)	14.3	(0)	0.0	(10)	71.4	208.2
	5~6년	(16)	(1)	6.3	(0)	0.0	(0)	0.0	(1)	6.3	(14)	87.5	214.8
	7년 이상	(11)	(1)	9.1	(1)	9.1	(0)	0.0	(0)	0.0	(9)	81.8	230.1
근무 형태	정규직	(26)	(0)	0.0	(1)	3.8	(0)	0.0	(1)	3.8	(24)	92.3	247.6
	비정규직	(31)	(5)	16.1	(2)	6.5	(2)	6.5	(2)	6.5	(20)	64.5	171.3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5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타 분야 종사자의 37.3%가 ‘1년 미만’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46.4개월이었다. 특히 예술전공자는 3년 미만(1년 미만 39.4%, 1~2년 33.1%) 종사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요건별 타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은 사례수가 적어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 102] 타 분야 종사자 근무 기간

		사례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평균 개월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64)	(173)	37.3	(146)	31.5	(50)	10.8	(26)	5.6	(69)	14.9	46.4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36.0
	예술강사	(15)	(2)	13.3	(3)	20.0	(2)	13.3	(1)	6.7	(7)	46.7	86.1
	예술전공자	(432)	(170)	39.4	(143)	33.1	(44)	10.2	(24)	5.6	(51)	11.8	40.1
	국가무형문화재	(16)	(1)	6.3	(0)	0.0	(3)	18.8	(1)	6.3	(11)	68.8	178.9
성별	남성	(102)	(30)	29.4	(28)	27.5	(11)	10.8	(6)	5.9	(27)	26.5	77.3
	여성	(362)	(143)	39.5	(118)	32.6	(39)	10.8	(20)	5.5	(42)	11.6	37.7
연령 별	20대	(264)	(135)	51.1	(102)	38.6	(21)	8.0	(4)	1.5	(2)	0.8	14.7
	30대	(108)	(28)	25.9	(33)	30.6	(21)	19.4	(15)	13.9	(11)	10.2	35.1
	40대	(40)	(4)	10.0	(7)	17.5	(5)	12.5	(3)	7.5	(21)	52.5	107.1
	50대	(41)	(4)	9.8	(4)	9.8	(2)	4.9	(2)	4.9	(29)	70.7	189.4
	60대 이상	(11)	(2)	18.2	(0)	0.0	(1)	9.1	(2)	18.2	(6)	54.5	164.6
거주지 별	수도권	(276)	(114)	41.3	(92)	33.3	(27)	9.8	(13)	4.7	(30)	10.9	35.2
	부산/경남권	(54)	(14)	25.9	(20)	37.0	(5)	9.3	(2)	3.7	(13)	24.1	62.3
	대구/경북권	(26)	(7)	26.9	(9)	34.6	(4)	15.4	(2)	7.7	(4)	15.4	63.0
	대전/충청권	(49)	(19)	38.8	(13)	26.5	(6)	12.2	(2)	4.1	(9)	18.4	64.4
	광주/전라권	(49)	(16)	32.7	(10)	20.4	(7)	14.3	(6)	12.2	(10)	20.4	61.2
	강원, 제주	(10)	(3)	30.0	(2)	20.0	(1)	10.0	(1)	10.0	(3)	30.0	65.5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14)	(60)	52.6	(27)	23.7	(6)	5.3	(2)	1.8	(19)	16.7	43.4
	1~2년	(204)	(86)	42.2	(76)	37.3	(10)	4.9	(6)	2.9	(26)	12.7	40.7
	3~4년	(76)	(23)	30.3	(27)	35.5	(18)	23.7	(2)	2.6	(6)	7.9	34.5
	5~6년	(41)	(2)	4.9	(11)	26.8	(12)	29.3	(11)	26.8	(5)	12.2	67.2
	7년 이상	(29)	(2)	6.9	(5)	17.2	(4)	13.8	(5)	17.2	(13)	44.8	100.1
근무 형태	정규직	(286)	(88)	30.8	(102)	35.7	(32)	11.2	(21)	7.3	(43)	15.0	53.4
	비정규직	(178)	(85)	47.8	(44)	24.7	(18)	10.1	(5)	2.8	(26)	14.6	35.1

※ base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타 분야 종사자(n=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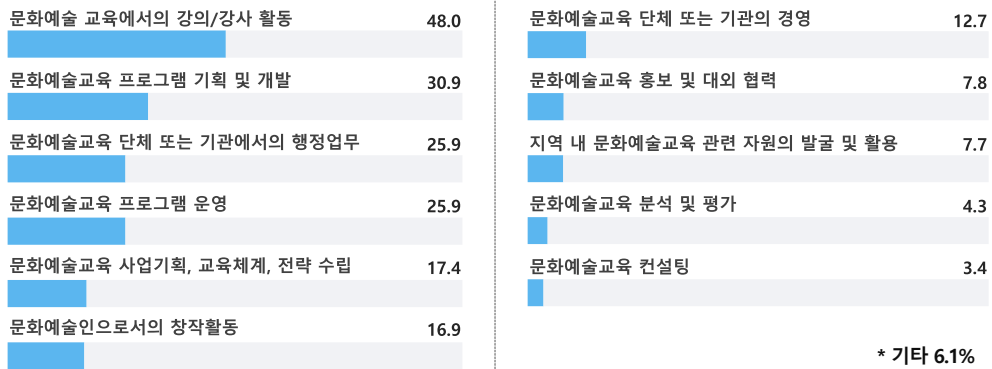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3) 주 담당 업무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주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48.0%)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30.9%),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각각 25.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66.9%)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1.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28.7%),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24.6%) 및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16.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 담당 업무

(n=1,293, 복수응답, 단위 : %)



[표 103]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 담당 업무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1,293)	48.0	30.9	25.9	25.9	17.4	16.9	12.7	7.8	7.7	4.3	3.4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712)	<u>66.9</u>	32.9	23.6	<u>31.2</u>	16.0	10.5	9.6	8.0	8.4	6.2	3.5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581)	25.0	28.6	<u>28.7</u>	19.4	19.1	<u>24.6</u>	<u>16.5</u>	7.6	6.7	1.9	3.3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③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⑥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⑦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⑧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⑨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⑩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⑪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base :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n=1,293), 복수응답

※ 기타 : 전체 6.1%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의 주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 교육체계, 전략 수립’(58.3%),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50.0%)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4]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사례 수 (명)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전 체		(12)	58.3	50.0	33.3	25.0	25.0	25.0	16.7	16.7	8.3	8.3	8.3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5)	60.0	60.0	60.0	60.0	60.0	60.0	40.0	40.0	20.0	20.0	20.0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7)	57.1	42.9	14.3	0.0	0.0	0.0	0.0	0.0	0.0	0.0	0.0
①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②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③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⑥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⑦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⑧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⑨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⑩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⑪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base :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n=13), 복수응답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의 주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83.5%),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22.8%)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91.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각각 31.9%)이 높았다.

[표 105] [예술강사]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사례 수 (명)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전 체		(158)	83.5	22.8	19.6	18.4	14.6	13.9	10.1	8.2	4.4	4.4	2.5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111)	<u>91.9</u>	18.9	14.4	17.1	11.7	9.0	6.3	7.2	3.6	3.6	2.7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47)	63.8	<u>31.9</u>	<u>31.9</u>	21.3	<u>21.3</u>	<u>25.5</u>	<u>19.1</u>	10.6	6.4	6.4	2.1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③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⑥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⑦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⑨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⑩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⑪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base :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강사(n=158), 복수응답

※ 기타 4.4%는 표에서 제외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의 주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42.8%),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33.2%)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63.0%),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36.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30.2%)와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20.9%)이 높았다.

[표 106]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주요 업무

		사례 수 (명)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전 체		(1,018)	42.8	33.2	28.6	27.6	16.9	14.1	11.1	8.6	6.4	4.2	2.9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548)	63.0	36.7	27.2	34.5	16.8	8.4	8.2	9.7	7.5	6.6	3.1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470)	19.4	29.1	30.2	19.6	17.0	20.9	14.5	7.4	5.1	1.5	2.8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③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⑥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⑦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⑧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⑨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⑩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⑪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base :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전공자(n=1,018), 복수응답

※ 기타 7.0%는 표에서 제외

특히,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의 경우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52.6%),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전략 수립’(29.8%),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14.0%) 이 높았다.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105)	49.5	40.0	25.7	21.9	21.0	21.0	21.0	17.1	7.6	3.8	2.9
기관· 시설·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48)	58.3	25.0	22.9	12.5	18.8	22.9	18.8	16.7	0.0	2.1	4.2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57)	42.1	52.6	28.1	29.8	22.8	19.3	22.8	17.5	14.0	5.3	1.8
<div> <div>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div> <div>②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div> <div>③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div> <div>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div> <div>⑤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div> <div>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div> <div>⑦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div> <div>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div> <div>⑨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div> <div>⑩ 문화예술교육 컨설팅</div> <div>⑪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div> </div>													

※ 기타 1.0%는 표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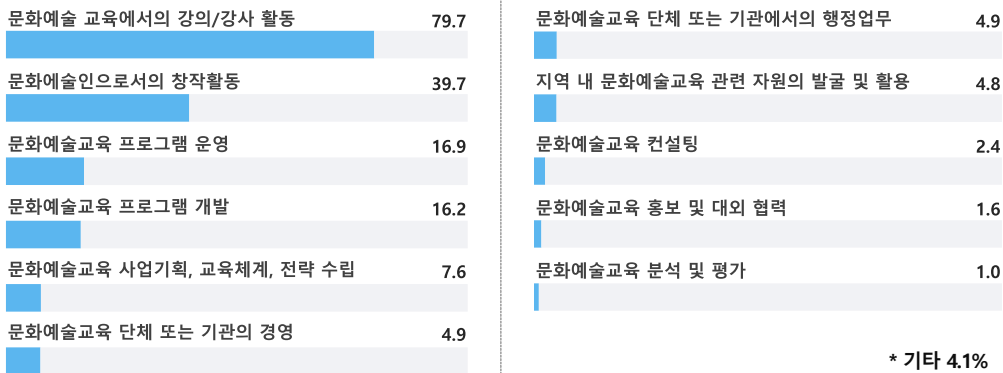
## 라. 프리랜서

### 1) 주 담당 업무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의 주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79.7%)’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39.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16.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90.1%)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18.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종사자의 경우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56.1%)과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6.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의 주 담당 업무

(n=2,072, 복수응답, 단위 : %)



[표 108]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주 담당 업무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2,072)	79.7	39.7	16.9	16.2	7.6	7.5	4.9	4.8	2.4	1.6	1.0
프리 랜서	문화예술 교육 분야	(1,428)	90.1	32.3	18.3	16.5	7.4	6.9	4.2	5.3	2.7	1.2	1.2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644)	56.8	56.1	14.0	15.7	8.1	8.9	6.4	3.9	1.7	2.5	0.6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⑥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⑦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⑨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⑩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⑪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 base : 문화예술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자격소지자(n=2,309), 복수응답, 기타 9.2%는 표에서 제외

문화예술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의 주요 업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9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35.3%) 등의 순이었다.

[표 109]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주 담당 업무

		사례수 (명)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전 제		(17)	94.1	35.3	29.4	29.4	23.5	23.5	17.6	11.8	11.8	5.9
프리 랜서	문화예술 교육 분야	(15)	93.3	40.0	33.3	33.3	26.7	26.7	13.3	13.3	13.3	6.7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2)	10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③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⑥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⑧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⑨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⑩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base : 문화예술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고졸/비전공자(n=15), 복수응답, 기타 5.9%는 표에서 제외

문화예술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이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종사자의 경우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43.9%),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21.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15.2%)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0] [예술강사]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종사자 주 담당 업무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652)	91.7	37.7	17.6	16.9	9.8	9.0	7.1	4.8	3.8	2.5	2.3
프리 랜서	문화예술 교육 분야	(520)	94.8	36.2	16.7	16.3	8.5	8.7	7.1	4.0	3.8	2.5	2.1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132)	79.5	43.9	21.2	18.9	15.2	10.6	6.8	7.6	3.8	2.3	3.0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base : 문화예술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n=652), 복수응답, 기타 1.5%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87.0%)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18.4%)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58.1%)을 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89.4%)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25.5%)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70.2%)을 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151)	79.5	51.0	18.5	14.6	7.9	7.9	6.6	5.3	1.3	0.7	0.7
프리랜서	문화예술 교육 분야	(94)	89.4	39.4	25.5	12.8	7.4	9.6	7.4	3.2	2.1	1.1	1.1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57)	63.2	70.2	7.0	17.5	8.8	5.3	5.3	8.8	0.0	0.0	0.0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⑤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⑥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⑦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⑧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⑨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⑩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⑪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2) 예술강사 활동 영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프리랜서의 58.4%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이며, 54.6%는 ‘민간영역(문화센터, 기관, 학원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는 예술강사(91.1%), 30대(72.1%)와 40대(70.2%), 자격취득 기간이 5년 이상(5~6년 64.7%, 7년 이상 83.9%)인 소지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는 국가무형문화재(74.4%)와 예술전공자(70.4%), 20대(81.0%)와 60대 이상(71.6%), 자격취득 기간이 5년 미만(1년 미만 75.3%, 1~2년 76.3%, 3~4년 65.4%)인 소지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한 기간은 평균 9년 5개월(113.0개월)이며,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8년 1개월(97.5개월)로 비슷했다.

[표 11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명	%	평균 (개월)	명	%	평균 (개월)
전 체		(1,717)	(1,002)	58.4	113.0	(937)	54.6	97.5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7)	(8)	47.1	89.1	(13)	76.5	111.9
	예술강사	(607)	(553)	<u>91.1</u>	151.9	(150)	24.7	168.6
	예술전공자	(968)	(394)	40.7	57.3	(681)	<u>70.4</u>	68.4
	국가무형문화재	(125)	(47)	37.6	125.1	(93)	<u>74.4</u>	193.7
성별	남성	(262)	(143)	54.6	132.4	(160)	61.1	114.9
	여성	(1,455)	(859)	59.0	109.7	(777)	53.4	93.9
연령 별	20대	(389)	(114)	29.3	21.1	(315)	<u>81.0</u>	29.1
	30대	(419)	(302)	<u>72.1</u>	99.6	(187)	44.6	82.2
	40대	(507)	(356)	<u>70.2</u>	132.9	(211)	41.6	134.1
	50대	(314)	(193)	61.5	141.8	(161)	51.3	165.4
	60대 이상	(88)	(37)	42.0	162.6	(63)	<u>71.6</u>	188.5
거주지 별	수도권	(787)	(422)	53.6	103.6	(457)	58.1	85.2
	부산/경남권	(254)	(161)	<u>63.4</u>	129.3	(124)	48.8	118.9
	대구/경북권	(162)	(84)	51.9	112.3	(94)	<u>58.0</u>	92.6
	대전/충청권	(207)	(141)	<u>68.1</u>	112.0	(109)	52.7	90.0
	광주/전라권	(239)	(152)	<u>63.6</u>	119.3	(119)	49.8	131.5
	강원, 제주	(68)	(42)	61.8	125.8	(34)	50.0	102.7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27)	(85)	37.4	44.4	(171)	<u>75.3</u>	55.9
	1~2년	(346)	(120)	34.7	41.2	(264)	<u>76.3</u>	57.7
	3~4년	(254)	(115)	45.3	76.0	(166)	<u>65.4</u>	84.2
	5~6년	(337)	(218)	<u>64.7</u>	112.5	(159)	47.2	135.9
	7년 이상	(553)	(464)	<u>83.9</u>	153.4	(177)	32.0	175.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프리랜서(n=1,717),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고졸/비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예술강사의 76.5%는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이며, 47.1%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로 나타났다.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9년 4개월(111.9개월)이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한 기간은 평균 7년 5개월(89.1개월)로 비슷했다.

[표 114]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명	%	평균 (개월)	명	%	평균 (개월)
전 체		(17)	(8)	47.1	89.1	(13)	76.5	111.9
성별	남성	(5)	(3)	60.0	120.0	(4)	80.0	134.0
	여성	(12)	(5)	41.7	70.6	(9)	75.0	102.1
연령별	20대	-	-	-	-	-	-	-
	30대	(2)	(1)	50.0	84.0	(1)	50.0	111.0
	40대	(6)	(3)	50.0	54.3	(4)	66.7	65.8
	50대	(6)	(3)	50.0	127.3	(5)	83.3	115.0
	60대 이상	(3)	(1)	33.3	84.0	(3)	100.0	168.7
거주지별	수도권	(7)	(3)	42.9	70.3	(5)	71.4	59.0
	부산/경남권	-	-	-	-	-	-	-
	대구/경북권	(2)	(2)	100.0	65.0	(2)	100.0	53.0
	대전/충청권	(2)	(1)	50.0	240.0	(2)	100.0	185.0
	광주/전라권	(5)	(2)	40.0	66.0	(3)	60.0	176.0
	강원, 제주	(1)	(0)	0.0	0.0	(1)	100.0	156.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	-	-	-	-	-	-
	1~2년	-	-	-	-	-	-	-
	3~4년	(4)	(1)	25.0	36.0	(3)	75.0	78.3
	5~6년	(8)	(4)	50.0	104.5	(8)	100.0	107.9
	7년 이상	(5)	(3)	60.0	86.3	(2)	40.0	178.5

※ base : 고졸/비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프리랜서(n=17)



예술강사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91.1%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이며, 24.7%는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로 나타났다.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14년 1개월(168.6개월)이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한 기간은 평균 12년 8개월(151.9개월)로 비슷했다.

[표 115]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명	%	평균 (개월)	명	%	평균 (개월)
전 체		(607)	(553)	91.1	151.9	(150)	24.7	168.6
성별	남성	(100)	(84)	84.0	163.5	(38)	38.0	164.2
	여성	(507)	(469)	92.5	149.9	(112)	22.1	170.2
연령별	20대	-	-	-	-	-	-	-
	30대	(167)	(156)	93.4	132.8	(42)	25.1	124.8
	40대	(288)	(257)	89.2	153.4	(72)	25.0	160.4
	50대	(130)	(121)	93.1	169.0	(30)	23.1	237.1
	60대 이상	(22)	(19)	86.4	179.9	(6)	27.3	232.3
거주지별	수도권	(220)	(208)	94.5	149.9	(43)	19.5	168.2
	부산/경남권	(116)	(107)	92.2	152.0	(27)	23.3	168.7
	대구/경북권	(50)	(43)	86.0	153.7	(11)	22.0	181.9
	대전/충청권	(85)	(78)	91.8	153.5	(27)	31.8	161.1
	광주/전라권	(101)	(87)	86.1	156.4	(32)	31.7	171.3
	강원, 제주	(35)	(30)	85.7	146.0	(10)	28.6	167.2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0)	0.0	0.0	(1)	100.0	60.0
	1~2년	(2)	(2)	100.0	154.0	(0)	0.0	0.0
	3~4년	(28)	(27)	96.4	119.1	(2)	7.1	168.5
	5~6년	(136)	(121)	89.0	134.0	(34)	25.0	150.4
	7년 이상	(440)	(403)	91.6	159.5	(113)	25.7	175.1

※ base : 예술강사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프리랜서(n=607),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70.4%는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이며, 40.7%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로 나타났다. 자격취득 기간별로 살펴보면, 취득 기간이 짧을수록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5년 8개월(68.4개월)이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한 기간은 평균 4년 9개월(57.3개월)로 비슷했다.

[표 116]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명	%	평균 (개월)	명	%	평균 (개월)
전 체		(968)	(394)	40.7	57.3	(681)	70.4	68.4
성별	남성	(120)	(41)	34.2	69.1	(92)	<u>76.7</u>	79.2
	여성	(848)	(353)	41.6	55.9	(589)	69.5	66.7
연령별	20대	(386)	(112)	29.0	21.3	(314)	<u>81.3</u>	29.1
	30대	(234)	(134)	<u>57.3</u>	61.2	(136)	58.1	67.6
	40대	(187)	(84)	<u>44.9</u>	72.8	(118)	63.1	114.1
	50대	(131)	(56)	<u>42.7</u>	89.3	(89)	67.9	124.9
	60대 이상	(30)	(8)	26.7	108.8	(24)	<u>80.0</u>	152.5
거주지별	수도권	(491)	(188)	38.3	52.0	(356)	<u>72.5</u>	59.4
	부산/경남권	(119)	(46)	38.7	70.6	(83)	69.7	79.6
	대구/경북권	(100)	(36)	36.0	58.0	(73)	<u>73.0</u>	67.8
	대전/충청권	(110)	(55)	<u>50.0</u>	50.6	(75)	68.2	56.9
	광주/전라권	(119)	(58)	<u>48.7</u>	67.7	(73)	61.3	112.7
	강원, 제주	(29)	(11)	37.9	68.2	(21)	72.4	65.3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18)	(80)	36.7	43.7	(167)	<u>76.6</u>	51.0
	1~2년	(328)	(116)	35.4	37.7	(249)	<u>75.9</u>	53.7
	3~4년	(203)	(81)	39.9	56.6	(145)	71.4	72.9
	5~6년	(150)	(77)	<u>51.3</u>	78.7	(87)	58.0	110.9
	7년 이상	(69)	(40)	<u>58.0</u>	101.5	(33)	47.8	134.9

※ base : 예술전공자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프리랜서(n=968),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국가무형문화재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74.4%는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이며, 37.6%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영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16년 2개월(193.7개월)이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한 기간은 평균 10년 5개월(125.1개월)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11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의 중인 예술강사 활동영역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명	%	평균 (개월)	명	%	평균 (개월)
전 체		(125)	(47)	37.6	125.1	(93)	74.4	193.7
성별	남성	(37)	(15)	40.5	133.7	(26)	70.3	166.2
	여성	(88)	(32)	36.4	121.2	(67)	76.1	204.4
연령별	20대	(3)	(2)	66.7	10.5	(1)	33.3	42.0
	30대	(16)	(11)	68.8	98.6	(8)	50.0	102.8
	40대	(26)	(12)	46.2	133.9	(17)	65.4	177.1
	50대	(47)	(13)	27.7	117.2	(37)	78.7	211.6
	60대 이상	(33)	(9)	27.3	182.8	(30)	90.9	210.4
거주지별	수도권	(69)	(23)	33.3	111.0	(53)	76.8	193.5
	부산/경남권	(19)	(8)	42.1	163.5	(14)	73.7	255.9
	대구/경북권	(10)	(3)	30.0	202.7	(8)	80.0	205.8
	대전/충청권	(10)	(7)	70.0	113.3	(5)	50.0	164.0
	광주/전라권	(14)	(5)	35.7	92.8	(11)	78.6	128.8
	강원, 제주	(3)	(1)	33.3	156.0	(2)	66.7	147.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8)	(5)	62.5	56.0	(3)	37.5	323.0
	1~2년	(16)	(2)	12.5	134.5	(15)	93.8	123.3
	3~4년	(19)	(6)	31.6	151.7	(16)	84.2	176.8
	5~6년	(43)	(16)	37.2	114.0	(30)	69.8	199.6
	7년 이상	(39)	(18)	46.2	144.4	(29)	74.4	220.1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프리랜서(n=125),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5. 자격취득 동기 및 준비과정

### 가. 자격취득 기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간은 '3년 미만'이 56.0%(1년 미만 21.8% + 1~2년 34.3%) 나타났으며, '3년 이상'은 44.0%(3~4년 15.8% + 5~6년 12.3% + 7년 이상 15.8%)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자격취득 기간을 살펴보면, 3년 미만(1년 미만 27.2%, 1~2년 42.2%)은 예술전공자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3년 이상은 고졸/비전공자(3~4년 27.0%, 5~6년 41.3%, 7년 이상 23.8%)와 국가무형문화재(3~4년 20.3%, 5~6년 23.3%, 7년 이상 28.6%)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18] 자격증 취득 기간

		사례 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6,205)	(1,350)	21.8	(2,127)	34.3	(982)	15.8	(765)	12.3	(981)	15.8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63)	(1)	1.6	(4)	6.3	(17)	27.0	(26)	41.3	(15)	23.8
	예술강사	(922)	(3)	0.3	(3)	0.3	(46)	5.0	(193)	20.9	(677)	73.4
	예술전공자	(4,846)	(1,317)	27.2	(2,045)	42.2	(843)	17.4	(459)	9.5	(182)	3.8
	국가무형문화재	(374)	(29)	7.8	(75)	20.1	(76)	20.3	(87)	23.3	(107)	28.6
성별	남성	(1,189)	(247)	20.8	(407)	34.2	(174)	14.6	(147)	12.4	(214)	18.0
	여성	(5,016)	(1,103)	22.0	(1,720)	34.3	(808)	16.1	(618)	12.3	(767)	15.3
연령별	20대	(2,698)	(870)	32.2	(1,368)	50.7	(367)	13.6	(86)	3.2	(7)	0.3
	30대	(1,363)	(232)	17.0	(361)	26.5	(250)	18.3	(271)	19.9	(249)	18.3
	40대	(1,104)	(120)	10.9	(197)	17.8	(168)	15.2	(210)	19.0	(409)	37.0
	50대	(744)	(94)	12.6	(151)	20.3	(130)	17.5	(135)	18.1	(234)	31.5
	60대 이상	(296)	(34)	11.5	(50)	16.9	(67)	22.6	(63)	21.3	(82)	27.7
거주지 별	수도권	(3,308)	(785)	23.7	(1,268)	38.3	(521)	15.7	(349)	10.6	(385)	11.6
	부산/경남권	(827)	(163)	19.7	(231)	27.9	(131)	15.8	(123)	14.9	(179)	21.6
	대구/경북권	(557)	(121)	21.7	(177)	31.8	(89)	16.0	(77)	13.8	(93)	16.7
	대전/충청권	(610)	(133)	21.8	(209)	34.3	(86)	14.1	(64)	10.5	(118)	19.3
	광주/전라권	(722)	(124)	17.2	(202)	28.0	(121)	16.8	(111)	15.4	(164)	22.7
	강원, 제주	(181)	(24)	13.3	(40)	22.1	(34)	18.8	(41)	22.7	(42)	23.2

※ base : 전체(n=6,20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고졸/비전공자의 자격증 취득 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이 65.1%(5~6년 41.3% + 7년 이상 23.8%)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은 34.9%(1년 미만 1.6% + 1~2년 6.3% + 3~4년 27.0%)로 나타났다.

[표 119]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취득 기간

		사례 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63)	(1)	1.6	(4)	6.3	(17)	27.0	(26)	41.3	(15)	23.8
성별	남성	(11)	(0)	0.0	(2)	18.2	(2)	18.2	(5)	45.5	(2)	18.2
	여성	(52)	(1)	1.9	(2)	3.8	(15)	28.8	(21)	40.4	(13)	25.0
연령별	20대	(1)	(0)	0.0	(0)	0.0	(0)	0.0	(0)	0.0	(1)	100.0
	30대	(13)	(1)	7.7	(1)	7.7	(8)	61.5	(2)	15.4	(1)	7.7
	40대	(26)	(0)	0.0	(3)	11.5	(6)	23.1	(12)	46.2	(5)	19.2
	50대	(13)	(0)	0.0	(0)	0.0	(2)	15.4	(6)	46.2	(5)	38.5
	60대 이상	(10)	(0)	0.0	(0)	0.0	(1)	10.0	(6)	60.0	(3)	30.0
거주지 별	수도권	(36)	(1)	2.8	(3)	8.3	(10)	27.8	(13)	36.1	(9)	25.0
	부산/경남권	(4)	(0)	0.0	(1)	25.0	(1)	25.0	(1)	25.0	(1)	25.0
	대구/경북권	(4)	(0)	0.0	(0)	0.0	(1)	25.0	(3)	75.0	(0)	0.0
	대전/충청권	(4)	(0)	0.0	(0)	0.0	(2)	50.0	(2)	50.0	(0)	0.0
	광주/전라권	(12)	(0)	0.0	(0)	0.0	(2)	16.7	(6)	50.0	(4)	33.3
	강원, 제주	(3)	(0)	0.0	(0)	0.0	(1)	33.3	(1)	33.3	(1)	33.3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63)

예술강사의 자격증 취득 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이 94.4%(5~6년 20.9% + 7년 이상 73.4%)로 대부분이었다.

[표 120] [예술강사] 자격증 취득 기간

		사례 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922)	(3)	0.3	(3)	0.3	(46)	5.0	(193)	20.9	(677)	73.4
성별	남성	(172)	(0)	0.0	(0)	0.0	(5)	2.9	(40)	23.3	(127)	73.8
	여성	(750)	(3)	0.4	(3)	0.4	(41)	5.5	(153)	20.4	(550)	73.3
연령별	20대	—	—	—	—	—	—	—	—	—	—	—
	30대	(252)	(2)	0.8	(2)	0.8	(14)	5.6	(77)	<u>30.6</u>	(157)	62.3
	40대	(430)	(0)	0.0	(0)	0.0	(25)	5.8	(75)	17.4	(330)	<u>76.7</u>
	50대	(206)	(0)	0.0	(0)	0.0	(7)	3.4	(35)	17.0	(164)	<u>79.6</u>
	60대 이상	(34)	(1)	2.9	(1)	2.9	(0)	0.0	(6)	17.6	(26)	76.5
거주지 별	수도권	(333)	(1)	0.3	(3)	0.9	(20)	6.0	(66)	19.8	(243)	73.0
	부산/경남권	(177)	(1)	0.6	(0)	0.0	(8)	4.5	(41)	23.2	(127)	71.8
	대구/경북권	(82)	(0)	0.0	(0)	0.0	(4)	4.9	(19)	23.2	(59)	72.0
	대전/충청권	(124)	(0)	0.0	(0)	0.0	(3)	2.4	(23)	18.5	(98)	<u>79.0</u>
	광주/전라권	(153)	(1)	0.7	(0)	0.0	(6)	3.9	(27)	17.6	(119)	<u>77.8</u>
	강원, 제주	(53)	(0)	0.0	(0)	0.0	(5)	<u>9.4</u>	(17)	<u>32.1</u>	(31)	58.5

※ base : 예술강사 전체(n=92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의 자격증 취득 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이 86.8%(1년 미만 27.2% + 1~2년 42.2% + 3~4년 17.4%)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은 13.2%(5~6년 9.5% + 7년 이상 3.8%)로 나타났다.

[표 121] [예술전공자] 자격증 취득 기간

		사례 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4,846)	(1,317)	27.2	(2,045)	42.2	(843)	17.4	(459)	9.5	(182)	3.8
성별	남성	(842)	(230)	27.3	(377)	<u>44.8</u>	(134)	15.9	(67)	8.0	(34)	4.0
	여성	(4,004)	(1,087)	27.1	(1,668)	41.7	(709)	17.7	(392)	9.8	(148)	3.7
연령별	20대	(2,688)	(868)	<u>32.3</u>	(1,364)	<u>50.7</u>	(365)	13.6	(85)	3.2	(6)	0.2
	30대	(1,049)	(223)	21.3	(347)	33.1	(221)	<u>21.1</u>	(178)	<u>17.0</u>	(80)	<u>7.6</u>
	40대	(567)	(114)	20.1	(172)	30.3	(120)	<u>21.2</u>	(106)	<u>18.7</u>	(55)	<u>9.7</u>
	50대	(411)	(87)	21.2	(127)	30.9	(99)	<u>24.1</u>	(69)	<u>16.8</u>	(29)	<u>7.1</u>
	60대 이상	(131)	(25)	19.1	(35)	26.7	(38)	<u>29.0</u>	(21)	<u>16.0</u>	(12)	<u>9.2</u>
거주지 별	수도권	(2,776)	(774)	27.9	(1,228)	<u>44.2</u>	(460)	16.6	(225)	8.1	(89)	3.2
	부산/경남권	(554)	(156)	28.2	(215)	38.8	(98)	17.7	(61)	<u>11.0</u>	(24)	4.3
	대구/경북권	(435)	(119)	27.4	(169)	38.9	(74)	17.0	(48)	<u>11.0</u>	(25)	<u>5.7</u>
	대전/충청권	(457)	(131)	<u>28.7</u>	(202)	<u>44.2</u>	(78)	17.1	(37)	8.1	(9)	2.0
	광주/전라권	(511)	(114)	22.3	(192)	37.6	(106)	<u>20.7</u>	(69)	<u>13.5</u>	(30)	<u>5.9</u>
	강원, 제주	(113)	(23)	20.4	(39)	34.5	(27)	<u>23.9</u>	(19)	<u>16.8</u>	(5)	4.4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4,84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국가무형문화재의 자격증 취득 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이 51.9%(5~6년 23.3% + 7년 이상 28.6%)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은 48.1%(1년 미만 7.8% + 1~2년 20.1% + 3~4년 20.3%)로 나타났다.

[표 122]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취득 기간

		사례 수 (명)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년 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374)	(29)	7.8	(75)	20.1	(76)	20.3	(87)	23.3	(107)	28.6
성별	남성	(164)	(17)	10.4	(28)	17.1	(33)	20.1	(35)	21.3	(51)	31.1
	여성	(210)	(12)	5.7	(47)	22.4	(43)	20.5	(52)	24.8	(56)	26.7
연령별	20대	(9)	(2)	22.2	(4)	44.4	(2)	22.2	(1)	11.1	(0)	0.0
	30대	(49)	(6)	12.2	(11)	22.4	(7)	14.3	(14)	<u>28.6</u>	(11)	22.4
	40대	(81)	(6)	7.4	(22)	<u>27.2</u>	(17)	21.0	(17)	21.0	(19)	23.5
	50대	(114)	(7)	6.1	(24)	21.1	(22)	19.3	(25)	21.9	(36)	31.6
	60대 이상	(121)	(8)	6.6	(14)	11.6	(28)	23.1	(30)	24.8	(41)	<u>33.9</u>
거주지 별	수도권	(163)	(9)	5.5	(34)	20.9	(31)	19.0	(45)	27.6	(44)	27.0
	부산/경남권	(92)	(6)	6.5	(15)	16.3	(24)	<u>26.1</u>	(20)	21.7	(27)	29.3
	대구/경북권	(36)	(2)	5.6	(8)	22.2	(10)	<u>27.8</u>	(7)	19.4	(9)	25.0
	대전/충청권	(25)	(2)	8.0	(7)	28.0	(3)	12.0	(2)	8.0	(11)	44.0
	광주/전라권	(46)	(9)	<u>19.6</u>	(10)	21.7	(7)	15.2	(9)	19.6	(11)	23.9
	강원, 제주	(12)	(1)	8.3	(1)	8.3	(1)	8.3	(4)	33.3	(5)	41.7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7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나. 자격취득 동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43.8%)와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35.9%)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35.6%),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34.7%)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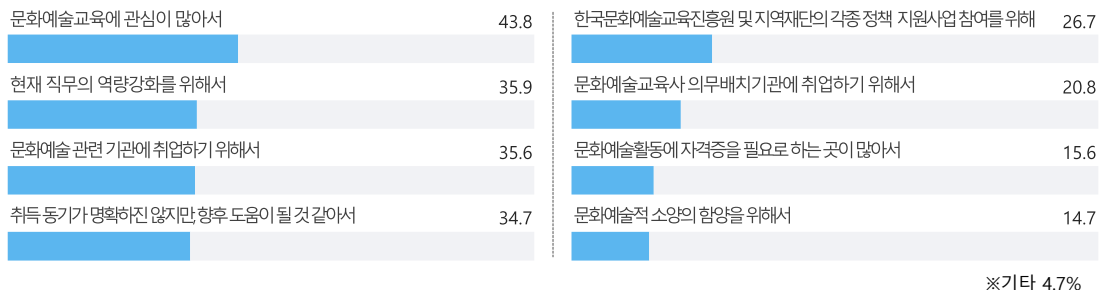
자격요건별로 자격취득 동기를 살펴보면, 고졸/비전공자와 예술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각각 54.0%, 45.4%) 자격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예술강사와 국가무형문화재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각각 43.0%, 46.3%)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자격을 취득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격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년 이상인 경우는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자격취득 동기

(n=6,205, 복수응답, 단위 : %)



[표 123] 자격취득 동기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전 체		(6,205)	43.8	35.9	35.6	34.7	26.7	20.8	15.6	14.7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63)	54.0	28.6	39.7	7.9	15.9	31.7	7.9	12.7
	예술강사	(922)	34.4	43.0	22.8	19.8	48.2	19.7	14.1	12.4
	예술전공자	(4,846)	45.4	33.9	39.4	38.9	22.3	21.4	15.4	14.6
	국가무형문화재	(374)	44.1	46.3	16.8	20.9	31.8	12.8	23.0	23.0
성별	남성	(1,189)	44.7	37.1	27.2	35.5	25.0	17.2	15.1	17.0
	여성	(5,016)	43.5	35.6	37.5	34.5	27.1	21.6	15.7	14.2
연령별	20대	(2,698)	45.4	29.2	40.8	48.4	17.1	18.5	16.1	13.5
	30대	(1,363)	43.0	39.0	40.0	30.3	29.1	23.7	12.5	11.7
	40대	(1,104)	38.8	42.0	28.7	20.9	35.6	23.7	13.9	14.9
	50대	(744)	43.1	40.5	23.9	17.7	37.6	20.0	19.5	18.8
	60대 이상	(296)	52.0	48.0	21.6	23.3	42.2	18.2	21.3	29.4
거주지 별	수도권	(3,308)	44.5	33.6	37.1	39.2	23.9	20.3	14.0	13.7
	부산/경남권	(827)	46.7	37.0	32.2	30.8	29.3	21.5	15.5	15.7
	대구/경북권	(557)	41.8	37.7	34.5	34.3	28.0	23.0	19.6	17.1
	대전/충청권	(610)	39.8	36.9	35.1	29.5	29.0	21.5	19.8	16.7
	광주/전라권	(722)	42.5	42.2	33.9	26.6	30.9	20.4	15.2	15.5
	강원, 제주	(181)	41.4	38.7	33.7	20.4	37.0	17.1	19.9	12.7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350)	46.7	33.5	38.1	40.7	23.3	20.0	16.7	17.1
	1~2년	(2,127)	46.3	32.7	39.4	42.4	19.5	18.1	15.1	13.4
	3~4년	(982)	42.9	41.0	36.4	32.2	23.1	22.7	16.5	15.3
	5~6년	(765)	39.7	36.3	32.0	23.7	36.5	24.4	14.5	13.3
	7년 이상	(981)	38.3	40.8	25.6	20.7	42.9	22.6	15.1	15.0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②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③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④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⑥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⑤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⑥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⑧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 base : 전체(n=4,834), 복수응답, 기타 4.7%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 4, 5, 6차 연도(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격취득 동기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가 가장 높은 반면, 1, 3차 연도(2016년, 2018년)는 ‘현재 직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가 가장 높아 차이가 있었다. 6차 연도(2021년)에 추가된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득 동기가 명확해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도 30.0%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라는 응답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6차 연도(2021년)에 하락하였으나, 보기의 구성이 변화하였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24] 2016~2021 자격요건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동기 비교 분석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GAP 18)	%	GAP	%	GAP	%	GAP	%	GAP	%	GAP	%	GAP	%	GAP
전체	2016년	(4,606)	30.5		31.8		-		-		-		20.8		12.3		0.0	
	2017년	(4,447)	39.1	8.6	38.1	6.3	-	-	-	-	-	-	27.2	6.4	14.6	2.3	0.0	0.0
	2018년	(4,642)	43.3	4.2	44.5	6.4	-	-	-	-	-	-	26.3	-0.9	18.1	3.5	15.1	15.1
	2019년	(4,684)	45.8	2.5	44.6	0.1	-	-	-	-	-	-	28.8	2.5	19.1	1.0	17.0	1.9
	2020년	(4,934)	44.7	-1.1	44.5	-0.1	-	-	-	-	-	-	33.6	4.8	20.3	1.2	16.5	-0.5
	2021년	(6,205)	43.8	-0.9	35.9	-8.6	35.6	-	34.7	-	26.7	-	20.8	-12.8	15.6	-4.7	14.7	-1.8
고졸/ 비전공자	2016년	(89)	44.9		20.2		-		-		-		28.1		18.0		0.0	
	2017년	(138)	47.8	2.9	36.2	16.0	-	-	-	-	-	-	35.5	7.4	18.8	0.8	0.0	0.0
	2018년	(135)	51.9	4.1	37.0	0.8	-	-	-	-	-	-	34.1	-1.4	11.1	-7.7	15.6	15.6
	2019년	(125)	47.2	-4.7	32.8	-4.2	-	-	-	-	-	-	36.0	1.9	14.4	3.3	11.2	-4.4
	2020년	(59)	49.2	2.0	33.9	1.1	-	-	-	-	-	-	40.7	4.7	16.9	2.5	5.1	-6.1
	2021년	(63)	54.0	4.8	28.6	-5.3	39.7	-	7.9	-	15.9	-	31.7	-9.0	7.9	-9.0	12.7	7.6
예술 강사	2016년	(2,048)	23.6				-		-		-		14.9		8.5		0.0	
	2017년	(1,430)	29.8	6.2	38.5	5.3	-	-	-	-	-	-	19.0	4.1	12.2	3.7	0.0	0.0
	2018년	(1,074)	33.4	3.6	41.9	3.4	-	-	-	-	-	-	20.6	1.6	15.9	3.7	13.2	13.2
	2019년	(1,093)	41.4	8.0	46.0	4.1	-	-	-	-	-	-	21.4	0.8	15.6	-0.3	14.6	1.4
	2020년	(808)	35.4	-6.0	49.3	3.3	-	-	-	-	-	-	22.5	1.1	17.3	1.7	11.9	-2.7
	2021년	(922)	34.4	-1.0	43.0	-6.3	22.8	-	19.8	-	48.2	-	19.7	-2.8	14.1	-3.2	12.4	0.5
예술 전공자	2016년	(2,103)	36.4		29.0		-		-		-		29.9		17.9		0.0	
	2017년	(2,261)	41.1	4.7	35.9	6.9	-	-	-	-	-	-	34.7	4.8	13.2	-4.7	0.0	0.0
	2018년	(2,891)	45.5	4.4	44.5	8.6	-	-	-	-	-	-	30.8	-3.9	18.9	5.7	15.3	15.3
	2019년	(3,154)	46.3	0.8	43.6	-0.9	-	-	-	-	-	-	32.8	2.0	20.1	1.2	18.3	3.0
	2020년	(3,712)	46.7	0.4	43.0	-0.6	-	-	-	-	-	-	37.2	4.4	20.2	0.1	17.1	-1.2
	2021년	(4,846)	45.4	-1.3	33.9	-9.1	39.4	-	38.9	-	22.3	-	21.4	-15.8	15.4	-4.8	14.6	-2.5
국가 무형 문화재	2016년	(366)	31.1		42.6		-		-		-		0.0		0.0		0.0	
	2017년	(618)	51.3	20.2	45.8	3.2	-	-	-	-	-	-	17.2	17.2	24.3	24.3	0.0	0.0
	2018년	(542)	48.7	-2.6	51.5	5.7	-	-	-	-	-	-	11.6	-5.6	20.1	-4.2	17.5	17.5
	2019년	(492)	51.6	2.9	50.4	-1.1	-	-	-	-	-	-	17.5	5.9	20.9	0.8	15.4	-2.1
	2020년	(355)	43.7	-7.9	51.0	0.6	-	-	-	-	-	-	19.7	2.2	29.6	8.7	22.5	7.1
	2021년	(374)	44.1	0.4	46.3	-4.7	16.8	-	20.9	-	31.8	-	12.8	-6.9	23.0	-6.6	23.0	0.5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②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③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④ 취득 동기가 명확해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⑥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⑧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 2016년 국가무형문화재 대상 설문지의 경우, 다른 조사대상 설문 보기항목과 차이가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득 동기가 명확해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는 새로 추가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문구 수정으로 비교가 불가함

18)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고졸/비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54.0%)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39.7%)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31.7%),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28.6%) 등의 순이었다.

[표 125] [고졸/비전공자] 자격취득 동기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전 체		(63)	54.0	39.7	31.7	28.6	15.9	12.7	7.9	7.9
성별	남성	(11)	72.7	36.4	18.2	36.4	18.2	27.3	0.0	18.2
	여성	(52)	50.0	40.4	34.6	26.9	15.4	9.6	9.6	5.8
연령별	20대	(1)	100.0	100.0	100.0	0.0	100.0	0.0	0.0	0.0
	30대	(13)	53.8	46.2	23.1	38.5	0.0	15.4	0.0	23.1
	40대	(26)	65.4	38.5	34.6	19.2	11.5	19.2	7.7	7.7
	50대	(13)	46.2	23.1	15.4	30.8	15.4	0.0	15.4	0.0
	60대 이상	(10)	30.0	50.0	50.0	40.0	40.0	10.0	10.0	0.0
거주지 별	수도권	(36)	52.8	38.9	41.7	22.2	16.7	8.3	5.6	8.3
	부산/경남권	(4)	100.0	75.0	50.0	0.0	0.0	50.0	25.0	25.0
	대구/경북권	(4)	50.0	50.0	25.0	0.0	0.0	0.0	0.0	0.0
	대전/충청권	(4)	50.0	0.0	0.0	50.0	25.0	25.0	25.0	0.0
	광주/전라권	(12)	50.0	50.0	16.7	50.0	25.0	16.7	8.3	8.3
	강원, 제주	(3)	33.3	0.0	0.0	66.7	0.0	0.0	0.0	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100.0	0.0	0.0	100.0	0.0	0.0	0.0	100.0
	1~2년	(4)	100.0	50.0	0.0	25.0	25.0	0.0	0.0	25.0
	3~4년	(17)	47.1	47.1	29.4	23.5	11.8	17.6	11.8	5.9
	5~6년	(26)	50.0	38.5	34.6	30.8	11.5	11.5	3.8	3.8
	7년 이상	(15)	53.3	33.3	40.0	26.7	26.7	13.3	13.3	6.7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②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③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④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⑥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⑧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63), 복수응답, 기타 1.6%는 표에서 제외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48.2%)와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43.0%)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34.4%),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28.6%)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27.0%) 취득했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은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58.8%)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6] [예술강사] 자격취득 동기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전 체		(922)	48.2	43.0	34.4	22.8	19.8	19.7	14.1	12.4
성별	남성	(172)	48.3	37.2	34.9	22.7	18.6	20.9	15.7	12.8
	여성	(750)	48.1	44.3	34.3	22.8	20.1	19.5	13.7	12.3
연령별	20대	-	-	-	-	-	-	-	-	-
	30대	(252)	49.2	45.2	29.8	27.0	20.2	20.2	12.3	9.1
	40대	(430)	46.3	43.0	32.1	21.2	21.9	19.3	12.1	12.1
	50대	(206)	49.0	38.3	44.2	20.9	14.1	19.4	18.9	14.6
	60대 이상	(34)	58.8	52.9	38.2	23.5	26.5	23.5	23.5	26.5
거주지 별	수도권	(333)	45.6	42.0	32.1	24.9	22.5	21.9	11.4	8.1
	부산/경남권	(177)	52.5	41.2	37.9	22.0	24.3	16.4	10.7	13.0
	대구/경북권	(82)	45.1	46.3	39.0	24.4	17.1	22.0	19.5	22.0
	대전/충청권	(124)	47.6	43.5	37.9	25.8	18.5	21.8	24.2	18.5
	광주/전라권	(153)	47.1	46.4	34.0	19.6	14.4	20.3	11.8	11.8
	강원, 제주	(53)	58.5	37.7	22.6	11.3	11.3	7.5	17.0	9.4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	0.0	66.7	33.3	0.0	0.0	33.3	0.0	0.0
	1~2년	(3)	66.7	33.3	33.3	33.3	0.0	0.0	0.0	0.0
	3~4년	(46)	32.6	45.7	26.1	21.7	23.9	17.4	13.0	8.7
	5~6년	(193)	51.8	45.6	30.6	21.8	17.6	19.2	11.9	8.8
	7년 이상	(677)	48.3	41.9	36.0	23.2	20.4	20.1	14.9	13.7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②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③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④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⑤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⑥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⑧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 base : 예술강사 전체(n=922), 복수응답, 기타 5.7%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예술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45.4%)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39.4%)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38.9%),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33.9%)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30대 제외),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취득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27] [예술전공자] 자격취득 동기

		사례수 (명)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전 체		(4,846)	45.4	39.4	38.9	33.9	22.3	21.4	15.4	14.6
성별	남성	(842)	46.6	31.2	41.1	35.6	19.8	17.7	13.9	16.2
	여성	(4,004)	45.1	41.1	38.4	33.5	22.9	22.2	15.7	14.3
연령별	20대	(2,688)	45.5	40.9	48.5	29.3	17.0	18.6	16.1	13.5
	30대	(1,049)	46.1	43.7	33.3	37.2	24.5	24.9	12.9	12.2
	40대	(567)	43.2	35.8	21.0	42.2	30.3	28.7	13.9	16.6
	50대	(411)	43.3	28.5	21.7	40.9	34.8	22.9	18.7	21.9
	60대 이상	(131)	51.9	22.9	19.1	43.5	41.2	16.0	16.8	24.4
거주지 별	수도권	(2,776)	45.7	39.5	42.3	31.9	20.7	20.2	14.1	13.8
	부산/경남권	(554)	48.4	37.9	35.4	34.7	22.6	24.9	15.7	15.5
	대구/경북권	(435)	42.5	38.2	37.9	36.3	25.7	24.6	17.7	15.9
	대전/충청권	(457)	41.4	38.7	34.1	35.4	23.2	21.7	18.6	16.0
	광주/전라권	(511)	45.2	40.3	32.3	39.7	26.0	20.9	16.4	15.7
	강원, 제주	(113)	49.6	46.0	24.8	36.3	27.4	22.1	20.4	13.3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317)	46.4	38.7	41.2	33.0	23.0	20.3	16.7	17.0
	1~2년	(2,045)	46.2	40.2	43.6	32.0	19.1	18.5	15.0	13.2
	3~4년	(843)	44.0	38.7	33.6	40.6	22.1	23.8	16.1	14.7
	5~6년	(459)	42.3	39.0	27.5	31.4	32.5	27.9	13.9	13.3
	7년 이상	(182)	43.4	39.0	23.6	36.3	30.2	34.6	11.5	15.9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②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③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⑥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⑧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4,846), 복수응답, 기타 4.4%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46.3%)와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44.1%) 취득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31.8%),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23.0%)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취득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28]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취득 동기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전 체		(374)	46.3	44.1	31.8	23.0	23.0	20.9	16.8	12.8
성별	남성	(164)	44.5	43.3	27.4	22.0	25.0	25.6	11.0	11.0
	여성	(210)	47.6	44.8	35.2	23.8	21.4	17.1	21.4	14.3
연령별	20대	(9)	22.2	11.1	33.3	11.1	11.1	33.3	11.1	0.0
	30대	(49)	46.9	40.8	32.7	10.2	12.2	20.4	26.5	16.3
	40대	(81)	43.2	34.6	23.5	25.9	17.3	19.8	16.0	8.6
	50대	(114)	43.9	40.4	29.8	23.7	17.5	12.3	13.2	11.4
	60대 이상	(121)	52.1	57.9	38.8	26.4	37.2	28.9	17.4	16.5
거주지 별	수도권	(163)	48.5	46.0	35.0	20.2	23.9	26.4	20.9	14.1
	부산/경남권	(92)	44.6	51.1	26.1	22.8	20.7	16.3	15.2	9.8
	대구/경북권	(36)	38.9	38.9	19.4	44.4	22.2	33.3	11.1	5.6
	대전/충청권	(25)	28.0	20.0	44.0	20.0	20.0	4.0	20.0	20.0
	광주/전라권	(46)	54.3	39.1	32.6	15.2	26.1	8.7	6.5	15.2
	강원, 제주	(12)	58.3	50.0	41.7	33.3	25.0	25.0	25.0	16.7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9)	51.7	58.6	37.9	17.2	24.1	20.7	17.2	3.4
	1~2년	(75)	50.7	46.7	29.3	21.3	21.3	13.3	17.3	10.7
	3~4년	(76)	47.4	39.5	31.6	23.7	25.0	27.6	17.1	11.8
	5~6년	(87)	43.7	43.7	31.0	26.4	24.1	23.0	16.1	14.9
	7년 이상	(107)	43.0	42.1	32.7	22.4	21.5	19.6	16.8	15.9
①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②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③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④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⑤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⑥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⑦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⑧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74), 복수응답, 기타 6.1%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자격 취득 시점별로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45.1%),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39.7%)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 후 취득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48.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에 참여를 위해서’(36.6%)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129] 자격취득 시점별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자격 취득 시기	자격증 취득 동기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경제활동 전 취득자		(1,749)	45.1	32.4	38.4	39.7	18.4	18.6	15.4	13.3
경제활동 후 취득자		(2,317)	41.8	48.5	27.2	23.0	36.6	19.6	17.0	15.4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③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②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④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⑥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⑧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고졸/비전공자의 자격 취득 시점별로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58.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 후 취득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52.4%)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30] [고졸/비전공자]자격취득 시점별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자격을 취득한 시기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경제활동 전 취득자	(12)	58.3	33.3	8.3	25.0	0.0	16.7	0.0	16.7
경제활동 후 취득자	(21)	47.6	23.8	28.6	52.4	19.0	4.8	19.0	4.8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③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②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④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⑥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⑧ 취득 동기가 명확해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술강사의 자격 취득 시점별로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38.5%)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1] [예술강사] 자격취득 시점별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자격증 취득 동기 자격 취득 시점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경제활동 전 취득자	(65)	36.9	41.5	<u>38.5</u>	20.0	21.5	21.5	7.7	10.8
경제활동 후 취득자	(771)	49.2	44.1	34.9	21.8	20.0	18.9	14.7	12.2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②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③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④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⑤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⑥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⑧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의 자격 취득 시점별로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 전 취득자는 ‘취득 동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41.0%)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 후 취득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50.4%),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에 참여를 위해서’(30.2%),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16.9%),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16.2%)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132] [예술전공자] 자격취득 시점별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자격증 취득 동기 자격 취득 시점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경제활동 전 취득자	(1,638)	45.3	39.7	<u>41.0</u>	32.0	17.7	18.8	15.6	13.2
경제활동 후 취득자	(1,279)	46.0	32.4	25.8	<u>50.4</u>	<u>30.2</u>	21.0	<u>16.9</u>	<u>16.2</u>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②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③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⑥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⑧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국가무형문화재의 자격 취득 시점별로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 전 취득자는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29.4%)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 후 취득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51.6%)’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133]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취득 시점별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자격 취득 동기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자격 취득 시점		%	%	%	%	%	%	%	%
경제활동 전 취득자	(34)	35.3	44.1	20.6	29.4	17.6	17.6	11.8	8.8
경제활동 후 취득자	(246)	51.6	41.5	31.7	24.8	22.4	19.9	17.1	13.4

①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③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⑤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⑦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②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④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⑥ 취득 동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⑧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현재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자격소지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을 취득한 반면, 프리랜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4]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자격을 취득 동기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전체	(3,365)	44.0	44.0	31.3	31.0	27.9	19.3	17.4	14.8
국·공립·공공기관	(331)	46.8	45.9	42.3	19.3	23.9	19.3	19.6	13.9
정부부처, 지자체	(117)	42.7	46.2	37.6	17.9	23.9	22.2	10.3	12.0
예술단체	(289)	45.7	43.9	26.6	26.6	25.6	14.9	17.0	14.2
사기업	(250)	39.2	43.6	31.2	11.6	39.6	16.8	10.4	10.8
초·중·고등학교	(162)	43.2	37.0	26.5	16.7	32.7	14.2	15.4	11.7
대학교	(58)	37.9	41.4	29.3	29.3	31.0	13.8	15.5	6.9
프리랜서	(2,072)	44.4	44.2	30.2	38.4	27.8	20.6	18.4	16.2

①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③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⑤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②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④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⑥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⑧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n=3,365),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현재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5]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자격증 취득 동기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전체	(29)	55.2	41.4	24.1	20.7	13.8	10.3	10.3	10.3
국·공립·공공기관	(5)	60.0	60.0	40.0	20.0	0.0	0.0	0.0	40.0
정부부처, 지자체	(1)	0.0	0.0	0.0	100.0	0.0	0.0	0.0	0.0
예술단체	(4)	50.0	25.0	0.0	0.0	25.0	0.0	0.0	0.0
사기업	(1)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초·중·고등학교	-	-	-	-	-	-	-	-	-
대학교	-	-	-	-	-	-	-	-	-
프리랜서	(17)	58.8	41.2	29.4	17.6	17.6	17.6	17.6	0.0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②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③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④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⑥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많아서 ⑦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⑧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29),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현재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에 종사하는 예술강사의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예술강사는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54.1%) 자격증을 취득한 반면, 프리랜서인 예술강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52.8%)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6] [예술강사]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자격증 취득 동기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	%	%	%	%	%	%	%
전체	(810)	48.5	43.6	35.2	21.6	19.9	18.6	14.1	12.2
국·공립·공공기관	(37)	35.1	54.1	35.1	13.5	8.1	5.4	13.5	8.1
정부부처, 지자체	(19)	26.3	47.4	52.6	5.3	31.6	10.5	10.5	15.8
예술단체	(40)	40.0	30.0	32.5	5.0	15.0	2.5	10.0	7.5
사기업	(11)	27.3	27.3	27.3	9.1	27.3	0.0	0.0	0.0
초·중·고등학교	(25)	24.0	44.0	24.0	24.0	16.0	16.0	8.0	4.0
대학교	(16)	37.5	25.0	25.0	18.8	25.0	18.8	6.3	6.3
프리랜서	(652)	52.8	44.5	35.7	23.9	20.6	21.3	15.3	13.5
<div> <div>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div> <div>②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div> <div>③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div> <div>④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div> <div>⑤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div> <div>⑥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div> <div>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div> <div>⑧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div> </div>									

※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810), 복수응답, 기타 6.2%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현재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예술전공자는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45.3%),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49.1%) 자격증을 취득한 반면, 프리랜서인 예술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48.5%) 취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37]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자격증 취득 동기 현재 직업 및 소속기관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전체	(2,270)	47.0	43.4	36.4	31.8	24.8	20.2	17.8	15.0
국·공립·공공기관	(265)	47.2	45.3	49.1	26.8	17.7	21.9	20.4	15.1
정부부처, 지자체	(88)	45.5	42.0	47.7	23.9	17.0	26.1	10.2	12.5
예술단체	(188)	45.7	43.6	35.6	26.6	21.8	18.1	17.0	11.7
사기업	(237)	43.9	39.2	32.5	40.1	11.0	17.7	11.0	11.4
초·중·고등학교	(132)	40.2	43.2	27.3	37.1	14.4	14.4	15.9	13.6
대학교	(39)	46.2	41.0	35.9	35.9	28.2	12.8	20.5	7.7
프리랜서	(1,252)	48.5	44.1	34.7	33.0	31.5	20.9	19.0	16.7
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②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③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④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⑥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⑦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⑧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2,270), 복수응답, 기타 3.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현재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자격증 취득 동기를 살펴본 결과,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8]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종사자의 자격증 취득 동기 비교 분석

※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256), 복수응답, 기타 6.3%는 표에서 제외

## 나. 자격취득 당시 희망직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희망 직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이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40.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5.7%),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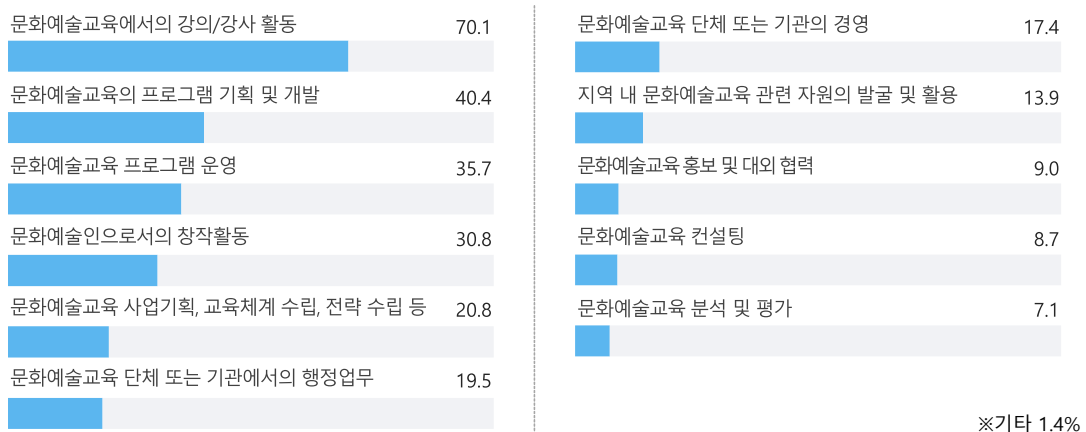
자격요건별로 자격취득 당시 희망 직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은 예술강사(85.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전공자와 고졸/비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각각 42.9%, 4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60대 이상 제외),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는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격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년 이상인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과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교육체계 수립·전략 수립 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자격취득 당시 희망직무

(n=6,205, 복수응답, 단위 : %)





[표 139] 자격취득 당시 희망 직무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6,205)	70.1	40.4	35.7	30.8	20.8	19.5	17.4	13.9	9.0	8.7	7.1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63)	65.1	44.4	44.4	22.2	31.7	22.2	20.6	12.7	4.8	4.8	6.3
	예술강사	(922)	85.4	31.9	33.5	26.9	21.6	12.0	16.3	15.3	7.7	13.3	10.3
	예술전공자	(4,846)	67.5	42.9	36.2	30.8	20.7	21.5	17.0	13.5	8.9	7.9	6.7
	국가무형문화재	(374)	67.1	27.8	33.4	41.7	17.6	11.2	24.6	16.8	13.1	7.8	5.1
성별	남성	(1,189)	66.8	34.1	30.2	35.6	20.8	16.3	21.4	13.6	9.6	7.7	7.1
	여성	(5,016)	70.9	41.8	37.0	29.7	20.8	20.2	16.4	14.0	8.8	8.9	7.1
연령별	20대	(2,698)	65.0	41.2	33.2	32.1	18.0	22.9	14.3	10.8	9.4	6.5	6.2
	30대	(1,363)	71.2	44.2	37.1	26.9	22.2	20.9	17.8	13.0	7.2	9.6	9.0
	40대	(1,104)	75.3	41.3	40.6	26.9	24.7	16.1	19.1	15.9	9.1	12.1	7.2
	50대	(744)	77.0	34.8	35.3	33.3	23.7	14.0	22.2	19.8	8.6	9.4	7.1
	60대 이상	(296)	74.3	25.7	33.8	44.9	18.2	7.4	24.3	24.3	13.9	9.8	6.4
거주지 별	수도권	(3,308)	70.9	41.0	34.8	31.4	19.7	18.9	16.2	12.5	8.8	8.3	6.6
	부산/경남권	(827)	69.5	42.9	37.5	34.6	21.6	19.6	19.2	16.8	10.3	9.9	8.6
	대구/경북권	(557)	68.9	40.8	33.9	30.5	19.2	21.9	18.9	14.9	9.9	9.5	8.3
	대전/충청권	(610)	67.4	37.2	35.7	28.7	21.3	19.2	17.2	14.9	9.0	8.4	7.2
	광주/전라권	(722)	70.5	36.7	36.1	25.9	23.4	20.5	18.3	13.7	7.2	8.9	7.2
	강원, 제주	(181)	69.6	40.9	47.5	29.8	28.7	19.3	22.1	21.0	10.5	8.8	5.5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350)	65.6	43.4	36.9	35.2	19.7	22.2	17.2	15.0	10.7	7.3	7.2
	1~2년	(2,127)	66.2	41.5	32.8	30.1	19.1	19.7	15.8	12.4	8.8	7.3	5.7
	3~4년	(982)	69.7	39.1	39.7	29.3	21.1	20.9	18.8	13.5	8.5	9.9	7.8
	5~6년	(765)	75.7	40.8	38.0	29.7	24.1	18.0	16.9	14.5	8.1	9.3	7.3
	7년 이상	(981)	80.6	34.7	34.4	28.5	23.0	14.9	19.8	15.8	8.1	11.9	9.2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④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⑤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⑥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⑦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⑧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⑨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⑩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⑪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base : 전체(n=6,205), 복수응답, 기타 1.4%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고졸/비전공자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희망 직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4.4%),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44.4%),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3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0] [고졸/비전공자] 자격취득 당시 희망 직무

		사례 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63)	65.1	44.4	44.4	31.7	22.2	22.2	20.6	12.7	6.3	4.8	4.8
성별	남성	(11)	63.6	36.4	36.4	36.4	9.1	45.5	54.5	18.2	0.0	0.0	0.0
	여성	(52)	65.4	46.2	46.2	30.8	25.0	17.3	13.5	11.5	7.7	5.8	5.8
연령별	20대	(1)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30대	(13)	46.2	38.5	61.5	46.2	38.5	23.1	0.0	15.4	15.4	7.7	0.0
	40대	(26)	65.4	61.5	46.2	30.8	30.8	30.8	23.1	15.4	3.8	7.7	7.7
	50대	(13)	61.5	23.1	30.8	23.1	0.0	7.7	30.8	7.7	0.0	0.0	0.0
	60대 이상	(10)	90.0	30.0	30.0	20.0	0.0	20.0	30.0	10.0	0.0	0.0	0.0
거주지 별	수도권	(36)	61.1	44.4	47.2	36.1	30.6	19.4	13.9	13.9	11.1	5.6	8.3
	부산/경남권	(4)	50.0	50.0	50.0	75.0	0.0	25.0	25.0	25.0	0.0	0.0	0.0
	대구/경북권	(4)	75.0	50.0	25.0	0.0	0.0	0.0	25.0	0.0	0.0	0.0	0.0
	대전/충청권	(4)	75.0	50.0	50.0	25.0	0.0	50.0	25.0	0.0	0.0	25.0	0.0
	광주/전라권	(12)	66.7	41.7	41.7	16.7	25.0	25.0	33.3	16.7	0.0	0.0	0.0
	강원, 제주	(3)	100.0	33.3	33.3	33.3	0.0	33.3	33.3	0.0	0.0	0.0	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100.0	0.0	0.0
	1~2년	(4)	75.0	50.0	25.0	50.0	0.0	25.0	25.0	0.0	0.0	0.0	0.0
	3~4년	(17)	70.6	58.8	52.9	29.4	17.6	17.6	11.8	11.8	5.9	11.8	0.0
	5~6년	(26)	61.5	30.8	38.5	23.1	23.1	30.8	19.2	7.7	0.0	0.0	3.8
	7년 이상	(15)	66.7	46.7	46.7	40.0	26.7	13.3	33.3	26.7	13.3	6.7	13.3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③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⑤ 문화예술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⑦ 문화예술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⑨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⑪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⑥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⑩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63), 복수응답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희망 직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이 8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3.5%),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31.9%),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2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은 30대(89.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자격취득 기간이 3~4년(39.1%)인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1] [예술강사] 자격취득 당시 희망 직무

		사례 수 (명)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전 체		(922)	85.4	33.5	31.9	26.9	21.6	16.3	15.3	13.3	12.0	10.3	7.7
성별	남성	(172)	82.0	31.4	30.2	34.3	22.7	22.7	19.2	11.0	12.8	11.6	11.6
	여성	(750)	86.1	34.0	32.3	25.2	21.3	14.8	14.4	13.9	11.9	10.0	6.8
연령별	20대	-	-	-	-	-	-	-	-	-	-	-	-
	30대	(252)	89.7	32.9	32.1	25.0	17.1	15.1	13.5	11.9	9.1	10.7	5.6
	40대	(430)	83.5	32.1	33.3	25.1	21.9	14.7	14.2	13.0	14.0	9.5	8.4
	50대	(206)	84.0	35.0	29.6	31.1	25.7	21.8	18.4	15.5	13.1	11.2	9.2
	60대 이상	(34)	85.3	47.1	26.5	38.2	26.5	11.8	23.5	14.7	2.9	11.8	5.9
거주지 별	수도권	(333)	83.5	34.8	36.3	23.7	23.7	15.6	10.8	13.5	12.6	8.7	7.5
	부산/경남권	(177)	85.9	33.9	31.6	37.9	20.3	16.4	22.6	17.5	14.7	15.8	8.5
	대구/경북권	(82)	92.7	32.9	30.5	28.0	17.1	20.7	19.5	12.2	12.2	9.8	7.3
	대전/충청권	(124)	85.5	33.1	25.8	26.6	19.4	17.7	13.7	16.1	10.5	12.9	9.7
	광주/전라권	(153)	86.9	28.8	26.1	20.9	21.6	13.1	13.1	7.8	7.8	5.9	5.9
	강원, 제주	(53)	79.2	39.6	37.7	26.4	24.5	18.9	22.6	9.4	15.1	9.4	7.5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년	(3)	100.0	33.3	33.3	0.0	33.3	0.0	0.0	0.0	0.0	0.0	0.0
	3~4년	(46)	78.3	39.1	26.1	28.3	21.7	13.0	10.9	10.9	4.3	10.9	4.3
	5~6년	(193)	87.0	34.7	31.6	22.8	21.2	11.9	14.5	15.0	9.8	13.0	8.3
	7년 이상	(677)	85.2	32.9	32.5	28.2	21.7	17.9	16.0	13.1	13.3	9.6	7.8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④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⑤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⑥ 문화예술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⑧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⑨ 문화예술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⑩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⑪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base : 예술강사 전체(n=922), 복수응답, 기타 0.5%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자격취득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취득 기간별로 살펴보면 5~6년(52.9%)인 경우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전후의 직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격 취득 전과 현재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직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85.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7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6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 취득 전과 현재의 일치율이 가장 낮은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25.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32.5%)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를 희망하던 자격소지자는 현재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담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4] 자격 취득 전후 직무 비교

과거 희망 직무 현재 담당 업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①	85.0	39.5	39.9	31.7	20.8	13.5	16.9	14.9	7.0	10.0	6.9
②	66.0	71.0	58.8	33.5	41.0	25.4	29.3	23.4	10.2	15.4	11.5
③	71.1	67.0	68.8	36.7	41.7	24.4	31.3	23.7	10.5	16.0	11.5
④	78.0	43.8	42.6	58.9	25.6	15.6	20.9	20.6	10.5	13.2	8.8
⑤	57.8	68.4	58.4	35.2	61.7	33.2	43.2	27.2	13.9	21.1	14.4
⑥	52.3	63.3	52.7	28.6	45.6	43.8	34.9	24.7	13.4	12.6	14.1
⑦	65.5	59.8	54.2	36.6	45.8	28.3	54.5	28.3	13.7	19.0	16.1
⑧	71.9	66.5	64.0	47.3	54.7	35.0	40.9	49.3	19.7	26.1	23.2
⑨	56.4	68.6	62.1	31.4	53.6	35.0	42.1	27.9	25.7	20.7	16.4
⑩	75.8	71.6	68.4	42.1	61.1	32.6	47.4	38.9	23.2	52.6	24.2
⑪	64.9	77.9	70.1	28.6	66.2	46.8	45.5	33.8	20.8	27.3	32.5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⑤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⑥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⑦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⑨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⑩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⑪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 자격취득당시 희망 직무와 현재 담당업무의 일치율 음영표시 하였으며,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고졸/비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전후의 직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격 취득 전과 현재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직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83.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8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6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5] [고졸/비전공자] 자격 취득 전후 직무 비교

과거 희망 직무 현재 담당 업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①	83.3	27.8	50.0	16.7	16.7	27.8	27.8	22.2	0.0	5.6	0.0
②	62.5	62.5	75.0	50.0	37.5	12.5	12.5	12.5	0.0	12.5	0.0
③	80.0	50.0	80.0	40.0	30.0	10.0	20.0	10.0	0.0	10.0	0.0
④	28.6	85.7	57.1	42.9	57.1	28.6	14.3	0.0	0.0	14.3	0.0
⑤	33.3	58.3	58.3	33.3	41.7	0.0	8.3	8.3	0.0	8.3	0.0
⑥	83.3	33.3	33.3	50.0	16.7	16.7	33.3	16.7	0.0	16.7	0.0
⑦	85.7	57.1	42.9	14.3	14.3	14.3	57.1	28.6	0.0	14.3	0.0
⑧	50.0	66.7	83.3	66.7	66.7	33.3	0.0	16.7	16.7	0.0	0.0
⑨	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⑩	60.0	80.0	80.0	80.0	60.0	0.0	20.0	20.0	0.0	20.0	0.0
⑪	66.7	66.7	66.7	66.7	33.3	0.0	33.3	33.3	0.0	0.0	0.0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⑤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⑥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⑦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⑨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⑩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⑪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자격취득당시 희망 직무와 현재 담당업무의 일치율 음영표시 하였음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을 제외하고 자격 취득 당시 희망했던 직무와 상관없이 현재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격취득당시 희망 직무와 현재 담당업무의 일치율 음영표시 하였으며,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전후의 직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격 취득 전과 현재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직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83.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74.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6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 취득 전과 현재의 일치율이 가장 낮은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24.3%),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25.0%)로 나타났다.

예술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을 제외하고 자격 취득 당시 희망했던 직무와 상관없이 현재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7] [예술전공자] 자격 취득 전후 직무 비교

과거 희망 직무 현재 담당 업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①	83.6	44.8	42.3	33.1	20.6	14.4	16.9	13.7	8.5	6.3	5.4
②	61.7	74.0	59.4	32.9	40.6	26.5	28.1	22.8	12.8	9.8	10.0
③	67.2	71.1	69.5	36.5	42.8	26.6	30.9	22.9	13.3	9.2	10.0
④	75.7	45.7	41.1	60.6	24.5	16.4	19.8	18.8	9.4	9.5	6.6
⑤	51.9	71.8	58.4	35.1	63.4	35.9	43.5	27.1	18.3	13.4	13.4
⑥	48.3	62.9	50.9	26.0	45.6	44.8	32.4	23.6	10.9	13.3	11.9
⑦	61.8	67.2	56.9	34.3	50.0	30.9	55.9	27.5	16.2	13.2	14.2
⑧	64.8	71.3	62.0	40.7	56.5	38.9	35.2	46.3	23.1	15.7	20.4
⑨	74.5	74.5	68.6	43.1	60.8	23.5	45.1	37.3	54.9	21.6	17.6
⑩	54.2	70.1	60.7	29.9	53.3	36.4	40.2	25.2	18.7	24.3	15.9
⑪	58.3	83.3	72.9	22.9	62.5	47.9	39.6	25.0	18.8	20.8	25.0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⑤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⑥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⑦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⑨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⑩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⑪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 자격취득당시 희망 직무와 현재 담당업무의 일치율 음영표시 하였으며,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전후의 직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자격 취득 전과 현재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직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80.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68.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6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 취득 전과 현재의 일치율이 가장 낮은 직무는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25.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27.3%)로 나타났다.

[표 148] [국가무형문화재] 자격 취득 전후 직무 비교

과거 희망 직무 현재 담당 업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①	80.7	44.2	37.6	29.3	24.3	21.0	19.3	12.7	10.5	9.9	7.2
②	66.4	64.8	41.0	35.2	30.3	25.4	22.1	16.4	18.0	15.6	9.8
③	74.0	36.0	68.0	48.0	36.0	32.0	16.0	20.0	22.0	18.0	12.0
④	70.5	47.7	68.2	63.6	43.2	45.5	25.0	29.5	18.2	22.7	13.6
⑤	52.5	47.5	47.5	50.0	67.5	37.5	32.5	25.0	15.0	15.0	12.5
⑥	72.7	42.4	63.6	63.6	63.6	63.6	24.2	36.4	21.2	27.3	15.2
⑦	83.3	60.0	60.0	50.0	50.0	46.7	50.0	16.7	40.0	26.7	20.0
⑧	70.0	46.7	63.3	63.3	56.7	43.3	20.0	50.0	20.0	16.7	16.7
⑨	36.4	18.2	54.5	36.4	45.5	45.5	0.0	9.1	27.3	9.1	0.0
⑩	85.7	42.9	71.4	42.9	71.4	71.4	14.3	57.1	42.9	28.6	0.0
⑪	100.0	50.0	75.0	75.0	75.0	75.0	50.0	50.0	0.0	25.0	25.0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⑥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⑧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⑨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⑩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⑪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 자격취득당시 희망 직무와 현재 담당업무의 일치율 음영표시 하였으며,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60.3%는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원’(30.2%), ‘기본연수 과정 이수’(13.6%) 등의 순이었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고졸/비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원’(77.8%), ‘예술강사’는 ‘기본연수 과정 이수’(84.2%), 예술전공자는 ‘대학’(75.8%)과 ‘문화예술교육원’(33.9%),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92.8%)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9]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사례수 (명)	대 학		문화예술 교육원		기본연수 과정 이수		국가무형 문화재		학점은행제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6,205)	(3,740)	60.3	(1,875)	30.2	(844)	13.6	(370)	6.0	(105)	1.7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63)	(21)	33.3	(49)	77.8	(0)	0.0	(1)	1.6	(5)	7.9
	예술강사	(922)	(26)	2.8	(164)	17.8	(776)	84.2	(12)	1.3	(7)	0.8
	예술전공자	(4,846)	(3,673)	75.8	(1,645)	33.9	(42)	0.9	(10)	0.2	(85)	1.8
	국가무형문화재	(374)	(20)	5.3	(17)	4.5	(26)	7.0	(347)	92.8	(8)	2.1
성별	남성	(1,189)	(686)	57.7	(316)	26.6	(155)	13.0	(160)	13.5	(18)	1.5
	여성	(5,016)	(3,054)	60.9	(1,559)	31.1	(689)	13.7	(210)	4.2	(87)	1.7
연령 별	20대	(2,698)	(2,368)	87.8	(525)	19.5	(15)	0.6	(11)	0.4	(20)	0.7
	30대	(1,363)	(622)	45.6	(644)	47.2	(232)	17.0	(45)	3.3	(34)	2.5
	40대	(1,104)	(331)	30.0	(420)	38.0	(379)	34.3	(84)	7.6	(23)	2.1
	50대	(744)	(309)	41.5	(212)	28.5	(180)	24.2	(109)	14.7	(13)	1.7
	60대 이상	(296)	(110)	37.2	(74)	25.0	(38)	12.8	(121)	40.9	(15)	5.1
거주지 별	수도권	(3,308)	(2,124)	64.2	(1,013)	30.6	(329)	9.9	(158)	4.8	(48)	1.5
	부산/경남권	(827)	(435)	52.6	(212)	25.6	(164)	19.8	(96)	11.6	(19)	2.3
	대구/경북권	(557)	(348)	62.5	(167)	30.0	(67)	12.0	(34)	6.1	(15)	2.7
	대전/충청권	(610)	(367)	60.2	(166)	27.2	(103)	16.9	(25)	4.1	(7)	1.1
	광주/전라권	(722)	(383)	53.0	(258)	35.7	(133)	18.4	(47)	6.5	(10)	1.4
	강원, 제주	(181)	(83)	45.9	(59)	32.6	(48)	26.5	(10)	5.5	(6)	3.3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350)	(1,043)	77.3	(415)	30.7	(11)	0.8	(30)	2.2	(29)	2.1
	1~2년	(2,127)	(1,600)	75.2	(635)	29.9	(17)	0.8	(72)	3.4	(37)	1.7
	3~4년	(982)	(641)	65.3	(341)	34.7	(56)	5.7	(72)	7.3	(22)	2.2
	5~6년	(765)	(320)	41.8	(250)	32.7	(175)	22.9	(88)	11.5	(12)	1.6
	7년 이상	(981)	(136)	13.9	(234)	23.9	(585)	59.6	(108)	11.0	(5)	0.5

※ base : 전체(n=6,205),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고졸/비전공자의 77.8%는 ‘문화예술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33.3%), ‘학점은행제’(7.9%), ‘국가무형문화재’(1.6%)의 순이었다.

[표 150]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원		대 학		학점은행제		국가무형 문화재	
			명	%	명	%	명	%	명	%
전 체		(63)	(49)	77.8	(21)	33.3	(5)	7.9	(1)	1.6
성별	남성	(11)	(10)	90.9	(4)	36.4	(0)	0.0	(0)	0.0
	여성	(52)	(39)	75.0	(17)	32.7	(5)	9.6	(1)	1.9
연령 별	20대	(1)	(1)	100.0	(0)	0.0	(0)	0.0	(0)	0.0
	30대	(13)	(10)	76.9	(5)	38.5	(3)	23.1	(0)	0.0
	40대	(26)	(23)	88.5	(8)	30.8	(1)	3.8	(0)	0.0
	50대	(13)	(10)	76.9	(4)	30.8	(0)	0.0	(0)	0.0
	60대 이상	(10)	(5)	50.0	(4)	40.0	(1)	10.0	(1)	10.0
거주지 별	수도권	(36)	(25)	69.4	(14)	38.9	(5)	13.9	(1)	2.8
	부산/경남권	(4)	(4)	100.0	(2)	50.0	(0)	0.0	(0)	0.0
	대구/경북권	(4)	(4)	100.0	(1)	25.0	(0)	0.0	(0)	0.0
	대전/충청권	(4)	(3)	75.0	(1)	25.0	(0)	0.0	(0)	0.0
	광주/전라권	(12)	(11)	91.7	(2)	16.7	(0)	0.0	(0)	0.0
	강원, 제주	(3)	(2)	66.7	(1)	33.3	(0)	0.0	(0)	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1)	100.0	(0)	0.0	(0)	0.0	(0)	0.0
	1~2년	(4)	(4)	100.0	(2)	50.0	(1)	25.0	(0)	0.0
	3~4년	(17)	(12)	70.6	(6)	35.3	(4)	23.5	(1)	5.9
	5~6년	(26)	(19)	73.1	(10)	38.5	(0)	0.0	(0)	0.0
	7년 이상	(15)	(13)	86.7	(3)	20.0	(0)	0.0	(0)	0.0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63), 복수응답

예술강사의 84.2%는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원’(17.8%), ‘대학’(2.8%)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인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원’(41.2%)과 ‘국가무형문화재’(8.8%)를 이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원’에서 이수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51]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사례수 (명)	기본연수 과정 이수		문화예술 교육원		대 학		국가무형 문화재		학점은행제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922)	(776)	84.2	(164)	17.8	(26)	2.8	(12)	1.3	(7)	0.8
성별	남성	(172)	(140)	81.4	(44)	25.6	(7)	4.1	(5)	2.9	(2)	1.2
	여성	(750)	(636)	84.8	(120)	16.0	(19)	2.5	(7)	0.9	(5)	0.7
연령 별	20대	-	-	-	-	-	-	-	-	-	-	-
	30대	(252)	(213)	84.5	(38)	15.1	(13)	5.2	(0)	0.0	(1)	0.4
	40대	(430)	(369)	85.8	(69)	16.0	(10)	2.3	(8)	1.9	(3)	0.7
	50대	(206)	(168)	81.6	(43)	20.9	(2)	1.0	(1)	0.5	(3)	1.5
	60대 이상	(34)	(26)	76.5	(14)	41.2	(1)	2.9	(3)	8.8	(0)	0.0
거주지 별	수도권	(333)	(296)	88.9	(46)	13.8	(8)	2.4	(3)	0.9	(4)	1.2
	부산/경남권	(177)	(152)	85.9	(34)	19.2	(2)	1.1	(5)	2.8	(1)	0.6
	대구/경북권	(82)	(62)	75.6	(20)	24.4	(1)	1.2	(0)	0.0	(0)	0.0
	대전/충청권	(124)	(97)	78.2	(26)	21.0	(7)	5.6	(2)	1.6	(1)	0.8
	광주/전라권	(153)	(125)	81.7	(28)	18.3	(7)	4.6	(2)	1.3	(1)	0.7
	강원, 제주	(53)	(44)	83.0	(10)	18.9	(1)	1.9	(0)	0.0	(0)	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	(0)	0.0	(3)	100.0	(0)	0.0	(0)	0.0	(0)	0.0
	1~2년	(3)	(2)	66.7	(1)	33.3	(0)	0.0	(0)	0.0	(0)	0.0
	3~4년	(46)	(39)	84.8	(6)	13.0	(2)	4.3	(2)	4.3	(1)	2.2
	5~6년	(193)	(166)	86.0	(29)	15.0	(3)	1.6	(1)	0.5	(3)	1.6
	7년 이상	(677)	(569)	84.0	(125)	18.5	(21)	3.1	(9)	1.3	(3)	0.4

※ base : 예술강사 전체(n=922),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의 75.8%는 ‘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원’(33.9%), ‘학점은행제’(1.8%) 등의 순이었다.

20대는 ‘대학’(88.1%)에서, 30대~50대는 ‘문화예술교육원’(30대 56.7%, 40대 57.3%, 50대 38.2%), 60대 이상은 ‘학점은행제’(4.6%)와 ‘국가무형문화재’(2.3%)를 이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격취득 기간이 2년 미만(1년 미만 79.2%, 1~2년 78.0%)인 예술전공자는 ‘대학’에서, 3년 이상(3~4년 38.0%, 5~6년 43.%, 7년 이상 51.6%)인 예술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원’에서 이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2]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사례수 (명)	대 학		문화예술 교육원		학점은행제		기본연수 과정 이수		국가무형 문화재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4,846)	(3,673)	75.8	(1,645)	33.9	(85)	1.8	(42)	0.9	(10)	0.2
성별	남성	(842)	(666)	79.1	(255)	30.3	(12)	1.4	(7)	0.8	(1)	0.1
	여성	(4,004)	(3,007)	75.1	(1,390)	34.7	(73)	1.8	(35)	0.9	(9)	0.2
연령 별	20대	(2,688)	(2,368)	88.1	(524)	19.5	(20)	0.7	(15)	0.6	(2)	0.1
	30대	(1,049)	(601)	57.3	(595)	56.7	(30)	2.9	(14)	1.3	(3)	0.3
	40대	(567)	(311)	54.9	(325)	57.3	(19)	3.4	(4)	0.7	(0)	0.0
	50대	(411)	(297)	72.3	(157)	38.2	(10)	2.4	(7)	1.7	(2)	0.5
	60대 이상	(131)	(96)	73.3	(44)	33.6	(6)	4.6	(2)	1.5	(3)	2.3
거주지 별	수도권	(2,776)	(2,091)	75.3	(935)	33.7	(35)	1.3	(20)	0.7	(4)	0.1
	부산/경남권	(554)	(429)	77.4	(170)	30.7	(17)	3.1	(5)	0.9	(3)	0.5
	대구/경북권	(435)	(343)	78.9	(142)	32.6	(15)	3.4	(5)	1.1	(0)	0.0
	대전/충청권	(457)	(358)	78.3	(137)	30.0	(5)	1.1	(4)	0.9	(0)	0.0
	광주/전라권	(511)	(371)	72.6	(215)	42.1	(8)	1.6	(7)	1.4	(3)	0.6
	강원, 제주	(113)	(81)	71.7	(46)	40.7	(5)	4.4	(1)	0.9	(0)	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317)	(1,043)	79.2	(408)	31.0	(28)	2.1	(8)	0.6	(4)	0.3
	1~2년	(2,045)	(1,595)	78.0	(625)	30.6	(35)	1.7	(14)	0.7	(2)	0.1
	3~4년	(843)	(625)	74.1	(320)	38.0	(14)	1.7	(13)	1.5	(1)	0.1
	5~6년	(459)	(304)	66.2	(198)	43.1	(6)	1.3	(3)	0.7	(3)	0.7
	7년 이상	(182)	(106)	58.2	(94)	51.6	(2)	1.1	(4)	2.2	(0)	0.0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4,846),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국가무형문화재의 92.8%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로 나타났다.

[표 153]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사례수 (명)	국가무형 문화재		기본연수 과정 이수		대 학		문화예술 교육원		학점은행제	
			명	%	명	%	명	%	명	%	명	%
전 체		(374)	(347)	92.8	(26)	7.0	(20)	5.3	(17)	4.5	(8)	2.1
성별	남성	(164)	(154)	93.9	(8)	4.9	(9)	5.5	(7)	4.3	(4)	2.4
	여성	(210)	(193)	91.9	(18)	8.6	(11)	5.2	(10)	4.8	(4)	1.9
연령 별	20대	(9)	(9)	100.0	(0)	0.0	(0)	0.0	(0)	0.0	(0)	0.0
	30대	(49)	(42)	85.7	(5)	10.2	(3)	6.1	(1)	2.0	(0)	0.0
	40대	(81)	(76)	93.8	(6)	7.4	(2)	2.5	(3)	3.7	(0)	0.0
	50대	(114)	(106)	93.0	(5)	4.4	(6)	5.3	(2)	1.8	(0)	0.0
	60대 이상	(121)	(114)	94.2	(10)	8.3	(9)	7.4	(11)	9.1	(8)	6.6
거주지 별	수도권	(163)	(150)	92.0	(13)	8.0	(11)	6.7	(7)	4.3	(4)	2.5
	부산/경남권	(92)	(88)	95.7	(7)	7.6	(2)	2.2	(4)	4.3	(1)	1.1
	대구/경북권	(36)	(34)	94.4	(0)	0.0	(3)	8.3	(1)	2.8	(0)	0.0
	대전/충청권	(25)	(23)	92.0	(2)	8.0	(1)	4.0	(0)	0.0	(1)	4.0
	광주/전라권	(46)	(42)	91.3	(1)	2.2	(3)	6.5	(4)	8.7	(1)	2.2
	강원, 제주	(12)	(10)	83.3	(3)	25.0	(0)	0.0	(1)	8.3	(1)	8.3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9)	(26)	89.7	(3)	10.3	(0)	0.0	(3)	10.3	(1)	3.4
	1~2년	(75)	(70)	93.3	(1)	1.3	(3)	4.0	(5)	6.7	(1)	1.3
	3~4년	(76)	(68)	89.5	(4)	5.3	(8)	10.5	(3)	3.9	(3)	3.9
	5~6년	(87)	(84)	96.6	(6)	6.9	(3)	3.4	(4)	4.6	(3)	3.4
	7년 이상	(107)	(99)	92.5	(12)	11.2	(6)	5.6	(2)	1.9	(0)	0.0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74),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자격소지자의 자격 분야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유형을 살펴본 결과, ‘미술’(71.5%), ‘음악’(82.2%)는 ‘대학’에서, ‘디자인’(54.5%), ‘공예’(41.3%)는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만화/애니메이션’(44.2%)과 ‘국악’(30.8%)은 기본연수 과정 이수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4]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비교 분석

		사례수 (명)	대학	문화예술 교육원	기본연수 과정 이수	국가무형 문화재	학점은행제
			%	%	%	%	%
전 체		(6,205)	60.3	30.2	13.6	6.0	1.7
자격 분야	공예	(276)	57.6	<u>41.3</u>	12.0	0.4	0.7
	국가무형문화재	(374)	5.3	4.5	7.0	<u>92.8</u>	2.1
	국악	(853)	51.3	30.2	<u>30.8</u>	2.0	<u>3.2</u>
	디자인	(325)	48.9	<u>54.5</u>	7.1	0.0	1.2
	만화/애니메이션	(154)	38.3	27.9	<u>44.2</u>	0.0	1.3
	무용	(520)	52.3	26.2	<u>29.6</u>	0.6	1.7
	미술	(1,018)	<u>71.5</u>	<u>37.8</u>	1.9	0.0	1.7
	사진	(117)	59.8	<u>35.9</u>	14.5	0.0	<u>3.4</u>
	연극	(927)	58.0	<u>33.7</u>	<u>18.6</u>	0.0	0.8
	영화	(145)	46.9	<u>34.5</u>	<u>31.7</u>	0.0	2.1
	음악	(1,496)	<u>82.2</u>	22.8	1.5	0.1	1.5

※ base : 전체(n=6,205),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고졸/비전공자의 자격 분야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유형을 살펴본 결과, ‘공예’, ‘디자인’, ‘영화’, ‘음악’ 분야는 모두 ‘문화예술교육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55] [고졸/비전공자]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비교 분석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원	대학	학점은행제	국가무형문화재
			%	%	%	%
전 체		(63)	77.8	33.3	7.9	1.6
자격 분야	공예	(8)	100.0	0.0	0.0	0.0
	국가무형문화재	-	-	-	-	-
	국악	(12)	75.0	41.7	0.0	0.0
	디자인	(2)	100.0	0.0	50.0	0.0
	만화/애니메이션	-	-	-	-	-
	무용	(3)	33.3	66.7	66.7	33.3
	미술	(16)	75.0	37.5	0.0	0.0
	사진	(2)	50.0	50.0	0.0	0.0
	연극	(14)	71.4	42.9	0.0	0.0
	영화	(3)	100.0	0.0	33.3	0.0
	음악	(3)	100.0	33.3	33.3	0.0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63), 복수응답

예술강사의 자격 분야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유형을 살펴본 결과, ‘공예’는 ‘기본연수 과정’(91.7%)을 이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영화’는 ‘기본연수 과정’(88.5%)과 ‘대학’(7.7%)에서 이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6] [예술강사]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비교 분석

		사례수 (명)	기본연수 과정 이수	문화예술 교육원	대학	국가무형 문화재	학점은행제
			%	%	%	%	%
전 체		(922)	84.2	17.8	2.8	1.3	0.8
자격 분야	공예	(36)	91.7	8.3	0.0	0.0	0.0
	국가무형문화재	-	-	-	-	-	-
	국악	(307)	83.4	17.6	2.6	3.6	1.6
	디자인	(21)	90.5	9.5	0.0	0.0	0.0
	만화/애니메이션	(83)	80.7	20.5	3.6	0.0	1.2
	무용	(179)	82.7	20.1	2.8	0.6	0.0
	미술	(17)	88.2	17.6	0.0	0.0	0.0
	사진	(16)	87.5	12.5	0.0	0.0	0.0
	연극	(194)	84.5	19.6	3.1	0.0	0.5
	영화	(52)	88.5	11.5	7.7	0.0	0.0
	음악	(17)	82.4	17.6	0.0	0.0	0.0

※ base : 예술강사 전체(n=922),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의 자격 분야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유형을 살펴본 결과, ‘무용’, ‘음악’을 제외한 분야는 ‘문화예술교육원’에서 이수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7] [예술전공자] 자격 분야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유형 비교 분석

		사례수 (명)	기본연수 과정 이수	문화예술 교육원	대학	국가무형 문화재	학점은행제
			%	%	%	%	%
전 체		(4,846)	75.8	33.9	1.8	0.9	0.2
자격 분야	공예	(232)	68.5	44.4	0.9	0.0	0.4
	국가무형문화재	-	-	-	-	-	-
	국악	(534)	79.6	36.5	4.1	1.3	1.1
	디자인	(302)	52.6	57.3	1.0	1.3	0.0
	만화/애니메이션	(71)	78.9	36.6	1.4	1.4	0.0
	무용	(338)	78.4	29.3	2.1	1.8	0.3
	미술	(985)	73.3	37.6	1.7	0.4	0.0
	사진	(99)	69.7	39.4	4.0	3.0	0.0
	연극	(719)	73.2	36.7	0.8	1.1	0.0
	영화	(90)	71.1	45.6	2.2	0.0	0.0
	음악	(1,476)	83.2	22.7	1.4	0.6	0.1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4,846),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6. 자격취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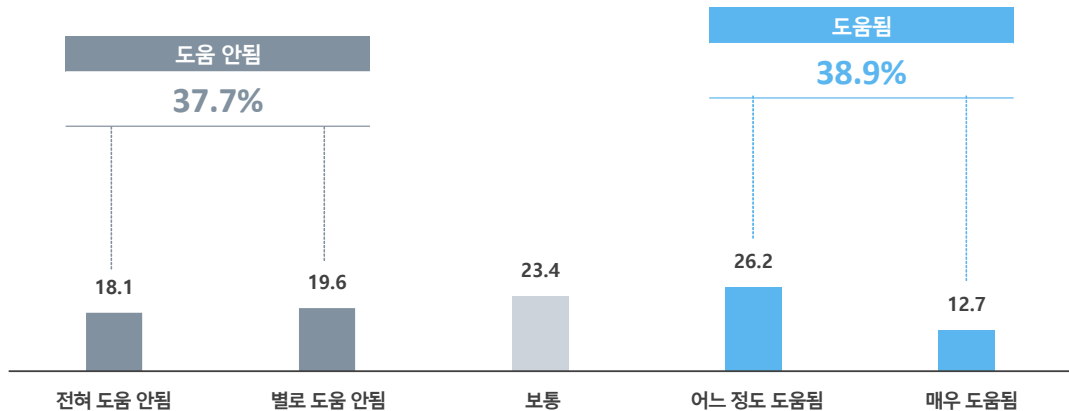
### 가. 업무 도움 정도

경제활동을 하는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8.9%(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7.7%(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그림 6] 업무 도움 정도

(n=4,066, 단위 : %, 점(5점 척도))

평균 **2.96 점**



[표 158]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066)	(1,531)	37.7	(952)	23.4	(1,583)	38.9	2.96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33)	(9)	27.3	(10)	30.3	(14)	42.4	3.27
	예술강사	(836)	(303)	36.2	(205)	24.5	(328)	39.2	3.00
	예술전공자	(2,917)	(1,106)	37.9	(679)	23.3	(1,132)	38.8	2.94
	국가무형문화재	(280)	(113)	40.4	(58)	20.7	(109)	38.9	2.93
성별	남성	(770)	(332)	43.1	(157)	20.4	(281)	36.5	2.83
	여성	(3,296)	(1,199)	36.4	(795)	24.1	(1,302)	39.5	2.99
연령 별	20대	(1,452)	(527)	36.3	(364)	25.1	(561)	38.6	2.95
	30대	(1,033)	(421)	40.8	(256)	24.8	(356)	34.5	2.85
	40대	(865)	(315)	36.4	(207)	23.9	(343)	39.7	3.01
	50대	(543)	(188)	34.6	(105)	19.3	(250)	46.0	3.14
	60대 이상	(173)	(80)	46.2	(20)	11.6	(73)	42.2	2.85
거주지 별	수도권	(2,043)	(825)	40.4	(502)	24.6	(716)	35.0	2.85
	부산/경남권	(561)	(197)	35.1	(139)	24.8	(225)	40.1	3.01
	대구/경북권	(363)	(124)	34.2	(84)	23.1	(155)	42.7	3.10
	대전/충청권	(437)	(152)	34.8	(95)	21.7	(190)	43.5	3.08
	광주/전라권	(522)	(183)	35.1	(105)	20.1	(234)	44.8	3.10
	강원, 제주	(140)	(50)	35.7	(27)	19.3	(63)	45.0	3.13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779)	(260)	33.4	(211)	27.1	(308)	39.5	3.03
	1~2년	(1,206)	(452)	37.5	(289)	24.0	(465)	38.6	2.93
	3~4년	(638)	(262)	41.1	(121)	19.0	(255)	40.0	2.94
	5~6년	(595)	(239)	40.2	(135)	22.7	(221)	37.1	2.91
	7년 이상	(848)	(318)	37.5	(196)	23.1	(334)	39.4	2.98

※ base : 현재 경제활동자(n=4,06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21년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38.9%)라는 응답은 수치상으로 2020년(50.6%) 대비 11.7% 하락하였다. 단, 다른 연도와 달리 2020년은 ‘20년 신규 자격취득자를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모집단의 특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오히려 2019년의 ‘도움이 된다’(41.1%)라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159] 2017-2021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비교 분석

		사례수 (곳)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평균(5점 척도)	
			%	GAP <sup>19)</sup>	%	GAP	%	GAP	점	GAP
전 체	2017년	(3,542)	41.8		25.0		33.3		2.84	
	2018년	(3,288)	38.6	-3.2	22.3	-2.7	39.0	5.7	2.95	0.11
	2019년	(3,205)	34.0	-4.6	24.9	2.6	41.1	2.1	3.07	0.12
	2020년	(2,210)	25.8	-8.2	23.6	-1.3	50.6	9.5	3.33	0.26
	2021년	(4,066)	37.7	11.9	23.4	-0.2	38.9	-11.7	2.96	-0.37
고졸/ 비전공자	2017년	(86)	41.9		20.9		37.2		2.86	
	2018년	(78)	37.2	-4.7	14.1	-6.8	48.7	11.5	3.12	0.26
	2019년	(72)	31.9	-5.3	20.8	6.7	47.2	-1.5	3.14	0.02
	2020년	(27)	14.8	-17.1	25.9	5.1	59.2	12.0	3.52	0.38
	2021년	(33)	27.3	12.5	30.3	4.4	42.4	-16.8	3.27	-0.25
예술장사	2017년	(1,332)	38.3		26.6		35.1		2.94	
	2018년	(975)	37.7	-0.6	24.7	-1.9	37.5	2.4	2.97	0.03
	2019년	(966)	34.1	-3.6	26.7	2.0	39.2	1.7	3.04	0.07
	2020년	(587)	30.0	-4.1	21.5	-5.2	48.5	9.3	3.26	0.22
	2021년	(836)	36.2	6.2	24.5	3.0	39.2	-9.3	3.00	-0.26
예술전공자	2017년	(1,606)	43.7		24.8		31.4		2.76	
	2018년	(1,771)	40.0	-3.7	24.1	-0.7	35.9	4.5	2.88	0.12
	2019년	(1,762)	33.3	-6.7	24.9	0.8	41.9	6.0	3.09	0.21
	2020년	(1,404)	24.0	-9.3	24.3	-0.6	51.7	9.8	3.37	0.28
	2021년	(2,917)	37.9	13.9	23.3	-1.0	38.8	-12.9	2.94	-0.43
국가무형 문화재	2017년	(518)	44.4		21.8		33.8		2.84	
	2018년	(464)	35.7	-8.7	11.9	-9.9	52.4	18.6	3.16	0.32
	2019년	(405)	37.6	1.9	21.5	9.6	41.0	-11.4	3.04	-0.12
	2020년	(192)	28.2	-9.4	24.5	3.0	47.4	6.4	3.27	0.23
	2021년	(280)	40.4	12.2	20.7	-3.8	38.9	-8.5	2.93	-0.3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19) GAP : 조사연도와 조사 직전연도와의 차이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42.4%(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7.3%(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표 160] [고졸/비전공자]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3)	(9)	27.3	(10)	30.3	(14)	42.4	3.27
성별	남성	(5)	(2)	40.0	(2)	40.0	(1)	20.0	2.60
	여성	(28)	(7)	25.0	(8)	28.6	(13)	46.4	3.39
연령 별	20대	-	-	-	-	-	-	-	-
	30대	(7)	(2)	28.6	(3)	42.9	(2)	28.6	3.00
	40대	(14)	(2)	14.3	(4)	28.6	(8)	57.1	3.71
	50대	(8)	(4)	50.0	(2)	25.0	(2)	25.0	2.63
	60대 이상	(4)	(1)	25.0	(1)	25.0	(2)	50.0	3.50
거주지 별	수도권	(17)	(5)	29.4	(5)	29.4	(7)	41.2	3.18
	부산/경남권	-	-	-	-	-	-	-	-
	대구/경북권	(3)	(0)	0.0	(1)	33.3	(2)	66.7	4.33
	대전/충청권	(3)	(1)	33.3	(0)	0.0	(2)	66.7	3.67
	광주/전라권	(9)	(3)	33.3	(4)	44.4	(2)	22.2	2.78
	강원, 제주	(1)	(0)	0.0	(0)	0.0	(1)	100.0	5.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1)	100.0	(0)	0.0	(0)	0.0	1.00
	1~2년	(1)	(0)	0.0	(0)	0.0	(1)	100.0	4.00
	3~4년	(9)	(1)	11.1	(4)	44.4	(4)	44.4	3.56
	5~6년	(16)	(4)	25.0	(5)	31.3	(7)	43.8	3.31
	7년 이상	(6)	(3)	50.0	(1)	16.7	(2)	33.3	3.00

※ base : 현재 경제활동 중인 고졸/비전공자(n=33)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9.2%(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6.2%(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50대 이상(50대 48.2%, 60대 이상 4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1] [예술강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36)	(303)	36.2	(205)	24.5	(328)	39.2	3.00
성별	남성	(153)	(65)	42.5	(33)	21.6	(55)	35.9	2.86
	여성	(683)	(238)	34.8	(172)	25.2	(273)	40.0	3.04
연령 별	20대	-	-	-	-	-	-	-	-
	30대	(225)	(78)	34.7	(63)	28.0	(84)	37.3	2.97
	40대	(386)	(141)	36.5	(108)	28.0	(137)	35.5	2.95
	50대	(195)	(69)	35.4	(32)	16.4	(94)	48.2	3.16
	60대 이상	(30)	(15)	50.0	(2)	6.7	(13)	43.3	2.93
거주지 별	수도권	(300)	(114)	38.0	(76)	25.3	(110)	36.7	2.91
	부산/경남권	(157)	(54)	34.4	(38)	24.2	(65)	41.4	3.10
	대구/경북권	(75)	(28)	37.3	(22)	29.3	(25)	33.3	2.95
	대전/충청권	(116)	(42)	36.2	(24)	20.7	(50)	43.1	3.09
	광주/전라권	(141)	(50)	35.5	(33)	23.4	(58)	41.1	3.01
	강원, 제주	(47)	(15)	31.9	(12)	25.5	(20)	42.6	3.17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	(2)	66.7	(1)	33.3	(0)	0.0	1.67
	1~2년	(3)	(1)	33.3	(0)	0.0	(2)	66.7	3.33
	3~4년	(35)	(19)	54.3	(8)	22.9	(8)	22.9	2.51
	5~6년	(179)	(62)	34.6	(51)	28.5	(66)	36.9	3.00
	7년 이상	(616)	(219)	35.6	(145)	23.5	(252)	40.9	3.04

※ base : 현재 경제활동 중인 예술강사(n=83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예술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8.8%(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7.9%(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40대 이상(40대 42.9%, 50대 46.2%, 60대 이상 49.2%)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0대(4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2] [예술전공자]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917)	(1,106)	37.9	(679)	23.3	(1,132)	38.8	2.94
성별	남성	(495)	(218)	44.0	(102)	20.6	(175)	35.4	2.79
	여성	(2,422)	(888)	36.7	(577)	23.8	(957)	39.5	2.98
연령 별	20대	(1,445)	(524)	36.3	(362)	25.1	(559)	38.7	2.95
	30대	(761)	(323)	42.4	(182)	23.9	(256)	33.6	2.81
	40대	(399)	(149)	37.3	(79)	19.8	(171)	42.9	3.03
	50대	(253)	(88)	34.8	(48)	19.0	(117)	46.2	3.14
	60대 이상	(59)	(22)	37.3	(8)	13.6	(29)	49.2	3.08
거주지 별	수도권	(1,600)	(651)	40.7	(390)	24.4	(559)	34.9	2.84
	부산/경남권	(338)	(116)	34.3	(89)	26.3	(133)	39.3	2.98
	대구/경북권	(256)	(85)	33.2	(58)	22.7	(113)	44.1	3.12
	대전/충청권	(299)	(99)	33.1	(66)	22.1	(134)	44.8	3.11
	광주/전라권	(340)	(122)	35.9	(64)	18.8	(154)	45.3	3.10
	강원, 제주	(84)	(33)	39.3	(12)	14.3	(39)	46.4	3.08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753)	(246)	32.7	(203)	27.0	(304)	40.4	3.06
	1~2년	(1,156)	(436)	37.7	(277)	24.0	(443)	38.3	2.92
	3~4년	(539)	(219)	40.6	(102)	18.9	(218)	40.4	2.94
	5~6년	(326)	(142)	43.6	(67)	20.6	(117)	35.9	2.81
	7년 이상	(143)	(63)	44.1	(30)	21.0	(50)	35.0	2.83

※ base : 현재 경제활동 중인 예술전공자(n=2,91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8.9%(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0.4%(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60대 이상(52.5%)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3]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80)	(113)	40.4	(58)	20.7	(109)	38.9	2.93
성별	남성	(117)	(47)	40.2	(20)	17.1	(50)	42.7	2.96
	여성	(163)	(66)	40.5	(38)	23.3	(59)	36.2	2.91
연령 별	20대	(7)	(3)	42.9	(2)	28.6	(2)	28.6	3.00
	30대	(40)	(18)	45.0	(8)	20.0	(14)	35.0	2.85
	40대	(66)	(23)	34.8	(16)	24.2	(27)	40.9	3.06
	50대	(87)	(27)	31.0	(23)	26.4	(37)	42.5	3.16
	60대 이상	(80)	(42)	52.5	(9)	11.3	(29)	36.3	2.61
거주지 별	수도권	(126)	(55)	43.7	(31)	24.6	(40)	31.7	2.78
	부산/경남권	(66)	(27)	40.9	(12)	18.2	(27)	40.9	2.95
	대구/경북권	(29)	(11)	37.9	(3)	10.3	(15)	51.7	3.17
	대전/충청권	(19)	(10)	52.6	(5)	26.3	(4)	21.1	2.37
	광주/전라권	(32)	(8)	25.0	(4)	12.5	(20)	62.5	3.56
	강원, 제주	(8)	(2)	25.0	(3)	37.5	(3)	37.5	3.13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2)	(11)	50.0	(7)	31.8	(4)	18.2	2.45
	1~2년	(46)	(15)	32.6	(12)	26.1	(19)	41.3	3.07
	3~4년	(55)	(23)	41.8	(7)	12.7	(25)	45.5	3.04
	5~6년	(74)	(31)	41.9	(12)	16.2	(31)	41.9	3.05
	7년 이상	(83)	(33)	39.8	(20)	24.1	(30)	36.1	2.81

※ base : 현재 경제활동 중인 국가무형문화재(n=28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분야별로 자격증 업무 도움 여부를 보면, 문화예술 교육 분야(45.5%),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44.6%)의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는 모두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프리랜서(예술강사) 역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48.1%),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42.5%)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64] 경제활동 분야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712)	(221)	31.0	(167)	23.5	(324)	45.5	3.17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581)	(190)	32.7	(132)	22.7	(259)	44.6	3.12
	타 분야	(464)	(306)	65.9	(93)	20.0	(65)	14.0	2.06
강의 중인 프리 랜서	정책지원사업 참여 예술강사	(1,002)	(281)	28.0	(239)	23.9	(482)	48.1	3.26
	민간영역 활동 예술강사	(937)	(314)	33.5	(225)	24.0	(398)	42.5	3.1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분야별로 자격증 업무 도움 여부를 보면,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는 모두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도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65] [고졸/비전공자] 경제활동 분야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5)	(1)	20.0	(2)	40.0	(2)	40.0	3.20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7)	(2)	28.6	(1)	14.3	(4)	57.1	3.71
	타 분야	(1)	(0)	0.0	(1)	100.0	(0)	0.0	3.00
강의 중인 프리 랜서	정책지원사업 참여 예술강사	(8)	(3)	37.5	(2)	25.0	(3)	37.5	3.00
	민간영역 활동 예술강사	(13)	(3)	23.1	(4)	30.8	(6)	46.2	3.3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분야별로 자격증 업무 도움 여부를 보면, 문화예술 교육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는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반면,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제외)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는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표 166] [예술강사] 경제활동 분야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111)	(49)	44.1	(27)	24.3	(35)	31.5	2.71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47)	(14)	29.8	(11)	23.4	(22)	46.8	3.06
	타 분야	(15)	(8)	53.3	(3)	20.0	(4)	26.7	2.27
강의 중인 프리 랜서	정책지원사업 참여 예술강사	(553)	(189)	34.2	(135)	24.4	(229)	41.4	3.10
	민간영역 활동 예술강사	(150)	(51)	34.0	(37)	24.7	(62)	41.3	3.1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분야별로 자격증 업무 도움 여부를 보면, 문화예술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는 모두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프리랜서도 활동 영역에 상관없이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표 167] [예술전공자] 경제활동 분야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548)	(153)	27.9	(133)	24.3	(262)	47.8	3.26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470)	(155)	33.0	(108)	23.0	(207)	44.0	3.11
	타 분야	(432)	(288)	66.7	(85)	19.7	(59)	13.7	2.05
강의 중인 프리 랜서	정책지원사업 참여 예술강사	(394)	(73)	18.5	(91)	23.1	(230)	58.4	3.52
	민간영역 활동 예술강사	(681)	(222)	32.6	(167)	24.5	(292)	42.9	3.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분야별로 자격증 업무 도움 여부를 보면, 문화예술 교육 분야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는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표 168] [국가무형문화재] 경제활동 분야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기관· 시설· 단체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 분야	(48)	(18)	37.5	(5)	10.4	(25)	52.1	3.13
	문화예술 관련 분야 (교육 제외)	(57)	(19)	33.3	(12)	21.1	(26)	45.6	3.18
	타 분야	(16)	(10)	62.5	(4)	25.0	(2)	12.5	2.00
강의 중인 프리 랜서	정책지원사업 참여 예술강사	(47)	(16)	34.0	(11)	23.4	(20)	42.6	3.11
	민간영역 활동 예술강사	(93)	(38)	40.9	(17)	18.3	(38)	40.9	3.0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의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에서는 국·공립·공공기관(51.1%)과 예술단체(48.1%)에 소속된 자격소지자의 업무 도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또한, 비정규직(46.4%) 자격소지자의 업무 도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9]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현 소속기관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전 체		(1,293)	(411)	31.8	(299)	23.1	(583)	45.1	3.15
현 소속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331)	(80)	24.2	(82)	24.8	(169)	51.1	3.37
	정부부처, 지자체	(117)	(39)	33.3	(28)	23.9	(50)	42.7	3.11
	예술단체	(289)	(84)	29.1	(66)	22.8	(139)	48.1	3.19
	사기업	(250)	(104)	41.6	(54)	21.6	(92)	36.8	2.88
	초, 중, 고등학교	(162)	(53)	32.7	(34)	21.0	(75)	46.3	3.15
	대학교	(58)	(25)	43.1	(8)	13.8	(25)	43.1	3.02
	기타	(86)	(26)	30.2	(27)	31.4	(33)	38.4	3.05
근무 형태	정규직	(450)	(163)	36.2	(95)	21.1	(192)	42.7	3.04
	비정규직	(843)	(248)	29.4	(204)	24.2	(391)	46.4	3.21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n=1,29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국·공립·공공기관과 예술단체에 소속된 고졸/비전공자의 업무 도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았고, 비정규직의 업무 도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70]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현 소속기관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	(3)	25.0	(3)	25.0	(6)	50.0	3.50
현 소속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5)	(1)	20.0	(2)	40.0	(2)	40.0	3.40
	정부부처, 지자체	(1)	(1)	100.0	(0)	0.0	(0)	0.0	2.00
	예술단체	(4)	(0)	0.0	(1)	25.0	(3)	75.0	4.50
	사기업	(1)	(1)	100.0	(0)	0.0	(0)	0.0	1.00
	초, 중, 고등학교	-	-	-	-	-	-	-	-
	대학교	-	-	-	-	-	-	-	-
	기타	(1)	(0)	0.0	(0)	0.0	(1)	100.0	4.00
근무 형태	정규직	(7)	(3)	42.9	(2)	28.6	(2)	28.6	2.71
	비정규직	(5)	(0)	0.0	(1)	20.0	(4)	80.0	4.60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고졸/비전공자(n=1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국·공립·공공기관(43.2%)과 예술단체(47.5%)에 소속된 예술강사의 업무 도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았고, 비정규직(42.1%)의 업무 도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71] [예술강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현 소속기관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58)	(63)	39.9	(38)	24.1	(57)	36.1	2.82
현 소속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37)	(10)	27.0	(11)	29.7	(16)	<b>43.2</b>	3.05
	정부부처, 지자체	(19)	(8)	42.1	(7)	36.8	(4)	21.1	2.53
	예술단체	(40)	(13)	32.5	(8)	20.0	(19)	<b>47.5</b>	3.15
	사기업	(11)	(8)	72.7	(1)	9.1	(2)	18.2	1.91
	초, 중, 고등학교	(25)	(10)	40.0	(4)	16.0	(11)	44.0	2.96
	대학교	(16)	(9)	56.3	(3)	18.8	(4)	25.0	2.50
	기타	(10)	(5)	50.0	(4)	40.0	(1)	10.0	2.30
근무 형태	정규직	(37)	(22)	<b>59.5</b>	(9)	24.3	(6)	16.2	2.14
	비정규직	(121)	(41)	33.9	(29)	24.0	(51)	<b>42.1</b>	3.02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강사(n=15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사기업에 소속된 예술전공자를 제외하고 모두 업무 도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72] [예술전공자]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현 소속기관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018)	(308)	30.3	(241)	23.7	(469)	46.1	3.19
현 소속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265)	(62)	23.4	(67)	25.3	(136)	51.3	3.40
	정부부처, 지자체	(88)	(26)	29.5	(20)	22.7	(42)	47.7	3.25
	예술단체	(188)	(53)	28.2	(45)	23.9	(90)	47.9	3.19
	사기업	(237)	(95)	40.1	(52)	21.9	(90)	38.0	2.93
	초, 중, 고등학교	(132)	(39)	29.5	(30)	22.7	(63)	47.7	3.22
	대학교	(39)	(15)	38.5	(5)	12.8	(19)	48.7	3.18
	기타	(69)	(18)	26.1	(22)	31.9	(29)	42.0	3.17
근무 형태	정규직	(366)	(121)	33.1	(79)	21.6	(166)	45.4	3.13
	비정규직	(652)	(187)	28.7	(162)	24.8	(303)	46.5	3.23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전공자(n=1,01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정규직 국가무형문화재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표 173]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현 소속기관별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05)	(37)	35.2	(17)	16.2	(51)	48.6	3.15
현 소속 기관	국·공립·공공기관	(24)	(7)	29.2	(2)	8.3	(15)	62.5	3.50
	정부부처, 지자체	(9)	(4)	44.4	(1)	11.1	(4)	44.4	3.11
	예술단체	(57)	(18)	31.6	(12)	21.1	(27)	47.4	3.11
	사기업	(1)	(0)	0.0	(1)	100.0	(0)	0.0	3.00
	초, 중, 고등학교	(5)	(4)	80.0	(0)	0.0	(1)	20.0	2.40
	대학교	(3)	(1)	33.3	(0)	0.0	(2)	66.7	3.67
	기타	(6)	(3)	50.0	(1)	16.7	(2)	33.3	2.67
근무 형태	정규직	(40)	(17)	42.5	(5)	12.5	(18)	45.0	3.03
	비정규직	(65)	(20)	30.8	(12)	18.5	(33)	50.8	3.23

※ base :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국가무형문화재(n=10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나. 업무에 도움 된 이유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26.3%),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18.3%),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14.5%)의 순이었다.

[그림 7] 업무에 도움 된 이유

(n=1,583, 단위 : %)



\* 기타 3.7%

\* 모름/무응답 0.3%

[표 174]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사례 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583)	(585)	37.0	(416)	26.3	(290)	18.3	(229)	14.5
자격 요건 별	고졸/비전공자	(14)	(3)	21.4	(4)	28.6	(4)	28.6	(1)	7.1
	예술강사	(328)	(148)	<u>45.1</u>	(54)	16.5	(50)	15.2	(53)	<u>16.2</u>
	예술전공자	(1,132)	(391)	34.5	(332)	<u>29.3</u>	(220)	19.4	(155)	13.7
	국가무형문화재	(109)	(43)	<u>39.4</u>	(26)	23.9	(16)	14.7	(20)	<u>18.3</u>
성별	남성	(281)	(97)	34.5	(86)	<u>30.6</u>	(53)	18.9	(35)	12.5
	여성	(1,302)	(488)	37.5	(330)	25.3	(237)	18.2	(194)	14.9
연령 별	20대	(561)	(193)	34.4	(160)	<u>28.5</u>	(108)	19.3	(82)	14.6
	30대	(356)	(133)	37.4	(92)	25.8	(62)	17.4	(55)	15.4
	40대	(343)	(141)	<u>41.1</u>	(76)	22.2	(64)	18.7	(43)	12.5
	50대	(250)	(96)	<u>38.4</u>	(65)	26.0	(47)	18.8	(35)	14.0
	60대 이상	(73)	(22)	30.1	(23)	<u>31.5</u>	(9)	12.3	(14)	<u>19.2</u>
거주 지별	수도권	(716)	(268)	37.4	(185)	25.8	(125)	17.5	(106)	14.8
	부산/경남권	(225)	(85)	37.8	(56)	24.9	(43)	19.1	(33)	14.7
	대구/경북권	(155)	(49)	31.6	(47)	<u>30.3</u>	(31)	<u>20.0</u>	(24)	15.5
	대전/충청권	(190)	(72)	37.9	(51)	26.8	(34)	17.9	(21)	11.1
	광주/전라권	(234)	(92)	<u>39.3</u>	(55)	23.5	(45)	19.2	(39)	<u>16.7</u>
	강원, 제주	(63)	(19)	30.2	(22)	<u>34.9</u>	(12)	19.0	(6)	9.5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308)	(99)	32.1	(96)	<u>31.2</u>	(67)	<u>21.8</u>	(41)	13.3
	1~2년	(465)	(169)	36.3	(134)	<u>28.8</u>	(86)	18.5	(62)	13.3
	3~4년	(255)	(73)	28.6	(81)	<u>31.8</u>	(50)	<u>19.6</u>	(41)	<u>16.1</u>
	5~6년	(221)	(91)	<u>41.2</u>	(50)	22.6	(30)	13.6	(38)	<u>17.2</u>
	7년 이상	(334)	(153)	<u>45.8</u>	(55)	16.5	(57)	17.1	(47)	14.1

※ base :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 됨' 응답자(n=1,583), 기타 3.7%, 모름/무응답 0.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5개년 모두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5] 2017~2021 자격증취득 업무에 도움 된 이유 비교 분석

		사례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명	GAP <sup>20)</sup>	명	GAP	명	GAP	명	GAP
전 체	2017년	(1,178)	46.5		22.6		15.0		11.5	
	2018년	(1,283)	46.0	-0.5	18.8	-3.8	17.8	2.8	14.5	3.0
	2019년	(1,317)	42.2	-3.8	21.6	2.8	19.4	1.6	13.7	-0.8
	2020년	(1,118)	40.1	-2.1	23.2	1.6	17.8	-1.6	13.4	-0.3
	2021년	(1,583)	37.0	-3.1	26.3	3.1	18.3	0.5	14.5	1.1
고졸/ 비전공자	2017년	(32)	50.0		15.6		15.6		15.6	
	2018년	(38)	55.3	5.3	15.8	0.2	21.1	5.5	7.9	-7.7
	2019년	(34)	38.2	-17.1	20.6	4.8	14.7	-6.4	26.5	18.6
	2020년	(16)	31.3	-7.0	12.5	-8.1	37.5	22.8	12.5	-14.0
	2021년	(14)	21.4	-9.9	28.6	16.1	28.6	-8.9	7.1	-5.4
예술강사	2017년	(467)	53.7		16.9		12.2		12.4	
	2018년	(366)	51.9	-1.8	14.8	-2.1	13.4	1.2	15.6	3.2
	2019년	(379)	49.6	-2.3	14.0	-0.8	19.5	6.1	12.7	-2.9
	2020년	(285)	43.9	-5.7	20.4	6.4	17.9	-1.6	10.5	-2.2
	2021년	(328)	<u>45.1</u>	1.2	16.5	-3.9	15.2	-2.7	<u>16.2</u>	5.7
예술 전공자	2017년	(504)	37.9		32.3		13.9		10.7	
	2018년	(636)	39.5	1.6	23.6	-8.7	17.1	3.2	17.0	6.3
	2019년	(738)	37.1	-2.4	28.0	4.4	17.8	0.7	14.1	-2.9
	2020년	(726)	39.0	1.9	24.7	-3.3	16.9	-0.9	14.3	0.2
	2021년	(1,132)	34.5	-4.5	<u>29.3</u>	4.6	19.4	2.5	13.7	-0.6
국가무형 문화재	2017년	(175)	51.4		10.9		25.7		10.9	
	2018년	(243)	52.7	1.3	12.8	1.9	25.5	-0.2	7.4	-3.5
	2019년	(166)	48.8	-3.9	10.2	-2.6	27.7	2.2	11.4	4.0
	2020년	(91)	38.5	-10.3	22.0	11.8	20.9	-6.8	15.4	4.0
	2021년	(109)	<u>39.4</u>	0.9	23.9	1.9	14.7	-6.2	<u>18.3</u>	2.9

※ 2021년 기준 내림자순 정렬하였으며, ‘기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고졸/비전공자의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가 각각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76] [고졸/비전공자]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사례 수 (명)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4)	(4)	28.6	(4)	28.6	(3)	21.4	(1)	7.1
성별	남성	(1)	(0)	0.0	(0)	0.0	(1)	100.0	(0)	0.0
	여성	(13)	(4)	30.8	(4)	30.8	(2)	15.4	(1)	7.7
연령 별	20대	-	-	-	-	-	-	-	-	-
	30대	(2)	(0)	0.0	(2)	100.0	(0)	0.0	(0)	0.0
	40대	(8)	(2)	25.0	(1)	12.5	(2)	25.0	(1)	12.5
	50대	(2)	(2)	100.0	(0)	0.0	(0)	0.0	(0)	0.0
	60대 이상	(2)	(0)	0.0	(1)	50.0	(1)	50.0	(0)	0.0
거주 지별	수도권	(7)	(3)	42.9	(2)	28.6	(1)	14.3	(1)	14.3
	부산/경남권	-	-	-	-	-	-	-	-	-
	대구/경북권	(2)	(0)	0.0	(1)	50.0	(1)	50.0	(0)	0.0
	대전/충청권	(2)	(0)	0.0	(0)	0.0	(0)	0.0	(0)	0.0
	광주/전라권	(2)	(0)	0.0	(1)	50.0	(1)	50.0	(0)	0.0
	강원, 제주	(1)	(1)	100.0	(0)	0.0	(0)	0.0	(0)	0.0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	-	-	-	-	-	-	-	-
	1~2년	(1)	(0)	0.0	(0)	0.0	(1)	100.0	(0)	0.0
	3~4년	(4)	(1)	25.0	(2)	50.0	(0)	0.0	(0)	0.0
	5~6년	(7)	(3)	42.9	(1)	14.3	(2)	28.6	(0)	0.0
	7년 이상	(2)	(0)	0.0	(1)	50.0	(0)	0.0	(1)	50.0

※ base :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 됨’ 응답한 고졸/비전공자(n=14), 기타 14.3%는 표에서 제외

예술강사의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45.1%),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16.5%) 등의 순이었다.

[표 177] [예술강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사례 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28)	(148)	45.1	(54)	16.5	(53)	16.2	(50)	15.2
성별	남성	(55)	(18)	32.7	(10)	18.2	(13)	23.6	(10)	18.2
	여성	(273)	(130)	47.6	(44)	16.1	(40)	14.7	(40)	14.7
연령 별	20대	-	-	-	-	-	-	-	-	-
	30대	(84)	(36)	42.9	(15)	17.9	(13)	15.5	(14)	16.7
	40대	(137)	(62)	45.3	(18)	13.1	(22)	16.1	(23)	16.8
	50대	(94)	(46)	48.9	(18)	19.1	(14)	14.9	(12)	12.8
	60대 이상	(13)	(4)	30.8	(3)	23.1	(4)	30.8	(1)	7.7
거주 지별	수도권	(110)	(47)	42.7	(16)	14.5	(19)	17.3	(12)	10.9
	부산/경남권	(65)	(35)	53.8	(6)	9.2	(10)	15.4	(10)	15.4
	대구/경북권	(25)	(9)	36.0	(7)	28.0	(4)	16.0	(5)	20.0
	대전/충청권	(50)	(22)	44.0	(9)	18.0	(8)	16.0	(10)	20.0
	광주/전라권	(58)	(28)	48.3	(11)	19.0	(10)	17.2	(8)	13.8
	강원, 제주	(20)	(7)	35.0	(5)	25.0	(2)	10.0	(5)	25.0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	-	-	-	-	-	-	-	-
	1~2년	(2)	(0)	0.0	(2)	100.0	(0)	0.0	(0)	0.0
	3~4년	(8)	(3)	37.5	(2)	25.0	(2)	25.0	(1)	12.5
	5~6년	(66)	(27)	40.9	(14)	21.2	(13)	19.7	(8)	12.1
	7년 이상	(252)	(118)	46.8	(36)	14.3	(38)	15.1	(41)	16.3

※ base :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 됨’ 응답한 예술강사(n=328), 기타 6.4%, 모름/무응답 0.6%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예술전공자의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34.5%),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29.3%) 등의 순이었다.

30대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36.7%),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15.6%)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은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40대 31.6%, 50대 35.0%, 60대 이상 37.9%)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178] [예술전공자]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사례 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32)	(391)	34.5	(332)	29.3	(220)	19.4	(155)	13.7
성별	남성	(175)	(56)	32.0	(66)	37.7	(35)	20.0	(13)	7.4
	여성	(957)	(335)	35.0	(266)	27.8	(185)	19.3	(142)	14.8
연령 별	20대	(559)	(193)	34.5	(159)	28.4	(108)	19.3	(81)	14.5
	30대	(256)	(94)	36.7	(67)	26.2	(48)	18.8	(40)	15.6
	40대	(171)	(61)	35.7	(54)	31.6	(34)	19.9	(19)	11.1
	50대	(117)	(37)	31.6	(41)	35.0	(24)	20.5	(12)	10.3
	60대 이상	(29)	(6)	20.7	(11)	37.9	(6)	20.7	(3)	10.3
거주 지별	수도권	(559)	(207)	37.0	(159)	28.4	(101)	18.1	(77)	13.8
	부산/경남권	(133)	(42)	31.6	(43)	32.3	(29)	21.8	(17)	12.8
	대구/경북권	(113)	(30)	26.5	(35)	31.0	(26)	23.0	(18)	15.9
	대전/충청권	(134)	(48)	35.8	(41)	30.6	(24)	17.9	(13)	9.7
	광주/전라권	(154)	(52)	33.8	(38)	24.7	(35)	22.7	(27)	17.5
	강원, 제주	(39)	(12)	30.8	(16)	41.0	(5)	12.8	(3)	7.7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304)	(97)	31.9	(94)	30.9	(67)	22.0	(41)	13.5
	1~2년	(443)	(158)	35.7	(125)	28.2	(86)	19.4	(60)	13.5
	3~4년	(218)	(65)	29.8	(71)	32.6	(43)	19.7	(31)	14.2
	5~6년	(117)	(49)	41.9	(30)	25.6	(14)	12.0	(18)	15.4
	7년 이상	(50)	(22)	44.0	(12)	24.0	(10)	20.0	(5)	10.0

※ base :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 됨’ 응답한 예술전공자(n=1,132), 기타 2.7%, 모름/무응답 0.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의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39.4%),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23.9%) 등의 순이었다.

50대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및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각각 24.3%)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179] [국가무형문화재]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 된 이유

		사례 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09)	(43)	39.4	(26)	23.9	(20)	18.3	(16)	14.7
성별	남성	(50)	(22)	44.0	(10)	20.0	(9)	18.0	(8)	16.0
	여성	(59)	(21)	35.6	(16)	27.1	(11)	18.6	(8)	13.6
연령 별	20대	(2)	(0)	0.0	(1)	50.0	(1)	50.0	(0)	0.0
	30대	(14)	(3)	21.4	(8)	57.1	(2)	14.3	(0)	0.0
	40대	(27)	(16)	59.3	(3)	11.1	(1)	3.7	(5)	18.5
	50대	(37)	(13)	35.1	(6)	16.2	(9)	24.3	(9)	24.3
	60대 이상	(29)	(11)	37.9	(8)	27.6	(7)	24.1	(2)	6.9
거주 지별	수도권	(40)	(13)	32.5	(8)	20.0	(9)	22.5	(9)	22.5
	부산/경남권	(27)	(8)	29.6	(7)	25.9	(6)	22.2	(4)	14.8
	대구/경북권	(15)	(9)	60.0	(4)	26.7	(2)	13.3	(0)	0.0
	대전/충청권	(4)	(2)	50.0	(1)	25.0	(0)	0.0	(0)	0.0
	광주/전라권	(20)	(11)	55.0	(5)	25.0	(2)	10.0	(2)	10.0
	강원, 제주	(3)	(0)	0.0	(1)	33.3	(1)	33.3	(1)	33.3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4)	(2)	50.0	(2)	50.0	(0)	0.0	(0)	0.0
	1~2년	(19)	(10)	52.6	(7)	36.8	(2)	10.5	(0)	0.0
	3~4년	(25)	(5)	20.0	(6)	24.0	(8)	32.0	(5)	20.0
	5~6년	(31)	(13)	41.9	(5)	16.1	(7)	22.6	(5)	16.1
	7년 이상	(30)	(13)	43.3	(6)	20.0	(3)	10.0	(6)	20.0

※ base :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 됨’ 응답한 국가무형문화재(n=109), 기타 3.7%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다.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안 된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28.9%),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중심이어서’(10.3%),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10.0%)의 순이었다.

[그림 8]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n=1,531, 단위 : %)



\* 기타 6.0%

\* 모름/무응답 0.2%



[표 180]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사례 수 (명)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론중심이어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531)	(684)	44.7	(442)	28.9	(157)	10.3	(153)	10.0
자격 요건 별	고졸/비전공자	(9)	(2)	22.2	(3)	33.3	(1)	11.1	(1)	11.1
	예술강사	(303)	(192)	63.4	(32)	10.6	(28)	9.2	(26)	8.6
	예술전공자	(1,106)	(426)	38.5	(392)	35.4	(117)	10.6	(109)	9.9
	국가무형문화재	(113)	(64)	56.6	(15)	13.3	(11)	9.7	(17)	15.0
성별	남성	(332)	(140)	42.2	(112)	33.7	(34)	10.2	(28)	8.4
	여성	(1,199)	(544)	45.4	(330)	27.5	(123)	10.3	(125)	10.4
연령 별	20대	(527)	(193)	36.6	(222)	42.1	(53)	10.1	(44)	8.3
	30대	(421)	(176)	41.8	(120)	28.5	(46)	10.9	(50)	11.9
	40대	(315)	(160)	50.8	(61)	19.4	(34)	10.8	(26)	8.3
	50대	(188)	(104)	55.3	(30)	16.0	(20)	10.6	(22)	11.7
	60대 이상	(80)	(51)	63.8	(9)	11.3	(4)	5.0	(11)	13.8
거주 지별	수도권	(825)	(350)	42.4	(269)	32.6	(81)	9.8	(80)	9.7
	부산/경남권	(197)	(91)	46.2	(50)	25.4	(24)	12.2	(16)	8.1
	대구/경북권	(124)	(62)	50.0	(27)	21.8	(13)	10.5	(13)	10.5
	대전/충청권	(152)	(79)	52.0	(39)	25.7	(15)	9.9	(16)	10.5
	광주/전라권	(183)	(79)	43.2	(48)	26.2	(19)	10.4	(21)	11.5
	강원, 제주	(50)	(23)	46.0	(9)	18.0	(5)	10.0	(7)	14.0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260)	(99)	38.1	(102)	39.2	(24)	9.2	(22)	8.5
	1~2년	(452)	(176)	38.9	(168)	37.2	(50)	11.1	(37)	8.2
	3~4년	(262)	(101)	38.5	(82)	31.3	(32)	12.2	(30)	11.5
	5~6년	(239)	(123)	51.5	(52)	21.8	(21)	8.8	(24)	10.0
	7년 이상	(318)	(185)	58.2	(38)	11.9	(30)	9.4	(40)	12.6

※ base :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 안 됨' 응답자(n=1,531), 기타 6.0%, 모름/무응답 0.2%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5개년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2021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이어서’(10.3%)가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10.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81] 2017-2021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안 된 이유 비교 분석

		사례수 (명)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이어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	GAP <sup>21)</sup>	%	GAP	%	GAP	%	GAP
전 체	2017년	(2,364)	50.6		18.9		7.4		12.9	
	2018년	(1,271)	59.8	9.2	23.4	4.5	5.4	-2.0	8.3	-4.6
	2019년	(1,090)	56.6	-3.2	17.2	-6.2	3.8	-1.6	11.4	3.1
	2020년	(571)	51.8	-4.8	17.7	0.5	6.5	2.7	11.2	-0.2
	2021년	(1,531)	44.7	-7.1	28.9	11.2	10.3	3.8	10.0	-1.2
고졸/ 비전공자	2017년	(54)	61.1		18.5		7.4		7.4	
	2018년	(29)	58.6	-2.5	34.5	16.0	0.0	-7.4	6.9	-0.5
	2019년	(23)	39.1	-19.5	30.4	-4.1	0.0	0.0	8.7	1.8
	2020년	(4)	25.0	-14.1	50.0	19.6	0.0	0.0	0.0	-8.7
	2021년	(9)	22.2	-2.8	33.3	-16.7	11.1	11.1	11.1	11.1
예술강사	2017년	(865)	61.5		7.9		6.9		13.2	
	2018년	(368)	72.0	10.5	14.1	6.2	3.3	-3.6	6.8	-6.4
	2019년	(329)	68.4	-3.6	6.7	-7.4	2.4	-0.9	10.0	3.2
	2020년	(176)	69.3	0.9	5.7	-1.0	7.4	5.0	7.4	-2.6
	2021년	(303)	63.4	-5.9	10.6	4.9	9.2	1.8	8.6	1.2
예술 전공자	2017년	(1,102)	35.5		29.7		8.9		14.2	
	2018년	(708)	51.6	16.1	28.8	-0.9	7.1	-1.8	9.7	-4.5
	2019년	(586)	48.1	-3.5	24.1	-4.7	4.9	-2.2	12.1	2.4
	2020년	(337)	40.7	-7.4	24.9	0.8	6.5	1.6	14.8	2.7
	2021년	(1,106)	38.5	-2.2	35.4	10.5	10.6	4.1	9.9	-4.9
국가무형 문화재	2017년	(343)	70.3		12.2		3.5		8.7	
	2018년	(166)	68.1	-2.2	18.7	6.5	3.6	0.1	6.0	-2.7
	2019년	(152)	66.4	-1.7	11.8	-6.9	2.6	-1.0	11.8	5.8
	2020년	(54)	66.7	0.3	9.3	-2.5	3.7	1.1	1.9	-9.9
	2021년	(113)	56.6	-10.1	13.3	4.0	9.7	6.0	15.0	13.1

※ 2021년 기준 내림자순 정렬하였으며, ‘기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1)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고졸/비전공자의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안 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없어서’(33.3%),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22.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중심이어서’ 및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각각 11.1%)의 순이었다.

[표 182] [고졸/비전공자]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사례 수 (명)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중심이어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	(3)	33.3	(2)	22.2	(1)	11.1	(1)	11.1
성별	남성	(2)	(1)	50.0	(1)	50.0	(0)	0.0	(0)	0.0
	여성	(7)	(2)	28.6	(1)	14.3	(1)	14.3	(1)	14.3
연령 별	20대	-	-	-	-	-	-	-	-	-
	30대	(2)	(1)	50.0	(0)	0.0	(1)	50.0	(0)	0.0
	40대	(2)	(1)	50.0	(0)	0.0	(0)	0.0	(0)	0.0
	50대	(4)	(1)	25.0	(1)	25.0	(0)	0.0	(1)	25.0
	60대 이상	(1)	(0)	0.0	(1)	100.0	(0)	0.0	(0)	0.0
거주 지별	수도권	(5)	(2)	40.0	(1)	20.0	(1)	20.0	(0)	0.0
	부산/경남권	-	-	-	-	-	-	-	-	-
	대구/경북권	-	-	-	-	-	-	-	-	-
	대전/충청권	(1)	(1)	100.0	(0)	0.0	(0)	0.0	(0)	0.0
	광주/전라권	(3)	(0)	0.0	(1)	33.3	(0)	0.0	(1)	33.3
	강원, 제주	-	-	-	-	-	-	-	-	-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1)	(1)	100.0	(0)	0.0	(0)	0.0	(0)	0.0
	1~2년	-	-	-	-	-	-	-	-	-
	3~4년	(1)	(0)	0.0	(0)	0.0	(0)	0.0	(0)	0.0
	5~6년	(4)	(2)	50.0	(2)	50.0	(0)	0.0	(0)	0.0
	7년 이상	(3)	(0)	0.0	(0)	0.0	(1)	33.3	(1)	33.3

※ base :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 안 됨’ 응답한 고졸/비전공자(n=9), 기타 22.2%는 표에서 제외

예술강사의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안 된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63.4%),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10.6%) 등의 순이었다.

30대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14.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 중심이어서’(12.8%)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183] [예술강사]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사례 수 (명)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중심이어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03)	(192)	63.4	(32)	10.6	(28)	9.2	(26)	8.6
성별	남성	(65)	(42)	64.6	(11)	16.9	(5)	7.7	(3)	4.6
	여성	(238)	(150)	63.0	(21)	8.8	(23)	9.7	(23)	9.7
연령 별	20대	-	-	-	-	-	-	-	-	-
	30대	(78)	(46)	59.0	(11)	14.1	(10)	12.8	(7)	9.0
	40대	(141)	(90)	63.8	(19)	13.5	(10)	7.1	(10)	7.1
	50대	(69)	(47)	68.1	(2)	2.9	(7)	10.1	(6)	8.7
	60대 이상	(15)	(9)	60.0	(0)	0.0	(1)	6.7	(3)	20.0
거주 지별	수도권	(114)	(75)	65.8	(9)	7.9	(8)	7.0	(12)	10.5
	부산/경남권	(54)	(32)	59.3	(7)	13.0	(6)	11.1	(4)	7.4
	대구/경북권	(28)	(19)	67.9	(2)	7.1	(5)	17.9	(0)	0.0
	대전/충청권	(42)	(24)	57.1	(6)	14.3	(5)	11.9	(5)	11.9
	광주/전라권	(50)	(30)	60.0	(6)	12.0	(4)	8.0	(5)	10.0
	강원, 제주	(15)	(12)	80.0	(2)	13.3	(0)	0.0	(0)	0.0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2)	(2)	100.0	(0)	0.0	(0)	0.0	(0)	0.0
	1~2년	(1)	(1)	100.0	(0)	0.0	(0)	0.0	(0)	0.0
	3~4년	(19)	(13)	68.4	(5)	26.3	(0)	0.0	(0)	0.0
	5~6년	(62)	(38)	61.3	(8)	12.9	(4)	6.5	(5)	8.1
	7년 이상	(219)	(138)	63.0	(19)	8.7	(24)	11.0	(21)	9.6

※ base :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 안 됨’ 응답한 예술강사(n=9), 기타 8.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의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안 된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38.5%),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35.4%) 등의 순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연령이 낮을수록(50대 제외)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84] [예술전공자]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사례 수 (명)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서 이론중심이어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06)	(426)	38.5	(392)	35.4	(117)	10.6	(109)	9.9
성별	남성	(218)	(71)	32.6	(90)	41.3	(25)	11.5	(20)	9.2
	여성	(888)	(355)	40.0	(302)	34.0	(92)	10.4	(89)	10.0
연령 별	20대	(524)	(191)	36.5	(221)	42.2	(53)	10.1	(44)	8.4
	30대	(323)	(124)	38.4	(105)	32.5	(32)	9.9	(39)	12.1
	40대	(149)	(59)	39.6	(38)	25.5	(19)	12.8	(13)	8.7
	50대	(88)	(41)	46.6	(24)	27.3	(11)	12.5	(9)	10.2
	60대 이상	(22)	(11)	50.0	(4)	18.2	(2)	9.1	(4)	18.2
거주 지별	수도권	(651)	(243)	37.3	(247)	37.9	(69)	10.6	(61)	9.4
	부산/경남권	(116)	(44)	37.9	(42)	36.2	(15)	12.9	(7)	6.0
	대구/경북권	(85)	(35)	41.2	(24)	28.2	(7)	8.2	(12)	14.1
	대전/충청권	(99)	(49)	49.5	(32)	32.3	(8)	8.1	(9)	9.1
	광주/전라권	(122)	(44)	36.1	(40)	32.8	(14)	11.5	(14)	11.5
	강원, 제주	(33)	(11)	33.3	(7)	21.2	(4)	12.1	(6)	18.2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246)	(89)	36.2	(99)	40.2	(23)	9.3	(22)	8.9
	1~2년	(436)	(165)	37.8	(166)	38.1	(48)	11.0	(36)	8.3
	3~4년	(219)	(73)	33.3	(75)	34.2	(29)	13.2	(27)	12.3
	5~6년	(142)	(64)	45.1	(39)	27.5	(16)	11.3	(15)	10.6
	7년 이상	(63)	(35)	55.6	(13)	20.6	(1)	1.6	(9)	14.3

※ base :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 안 됨’ 응답한 예술전공자(n=1,106)

※ 기타 5.3%, 모름/무응답 0.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국가무형문화재의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안 된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56.6%),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15.0%)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은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71.4%)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5] [국가무형문화재] 업무에 도움 안 된 이유

		사례 수 (명)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론중심이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3)	(64)	56.6	(17)	15.0	(15)	13.3	(11)	9.7
성별	남성	(47)	(26)	55.3	(5)	10.6	(10)	21.3	(4)	8.5
	여성	(66)	(38)	57.6	(12)	18.2	(5)	7.6	(7)	10.6
연령 별	20대	(3)	(2)	66.7	(0)	0.0	(1)	33.3	(0)	0.0
	30대	(18)	(6)	33.3	(4)	22.2	(3)	16.7	(3)	16.7
	40대	(23)	(11)	47.8	(3)	13.0	(3)	13.0	(5)	21.7
	50대	(27)	(15)	55.6	(6)	22.2	(3)	11.1	(2)	7.4
	60대 이상	(42)	(30)	71.4	(4)	9.5	(5)	11.9	(1)	2.4
거주 지별	수도권	(55)	(31)	56.4	(7)	12.7	(11)	20.0	(3)	5.5
	부산/경남권	(27)	(15)	55.6	(5)	18.5	(1)	3.7	(3)	11.1
	대구/경북권	(11)	(8)	72.7	(1)	9.1	(1)	9.1	(1)	9.1
	대전/충청권	(10)	(6)	60.0	(2)	20.0	(0)	0.0	(2)	20.0
	광주/전라권	(8)	(4)	50.0	(1)	12.5	(2)	25.0	(1)	12.5
	강원, 제주	(2)	(0)	0.0	(1)	50.0	(0)	0.0	(1)	50.0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11)	(8)	72.7	(0)	0.0	(2)	18.2	(1)	9.1
	1~2년	(15)	(10)	66.7	(1)	6.7	(2)	13.3	(2)	13.3
	3~4년	(23)	(15)	65.2	(3)	13.0	(2)	8.7	(3)	13.0
	5~6년	(31)	(19)	61.3	(4)	12.9	(3)	9.7	(1)	3.2
	7년 이상	(33)	(12)	36.4	(9)	27.3	(6)	18.2	(4)	12.1

※ base :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 안 됨’ 응답한 국가무형문화재(n=113), 기타 5.3%는 표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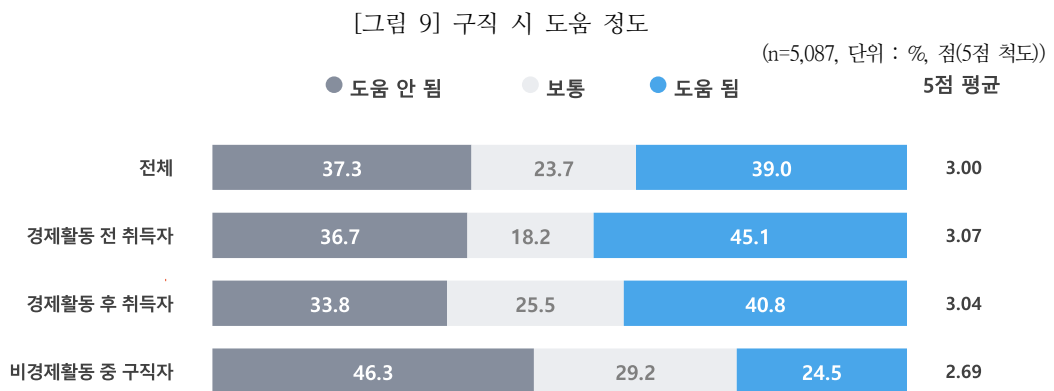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7. 구직 시 만족도

### 가. 구직 시 도움 정도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9.0%(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7.3%(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전 취득자는 구직 시 ‘도움이 된다’가 45.1%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재 구직 중인 취득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46.3%로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6]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전 체	(5,087)	(1,897)	37.3	(1,206)	23.7	(1,984)	39.0	3.00
경제활동 전 취득자	(1,749)	(642)	36.7	(318)	18.2	(789)	45.1	3.07
경제활동 후 취득자	(2,317)	(782)	33.8	(590)	25.5	(945)	40.8	3.04
비경제활동 중 구직자	(1,021)	(473)	46.3	(298)	29.2	(250)	24.5	2.69

※ base : 비경제활동 중 비구직자 제외 전체(n=5,08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21년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는 수치상으로 ‘도움 됨’ 39.0%, ‘도움 안 됨’ 37.3%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단, 다른 연도는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만 구직 시 도움 정도를 파악했으나, 2021년(6차 연도)에는 경제활동 후 취득자와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표 187] 2016-2021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비교 분석

		사례수 (곳)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평균(5점 척도)	
			%	GAP <sup>22)</sup>	%	GAP	%	GAP	점	GAP
전 체	2016년	(1,608)	46.4		27.7		25.9		2.66	
	2017년	(2,215)	50.1	3.7	21.3	-6.4	28.7	2.8	2.63	-0.03
	2018년	(942)	36.5	-13.6	24.0	2.7	39.5	10.8	3.00	0.37
	2019년	(1,064)	30.1	-6.4	21.2	-2.8	48.7	9.2	3.23	0.23
	2020년	(789)	23.2	-6.9	19.4	-1.8	57.4	8.7	3.48	0.25
	2021년	(5,087)	37.3	14.1	23.7	4.3	39.0	-18.4	3.00	-0.48
고졸/ 비전공자	2016년	(52)	48.1		23.1		28.9		2.69	
	2017년	(92)	51.1	3.0	14.1	-9.0	34.8	5.9	2.62	-0.07
	2018년	(15)	26.6	-24.5	26.7	12.6	46.7	11.9	3.13	0.51
	2019년	(17)	11.8	-14.8	23.5	-3.2	64.7	18.0	3.65	0.52
	2020년	(9)	22.2	10.4	0.0	-23.5	77.7	13.0	4.00	0.35
	2021년	(47)	38.3	16.1	25.5	36.2	36.2	-41.5	2.96	-1.04
예술강사	2016년	(246)	54.9		28.0		17.1		2.37	
	2017년	(221)	52.5	-2.4	23.1	-4.9	24.5	7.4	2.52	0.15
	2018년	(43)	34.9	-17.6	25.6	2.5	39.6	15.1	2.95	0.43
	2019년	(50)	42.0	7.1	18.0	-7.6	40.0	0.4	2.92	-0.03
	2020년	(43)	34.9	-7.1	32.6	14.6	32.6	-7.4	3.02	0.1
	2021년	(887)	36.5	1.6	25.4	-7.2	38.1	5.5	2.98	-0.04
예술전공자	2016년	(1,237)	44.8		28.2		26.9		2.70	
	2017년	(1,692)	50.6	5.8	22.0	-6.2	27.4	0.5	2.61	-0.09
	2018년	(870)	36.8	-13.8	23.6	1.6	39.7	12.3	3.00	0.39
	2019년	(965)	29.5	-7.3	21.3	-2.3	49.2	9.5	3.24	0.24
	2020년	(701)	22.6	-6.9	19.1	-2.2	58.3	9.1	3.49	0.25
	2021년	(3,830)	37.2	14.6	23.4	4.3	39.4	-18.9	2.99	-0.50
국가무형 문화재	2016년	(73)	42.4		20.5		37.0		2.92	
	2017년	(210)	42.9	0.5	16.2	-4.3	41.0	4.0	2.94	0.02
	2018년	(14)	35.7	-7.2	42.9	26.7	21.4	-19.6	2.93	-0.01
	2019년	(32)	37.5	1.8	21.9	-21.0	40.7	19.3	2.94	0.01
	2020년	(36)	22.2	-15.3	13.9	-8.0	63.9	23.2	3.72	0.78
	2021년	(323)	39.9	17.7	22.6	8.7	37.5	-26.4	2.91	-0.8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2) GAP :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고졸/비전공자의 구직 시 도움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6.2%(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8.3%(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고졸/비전공자는 구직 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현재 구직 중인 고졸/비전공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188]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전 체	(47)	(18)	38.3	(12)	25.5	(17)	36.2	2.96
경제활동 전 취득자	(12)	(5)	41.7	(1)	8.3	(6)	50.0	3.17
경제활동 후 취득자	(21)	(6)	28.6	(7)	33.3	(8)	38.1	3.19
비경제활동 중 구직자	(14)	(7)	50.0	(4)	28.6	(3)	21.4	2.43

※ base : 비경제활동 중 비구직자 제외 고졸/비전공자 전체(n=4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강사의 구직 시 도움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8.1%(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6.5%(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강사와 구직 중인 예술강사에서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9] [예술강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전 체	(887)	(324)	36.5	(225)	25.4	(338)	38.1	2.98
경제활동 전 취득자	(65)	(31)	47.7	(12)	18.5	(22)	33.8	2.74
경제활동 후 취득자	(771)	(263)	34.1	(207)	26.8	(301)	39.0	3.03
비경제활동 중 구직자	(51)	(30)	58.8	(6)	11.8	(15)	29.4	2.59

※ base : 비경제활동 중 비구직자 제외 예술강사 전체(n=88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의 구직 시 도움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9.4%(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7.2%(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중인 예술전공자는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구직 중인 예술전공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0] [예술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830)	(1,426)	37.2	(896)	23.4	(1,508)	39.4	2.99
경제활동 전 취득자	(1,638)	(593)	36.2	(301)	18.4	(744)	45.4	3.08
경제활동 후 취득자	(1,279)	(417)	32.6	(319)	24.9	(543)	42.5	3.07
비경제활동 중 구직자	(913)	(416)	45.6	(276)	30.2	(221)	24.2	2.70

※ base : 비경제활동 중 비구직자 제외 예술전공자 전체(n=3,83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국가무형문화재의 구직 시 도움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7.5%(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9.9%(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는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구직 중인 국가무형문화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1]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23)	(129)	39.9	(73)	22.6	(121)	37.5	2.91
경제활동 전 취득자	(34)	(13)	38.2	(4)	11.8	(17)	50.0	3.18
경제활동 후 취득자	(246)	(96)	39.0	(57)	23.2	(93)	37.8	2.92
비경제활동 중 구직자	(43)	(20)	46.5	(12)	27.9	(11)	25.6	2.63

※ base : 비경제활동 중 비구직자 제외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2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1)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45.1%(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6.7%(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표 192]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749)	(642)	36.7	(318)	18.2	(789)	45.1	3.07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2)	(5)	41.7	(1)	8.3	(6)	50.0	3.17
	예술강사	(65)	(31)	47.7	(12)	18.5	(22)	33.8	2.74
	예술전공자	(1,638)	(593)	36.2	(301)	18.4	(744)	45.4	3.08
	국가무형문화재	(34)	(13)	38.2	(4)	11.8	(17)	50.0	3.18
성별	남성	(293)	(124)	42.3	(47)	16.0	(122)	41.6	2.90
	여성	(1,456)	(518)	35.6	(271)	18.6	(667)	45.8	3.10
연령 별	20대	(1,105)	(387)	35.0	(217)	19.6	(501)	45.3	3.10
	30대	(404)	(160)	39.6	(70)	17.3	(174)	43.1	2.96
	40대	(144)	(59)	41.0	(18)	12.5	(67)	46.5	3.09
	50대	(69)	(29)	42.0	(9)	13.0	(31)	44.9	3.09
	60대 이상	(27)	(7)	25.9	(4)	14.8	(16)	59.3	3.30
거주지 별	수도권	(984)	(384)	39.0	(179)	18.2	(421)	42.8	2.97
	부산/경남권	(215)	(69)	32.1	(42)	19.5	(104)	48.4	3.21
	대구/경북권	(159)	(47)	29.6	(33)	20.8	(79)	49.7	3.23
	대전/충청권	(187)	(72)	38.5	(29)	15.5	(86)	46.0	3.13
	광주/전라권	(160)	(60)	37.5	(25)	15.6	(75)	46.9	3.19
	강원, 제주	(44)	(10)	22.7	(10)	22.7	(24)	54.5	3.43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402)	(144)	35.8	(79)	19.7	(179)	44.5	3.09
	1~2년	(703)	(247)	35.1	(124)	17.6	(332)	47.2	3.11
	3~4년	(315)	(125)	39.7	(56)	17.8	(134)	42.5	2.98
	5~6년	(190)	(72)	37.9	(31)	16.3	(87)	45.8	3.07
	7년 이상	(139)	(54)	38.8	(28)	20.1	(57)	41.0	2.99

※ base :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n=1,74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고졸/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50.0%(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1.7%(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표 193]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전 체		(12)	(5)	41.7	(1)	8.3	(6)	50.0	3.17
성별	남성	(1)	(1)	100.0	(0)	0.0	(0)	0.0	2.00
	여성	(11)	(4)	36.4	(1)	9.1	(6)	54.5	3.27
연령 별	20대	-	-	-	-	-	-	-	-
	30대	(3)	(2)	66.7	(0)	0.0	(1)	33.3	2.67
	40대	(8)	(2)	25.0	(1)	12.5	(5)	62.5	3.50
	50대	(1)	(1)	100.0	(0)	0.0	(0)	0.0	2.00
	60대 이상	-	-	-	-	-	-	-	-
거주지 별	수도권	(6)	(2)	33.3	(0)	0.0	(4)	66.7	3.50
	부산/경남권	-	-	-	-	-	-	-	-
	대구/경북권	(1)	(0)	0.0	(0)	0.0	(1)	100.0	4.00
	대전/충청권	-	-	-	-	-	-	-	-
	광주/전라권	(5)	(3)	60.0	(1)	20.0	(1)	20.0	2.60
	강원, 제주	-	-	-	-	-	-	-	-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1)	100.0	(0)	0.0	(0)	0.0	2.00
	1~2년	-	-	-	-	-	-	-	-
	3~4년	(3)	(2)	66.7	(0)	0.0	(1)	33.3	2.67
	5~6년	(5)	(0)	0.0	(1)	20.0	(4)	80.0	4.00
	7년 이상	(3)	(2)	66.7	(0)	0.0	(1)	33.3	2.67

※ base :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고졸/비전공자(n=1,749)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3.8%(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7.7%(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표 194] [예술강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전 체		(65)	(31)	47.7	(12)	18.5	(22)	33.8	2.74
성별	남성	(14)	(7)	50.0	(3)	21.4	(4)	28.6	2.71
	여성	(51)	(24)	47.1	(9)	17.6	(18)	35.3	2.75
연령 별	20대	-	-	-	-	-	-	-	-
	30대	(16)	(6)	37.5	(4)	25.0	(6)	37.5	2.81
	40대	(36)	(19)	52.8	(5)	13.9	(12)	33.3	2.75
	50대	(11)	(4)	36.4	(3)	27.3	(4)	36.4	2.91
	60대 이상	(2)	(2)	100.0	(0)	0.0	(0)	0.0	1.00
거주지 별	수도권	(17)	(8)	47.1	(3)	17.6	(6)	35.3	2.53
	부산/경남권	(11)	(6)	54.5	(2)	18.2	(3)	27.3	2.73
	대구/경북권	(6)	(3)	50.0	(1)	16.7	(2)	33.3	2.67
	대전/충청권	(14)	(6)	42.9	(2)	14.3	(6)	42.9	3.00
	광주/전라권	(14)	(7)	50.0	(3)	21.4	(4)	28.6	2.71
	강원, 제주	(3)	(1)	33.3	(1)	33.3	(1)	33.3	3.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1)	100.0	(0)	0.0	(0)	0.0	1.00
	1~2년	-	-	-	-	-	-	-	-
	3~4년	(4)	(4)	100.0	(0)	0.0	(0)	0.0	1.75
	5~6년	(3)	(1)	33.3	(0)	0.0	(2)	66.7	3.33
	7년 이상	(57)	(25)	43.9	(12)	21.1	(20)	35.1	2.81

※ base :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강사(n=65)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45.4%(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다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6.2%(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예술전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제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95] [예술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전 체		(1,638)	(593)	36.2	(301)	18.4	(744)	45.4	3.08
성별	남성	(266)	(113)	42.5	(43)	16.2	(110)	41.4	2.88
	여성	(1,372)	(480)	35.0	(258)	18.8	(634)	46.2	3.12
연령 별	20대	(1,102)	(386)	35.0	(217)	19.7	(499)	45.3	3.10
	30대	(378)	(148)	39.2	(65)	17.2	(165)	43.7	2.98
	40대	(91)	(35)	38.5	(12)	13.2	(44)	48.4	3.14
	50대	(49)	(21)	42.9	(5)	10.2	(23)	46.9	3.10
	60대 이상	(18)	(3)	16.7	(2)	11.1	(13)	72.2	3.61
거주지 별	수도권	(946)	(368)	38.9	(174)	18.4	(404)	42.7	2.97
	부산/경남권	(195)	(61)	31.3	(38)	19.5	(96)	49.2	3.22
	대구/경북권	(150)	(42)	28.0	(32)	21.3	(76)	50.7	3.26
	대전/충청권	(170)	(65)	38.2	(27)	15.9	(78)	45.9	3.14
	광주/전라권	(136)	(48)	35.3	(21)	15.4	(67)	49.3	3.26
	강원, 제주	(41)	(9)	22.0	(9)	22.0	(23)	56.1	3.46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99)	(142)	35.6	(79)	19.8	(178)	44.6	3.10
	1~2년	(698)	(245)	35.1	(124)	17.8	(329)	47.1	3.11
	3~4년	(300)	(115)	38.3	(56)	18.7	(129)	43.0	2.99
	5~6년	(173)	(68)	39.3	(29)	16.8	(76)	43.9	3.03
	7년 이상	(68)	(23)	33.8	(13)	19.1	(32)	47.1	3.19

※ base :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전공자(n=1,63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50.0%(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8.2%(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표 196]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전 체		(34)	(13)	38.2	(4)	11.8	(17)	50.0	3.18
성별	남성	(12)	(3)	25.0	(1)	8.3	(8)	66.7	3.67
	여성	(22)	(10)	45.5	(3)	13.6	(9)	40.9	2.91
연령 별	20대	(3)	(1)	33.3	(0)	0.0	(2)	66.7	3.67
	30대	(7)	(4)	57.1	(1)	14.3	(2)	28.6	2.29
	40대	(9)	(3)	33.3	(0)	0.0	(6)	66.7	3.56
	50대	(8)	(3)	37.5	(1)	12.5	(4)	50.0	3.38
	60대 이상	(7)	(2)	28.6	(2)	28.6	(3)	42.9	3.14
거주지 별	수도권	(15)	(6)	40.0	(2)	13.3	(7)	46.7	3.00
	부산/경남권	(9)	(2)	22.2	(2)	22.2	(5)	55.6	3.67
	대구/경북권	(2)	(2)	100.0	(0)	0.0	(0)	0.0	2.00
	대전/충청권	(3)	(1)	33.3	(0)	0.0	(2)	66.7	3.33
	광주/전라권	(5)	(2)	40.0	(0)	0.0	(3)	60.0	3.20
	강원, 제주	-	-	-	-	-	-	-	-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0)	0.0	(0)	0.0	(1)	100.0	5.00
	1~2년	(5)	(2)	40.0	(0)	0.0	(3)	60.0	3.40
	3~4년	(8)	(4)	50.0	(0)	0.0	(4)	50.0	3.25
	5~6년	(9)	(3)	33.3	(1)	11.1	(5)	55.6	3.33
	7년 이상	(11)	(4)	36.4	(3)	27.3	(4)	36.4	2.73

※ base :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n=34)

## 2) 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경제활동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40.8%(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3.8%(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표 197]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317)	(782)	33.8	(590)	25.5	(945)	40.8	3.04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21)	(6)	28.6	(7)	33.3	(8)	38.1	3.19
	예술강사	(771)	(263)	34.1	(207)	26.8	(301)	39.0	3.03
	예술전공자	(1,279)	(417)	32.6	(319)	24.9	(543)	42.5	3.07
	국가무형문화재	(246)	(96)	39.0	(57)	23.2	(93)	37.8	2.92
성별	남성	(477)	(194)	40.7	(118)	24.7	(165)	34.6	2.87
	여성	(1,840)	(588)	32.0	(472)	25.7	(780)	42.4	3.09
연령 별	20대	(347)	(98)	28.2	(88)	25.4	(161)	46.4	3.18
	30대	(629)	(218)	34.7	(179)	28.5	(232)	36.9	2.97
	40대	(721)	(247)	34.3	(182)	25.2	(292)	40.5	3.02
	50대	(474)	(155)	32.7	(112)	23.6	(207)	43.7	3.13
	60대 이상	(146)	(64)	43.8	(29)	19.9	(53)	36.3	2.82
거주지 별	수도권	(1,059)	(389)	36.7	(284)	26.8	(386)	36.4	2.94
	부산/경남권	(346)	(108)	31.2	(100)	28.9	(138)	39.9	3.05
	대구/경북권	(204)	(59)	28.9	(57)	27.9	(88)	43.1	3.11
	대전/충청권	(250)	(71)	28.4	(57)	22.8	(122)	48.8	3.25
	광주/전라권	(362)	(123)	34.0	(70)	19.3	(169)	46.7	3.12
	강원, 제주	(96)	(32)	33.3	(22)	22.9	(42)	43.8	3.16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77)	(105)	27.9	(112)	29.7	(160)	42.4	3.11
	1~2년	(503)	(148)	29.4	(129)	25.6	(226)	44.9	3.16
	3~4년	(323)	(117)	36.2	(78)	24.1	(128)	39.6	3.01
	5~6년	(405)	(148)	36.5	(96)	23.7	(161)	39.8	3.01
	7년 이상	(709)	(264)	37.2	(175)	24.7	(270)	38.1	2.95

※ base : 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n=2,31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후 자격증을 취득한 고졸/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8.1%(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8.6%(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표 198]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전 체		(21)	(6)	28.6	(7)	33.3	(8)	38.1	3.19
성별	남성	(4)	(2)	50.0	(1)	25.0	(1)	25.0	2.75
	여성	(17)	(4)	23.5	(6)	35.3	(7)	41.2	3.29
연령 별	20대	-	-	-	-	-	-	-	-
	30대	(4)	(1)	25.0	(2)	50.0	(1)	25.0	3.25
	40대	(6)	(1)	16.7	(2)	33.3	(3)	50.0	3.50
	50대	(7)	(3)	42.9	(2)	28.6	(2)	28.6	2.86
	60대 이상	(4)	(1)	25.0	(1)	25.0	(2)	50.0	3.25
거주지 별	수도권	(11)	(3)	27.3	(6)	54.5	(2)	18.2	3.00
	부산/경남권	-	-	-	-	-	-	-	-
	대구/경북권	(2)	(0)	0.0	(1)	50.0	(1)	50.0	4.00
	대전/충청권	(3)	(1)	33.3	(0)	0.0	(2)	66.7	3.67
	광주/전라권	(4)	(2)	50.0	(0)	0.0	(2)	50.0	2.50
	강원, 제주	(1)	(0)	0.0	(0)	0.0	(1)	100.0	5.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	-	-	-	-	-	-	-
	1~2년	(1)	(0)	0.0	(1)	100.0	(0)	0.0	3.00
	3~4년	(6)	(1)	16.7	(2)	33.3	(3)	50.0	3.50
	5~6년	(11)	(4)	36.4	(3)	27.3	(4)	36.4	3.18
	7년 이상	(3)	(1)	33.3	(1)	33.3	(1)	33.3	2.67

※ base : 경제활동 후 자격증을 취득한 고졸/비전공자(n=21)

경제활동 후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9.0%(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4.1%(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50대(45.7%)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취득 기간이 3~4년(41.9%)인 예술강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9] [예술강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71)	(263)	34.1	(207)	26.8	(301)	39.0	3.03
성별	남성	(139)	(59)	42.4	(33)	23.7	(47)	33.8	2.85
	여성	(632)	(204)	32.3	(174)	27.5	(254)	40.2	3.07
연령 별	20대	-	-	-	-	-	-	-	-
	30대	(209)	(70)	33.5	(63)	30.1	(76)	36.4	3.01
	40대	(350)	(122)	34.9	(100)	28.6	(128)	36.6	2.97
	50대	(184)	(58)	31.5	(42)	22.8	(84)	45.7	3.17
	60대 이상	(28)	(13)	46.4	(2)	7.1	(13)	46.4	3.04
거주지 별	수도권	(283)	(105)	37.1	(81)	28.6	(97)	34.3	2.92
	부산/경남권	(146)	(47)	32.2	(47)	32.2	(52)	35.6	3.01
	대구/경북권	(69)	(24)	34.8	(23)	33.3	(22)	31.9	2.97
	대전/충청권	(102)	(33)	32.4	(22)	21.6	(47)	46.1	3.20
	광주/전라권	(127)	(42)	33.1	(24)	18.9	(61)	48.0	3.11
	강원, 제주	(44)	(12)	27.3	(10)	22.7	(22)	50.0	3.27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	(2)	100.0	(0)	0.0	(0)	0.0	1.00
	1~2년	(3)	(0)	0.0	(1)	33.3	(2)	66.7	3.67
	3~4년	(31)	(13)	41.9	(10)	32.3	(8)	25.8	2.74
	5~6년	(176)	(58)	33.0	(49)	27.8	(69)	39.2	3.09
	7년 이상	(559)	(190)	34.0	(147)	26.3	(222)	39.7	3.03

※ base : 경제활동 후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강사(n=77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후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42.5%(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다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2.6%(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자격취득 기간이 길수록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00] [예술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79)	(417)	32.6	(319)	24.9	(543)	42.5	3.07
성별	남성	(229)	(86)	37.6	(59)	25.8	(84)	36.7	2.92
	여성	(1,050)	(331)	31.5	(260)	24.8	(459)	43.7	3.10
연령 별	20대	(343)	(97)	28.3	(88)	25.7	(158)	46.1	3.18
	30대	(383)	(135)	35.2	(107)	27.9	(141)	36.8	2.93
	40대	(308)	(108)	35.1	(61)	19.8	(139)	45.1	3.06
	50대	(204)	(66)	32.4	(49)	24.0	(89)	43.6	3.15
	60대 이상	(41)	(11)	26.8	(14)	34.1	(16)	39.0	3.10
거주지 별	수도권	(654)	(232)	35.5	(167)	25.5	(255)	39.0	2.98
	부산/경남권	(143)	(40)	28.0	(42)	29.4	(61)	42.7	3.13
	대구/경북권	(106)	(26)	24.5	(27)	25.5	(53)	50.0	3.20
	대전/충청권	(129)	(29)	22.5	(31)	24.0	(69)	53.5	3.38
	광주/전라권	(204)	(72)	35.3	(43)	21.1	(89)	43.6	3.08
	강원, 제주	(43)	(18)	41.9	(9)	20.9	(16)	37.2	2.98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54)	(92)	26.0	(105)	29.7	(157)	44.4	3.18
	1~2년	(458)	(137)	29.9	(115)	25.1	(206)	45.0	3.15
	3~4년	(239)	(88)	36.8	(57)	23.8	(94)	39.3	3.00
	5~6년	(153)	(62)	40.5	(26)	17.0	(65)	42.5	2.93
	7년 이상	(75)	(38)	50.7	(16)	21.3	(21)	28.0	2.61

※ base : 경제활동 후 자격증을 취득한 예술전공자(n=1,27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경제활동 후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7.8%(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9.0%(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격취득 기간이 ‘1~4년’(1~2년 43.9%, 3~4년 48.9%)인 국가무형문화재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1]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46)	(96)	39.0	(57)	23.2	(93)	37.8	2.92
성별	남성	(105)	(47)	44.8	(25)	23.8	(33)	31.4	2.78
	여성	(141)	(49)	34.8	(32)	22.7	(60)	42.6	3.02
연령 별	20대	(4)	(1)	25.0	(0)	0.0	(3)	75.0	3.50
	30대	(33)	(12)	36.4	(7)	21.2	(14)	42.4	3.18
	40대	(57)	(16)	28.1	(19)	33.3	(22)	38.6	3.07
	50대	(79)	(28)	35.4	(19)	24.1	(32)	40.5	3.01
	60대 이상	(73)	(39)	53.4	(12)	16.4	(22)	30.1	2.55
거주지 별	수도권	(111)	(49)	44.1	(30)	27.0	(32)	28.8	2.75
	부산/경남권	(57)	(21)	36.8	(11)	19.3	(25)	43.9	2.96
	대구/경북권	(27)	(9)	33.3	(6)	22.2	(12)	44.4	3.07
	대전/충청권	(16)	(8)	50.0	(4)	25.0	(4)	25.0	2.44
	광주/전라권	(27)	(7)	25.9	(3)	11.1	(17)	63.0	3.56
	강원, 제주	(8)	(2)	25.0	(3)	37.5	(3)	37.5	3.25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1)	(11)	52.4	(7)	33.3	(3)	14.3	2.24
	1~2년	(41)	(11)	26.8	(12)	29.3	(18)	43.9	3.22
	3~4년	(47)	(15)	31.9	(9)	19.1	(23)	48.9	3.21
	5~6년	(65)	(24)	36.9	(18)	27.7	(23)	35.4	2.98
	7년 이상	(72)	(35)	48.6	(11)	15.3	(26)	36.1	2.69

※ base : 경제활동 후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무형문화재(n=24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3)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24.5%(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46.3%(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표 202]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점
전 체		(1,021)	(473)	46.3	(298)	29.2	(250)	24.5	2.69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14)	(7)	50.0	(4)	28.6	(3)	21.4	2.43
	예술강사	(51)	(30)	58.8	(6)	11.8	(15)	29.4	2.59
	예술전공자	(913)	(416)	45.6	(276)	30.2	(221)	24.2	2.70
	국가무형문화재	(43)	(20)	46.5	(12)	27.9	(11)	25.6	2.63
성별	남성	(199)	(101)	50.8	(56)	28.1	(42)	21.1	2.56
	여성	(822)	(372)	45.3	(242)	29.4	(208)	25.3	2.72
연령 별	20대	(569)	(221)	38.8	(200)	35.1	(148)	26.0	2.84
	30대	(169)	(91)	53.8	(41)	24.3	(37)	21.9	2.49
	40대	(121)	(71)	58.7	(26)	21.5	(24)	19.8	2.44
	50대	(107)	(58)	54.2	(18)	16.8	(31)	29.0	2.64
	60대 이상	(55)	(32)	58.2	(13)	23.6	(10)	18.2	2.40
거주지 별	수도권	(600)	(286)	47.7	(176)	29.3	(138)	23.0	2.66
	부산/경남권	(128)	(58)	45.3	(41)	32.0	(29)	22.7	2.61
	대구/경북권	(91)	(36)	39.6	(32)	35.2	(23)	25.3	2.80
	대전/충청권	(77)	(35)	45.5	(20)	26.0	(22)	28.6	2.78
	광주/전라권	(101)	(47)	46.5	(22)	21.8	(32)	31.7	2.77
	강원, 제주	(24)	(11)	45.8	(7)	29.2	(6)	25.0	2.83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87)	(112)	39.0	(105)	36.6	(70)	24.4	2.82
	1~2년	(411)	(183)	44.5	(113)	27.5	(115)	28.0	2.76
	3~4년	(165)	(88)	53.3	(42)	25.5	(35)	21.2	2.56
	5~6년	(92)	(55)	59.8	(28)	30.4	(9)	9.8	2.26
	7년 이상	(66)	(35)	53.0	(10)	15.2	(21)	31.8	2.59

※ base :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n=1,02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구직 중인 고졸/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21.4%(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50.0%(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표 203] [고졸/비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4)	(7)	50.0	(4)	28.6	(3)	21.4	2.43
성별	남성	(3)	(0)	0.0	(3)	100.0	(0)	0.0	3.00
	여성	(11)	(7)	63.6	(1)	9.1	(3)	27.3	2.27
연령 별	20대	(1)	(0)	0.0	(1)	100.0	(0)	0.0	3.00
	30대	(3)	(2)	66.7	(1)	33.3	(0)	0.0	2.00
	40대	(5)	(3)	60.0	(1)	20.0	(1)	20.0	2.40
	50대	(2)	(0)	0.0	(0)	0.0	(2)	100.0	4.00
	60대 이상	(3)	(2)	66.7	(1)	33.3	(0)	0.0	1.67
거주지 별	수도권	(12)	(7)	58.3	(3)	25.0	(2)	16.7	2.25
	부산/경남권	(2)	(0)	0.0	(1)	50.0	(1)	50.0	3.50
	대구/경북권	-	-	-	-	-	-	-	-
	대전/충청권	-	-	-	-	-	-	-	-
	광주/전라권	-	-	-	-	-	-	-	-
	강원, 제주	-	-	-	-	-	-	-	-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	-	-	-	-	-	-	-
	1~2년	(1)	(0)	0.0	(1)	100.0	(0)	0.0	3.00
	3~4년	(3)	(3)	100.0	(0)	0.0	(0)	0.0	1.33
	5~6년	(6)	(3)	50.0	(2)	33.3	(1)	16.7	2.33
	7년 이상	(4)	(1)	25.0	(1)	25.0	(2)	50.0	3.25

※ base : 구직 중인 고졸/비전공자(n=14)

구직 중인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29.4%(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58.8%(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자격취득 기간이 ‘7년 이상’된 예술강사에서 ‘도움이 된다’(34.3%)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04] [예술강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1)	(30)	58.8	(6)	11.8	(15)	29.4	2.59
성별	남성	(12)	(7)	58.3	(1)	8.3	(4)	33.3	2.33
	여성	(39)	(23)	59.0	(5)	12.8	(11)	28.2	2.67
연령 별	20대	-	-	-	-	-	-	-	-
	30대	(19)	(9)	47.4	(4)	21.1	(6)	31.6	2.84
	40대	(21)	(14)	66.7	(1)	4.8	(6)	28.6	2.48
	50대	(8)	(4)	50.0	(1)	12.5	(3)	37.5	2.63
	60대 이상	(3)	(3)	100.0	(0)	0.0	(0)	0.0	1.67
거주지 별	수도권	(20)	(12)	60.0	(3)	15.0	(5)	25.0	2.45
	부산/경남권	(11)	(7)	63.6	(2)	18.2	(2)	18.2	2.18
	대구/경북권	(2)	(2)	100.0	(0)	0.0	(0)	0.0	2.00
	대전/충청권	(6)	(2)	33.3	(1)	16.7	(3)	50.0	3.67
	광주/전라권	(9)	(5)	55.6	(0)	0.0	(4)	44.4	2.78
	강원, 제주	(3)	(2)	66.7	(0)	0.0	(1)	33.3	2.67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	-	-	-	-	-	-	-
	1~2년	-	-	-	-	-	-	-	-
	3~4년	(8)	(5)	62.5	(1)	12.5	(2)	25.0	2.63
	5~6년	(8)	(5)	62.5	(2)	25.0	(1)	12.5	2.38
	7년 이상	(35)	(20)	57.1	(3)	8.6	(12)	34.3	2.63

※ base : 구직 중인 예술강사(n=5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구직 중인 예술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24.2%(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45.6%(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연령이 30대 이상인 예술전공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20대인 예술전공자는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격취득 기간이 길수록(7년 이상 제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05] [예술전공자]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13)	(416)	45.6	(276)	30.2	(221)	24.2	2.70
성별	남성	(165)	(85)	51.5	(49)	29.7	(31)	18.8	2.55
	여성	(748)	(331)	44.3	(227)	30.3	(190)	25.4	2.73
연령 별	20대	(568)	(221)	38.9	(199)	35.0	(148)	26.1	2.84
	30대	(139)	(73)	52.5	(35)	25.2	(31)	22.3	2.50
	40대	(89)	(52)	58.4	(21)	23.6	(16)	18.0	2.43
	50대	(86)	(49)	57.0	(16)	18.6	(21)	24.4	2.57
	60대 이상	(31)	(21)	67.7	(5)	16.1	(5)	16.1	2.26
거주지 별	수도권	(550)	(257)	46.7	(164)	29.8	(129)	23.5	2.68
	부산/경남권	(102)	(45)	44.1	(35)	34.3	(22)	21.6	2.64
	대구/경북권	(86)	(33)	38.4	(31)	36.0	(22)	25.6	2.81
	대전/충청권	(69)	(32)	46.4	(19)	27.5	(18)	26.1	2.71
	광주/전라권	(86)	(40)	46.5	(20)	23.3	(26)	30.2	2.76
	강원, 제주	(20)	(9)	45.0	(7)	35.0	(4)	20.0	2.75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84)	(111)	39.1	(105)	37.0	(68)	23.9	2.81
	1~2년	(395)	(176)	44.6	(108)	27.3	(111)	28.1	2.77
	3~4년	(144)	(76)	52.8	(37)	25.7	(31)	21.5	2.56
	5~6년	(72)	(44)	61.1	(21)	29.2	(7)	9.7	2.25
	7년 이상	(18)	(9)	50.0	(5)	27.8	(4)	22.2	2.39

※ base : 구직 중인 예술전공자(n=913)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구직 중인 국가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25.6%(매우 도움이 된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46.5%(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자격취득 기간이 짧을수록(7년 이상 제외)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06] [국가무형문화재] 구직 시 자격증 도움 정도\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사례수 (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3)	(20)	46.5	(12)	27.9	(11)	25.6	2.63
성별	남성	(19)	(9)	47.4	(3)	15.8	(7)	36.8	2.74
	여성	(24)	(11)	45.8	(9)	37.5	(4)	16.7	2.54
연령 별	20대	-	-	-	-	-	-	-	-
	30대	(8)	(7)	87.5	(1)	12.5	(0)	0.0	1.63
	40대	(6)	(2)	33.3	(3)	50.0	(1)	16.7	2.50
	50대	(11)	(5)	45.5	(1)	9.1	(5)	45.5	3.00
	60대 이상	(18)	(6)	33.3	(7)	38.9	(5)	27.8	2.89
거주지 별	수도권	(18)	(10)	55.6	(6)	33.3	(2)	11.1	2.33
	부산/경남권	(13)	(6)	46.2	(3)	23.1	(4)	30.8	2.62
	대구/경북권	(3)	(1)	33.3	(1)	33.3	(1)	33.3	3.00
	대전/충청권	(2)	(1)	50.0	(0)	0.0	(1)	50.0	2.50
	광주/전라권	(6)	(2)	33.3	(2)	33.3	(2)	33.3	3.00
	강원, 제주	(1)	(0)	0.0	(0)	0.0	(1)	100.0	5.0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	(1)	33.3	(0)	0.0	(2)	66.7	3.67
	1~2년	(15)	(7)	46.7	(4)	26.7	(4)	26.7	2.53
	3~4년	(10)	(4)	40.0	(4)	40.0	(2)	20.0	2.80
	5~6년	(6)	(3)	50.0	(3)	50.0	(0)	0.0	2.17
	7년 이상	(9)	(5)	55.6	(1)	11.1	(3)	33.3	2.56

※ base : 구직 중인 국가무형문화재(n=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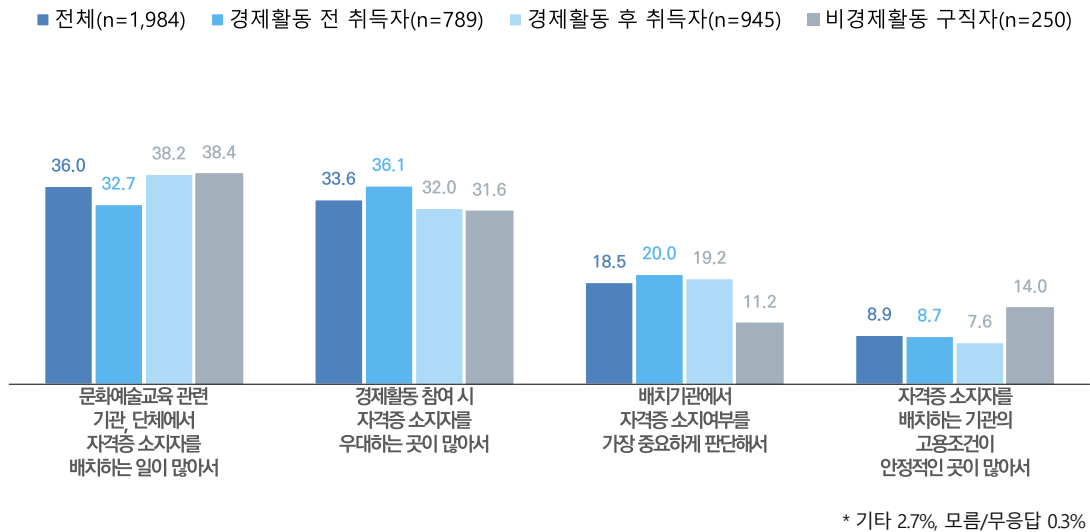
## 나. 구직 시 도움 된 이유

경제활동 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36.1%),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20.0%)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후 취득자 및 비경제활동 중 구직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각각 38.2%, 38.4%)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구직 시 도움 된 이유

(n=5,087, 단위 : %)



[표 207] 구직 시 도움 된 이유

	사례 수 (명)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984)	(715)	36.0	(666)	33.6	(367)	18.5	(176)	8.9
경제활동 전 취득자	(789)	(258)	32.7	(285)	36.1	(158)	20.0	(69)	8.7
경제활동 후 취득자	(945)	(361)	38.2	(302)	32.0	(181)	19.2	(72)	7.6
비경제활동 구직자	(250)	(96)	38.4	(79)	31.6	(28)	11.2	(35)	14.0

※ base : 구직 시 ‘도움 됨’ 응답자(n=1,984), 기타 2.7%, 모름/무응답 0.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21년 구직 시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는 수치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가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다른 연도는 경제 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만 구직 시 도움 이유를 파악했으나, 2021년(6차 연도)에는 경제활동 후 취득자와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표 208] 2016~2021 구직 시 도움 된 이유 비교 분석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	GAP <sup>23)</sup>	%	GAP	%	GAP	%	GAP
전 체	2016년	(417)	11.3		51.4		23.5		6.2	
	2017년	(635)	16.5	5.2	42.4	-9.0	27.4	3.9	7.1	0.9
	2018년	(372)	28.2	11.7	42.2	-0.2	19.1	-8.3	7.0	-0.1
	2019년	(518)	30.7	2.5	40.3	-1.9	15.6	-3.5	9.8	2.8
	2020년	(453)	39.5	8.8	35.5	-4.8	17.2	1.6	4.2	-5.6
	2021년	(1,984)	36.0	-3.5	33.6	-3.5	18.5	1.3	8.9	4.7
고졸/ 비전공자	2016년	(15)	6.7		53.3		33.3		0.0	
	2017년	(32)	9.4	2.7	59.4	6.1	25.0	-8.3	0.0	0.0
	2018년	(7)	0.0	-9.4	42.9	-16.5	28.6	3.6	28.6	28.6
	2019년	(11)	36.4	36.4	36.4	-6.5	18.2	-10.4	0.0	-28.6
	2020년	(7)	28.6	-7.8	57.1	20.7	14.3	-3.9	0.0	0.0
	2021년	(17)	23.5	-5.1	23.5	-3.5	35.3	21.0	17.6	17.6
예술강사	2016년	(42)	9.5		54.8		16.7		11.9	
	2017년	(54)	16.7	7.2	44.4	-10.4	25.9	9.2	3.7	-8.2
	2018년	(17)	29.4	12.7	64.7	20.3	5.9	-20.0	0.0	-3.7
	2019년	(20)	15.0	-14.4	35.0	-29.7	30.0	24.1	15.0	15.0
	2020년	(14)	57.1	42.1	28.6	-6.4	14.3	-15.7	0.0	-15.0
	2021년	(338)	27.5	-29.6	40.8	-3.5	21.6	7.3	8.9	8.9
예술 전공자	2016년	(333)	11.1		51.1		23.7		5.7	
	2017년	(463)	16.6	5.5	40.2	-10.9	28.3	4.6	7.6	1.9
	2018년	(345)	28.7	12.1	41.4	1.2	19.4	-8.9	7.0	-0.6
	2019년	(474)	30.8	2.1	41.4	0.0	14.6	-4.8	9.9	2.9
	2020년	(409)	39.4	8.6	35.7	-5.7	16.6	2.0	4.4	-5.5
	2021년	(1,508)	35.1	-4.3	35.5	-3.5	17.2	0.6	8.9	4.5
국가무형 문화재	2016년	(27)	18.5		48.1		25.9		7.4	
	2017년	(86)	18.6	0.1	46.5	-1.6	24.4	-1.5	9.3	1.9
	2018년	(3)	33.3	14.7	0.0	-46.5	33.3	8.9	0.0	-9.3
	2019년	(13)	46.2	12.9	15.4	15.4	30.8	-2.5	7.7	7.7
	2020년	(23)	34.8	-11.4	30.4	15.0	30.4	-0.4	4.3	-3.4
	2021년	(121)	28.1	-6.7	36.4	-3.5	24.0	-6.4	7.4	3.1

- ①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③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 ②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④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

※ 2021년 기준 내림자순 정렬하였으며, ‘기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합계가 100.0%가 아닐 수 있음

23)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의 차이

## 1)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의 구직 시 도움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32.7%),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20.0%),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8.7%) 순이었다.

[표 209] 구직 시 도움 된 이유\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사례 수 (명)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89)	(285)	36.1	(258)	32.7	(158)	20.0	(69)	8.7
자격 요건 별	고졸/비전공자	(6)	(2)	33.3	(1)	16.7	(2)	33.3	(1)	16.7
	예술강사	(22)	(8)	36.4	(4)	18.2	(7)	31.8	(3)	13.6
	예술전공자	(744)	(272)	36.6	(249)	33.5	(141)	19.0	(64)	8.6
	국가무형문화재	(17)	(3)	17.6	(4)	23.5	(8)	47.1	(1)	5.9
성별	남성	(122)	(37)	30.3	(40)	32.8	(29)	23.8	(13)	10.7
	여성	(667)	(248)	37.2	(218)	32.7	(129)	19.3	(56)	8.4
연령 별	20대	(501)	(195)	38.9	(163)	32.5	(93)	18.6	(42)	8.4
	30대	(174)	(60)	34.5	(61)	35.1	(33)	19.0	(12)	6.9
	40대	(67)	(21)	31.3	(21)	31.3	(18)	26.9	(5)	7.5
	50대	(31)	(6)	19.4	(8)	25.8	(10)	32.3	(6)	19.4
	60대 이상	(16)	(3)	18.8	(5)	31.3	(4)	25.0	(4)	25.0
거주 지별	수도권	(421)	(167)	39.7	(137)	32.5	(71)	16.9	(33)	7.8
	부산/경남권	(104)	(36)	34.6	(35)	33.7	(22)	21.2	(9)	8.7
	대구/경북권	(79)	(22)	27.8	(31)	39.2	(18)	22.8	(6)	7.6
	대전/충청권	(86)	(30)	34.9	(24)	27.9	(17)	19.8	(15)	17.4
	광주/전라권	(75)	(23)	30.7	(23)	30.7	(24)	32.0	(4)	5.3
	강원, 제주	(24)	(7)	29.2	(8)	33.3	(6)	25.0	(2)	8.3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179)	(66)	36.9	(65)	36.3	(38)	21.2	(8)	4.5
	1~2년	(332)	(131)	39.5	(104)	31.3	(65)	19.6	(26)	7.8
	3~4년	(134)	(54)	40.3	(40)	29.9	(16)	11.9	(18)	13.4
	5~6년	(87)	(21)	24.1	(34)	39.1	(18)	20.7	(11)	12.6
	7년 이상	(57)	(13)	22.8	(15)	26.3	(21)	36.8	(6)	10.5

※ base : 구직 시 자격증이 ‘도움 됨’ 응답자(n=789), 기타 2.3%, 모름/무응답 0.1%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 2) 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의 구직 시 도움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32.0%),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19.2%),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7.6%) 순이었다.

[표 210] 구직 시 도움 된 이유\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사례수 (명)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45)	(361)	38.2	(302)	32.0	(181)	19.2	(72)	7.6
자격 요건 별	고졸/비전공자	(8)	(1)	12.5	(2)	25.0	(3)	37.5	(2)	25.0
	예술강사	(301)	(127)	42.2	(80)	26.6	(64)	21.3	(26)	8.6
	예술전공자	(543)	(197)	36.3	(191)	35.2	(95)	17.5	(37)	6.8
	국가무형문화재	(93)	(36)	38.7	(29)	31.2	(19)	20.4	(7)	7.5
성별	남성	(165)	(66)	40.0	(46)	27.9	(31)	18.8	(16)	9.7
	여성	(780)	(295)	37.8	(256)	32.8	(150)	19.2	(56)	7.2
연령 별	20대	(161)	(61)	37.9	(56)	34.8	(30)	18.6	(10)	6.2
	30대	(232)	(81)	34.9	(85)	36.6	(44)	19.0	(18)	7.8
	40대	(292)	(125)	42.8	(80)	27.4	(50)	17.1	(22)	7.5
	50대	(207)	(82)	39.6	(59)	28.5	(44)	21.3	(18)	8.7
	60대 이상	(53)	(12)	22.6	(22)	41.5	(13)	24.5	(4)	7.5
거주 지별	수도권	(386)	(132)	34.2	(150)	38.9	(66)	17.1	(22)	5.7
	부산/경남권	(138)	(55)	39.9	(44)	31.9	(29)	21.0	(9)	6.5
	대구/경북권	(88)	(37)	42.0	(27)	30.7	(16)	18.2	(4)	4.5
	대전/충청권	(122)	(46)	37.7	(31)	25.4	(31)	25.4	(11)	9.0
	광주/전라권	(169)	(72)	42.6	(39)	23.1	(32)	18.9	(22)	13.0
	강원, 제주	(42)	(19)	45.2	(11)	26.2	(7)	16.7	(4)	9.5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160)	(55)	34.4	(60)	37.5	(25)	15.6	(12)	7.5
	1~2년	(226)	(89)	39.4	(77)	34.1	(35)	15.5	(14)	6.2
	3~4년	(128)	(52)	40.6	(37)	28.9	(27)	21.1	(9)	7.0
	5~6년	(161)	(60)	37.3	(50)	31.1	(37)	23.0	(13)	8.1
	7년 이상	(270)	(105)	38.9	(78)	28.9	(57)	21.1	(24)	8.9

※ base : 구직 시 자격증이 ‘도움 됨’ 응답자(n=945), 기타 2.6%, 모름/무응답 0.4%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3)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의 구직 시 도움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31.6%,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 14.0%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11.2% 순이었다.

[표 211] 구직 시 도움 된 이유\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사례 수 (명)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인 곳이 많아서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50)	(96)	38.4	(79)	31.6	(35)	14.0	(28)	11.2
자격 요건 별	고졸/비전공자	(3)	(2)	66.7	(0)	0.0	(0)	0.0	(1)	33.3
	예술강사	(15)	(7)	46.7	(5)	33.3	(1)	6.7	(2)	13.3
	예술전공자	(221)	(83)	37.6	(72)	32.6	(33)	14.9	(23)	10.4
	국가무형문화재	(11)	(4)	36.4	(2)	18.2	(1)	9.1	(2)	18.2
성별	남성	(42)	(16)	38.1	(13)	31.0	(4)	9.5	(6)	14.3
	여성	(208)	(80)	38.5	(66)	31.7	(31)	14.9	(22)	10.6
연령 별	20대	(148)	(51)	34.5	(50)	33.8	(26)	17.6	(17)	11.5
	30대	(37)	(19)	51.4	(9)	24.3	(3)	8.1	(2)	5.4
	40대	(24)	(10)	41.7	(6)	25.0	(2)	8.3	(5)	20.8
	50대	(31)	(12)	38.7	(11)	35.5	(3)	9.7	(3)	9.7
	60대 이상	(10)	(4)	40.0	(3)	30.0	(1)	10.0	(1)	10.0
거주 지별	수도권	(138)	(54)	39.1	(47)	34.1	(15)	10.9	(15)	10.9
	부산/경남권	(29)	(10)	34.5	(9)	31.0	(4)	13.8	(4)	13.8
	대구/경북권	(23)	(8)	34.8	(5)	21.7	(6)	26.1	(3)	13.0
	대전/충청권	(22)	(11)	50.0	(6)	27.3	(3)	13.6	(2)	9.1
	광주/전라권	(32)	(12)	37.5	(9)	28.1	(6)	18.8	(3)	9.4
	강원, 제주	(6)	(1)	16.7	(3)	50.0	(1)	16.7	(1)	16.7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70)	(28)	40.0	(25)	35.7	(5)	7.1	(8)	11.4
	1~2년	(115)	(40)	34.8	(36)	31.3	(20)	17.4	(13)	11.3
	3~4년	(35)	(14)	40.0	(11)	31.4	(6)	17.1	(4)	11.4
	5~6년	(9)	(3)	33.3	(2)	22.2	(2)	22.2	(1)	11.1
	7년 이상	(21)	(11)	52.4	(5)	23.8	(2)	9.5	(2)	9.5

※ base : 구직 시 ‘도움 됨’ 응답자(n=250), 기타 4.4%, 모름/무응답 0.4%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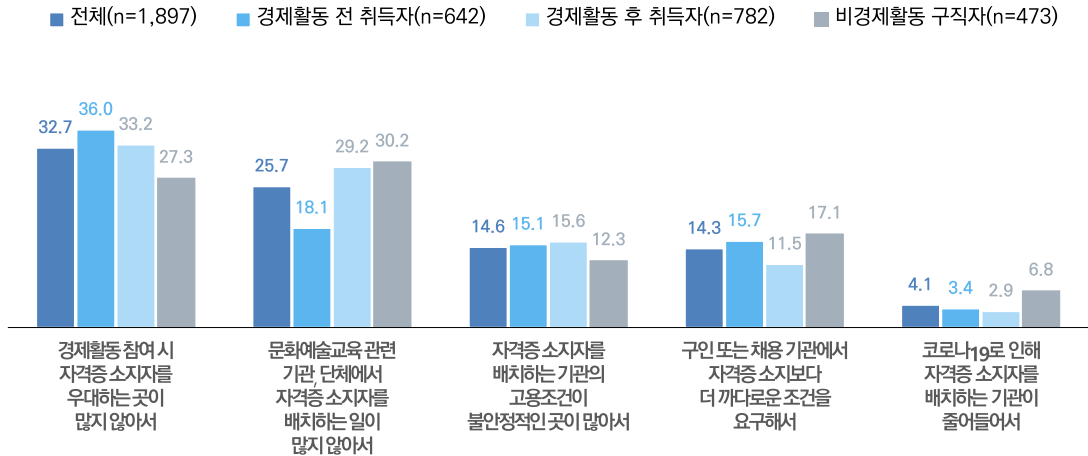
## 다.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

경제활동 전 취득자는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36.0%), ‘구인 또는 채용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15.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후 취득자 및 비경제활동 중 구직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각각 29.2%, 30.2%)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

(n=1,897, 단위 : %)



\* 기타 8.3%, 모름/무응답 0.4%

[표 212]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

	사례 수 (명)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구인 또는 채용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897)	(620)	32.7	(487)	25.7	(277)	14.6	(272)	14.3	(77)	4.1
경제활동 전 취득자	(642)	(231)	36.0	(116)	18.1	(97)	15.1	(101)	15.7	(22)	3.4
경제활동 후 취득자	(782)	(260)	33.2	(228)	29.2	(122)	15.6	(90)	11.5	(23)	2.9
비경제활동 구직자	(473)	(129)	27.3	(143)	30.2	(58)	12.3	(81)	17.1	(32)	6.8

※ base : 구직 시 ‘도움 안 됨’ 응답자(n=1,984), 기타 8.3%, 모름/무응답 0.4%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021년 구직 시 자격증이 도움 안 된 이유는 수치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가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 다른 연도는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만 구직 시 도움 이유를 파악했으나, 2021년(6차 연도)에는 경제활동 후 취득자와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표 213] 2016-2021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 비교 분석

		사례수 (곳)	①		②		③		④		⑤	
			%	GAP <sup>24)</sup>	%	GAP	%	GAP	%	GAP	%	GAP
전 체	2016년	(746)	41.4		-		16.7		9.8		-	
	2017년	(1,580)	32.2	-9.2	-	-	18.8	2.1	12.8	3.0	-	-
	2018년	(344)	46.8	14.6	-	-	9.9	-8.9	5.8	-7.0	-	-
	2019년	(320)	45.0	-1.8	-	-	12.5	2.6	9.4	3.6	-	-
	2020년	(183)	31.1	-13.9	-	-	14.2	1.7	13.1	3.7	2.2	-
	2021년	(1,897)	32.7	1.6	25.7	-	14.6	0.4	14.3	1.2	4.1	1.9
고졸/ 비전공자	2016년	(25)	48.0		-		8.0		16.0		-	
	2017년	(60)	38.3	-9.7	-	-	6.7	-1.3	13.3	-2.7	-	-
	2018년	(4)	50.0	11.7	-	-	0.0	-6.7	0.0	-13.3	-	-
	2019년	(2)	50.0	0.0	-	-	0.0	0.0	50.0	50.0	-	-
	2020년	(2)	0.0	-50.0	-	-	50.0	50.0	0.0	-50.0	0.0	-
	2021년	(18)	22.2	22.2	27.8	-	16.7	-33.3	16.7	16.7	5.6	5.6
예술강사	2016년	(135)	37.8		-		30.4		4.4		-	
	2017년	(167)	35.3	-2.5	-	-	22.8	-7.6	3.0	-1.4	-	-
	2018년	(15)	20.0	-15.3	-	-	20.0	-2.8	0.0	-3.0	-	-
	2019년	(21)	52.4	32.4	-	-	9.5	-10.5	9.5	9.5	-	-
	2020년	(15)	20.0	-32.4	-	-	20.0	10.5	13.3	3.8	6.7	-
	2021년	(324)	34.6	14.6	32.1	-	15.7	-4.3	10.5	-2.8	1.9	-4.8
예술 전공자	2016년	(555)	42.7		-		14.1		10.5		-	
	2017년	(1,229)	31.0	-11.7	-	-	19.0	4.9	14.7	4.2	-	-
	2018년	(320)	48.1	17.1	-	-	9.1	-9.9	6.3	-8.4	-	-
	2019년	(285)	44.9	-3.2	-	-	12.6	3.5	9.5	3.2	-	-
	2020년	(158)	31.0	-13.9	-	-	13.9	1.3	13.9	4.4	1.9	-
	2021년	(1,426)	32.7	1.7	23.3	-	14.9	1.0	14.8	0.9	4.6	2.7
국가무형 문화재	2016년	(31)	29.0		-		9.7		16.1		-	
	2017년	(124)	37.1	8.1	-	-	16.9	7.2	7.3	-8.8	-	-
	2018년	(5)	40.0	2.9	-	-	40.0	23.1	0.0	-7.3	-	-
	2019년	(12)	33.3	-6.7	-	-	16.7	-23.3	0.0	0.0	-	-
	2020년	(8)	62.5	29.2	-	-	0.0	-16.7	0.0	0.0	0.0	-
	2021년	(129)	29.5	-33.0	35.7	-	7.8	7.8	18.6	18.6	3.1	3.1

- ①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③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⑤ 코로나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

- ②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④ 구인 또는 채용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 2021년 기준 내림차순 정렬하였으며, ‘기타’는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합계가 100.0%가 아닐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는 문구 수정으로 비교가 불가함

24)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의 차이



## 1)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의 구직 시 도움이 안 된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가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18.1%), ‘구인 또는 채용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15.7%) 등의 순이었다.

[표 214]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_경제활동 전 자격증 취득자

		사례 수 (명)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구인 또는 채용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코로나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42)	(231)	36.0	(116)	18.1	(101)	15.7	(97)	15.1	(22)	3.4
자격 요건 별	고졸/비전공자	(5)	(0)	0.0	(1)	20.0	(2)	40.0	(0)	0.0	(0)	0.0
	예술강사	(31)	(9)	29.0	(12)	<u>38.7</u>	(5)	16.1	(4)	12.9	(1)	3.2
	예술전공자	(593)	(219)	36.9	(99)	16.7	(90)	15.2	(91)	15.3	(21)	3.5
	국가무형문화재	(13)	(3)	23.1	(4)	30.8	(4)	30.8	(2)	15.4	(0)	0.0
성별	남성	(124)	(45)	36.3	(22)	17.7	(19)	15.3	(18)	14.5	(3)	2.4
	여성	(518)	(186)	35.9	(94)	18.1	(82)	15.8	(79)	15.3	(19)	3.7
연령 별	20대	(387)	(143)	37.0	(61)	15.8	(61)	15.8	(60)	15.5	(14)	3.6
	30대	(160)	(58)	36.3	(28)	17.5	(26)	16.3	(24)	15.0	(4)	2.5
	40대	(59)	(18)	30.5	(16)	<u>27.1</u>	(11)	<u>18.6</u>	(8)	13.6	(3)	5.1
	50대	(29)	(9)	31.0	(9)	31.0	(3)	10.3	(3)	10.3	(1)	3.4
	60대 이상	(7)	(3)	42.9	(2)	28.6	(0)	0.0	(2)	28.6	(0)	0.0
거주 지별	수도권	(384)	(137)	35.7	(67)	17.4	(53)	13.8	(57)	14.8	(12)	3.1
	부산/경남권	(69)	(28)	<u>40.6</u>	(10)	14.5	(18)	<u>26.1</u>	(7)	10.1	(2)	2.9
	대구/경북권	(47)	(15)	31.9	(10)	<u>21.3</u>	(7)	14.9	(14)	<u>29.8</u>	(1)	2.1
	대전/충청권	(72)	(28)	<u>38.9</u>	(12)	16.7	(9)	12.5	(10)	13.9	(5)	6.9
	광주/전라권	(60)	(18)	30.0	(14)	<u>23.3</u>	(13)	<u>21.7</u>	(8)	13.3	(2)	3.3
	강원, 제주	(10)	(5)	50.0	(3)	30.0	(1)	10.0	(1)	10.0	(0)	0.0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144)	(55)	<u>38.2</u>	(21)	14.6	(17)	11.8	(26)	<u>18.1</u>	(4)	2.8
	1~2년	(247)	(88)	35.6	(37)	15.0	(42)	<u>17.0</u>	(37)	15.0	(10)	4.0
	3~4년	(125)	(52)	<u>41.6</u>	(23)	18.4	(17)	13.6	(16)	12.8	(4)	3.2
	5~6년	(72)	(23)	31.9	(16)	<u>22.2</u>	(13)	<u>18.1</u>	(11)	15.3	(2)	2.8
	7년 이상	(54)	(13)	24.1	(19)	<u>35.2</u>	(12)	<u>22.2</u>	(7)	13.0	(2)	3.7

※ base : 구직 시 자격증이 ‘도움 안 됨’ 응답자(n=642), 기타 11.2%, 모름/무응답 0.5%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2) 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의 구직 시 도움이 안 된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29.2%),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15.6%) 등의 순이었다.

[표 215]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_경제활동 후 자격증 취득자

		사례 수 (명)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구인 또는 채용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 체		(782)	(260)	33.2	(228)	29.2	(122)	15.6	(90)	11.5	(23)	2.9
자격 요건 별	고졸/비전공자	(6)	(2)	33.3	(1)	16.7	(2)	33.3	(1)	16.7	(0)	0.0
	예술강사	(263)	(94)	35.7	(81)	<u>30.8</u>	(43)	16.3	(25)	9.5	(4)	1.5
	예술전공자	(417)	(134)	32.1	(112)	26.9	(69)	16.5	(48)	11.5	(16)	3.8
	국가무형문화재	(96)	(30)	31.3	(34)	<u>35.4</u>	(8)	8.3	(16)	<u>16.7</u>	(3)	3.1
성별	남성	(194)	(71)	<u>36.6</u>	(53)	27.3	(31)	16.0	(23)	<u>11.9</u>	(5)	2.6
	여성	(588)	(189)	32.1	(175)	29.8	(91)	15.5	(67)	11.4	(18)	3.1
연령 별	20대	(98)	(27)	27.6	(20)	20.4	(16)	16.3	(21)	<u>21.4</u>	(4)	4.1
	30대	(218)	(69)	31.7	(62)	28.4	(40)	<u>18.3</u>	(21)	9.6	(7)	3.2
	40대	(247)	(90)	<u>36.4</u>	(82)	<u>33.2</u>	(27)	10.9	(29)	<u>11.7</u>	(5)	2.0
	50대	(155)	(56)	<u>36.1</u>	(45)	29.0	(27)	<u>17.4</u>	(16)	10.3	(2)	1.3
	60대 이상	(64)	(18)	28.1	(19)	29.7	(12)	<u>18.8</u>	(3)	4.7	(5)	<u>7.8</u>
거주 지별	수도권	(389)	(125)	32.1	(108)	27.8	(60)	15.4	(55)	<u>14.1</u>	(11)	2.8
	부산/경남권	(108)	(31)	28.7	(38)	<u>35.2</u>	(10)	9.3	(15)	<u>13.9</u>	(2)	1.9
	대구/경북권	(59)	(22)	<u>37.3</u>	(16)	27.1	(11)	<u>18.6</u>	(3)	5.1	(3)	<u>5.1</u>
	대전/충청권	(71)	(22)	31.0	(26)	<u>36.6</u>	(13)	<u>18.3</u>	(5)	7.0	(3)	<u>4.2</u>
	광주/전라권	(123)	(48)	<u>39.0</u>	(36)	29.3	(20)	16.3	(7)	5.7	(3)	2.4
	강원, 제주	(32)	(12)	<u>37.5</u>	(4)	12.5	(8)	<u>25.0</u>	(5)	<u>15.6</u>	(1)	3.1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105)	(41)	<u>39.0</u>	(18)	17.1	(16)	15.2	(11)	10.5	(8)	7.6
	1~2년	(148)	(48)	32.4	(41)	27.7	(23)	15.5	(22)	<u>14.9</u>	(5)	3.4
	3~4년	(117)	(32)	27.4	(42)	<u>35.9</u>	(20)	<u>17.1</u>	(9)	7.7	(3)	2.6
	5~6년	(148)	(41)	27.7	(48)	<u>32.4</u>	(14)	9.5	(23)	<u>15.5</u>	(4)	2.7
	7년 이상	(264)	(98)	<u>37.1</u>	(79)	29.9	(49)	<u>18.6</u>	(25)	9.5	(3)	1.1

※ base : 구직 시 자격증이 ‘도움 안 됨’ 응답자(n=782), 기타 7.0%, 모름/무응답 0.5%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3)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의 구직 시 도움이 안 된 이유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27.3%, ‘구인 또는 채용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17.1% 등의 순이었다.

[표 216] 구직 시 도움 안 된 이유\_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

		사례 수 (명)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구인 또는 채용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의 고용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		코로나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이 줄어들어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73)	(143)	30.2	(129)	27.3	(81)	17.1	(58)	12.3	(32)	6.8
자격 요건 별	고졸/비전공자	(7)	(3)	42.9	(2)	28.6	(0)	0.0	(1)	14.3	(1)	14.3
	예술강사	(30)	(11)	36.7	(9)	30.0	(4)	13.3	(4)	13.3	(1)	3.3
	예술전공자	(416)	(121)	29.1	(113)	27.2	(73)	17.5	(53)	12.7	(29)	7.0
	국가무형문화재	(20)	(8)	40.0	(5)	25.0	(4)	20.0	(0)	0.0	(1)	5.0
성별	남성	(101)	(42)	41.6	(19)	18.8	(16)	15.8	(14)	13.9	(8)	7.9
	여성	(372)	(101)	27.2	(110)	29.6	(65)	17.5	(44)	11.8	(24)	6.5
연령 별	20대	(221)	(51)	23.1	(64)	29.0	(51)	23.1	(27)	12.2	(14)	6.3
	30대	(91)	(25)	27.5	(21)	23.1	(15)	16.5	(17)	18.7	(6)	6.6
	40대	(71)	(31)	43.7	(18)	25.4	(6)	8.5	(7)	9.9	(4)	5.6
	50대	(58)	(23)	39.7	(18)	31.0	(5)	8.6	(4)	6.9	(4)	6.9
	60대 이상	(32)	(13)	40.6	(8)	25.0	(4)	12.5	(3)	9.4	(4)	12.5
거주 지별	수도권	(286)	(75)	26.2	(79)	27.6	(55)	19.2	(33)	11.5	(24)	8.4
	부산/경남권	(58)	(24)	41.4	(17)	29.3	(9)	15.5	(4)	6.9	(1)	1.7
	대구/경북권	(36)	(18)	50.0	(8)	22.2	(3)	8.3	(6)	16.7	(0)	0.0
	대전/충청권	(35)	(9)	25.7	(12)	34.3	(6)	17.1	(5)	14.3	(1)	2.9
	광주/전라권	(47)	(14)	29.8	(11)	23.4	(8)	17.0	(7)	14.9	(5)	10.6
	강원, 제주	(11)	(3)	27.3	(2)	18.2	(0)	0.0	(3)	27.3	(1)	9.1
자격 취득 기간 별	1년 미만	(112)	(26)	23.2	(33)	29.5	(22)	19.6	(14)	12.5	(9)	8.0
	1~2년	(183)	(54)	29.5	(49)	26.8	(32)	17.5	(25)	13.7	(13)	7.1
	3~4년	(88)	(30)	34.1	(25)	28.4	(11)	12.5	(12)	13.6	(5)	5.7
	5~6년	(55)	(20)	36.4	(14)	25.5	(11)	20.0	(2)	3.6	(3)	5.5
	7년 이상	(35)	(13)	37.1	(8)	22.9	(5)	14.3	(5)	14.3	(2)	5.7

※ base : 구직 시 ‘도움 안 됨’ 응답자(n=473), 기타 6.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8.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sup>25)</sup>’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1.9%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고졸/비전공자(47.6%)와 예술전공자(43.3%)가 다른 자격요건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49.1%)가 30대(47.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17]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205)	(2,602)	41.9	(966)	15.6	(1,197)	19.3	(1,440)	23.2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63)	(30)	47.6	(5)	7.9	(6)	9.5	(22)	34.9
	예술강사	(922)	(342)	37.1	(79)	8.6	(96)	10.4	(405)	43.9
	예술전공자	(4,846)	(2,096)	43.3	(828)	17.1	(1,052)	21.7	(870)	18.0
	국가무형문화재	(374)	(134)	35.8	(54)	14.4	(43)	11.5	(143)	38.2
성별	남성	(1,189)	(427)	35.9	(214)	18.0	(262)	22.0	(286)	24.1
	여성	(5,016)	(2,175)	43.4	(752)	15.0	(935)	18.6	(1,154)	23.0
연령별	20대	(2,698)	(1,325)	49.1	(511)	18.9	(710)	26.3	(152)	5.6
	30대	(1,363)	(640)	47.0	(226)	16.6	(301)	22.1	(196)	14.4
	40대	(1,104)	(310)	28.1	(106)	9.6	(76)	6.9	(612)	55.4
	50대	(744)	(243)	32.7	(80)	10.8	(70)	9.4	(351)	47.2
	60대 이상	(296)	(84)	28.4	(43)	14.5	(40)	13.5	(129)	43.6
거주지별	수도권	(3,308)	(1,398)	42.3	(561)	17.0	(670)	20.3	(679)	20.5
	부산/경남권	(827)	(344)	41.6	(111)	13.4	(143)	17.3	(229)	27.7
	대구/경북권	(557)	(211)	37.9	(81)	14.5	(108)	19.4	(157)	28.2
	대전/충청권	(610)	(259)	42.5	(84)	13.8	(118)	19.3	(149)	24.4
	광주/전라권	(722)	(315)	43.6	(107)	14.8	(127)	17.6	(173)	24.0
자격 취득 기간별	강원, 제주	(181)	(75)	41.4	(22)	12.2	(31)	17.1	(53)	29.3
	1년 미만	(1,350)	(637)	47.2	(181)	13.4	(355)	26.3	(177)	13.1
	1~2년	(2,127)	(955)	44.9	(403)	18.9	(480)	22.6	(289)	13.6
	3~4년	(982)	(385)	39.2	(154)	15.7	(157)	16.0	(286)	29.1
	5~6년	(765)	(267)	34.9	(109)	14.2	(109)	14.2	(280)	36.6
	7년 이상	(981)	(358)	36.5	(119)	12.1	(96)	9.8	(408)	41.6

※ base : 전체(n=6,20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5)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만 39세 미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 문화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실무경험 확대 및 경력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십 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됨

고졸/비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7.6%로 나타났다.

[표 218] [고졸/비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3)	(30)	47.6	(5)	7.9	(6)	9.5	(22)	34.9
성별	남성	(11)	(7)	63.6	(0)	0.0	(1)	9.1	(3)	27.3
	여성	(52)	(23)	44.2	(5)	9.6	(5)	9.6	(19)	36.5
연령별	20대	(1)	(1)	100.0	(0)	0.0	(0)	0.0	(0)	0.0
	30대	(13)	(10)	76.9	(1)	7.7	(0)	0.0	(2)	15.4
	40대	(26)	(8)	30.8	(1)	3.8	(3)	11.5	(14)	53.8
	50대	(13)	(7)	53.8	(3)	23.1	(1)	7.7	(2)	15.4
	60대 이상	(10)	(4)	40.0	(0)	0.0	(2)	20.0	(4)	40.0
거주지별	수도권	(36)	(14)	38.9	(3)	8.3	(4)	11.1	(15)	41.7
	부산/경남권	(4)	(1)	25.0	(0)	0.0	(0)	0.0	(3)	75.0
	대구/경북권	(4)	(3)	75.0	(0)	0.0	(0)	0.0	(1)	25.0
	대전/충청권	(4)	(3)	75.0	(0)	0.0	(0)	0.0	(1)	25.0
	광주/전라권	(12)	(7)	58.3	(2)	16.7	(2)	16.7	(1)	8.3
	강원, 제주	(3)	(2)	66.7	(0)	0.0	(0)	0.0	(1)	33.3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	(1)	100.0	(0)	0.0	(0)	0.0	(0)	0.0
	1~2년	(4)	(3)	75.0	(0)	0.0	(0)	0.0	(1)	25.0
	3~4년	(17)	(9)	52.9	(1)	5.9	(1)	5.9	(6)	35.3
	5~6년	(26)	(11)	42.3	(3)	11.5	(4)	15.4	(8)	30.8
	7년 이상	(15)	(6)	40.0	(1)	6.7	(1)	6.7	(7)	46.7

※ base : 고졸/비전공자 전체(n=63)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50대 제외)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19]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22)	(342)	37.1	(79)	8.6	(96)	10.4	(405)	43.9
성별	남성	(172)	(52)	30.2	(18)	10.5	(29)	<u>16.9</u>	(73)	42.4
	여성	(750)	(290)	38.7	(61)	8.1	(67)	8.9	(332)	44.3
연령별	20대	-	-	-	-	-	-	-	-	-
	30대	(252)	(128)	<u>50.8</u>	(22)	8.7	(42)	<u>16.7</u>	(60)	23.8
	40대	(430)	(128)	29.8	(32)	7.4	(28)	6.5	(242)	<u>56.3</u>
	50대	(206)	(77)	37.4	(19)	9.2	(21)	10.2	(89)	43.2
	60대 이상	(34)	(9)	26.5	(6)	<u>17.6</u>	(5)	<u>14.7</u>	(14)	41.2
거주지별	수도권	(333)	(108)	32.4	(24)	7.2	(36)	10.8	(165)	<u>49.5</u>
	부산/경남권	(177)	(65)	36.7	(16)	9.0	(17)	9.6	(79)	44.6
	대구/경북권	(82)	(29)	35.4	(7)	8.5	(8)	9.8	(38)	46.3
	대전/충청권	(124)	(50)	<u>40.3</u>	(8)	6.5	(15)	12.1	(51)	41.1
	광주/전라권	(153)	(68)	<u>44.4</u>	(18)	11.8	(14)	9.2	(53)	34.6
	강원, 제주	(53)	(22)	<u>41.5</u>	(6)	11.3	(6)	11.3	(19)	35.8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3)	(1)	33.3	(0)	0.0	(1)	33.3	(1)	33.3
	1~2년	(3)	(0)	0.0	(1)	33.3	(1)	33.3	(1)	33.3
	3~4년	(46)	(21)	<u>45.7</u>	(4)	8.7	(2)	4.3	(19)	41.3
	5~6년	(193)	(77)	39.9	(15)	7.8	(26)	13.5	(75)	38.9
	7년 이상	(677)	(243)	35.9	(59)	8.7	(66)	9.7	(309)	45.6

※ base : 예술강사 전체(n=92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예술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3.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20대 49.1%, 30대 45.3%)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취득 기간이 짧을수록(7년 이상 제외)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20] [예술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846)	(2,096)	43.3	(828)	17.1	(1,052)	21.7	(870)	18.0
성별	남성	(842)	(312)	37.1	(173)	<u>20.5</u>	(207)	<u>24.6</u>	(150)	17.8
	여성	(4,004)	(1,784)	44.6	(655)	16.4	(845)	21.1	(720)	18.0
연령별	20대	(2,688)	(1,319)	<u>49.1</u>	(510)	<u>19.0</u>	(708)	<u>26.3</u>	(151)	5.6
	30대	(1,049)	(475)	<u>45.3</u>	(197)	<u>18.8</u>	(252)	<u>24.0</u>	(125)	11.9
	40대	(567)	(149)	26.3	(59)	10.4	(39)	6.9	(320)	<u>56.4</u>
	50대	(411)	(118)	28.7	(44)	10.7	(37)	9.0	(212)	<u>51.6</u>
	60대 이상	(131)	(35)	26.7	(18)	13.7	(16)	12.2	(62)	<u>47.3</u>
거주지별	수도권	(2,776)	(1,212)	43.7	(509)	18.3	(613)	22.1	(442)	15.9
	부산/경남권	(554)	(251)	<u>45.3</u>	(82)	14.8	(115)	20.8	(106)	19.1
	대구/경북권	(435)	(172)	39.5	(69)	15.9	(93)	21.4	(101)	<u>23.2</u>
	대전/충청권	(457)	(196)	42.9	(73)	16.0	(103)	22.5	(85)	18.6
	광주/전라권	(511)	(221)	43.2	(80)	15.7	(104)	20.4	(106)	<u>20.7</u>
	강원, 제주	(113)	(44)	38.9	(15)	13.3	(24)	21.2	(30)	<u>26.5</u>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1,317)	(624)	<u>47.4</u>	(181)	13.7	(344)	<u>26.1</u>	(168)	12.8
	1~2년	(2,045)	(926)	<u>45.3</u>	(391)	<u>19.1</u>	(471)	23.0	(257)	12.6
	3~4년	(843)	(333)	39.5	(135)	16.0	(148)	17.6	(227)	<u>26.9</u>
	5~6년	(459)	(149)	32.5	(82)	17.9	(66)	14.4	(162)	<u>35.3</u>
	7년 이상	(182)	(64)	35.2	(39)	<u>21.4</u>	(23)	12.6	(56)	<u>30.8</u>

※ base : 예술전공자 전체(n=4,846)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5.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55.1%)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자격취득 기간이 7년 이상(4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1]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참여조건이 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74)	(134)	35.8	(54)	14.4	(43)	11.5	(143)	38.2
성별	남성	(164)	(56)	34.1	(23)	14.0	(25)	15.2	(60)	36.6
	여성	(210)	(78)	37.1	(31)	14.8	(18)	8.6	(83)	39.5
연령별	20대	(9)	(5)	55.6	(1)	11.1	(2)	22.2	(1)	11.1
	30대	(49)	(27)	55.1	(6)	12.2	(7)	14.3	(9)	18.4
	40대	(81)	(25)	30.9	(14)	17.3	(6)	7.4	(36)	44.4
	50대	(114)	(41)	36.0	(14)	12.3	(11)	9.6	(48)	42.1
	60대 이상	(121)	(36)	29.8	(19)	15.7	(17)	14.0	(49)	40.5
거주지별	수도권	(163)	(64)	39.3	(25)	15.3	(17)	10.4	(57)	35.0
	부산/경남권	(92)	(27)	29.3	(13)	14.1	(11)	12.0	(41)	44.6
	대구/경북권	(36)	(7)	19.4	(5)	13.9	(7)	19.4	(17)	47.2
	대전/충청권	(25)	(10)	40.0	(3)	12.0	(0)	0.0	(12)	48.0
	광주/전라권	(46)	(19)	41.3	(7)	15.2	(7)	15.2	(13)	28.3
	강원, 제주	(12)	(7)	58.3	(1)	8.3	(1)	8.3	(3)	25.0
자격 취득 기간별	1년 미만	(29)	(11)	37.9	(0)	0.0	(10)	34.5	(8)	27.6
	1~2년	(75)	(26)	34.7	(11)	14.7	(8)	10.7	(30)	40.0
	3~4년	(76)	(22)	28.9	(14)	18.4	(6)	7.9	(34)	44.7
	5~6년	(87)	(30)	34.5	(9)	10.3	(13)	14.9	(35)	40.2
	7년 이상	(107)	(45)	42.1	(20)	18.7	(6)	5.6	(36)	33.6

※ base : 국가무형문화재 전체(n=374)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있는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참여가 가능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기’(27.5%), ‘부산’(9.5%), ‘인천’(8.1%), ‘대구’(7.7%), ‘경남’(6.5%), ‘광주’(6.1%), ‘대전’(5.9%), ‘전남’(5.5%), ‘충남’(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2]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 가능 또는 희망 지역

	전체	자격요건별			
		고졸/비전공자	예술강사	예술전공자	국가무형문화재
사례수(명)	(2,602)	(30)	(342)	(2,096)	(134)
서울	45.3	33.3	19.9	50.3	34.3
경기	27.5	33.3	19.0	28.6	30.6
부산	9.5	3.3	9.6	9.3	14.9
인천	8.1	6.7	3.8	9.1	4.5
대구	7.7	3.3	5.0	8.5	3.0
경남	6.5	0.0	6.7	6.2	13.4
광주	6.1	13.3	6.7	6.0	4.5
대전	5.9	3.3	5.8	6.3	1.5
전남	5.5	6.7	7.6	5.2	5.2
충남	5.3	6.7	5.8	5.3	3.7
전북	4.9	13.3	10.2	3.6	9.7
경북	4.6	6.7	6.1	4.3	5.2
울산	3.9	0.0	4.4	4.0	3.0
세종	3.8	3.3	2.9	3.9	3.7
강원	3.2	10.0	4.4	2.6	7.5
제주	3.1	3.3	3.5	3.1	1.5
충북	2.8	10.0	3.5	2.6	3.7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자격소지자(n=2,602),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 Ⅲ. 문화예술 관련 기관

---

1. 종합분석(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Ⅲ. 문화예술 관련 기관\_종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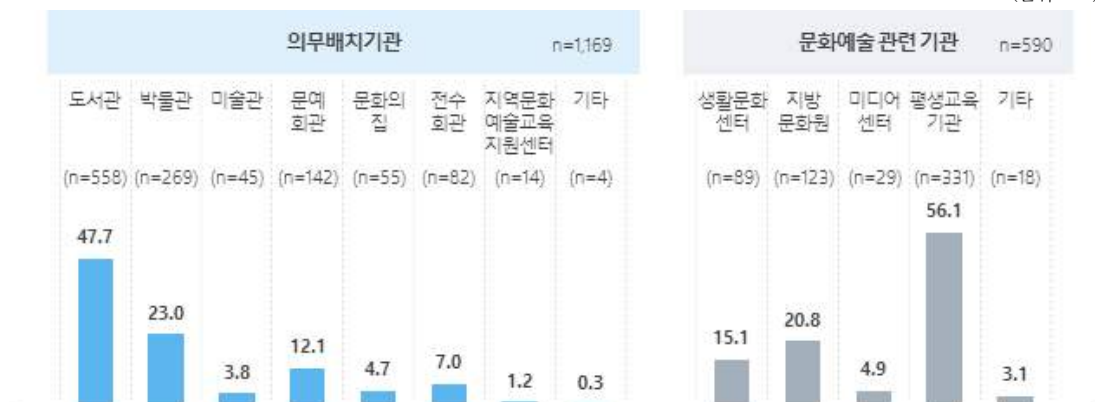
#### 1. 종합분석(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 가. 기관 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의무배치기관은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한 국·공립시설이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타 법령상<sup>26)</sup> 의무배치기관에 해당하므로 전체 기관 구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 및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기타 기관은 온라인으로 응답을 완료한 기관 중, 기관 유형 및 기관명을 확인할 수 없는 기관이다.

[그림 1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유형

(단위 : %)



2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3항

## 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은 의무배치기관이 76.8%,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83.6%로 나타났다.

[표 22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1,169)	(898)	76.8	(271)	23.2
문화예술 관련 기관	(590)	(493)	83.6	(97)	16.4

### 1)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는 의무배치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모두 ‘21회 이상’(의무배치기관 28.5%, 문화예술 관련 기관 37.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비교 분석

	사례수 (곳)	1~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898)	(252)	28.1	(206)	22.9	(184)	20.5	(256)	28.5
문화예술 관련 기관	(493)	(96)	19.5	(85)	17.2	(125)	25.4	(187)	37.9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의무배치기관은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66.5%)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59.2%)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기타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898)	(206)	22.9	(173)	19.3	(597)	66.5	(554)	61.7	7	0.8
문화예술 관련 기관	(493)	(192)	38.9	(176)	35.7	(266)	54.0	(292)	59.2	5.0	1.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복수응답, 모름/무응답 : 문화예술 관련 기관 0.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은 의무배치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모두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의무배치기관 72.4%, 문화예술 관련 기관 69.2%)가 가장 많았다.

[표 22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비교 분석

	사례수 (곳)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기관 외부 전문가		문화예술교육강사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898)	(650)	72.4	(458)	51.0	(353)	39.3	(178)	19.8
문화예술 관련 기관	(493)	(341)	69.2	(263)	53.3	(239)	48.5	(89)	18.1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복수응답

※ 기타 : 의무배치기관 2.0%, 문화예술 관련 기관 1.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의무배치기관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15.1%),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 교육강사’(16.7%)의 소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비교 분석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기관 외부 전문가			문화예술교육강사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전체	사례수	%	전체	사례수	%	전체	사례수	%	전체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650)	(98)	15.1	(458)	(26)	5.7	(353)	(52)	14.7	(178)	(18)	10.1
문화예술 관련 기관	(341)	(31)	9.1	(263)	(13)	4.9	(239)	(40)	16.7	(89)	(3)	3.4

※ base : 각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다.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문화예술교육사가 문화예술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의무배치기관이 50.2%,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49.0%로 나타났다.

[표 228]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1,169)	(587)	50.2	(582)	49.8
문화예술 관련 기관	(590)	(289)	49.0	(301)	51.0

## 라.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및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 1)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의무배치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68.2%)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9.9%)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69.3%)과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36.1%)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229]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비교 분석

	의무배치기관 (n=1,169)		문화예술 관련 기관 (n=590)	
	사례수	%	사례수	%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361)	30.9	(143)	24.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146)	12.5	(63)	10.7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797)	<u>68.2</u>	(409)	<u>69.3</u>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406)	34.7	(213)	<u>36.1</u>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66)	<u>39.9</u>	(194)	32.9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206)	17.6	(74)	12.5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123)	10.5	(52)	8.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110)	9.4	(37)	6.3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171)	14.6	(50)	8.5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164)	14.0	(56)	9.5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능력	(117)	10.0	(34)	5.8

※ 없음 : 의무배치기관 0.1%, 문화예술 관련 기관 0.3%, 기타 : 문화예술 관련 기관 0.2%,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2)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수준을 고려할 때,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로 의무배치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70.6%)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56.5%)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66.2%)과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52.9%)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230]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의무배치기관 (n=177)		문화예술 관련 기관 (n=68)	
	사례수	%	사례수	%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60)	33.9	(27)	39.7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22)	12.4	(16)	23.5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25)	<u>70.6</u>	(45)	<u>66.2</u>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78)	44.1	(36)	<u>52.9</u>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	<u>56.5</u>	(28)	41.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48)	27.1	(12)	17.6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24)	13.6	(10)	14.7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16)	9.0	-	-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24)	13.6	-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24)	13.6	-	-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능력	(17)	9.6	-	-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기관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마. 자격증 소지자 배치 현황

### 1)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의무배치기관이 15.1%,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11.5%로 나타났다.

[표 23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1,169)	(177)	15.1	(992)	84.9
문화예술 관련 기관	(590)	(68)	11.5	(522)	88.5

### 2) 자격증 소지자 인력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은 의무배치기관이 총 340명으로 그 중 정규직은 88명(25.9%), 비정규직은 252명(74.1%)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총 173명으로 그 중 정규직은 23명(13.3%), 비정규직은 150명(86.7%)로 나타났다.

[표 23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정규직		비정규직		총 배치인원	
		합계(명)	비율(%)	합계(명)	비율(%)	합계(명)	비율(%)
의무배치기관	(177)	88	25.9	252	74.1	340	100.0
문화예술 관련 기관	(68)	23	13.3	150	86.7	173	10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기관

### 3)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의무배치기관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36.4%)와 ‘예산이 부족해서’(23.9%)가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38.5%)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아서’(29.5%)가 높게 나타났다.

[표 233]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의무배치기관 (n=992)		문화예술 관련 기관 (n=522)	
	사례수	%	사례수	%
예산이 부족해서	(237)	23.9	(81)	15.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189)	19.1	(76)	14.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아서	(206)	20.8	(154)	29.5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143)	14.4	(84)	16.1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118)	11.9	(42)	8.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361)	36.4	(201)	38.5
배치권한이 없어서(상급 기관에서 인력관리)	(90)	9.1	(38)	7.3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기관

※ 기타 : 의무배치기관 4.6%, 문화예술 관련 기관 5.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4)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및 업무 수행 수준

의무배치기관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주 담당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61.6%)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53.1%)이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57.4%)과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48.5%)가 가장 많았다.

의무배치기관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 수행 수준은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가 4.45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교육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이 4.51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234] 자격증 소지자 주 담당 업무 및 업무 수행 수준 비교

	의무배치기관 (n=177)			문화예술 관련 기관 (n=68)		
	주 담당 업무		업무수행 수준 (5점)	주 담당 업무		업무수행 수준 (5점)
	사례수	%		사례수	%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43)	24.3	4.26	(20)	29.4	4.3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17)	9.6	4.18	(9)	13.2	4.00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09)	61.6	4.37	(39)	57.4	4.51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82)	46.3	4.45	(33)	48.5	4.2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94)	53.1	4.31	(26)	38.2	4.23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38)	21.5	4.21	(12)	17.6	4.25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7)	4.0	4.00	(7)	10.3	4.29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5)	2.8	4.00	(4)	5.9	3.5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15)	8.5	4.27	(6)	8.8	3.8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10)	5.6	4.00	(5)	7.4	4.20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능력	(5)	2.8	4.40	(3)	4.4	4.33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기관

※ 기타 : 의무배치기관 0.6%(5.00점)

## 바. 자격증 소지자 배치 계획

문화예술교육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기관의 향후 배치 의향을 살펴본 결과, 의무배치기관의 의향은 15.4%,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13.6%로 나타났다.

[표 235]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비교 분석

	사례수 (곳)	배치할 의향이 있다		배치할 의향이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992)	(153)	15.4	(839)	84.6
문화예술 관련 기관	(522)	(71)	13.6	(451)	86.4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기관

### 1)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경우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기관의 배치 형태를 살펴본 결과, 의무배치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모두 ‘기간제’와 ‘전일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의무배치기관은 ‘비상근’(52.3%)을,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상근’(50.7%)을 희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표 236]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직				전일제/단시간			
		상근		비상근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의무배치기관	(153)	(73)	47.7	(80)	52.3	(113)	73.9	(40)	26.1	(80)	52.3	(73)	47.7
문화예술 관련 기관	(71)	(36)	50.7	(35)	49.3	(57)	80.3	(14)	19.7	(39)	54.9	(32)	45.1

※ base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있는 기관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향후 배치 예상 시점으로 의무배치기관은 ‘2023년 이후’(31.4%)가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2022년 하반기’(32.4%)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237]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시점 및 배치 예상 인원 수 비교 분석

	사례수 (곳)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이후	직원 결원시	미정	예산 확보에 따라	평균 (명)
의무배치기관	(153)	1.3	24.2	14.4	31.4	26.8	2.7	0.7	1.2
문화예술 관련 기관	(71)	0.0	18.3	32.4	31.0	16.9	0.0	1.4	1.2

※ base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있는 기관

※ 모름/무응답 : 의무배치기관 0.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2)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의무배치기관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34.7%)와 ‘예산이 부족해서’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각각 21.0%)가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34.1%)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아서’(26.4%)가 높게 나타났다.

[표 238]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의무배치기관 (n=839)		문화예술 관련 기관 (n=451)	
	사례수	%	사례수	%
예산이 부족해서	(176)	21.0	(70)	15.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176)	21.0	(72)	16.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아서	(173)	20.6	(119)	26.4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92)	11.0	(62)	13.7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68)	8.1	(21)	4.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291)	34.7	(154)	34.1
배치권한이 없어서(상급 기관에서 인력관리)	(149)	17.8	(72)	16.0

※ base :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없는 기관, 복수응답

※ 기타 : 의무배치기관 4.1%, 문화예술 관련 기관 5.8%, 모름/무응답 : 문화예술 관련 기관 0.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Ⅲ. 문화예술 관련 기관\_의무배치기관

#### 2. 의무배치기관

##### 가. 기관유형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근거로 하여 의무배치기관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무배치기관 중 응답률은 ‘도서관’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박물관’(23.0%), ‘문예회관’(12.1%), ‘전수회관’(7.0%), ‘문화의집’(4.7%), ‘미술관’(3.8%)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1.2%)의 순이었다.

[표 239] [의무배치기관] 소속기관 유형

		사례수	%
전 체		(1,169)	100.0
기관유형	도서관	(558)	47.7
	박물관	(269)	23.0
	미술관	(45)	3.8
	문예회관	(142)	12.1
	문화의집	(55)	4.7
	전수회관	(82)	7.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4)	1.2
	기 타	(4)	0.3

※ base : 전체(n=1,169)

## 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전체 응답기관 1,169곳 중에서 898곳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기관 대비 76.8%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미술관’(84.4%), ‘전수회관’(70.9%)등의 순이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14개 기관 중 92.9%인 13개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0]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69)	(898)	76.8	(271)	23.2
기관 유형	도서관	(558)	(498)	89.2	(60)	10.8
	박물관	(269)	(175)	65.1	(94)	34.9
	미술관	(45)	(38)	84.4	(7)	15.6
	문예회관	(142)	(76)	53.5	(66)	46.5
	문화의집	(55)	(39)	70.9	(16)	29.1
	전수회관	(82)	(55)	67.1	(27)	32.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4)	(13)	92.9	(1)	7.1
기 타		(4)	(4)	100.0	(0)	0.0

※ base : 전체(n=1,16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은 2020년 대비 전수회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미술관이 2020년 대비 11.9% 상승하여,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19년 응답한 16개 기관이 모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1년에는 응답한 14개의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 [의무배치기관] 2019-20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예		아니오	
			%	GAP <sup>27)</sup>	%	GAP
전체	2019년	(946)	83.8		16.2	
	2020년	(1,278)	74.7	-9.1	25.3	9.1
	2021년	(1,169)	76.8	2.1	23.2	-2.1
도서관	2019년	(390)	92.8		7.2	
	2020년	(652)	86.5	-6.3	13.5	6.3
	2021년	(558)	89.2	2.7	10.8	-2.7
박물관	2019년	(191)	76.4		23.6	
	2020년	(268)	63.8	-12.6	36.2	12.6
	2021년	(269)	65.1	1.3	34.9	-1.3
미술관	2019년	(57)	87.7		12.3	
	2020년	(51)	72.5	-15.2	27.5	15.2
	2021년	(45)	84.4	11.9	15.6	-11.9
문예회관	2019년	(140)	57.9		42.1	
	2020년	(164)	52.4	-5.5	47.6	5.5
	2021년	(142)	53.5	1.1	46.5	-1.1
문화의 집	2019년	(63)	92.1		7.9	
	2020년	(56)	60.7	-31.4	39.3	31.4
	2021년	(55)	70.9	10.2	29.1	-10.2
전수회관	2019년	(64)	85.9		14.1	
	2020년	(67)	73.1	-12.8	26.9	12.8
	2021년	(82)	67.1	-6.0	32.9	6.0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6)	100.0		0.0	
	2020년	(16)	75.0	-25.0	25.0	25.0
	2021년	(14)	92.9	17.9	7.1	-17.9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음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7)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 1)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의무배치기관의 프로그램 운영횟수는 ‘21회 이상’이 28.5%로 가장 많았고, ‘1~5회’(28.1%), ‘6~10회’(22.9%), ‘11~20회’(20.5%) 순으로 나타났다.

전수회관(56.4%), 박물관(50.3%), 문예회관(39.5%), 미술관(36.8%)은 연간 ‘1~5회’ 운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도서관은 ‘11~20회’(27.1%)와 ‘21회 이상’(36.1%)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2] [의무배치기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사례수 (곳)	1~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98)	(252)	28.1	(206)	22.9	(184)	20.5	(256)	28.5
기관 유형	도서관	(498)	(79)	15.9	(104)	20.9	(135)	27.1	(180)	36.1
	박물관	(175)	(88)	50.3	(54)	30.9	(19)	10.9	(14)	8.0
	미술관	(38)	(14)	36.8	(9)	23.7	(4)	10.5	(11)	28.9
	문예회관	(76)	(30)	39.5	(16)	21.1	(9)	11.8	(21)	27.6
	문화의집	(39)	(8)	20.5	(13)	33.3	(10)	25.6	(8)	20.5
	전수회관	(55)	(31)	56.4	(8)	14.5	(6)	10.9	(10)	18.2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3)	(1)	7.7	(2)	15.4	(0)	0.0	(10)	76.9
	기 타	(4)	(1)	25.0	(0)	0.0	(1)	25.0	(2)	50.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배치기관(n=898)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2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2020년 대비 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상승하였다. 특히, 미술관에서 ‘21회 이상’ 운영하는 기관이 23.5%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2020년에 16.7%만이 ‘21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2021년에는 76.9%로 증가하였다.

[표 243] [의무배치기관] 2019-20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비교 분석

		사례수 (곳)	1~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	GAP <sup>28)</sup>	%	GAP	%	GAP	%	GAP
전체	2019년	(793)	24.3		15.8		16.6		43.3	
	2020년	(955)	37.4	13.1	24.8	9	19.5	2.9	18.3	-25
	2021년	(898)	28.1	-9.3	22.9	-1.9	20.5	1	28.5	10.2
도서관	2019년	(362)	18		15.2		18.5		48.3	
	2020년	(564)	29.3	11.3	25.5	10.3	22.5	4	22.7	-25.6
	2021년	(498)	15.9	-13.4	20.9	-4.6	<u>27.1</u>	4.6	<u>36.1</u>	13.4
박물관	2019년	(146)	30.8		19.2		11.6		38.4	
	2020년	(171)	48.5	17.7	25.7	6.5	13.5	1.9	12.3	-26.1
	2021년	(175)	<u>50.3</u>	1.8	<u>30.9</u>	5.2	10.9	-2.6	8	-4.3
미술관	2019년	(50)	34		18		18		30	
	2020년	(37)	73	39	16.2	-1.8	5.4	-12.6	5.4	-24.6
	2021년	(38)	<u>36.8</u>	-36.2	23.7	7.5	10.5	5.1	28.9	23.5
문예회관	2019년	(81)	33.3		9.9		13.6		43.2	
	2020년	(86)	41.9	8.6	29.1	19.2	18.6	5	10.5	-32.7
	2021년	(76)	<u>39.5</u>	-2.4	21.1	-8	11.8	-6.8	27.6	17.1
문화의 집	2019년	(58)	27.6		17.2		27.6		27.6	
	2020년	(34)	23.5	-4.1	26.5	9.3	35.3	7.7	14.7	-12.9
	2021년	(39)	20.5	-3	<u>33.3</u>	6.8	<u>25.6</u>	-9.7	20.5	5.8
전수회관	2019년	(55)	21.8		12.7		14.5		50.9	
	2020년	(49)	71.4	49.6	12.2	-0.5	2	-12.5	14.3	-36.6
	2021년	(55)	<u>56.4</u>	-15	14.5	2.3	10.9	8.9	18.2	3.9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6)	0		6.3		6.3		87.5	
	2020년	(12)	16.7	16.7	25	18.7	41.7	35.4	16.7	-70.8
	2021년	(13)	7.7	-9	15.4	-9.6	0	-41.7	76.9	60.2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하였음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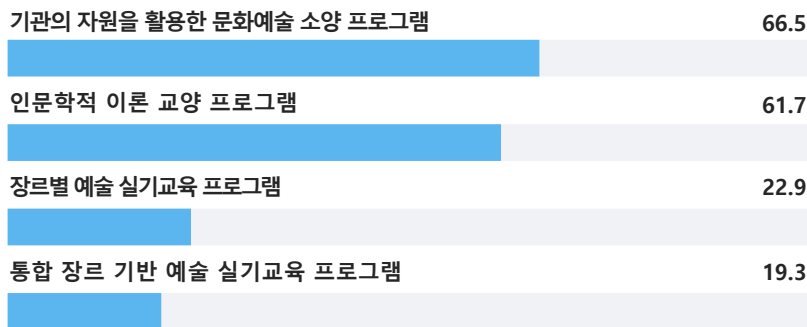
28)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본 결과,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61.7%),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22.9%),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19.3%)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은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83.1%)을,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각각 77.1%, 78.9%)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과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n=898, 복수응답, 단위: %)



[표 244]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사례수 (곳)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898)	(597)	66.5	(554)	61.7	(206)	22.9	(173)	19.3
기관 유형	도서관	(498)	(342)	68.7	(414)	83.1	(74)	14.9	(77)	15.5
	박물관	(175)	(135)	77.1	(68)	38.9	(30)	17.1	(21)	12.0
	미술관	(38)	(30)	78.9	(13)	34.2	(15)	39.5	(8)	21.1
	문예회관	(76)	(34)	44.7	(29)	38.2	(37)	48.7	(29)	38.2
	문화의집	(39)	(11)	28.2	(15)	38.5	(21)	53.8	(15)	38.5
	전수회관	(55)	(32)	58.2	(5)	9.1	(20)	36.4	(13)	23.6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3)	(10)	76.9	(8)	61.5	(7)	53.8	(9)	69.2
	기 타	(4)	(3)	75.0	(2)	50.0	(2)	50.0	(1)	25.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배치기관(n=898), 복수응답, 기타 0.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유형별 배치 여부에 따라 운영 중인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자격소지자 배치 기관에서는 실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미배치 기관에서는 소양/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5]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배치 여부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유형

			사례수 (명)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전 체			(898)	66.5	61.7	22.9	19.3
기관 유형별 배치 여부	도서관	배치	(17)	52.9	58.8	29.4	35.3
		미배치	(481)	69.2	84.0	14.3	14.8
	박물관	배치	(47)	74.5	44.7	19.1	19.1
		미배치	(128)	78.1	36.7	16.4	9.4
	미술관	배치	(15)	66.7	40.0	46.7	40.0
		미배치	(23)	87.0	30.4	34.8	8.7
	문예회관	배치	(27)	63.0	40.7	51.9	51.9
		미배치	(49)	34.7	36.7	46.9	30.6
	문화의집	배치	(13)	30.8	38.5	46.2	46.2
		미배치	(26)	26.9	38.5	57.7	34.6
	전수회관	배치	(37)	56.8	5.4	35.1	21.6
		미배치	(18)	61.1	16.7	38.9	27.8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배치	(11)	72.7	63.6	63.6	81.8
		미배치	(2)	100.0	50.0	0.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배치기관(n=898), 복수응답, 기타 0.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가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기관 외부 전문가’(51.0%), ‘문화예술교육강사’(39.3%),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19.8%)의 순이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지에 살펴본 결과,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이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강사’(14.7%),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비담당자’(10.1%), ‘기관 외부 전문가’(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예회관과 미술관에서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담당자’의 자격증 소지율(각각 48.8%, 46.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6]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자격증 소지율

		사 례 수 ( <u>곳</u> )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기관 외부 전문가			문화예술교육강사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운영인력		자격증 소지율	운영인력		자격증 소지율	운영인력		자격증 소지율	운영인력		자격증 소지율
			사례수	%	%	사례수	%	%	사례수	%	%	사례수	%	%
전 체		(898)	(650)	72.4	15.1	(458)	51.0	5.7	(353)	39.3	14.7	(178)	19.8	10.1
기관 유형	도서관	(498)	(332)	66.7	0.9	(277)	<u>55.6</u>	1.8	(215)	<u>43.2</u>	4.7	(84)	16.9	0.0
	박물관	(175)	(144)	<u>82.3</u>	<u>19.4</u>	(82)	46.9	4.9	(49)	28.0	<u>26.5</u>	(44)	<u>25.1</u>	<u>13.6</u>
	미술관	(38)	(30)	<u>78.9</u>	<u>46.7</u>	(15)	39.5	20.0	(12)	31.6	33.3	(8)	21.1	0.0
	문예회관	(76)	(57)	75.0	<u>33.3</u>	(46)	<u>60.5</u>	<u>17.4</u>	(30)	39.5	16.7	(11)	14.5	27.3
	문화의집	(39)	(32)	<u>82.1</u>	12.5	(11)	28.2	9.1	(20)	<u>51.3</u>	20.0	(13)	<u>33.3</u>	30.8
	전수회관	(55)	(41)	74.5	<u>48.8</u>	(21)	38.2	14.3	(17)	30.9	76.5	(15)	27.3	26.7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3)	(11)	84.6	90.9	(5)	38.5	40.0	(8)	61.5	37.5	(3)	23.1	33.3
	기 타	(4)	(3)	75.0	0.0	(1)	25.0	0.0	(2)	50.0	0.0	(0)	0.0	-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배치기관(n=898), 복수응답, 기타 2.0%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다.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 시설에 최소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무배치기관의 50.2%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보면, 미술관(95.6%), 전수회관(81.7%), 박물관(68.0%), 문예회관(6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은 인지하지 못한 비율이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47]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사례수 (곳)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69)	(587)	50.2	(582)	49.8
기관 유형	도서관	(558)	(167)	29.9	(391)	<u>70.1</u>
	박물관	(269)	(183)	<u>68.0</u>	(86)	32.0
	미술관	(45)	(43)	<u>95.6</u>	(2)	4.4
	문예회관	(142)	(88)	<u>62.0</u>	(54)	38.0
	문화의집	(55)	(25)	45.5	(30)	<u>54.5</u>
	전수회관	(82)	(67)	<u>81.7</u>	(15)	18.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4)	(13)	92.9	(1)	7.1
기 타		(4)	(1)	25.0	(3)	75.0

※ base : 전체(n=1,16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에 대한 인지도는 2020년 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문예회관과 문화의집,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였다.

[표 248] [의무배치기관] 2019-2021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비교 분석

		사례수 (명)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	GAP <sup>29)</sup>	%	GAP
전체	2019년	(946)	55.3		44.7	
	2020년	(1,278)	46.9	-8.4	53.1	8.4
	2021년	(1,169)	50.2	3.3	49.8	-3.3
도서관	2019년	(390)	37.7		62.3	
	2020년	(652)	29.4	-8.3	70.6	8.3
	2021년	(558)	29.9	0.5	70.1	-0.5
박물관	2019년	(191)	67.5		32.5	
	2020년	(268)	<u>60.8</u>	-6.7	39.2	6.7
	2021년	(269)	68.0	7.2	32.0	-7.2
미술관	2019년	(57)	82.5		17.5	
	2020년	(51)	86.3	3.8	13.7	-3.8
	2021년	(45)	<u>95.6</u>	9.3	4.4	-9.3
문예회관	2019년	(140)	50.0		50.0	
	2020년	(164)	63.4	13.4	36.6	-13.4
	2021년	(142)	<u>62.0</u>	-1.4	38.0	1.4
문화의 집	2019년	(63)	54.0		46.0	
	2020년	(56)	48.2	-5.8	51.8	5.8
	2021년	(55)	45.5	-2.7	54.5	2.7
전수회관	2019년	(64)	85.9		14.1	
	2020년	(67)	76.1	-9.8	23.9	9.8
	2021년	(82)	<u>81.7</u>	5.6	18.3	-5.6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6)	100.0		0.0	
	2020년	(16)	100.0	0.0	0.0	0.0
	2021년	(14)	92.9	-7.1	7.1	7.1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29)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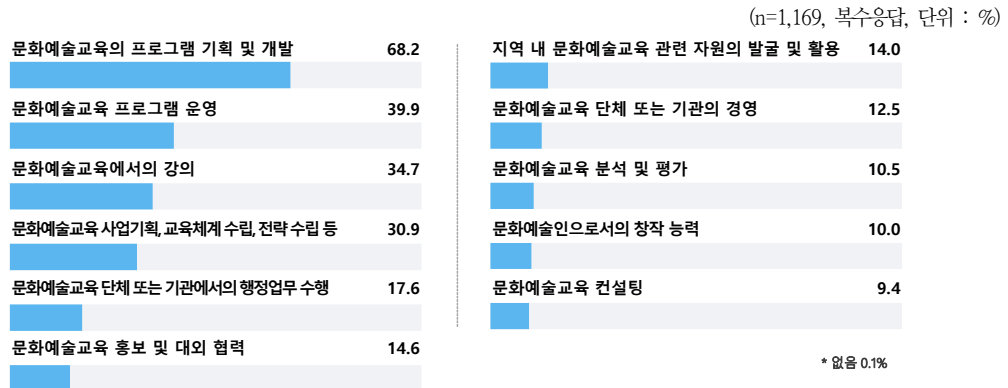


## 라.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9.9%),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34.7%),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30.9%) 등의 순이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은 미술관(75.6%)과 전수회관(79.3%)에서,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는 문화의집(47.3%)과 전수회관(4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4]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표 249]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사례수 (곳)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1,169)	68.2	39.9	34.7	30.9	17.6	14.6	14.0	12.5	10.5	10.0	9.4
기관 유형	도서관	(558)	67.6	36.6	37.1	30.5	12.7	15.6	13.4	12.5	10.9	9.7	9.0
	박물관	(269)	66.5	44.2	36.4	24.9	13.8	10.0	11.9	10.4	7.8	8.2	8.2
	미술관	(45)	75.6	44.4	44.4	44.4	22.2	15.6	6.7	17.8	11.1	4.4	4.4
	문예회관	(142)	66.2	34.5	20.4	35.9	24.6	11.3	14.1	10.6	7.0	7.7	7.7
	문화의집	(55)	67.3	47.3	30.9	27.3	36.4	32.7	32.7	16.4	20.0	29.1	21.8
	전수회관	(82)	79.3	45.1	39.0	31.7	26.8	14.6	14.6	15.9	14.6	13.4	14.6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4)	64.3	64.3	21.4	64.3	57.1	14.3	14.3	21.4	14.3	7.1	0.0
	기타	(4)	50.0	50.0	0.0	75.0	75.0	50.0	50.0	0.0	25.0	0.0	25.0
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⑥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⑧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⑨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⑩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 능력											
⑪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base : 전체(n=1,169), 복수응답, 없음 0.1%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마. 자격증 소지자 배치 현황

### 1)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전체 응답기관 1,169곳 중에서 177곳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기관 대비 15.1%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수회관의 배치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도서관의 배치율이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50]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69)	(177)	15.1	(992)	84.9
기관 유형	도서관	(558)	(17)	3.0	(541)	97.0
	박물관	(269)	(49)	18.2	(220)	81.8
	미술관	(45)	(15)	33.3	(30)	66.7
	문예회관	(142)	(30)	21.1	(112)	78.9
	문화의집	(55)	(13)	23.6	(42)	76.4
	전수회관	(82)	(41)	50.0	(41)	50.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4)	(11)	78.6	(3)	21.4
	기 타	(4)	(1)	25.0	(3)	75.0

※ base : 전체(n=1,16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은 2020년 대비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의 집을 제외한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1] [의무배치기관] 2019-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비교 분석

		사례수 (명)	예		아니오	
			%	GAP <sup>30)</sup>	%	GAP
전체	2019년	(946)	18.2		81.8	
	2020년	(1,278)	16.3	-1.9	83.7	1.9
	2021년	(1169)	15.1	-1.2	84.9	1.2
도서관	2019년	(390)	2.6		97.4	
	2020년	(652)	3.5	0.9	96.5	-0.9
	2021년	(558)	3.0	-0.5	97.0	0.5
박물관	2019년	(191)	18.8		81.2	
	2020년	(268)	19.4	0.6	80.6	-0.6
	2021년	(269)	18.2	-1.2	81.8	1.2
미술관	2019년	(57)	33.3		66.7	
	2020년	(51)	39.2	5.9	60.8	-5.9
	2021년	(45)	33.3	-5.9	66.7	5.9
문예회관	2019년	(140)	21.4		78.6	
	2020년	(164)	29.3	7.9	70.7	-7.9
	2021년	(142)	21.1	-8.2	78.9	8.2
문화의 집	2019년	(63)	20.6		79.4	
	2020년	(56)	16.1	-4.5	83.9	4.5
	2021년	(55)	23.6	7.5	76.4	-7.5
전수회관	2019년	(64)	40.6		59.4	
	2020년	(67)	62.7	22.1	37.3	-22.1
	2021년	(82)	50.0	-12.7	50.0	12.7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6)	93.8		6.3	
	2020년	(16)	81.3	-12.5	18.8	12.5
	2021년	(14)	78.6	-2.7	21.4	2.6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30)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 2) 자격증 소지자 인력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는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배치인원을 살펴본 결과, 배치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34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비정규직이 252명(74.1%), 정규직이 88명(25.9%)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으로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2]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사례수 (곳)	정규직	비정규직	총 배치인원
			합계(명)	합계(명)	합계(명)
전 체		(177)	88	252	340
기관유형	도서관	(17)	1	42	43
	박물관	(49)	33	58	91
	미술관	(15)	15	10	25
	문예회관	(30)	15	26	41
	문화의집	(13)	2	15	17
	전수회관	(41)	8	72	8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1)	14	28	42
	기타	(1)	0	1	1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무배치기관(n=177)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총 배치인원은 2020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비정규직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정규직 배치인원이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문예회관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배치인원이 20명 이상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3] [의무배치기관] 2019-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비교 분석

		사례수 (곳)	정규직		비정규직		총 배치인원	
			합계(명)	GAP <sup>31)</sup>	합계(명)	GAP	합계(명)	GAP
전체	2019년	(172)	131		393		524	
	2020년	(208)	134	3	246	-147	380	-144
	2021년	(177)	88	-46	252	6	340	-40
도서관	2019년	(10)	3		18		21	
	2020년	(23)	6	3	32	14	38	17
	2021년	(17)	1	-5	42	10	43	5
박물관	2019년	(36)	17		66		83	
	2020년	(52)	28	11	58	-8	86	3
	2021년	(49)	33	5	58	0	91	5
미술관	2019년	(19)	15		13		28	
	2020년	(20)	26	11	18	5	44	16
	2021년	(15)	15	-11	10	-8	25	-19
문예회관	2019년	(30)	21		38		59	
	2020년	(48)	44	23	49	11	93	34
	2021년	(30)	15	-29	26	-23	41	-52
문화의 집	2019년	(13)	2		16		18	
	2020년	(9)	0	-2	10	-6	10	-8
	2021년	(13)	2	2	15	5	17	7
전수회관	2019년	(26)	14		185		199	
	2020년	(42)	13	-1	66	-119	79	-120
	2021년	(41)	8	-5	72	6	80	1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5)	44		24		68	
	2020년	(13)	16	-28	11	-13	27	-41
	2021년	(11)	14	-2	28	17	42	15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1) 조사년도에서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 3)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및 실제 담당 업무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는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56.5%),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44.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33.9%) 등의 순이었다.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담당하는 업무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61.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53.1%),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46.3%),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2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을 제외하고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담당하는 업무는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과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가 적합한 업무 대비 실제 담당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담당하는 업무별 직무 수행 수준은 4.00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업무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4.45점)으로 나타났다.

[표 254]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및 실제 담당 업무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자격증 소지자의 실제 담당 업무	GAP <sup>32)</sup>	담당업무별 직무 수행 수준	
	%	%	%p	사례수	점(5점 척도)
사례수(곳)	(177)	(177)		(177)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70.6	61.6	-9.0	(109)	4.3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56.5	53.1	-3.4	(94)	4.31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44.1	46.3	2.2	(82)	4.45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33.9	24.3	-9.6	(43)	4.2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27.1	21.5	-5.6	(38)	4.21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13.6	4.0	-9.6	(7)	4.0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13.6	8.5	-5.1	(15)	4.27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13.6	5.6	-8.0	(10)	4.0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12.4	9.6	-2.8	(17)	4.18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9.6	2.8	-6.8	(5)	4.40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9.0	2.8	-6.2	(5)	4.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무배치기관(n=177), 복수응답

※ 실제 담당 업무 기타 0.6%는 표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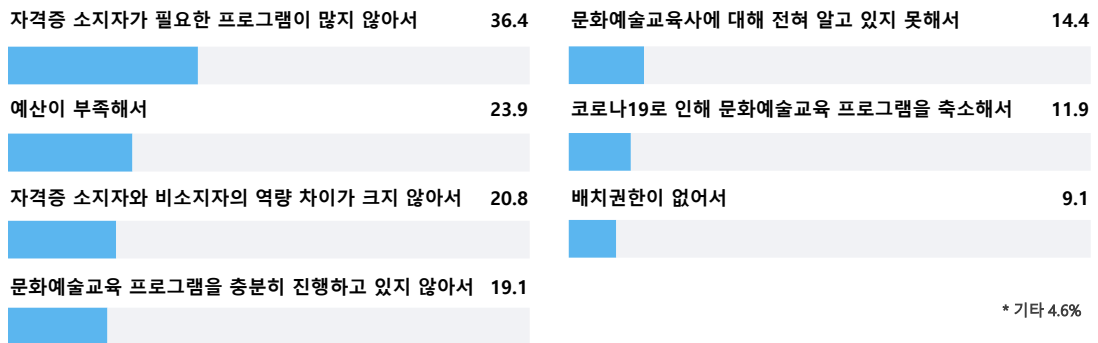
32)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와 실제 담당 업무의 차이(실제 담당업무 - 적합한 업무)

#### 4)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기관을 대상으로 미배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예산이 부족해서’(23.9%),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20.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19.1%) 등의 순이었다.

[그림 15]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n=992, 복수응답, 단위 : %)



[표 255] [의무배치기관]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사례수 (곳)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배치 권한이 없어서
			%	%	%	%	%	%	%
전 체		(992)	36.4	23.9	20.8	19.1	14.4	11.9	9.1
기관 유형	도서관	(541)	39.7	22.9	22.4	10.9	19.8	10.2	11.6
	박물관	(220)	35.9	21.4	19.1	28.2	8.2	14.5	7.3
	미술관	(30)	20.0	50.0	36.7	16.7	6.7	10.0	0.0
	문예회관	(112)	33.9	19.6	15.2	41.1	7.1	5.4	3.6
	문화의집	(42)	26.2	28.6	11.9	19.0	14.3	26.2	4.8
	전수회관	(41)	29.3	39.0	19.5	19.5	2.4	26.8	9.8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3)	0.0	0.0	33.3	33.3	0.0	0.0	0.0
	기타	(3)	0.0	33.3	33.3	0.0	33.3	0.0	33.3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의무배치기관(n=992),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치율과 배치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관의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56]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자격소지자 미배치 이유

		배치율	배치 의향률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15.1	15.4	(992)	36.4	23.9	20.8	19.1	14.4	11.9	9.1
기관 유형	도서관	3.0	12.4	(541)	39.7	22.9	22.4	10.9	19.8	10.2	11.6
	박물관	18.2	20.5	(220)	35.9	21.4	19.1	28.2	8.2	14.5	7.3
	미술관	33.3	30.0	(30)	20.0	50.0	36.7	16.7	6.7	10.0	0.0
	문예회관	21.1	10.7	(112)	33.9	19.6	15.2	41.1	7.1	5.4	3.6
	문화의집	23.6	21.4	(42)	26.2	28.6	11.9	19.0	14.3	26.2	4.8
	전수회관	50.0	22.0	(41)	29.3	39.0	19.5	19.5	2.4	26.8	9.8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78.6	33.3	(3)	0.0	0.0	33.3	33.3	0.0	0.0	0.0

- 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② 예산이 부족해서  
 ③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⑤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⑥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⑦ 배치권한이 없어서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의무배치기관(n=992),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 바. 자격증 소지자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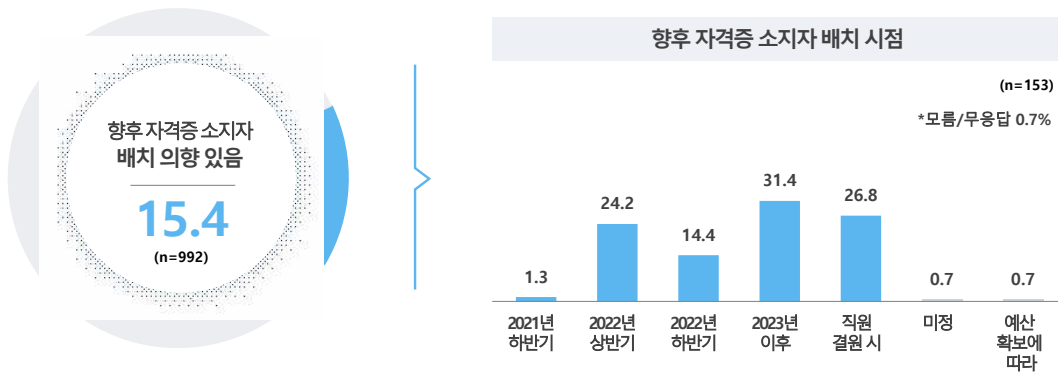
### 1)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15.4%가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사가 있는 의무배치기관의 대다수는 ‘1명’(81.9%)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격증 소지자의 배치시점은 ‘2023년 이후’가 31.4%로 가장 높고, ‘직원 결원 시’(26.8%), ‘2022년 상반기’(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이 있는 기관의 배치 형태를 살펴본 결과, ‘기간제 근로자’(73.9%), ‘전일제 근로자’(52.3%), ‘비상근 근로자’(52.3%)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16]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시점

(단위 : %)



[표 257]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사례수 (곳)	배치할 계획이 있다		배치할 계획이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92)	(153)	15.4	(839)	84.6
기관 유형	도서관	(541)	(67)	12.4	(474)	87.6
	박물관	(220)	(45)	20.5	(175)	79.5
	미술관	(30)	(9)	30.0	(21)	70.0
	문예회관	(112)	(12)	10.7	(100)	89.3
	문화의집	(42)	(9)	21.4	(33)	78.6
	전수화관	(41)	(9)	22.0	(32)	78.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	(1)	33.3	(2)	66.7
	기 타	(3)	(1)	33.3	(2)	66.7

※ base :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의무배치기관(n=99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258]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희망 배치 형태

		사례 수 (곳)	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직				전일제/단시간			
			상근		비상근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53)	(73)	47.7	(80)	52.3	(113)	73.9	(40)	26.1	(80)	52.3	(73)	47.7
기관 유형	도서관	(67)	(16)	23.9	(51)	76.1	(51)	76.1	(16)	23.9	(18)	26.9	(49)	73.1
	박물관	(45)	(29)	64.4	(16)	35.6	(29)	64.4	(16)	35.6	(34)	75.6	(11)	24.4
	미술관	(9)	(8)	88.9	(1)	11.1	(7)	77.8	(2)	22.2	(8)	88.9	(1)	11.1
	문예회관	(12)	(8)	66.7	(4)	33.3	(9)	75.0	(3)	25.0	(9)	75.0	(3)	25.0
	문화의집	(9)	(4)	44.4	(5)	55.6	(9)	100.0	(0)	0.0	(5)	55.6	(4)	44.4
	전수회관	(9)	(6)	66.7	(3)	33.3	(8)	88.9	(1)	11.1	(4)	44.4	(5)	55.6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1)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기타	(1)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의무배치기관(n=153)

[표 259]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예상 인원 수

		사례수 (곳)	1명		2명		3명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명
전 체		(153)	(131)	85.6	(19)	12.4	(3)	2.0	1.2
기관 유형	도서관	(67)	(63)	94.0	(4)	6.0	(0)	0.0	1.1
	박물관	(45)	(31)	68.9	(12)	26.7	(2)	4.4	1.4
	미술관	(9)	(8)	88.9	(0)	0.0	(1)	11.1	1.2
	문예회관	(12)	(10)	83.3	(2)	16.7	(0)	0.0	1.2
	문화의집	(9)	(8)	88.9	(1)	11.1	(0)	0.0	1.1
	전수회관	(9)	(9)	100.0	(0)	0.0	(0)	0.0	1.0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1)	(1)	100.0	(0)	0.0	(0)	0.0	1.0
	기타	(1)	(1)	100.0	(0)	0.0	(0)	0.0	1.0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의무배치기관(n=15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률은 2020년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에서의 배치 의향률이 2020년 대비 15.2%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자격증 소지자를 미배치한 기관 3곳 중 2곳은 향후에도 배치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0] [의무배치기관] 2019-2021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비교 분석

		사례수 (명)	배치할 의향이 있다		배치할 의향이 없다	
			%	GAP <sup>33)</sup>	%	GAP
전체	2019년	(774)	18.5		81.5	
	2020년	(1,070)	15.0	-3.5	85.0	3.5
	2021년	(992)	15.4	0.4	84.6	-0.4
도서관	2019년	(380)	9.5		90.5	
	2020년	(629)	10.8	1.3	89.2	-1.3
	2021년	(541)	12.4	1.6	<u>87.6</u>	-1.6
박물관	2019년	(155)	24.5		75.5	
	2020년	(216)	18.5	-6.0	81.5	6.0
	2021년	(220)	<u>20.5</u>	2.0	79.5	-2.0
미술관	2019년	(38)	44.7		55.3	
	2020년	(31)	45.2	0.5	54.8	-0.5
	2021년	(30)	<u>30.0</u>	-15.2	70.0	15.2
문예회관	2019년	(110)	21.8		78.2	
	2020년	(116)	13.8	-8.0	86.2	8.0
	2021년	(112)	10.7	-3.1	<u>89.3</u>	3.1
문화의 집	2019년	(50)	26.0		74.0	
	2020년	(47)	27.7	1.7	72.3	-1.7
	2021년	(42)	<u>21.4</u>	-6.3	78.6	6.3
전수회관	2019년	(38)	31.6		68.4	
	2020년	(25)	32.0	0.4	68.0	-0.4
	2021년	(41)	<u>22.0</u>	-10.0	78.0	10.0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019년	(1)	100.0		0.0	
	2020년	(3)	0.0	-100.0	100.0	100.0
	2021년	(3)	33.3	33.3	66.7	-33.3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포함된 2020년 기준에 맞게 2019년 결과값을 재산출함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3) 조사년도와 조사 직전년도와의 차이

의무배치기관의 배치율 및 배치 의향률을 여러 변수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전수회관에서 배치율과 배치 의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기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치율과 배치 의향률이 높았으며, 프로그램 횟수별로 살펴보면,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1~5회’인 기관에서 배치율과 배치 의향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261] [의무배치기관] 배치율 및 배치 의향률

		배치율		배치 의향률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69)	15.1	(992)	15.4
기관 유형	도서관	(558)	3.0	(541)	12.4
	박물관	(269)	<u>18.2</u>	(220)	<u>20.5</u>
	미술관	(45)	<u>33.3</u>	(30)	<u>30.0</u>
	문예회관	(142)	<u>21.1</u>	(112)	10.7
	문화의집	(55)	<u>23.6</u>	(42)	<u>21.4</u>
	전수회관	(82)	<u>50.0</u>	(41)	<u>22.0</u>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4)	78.6	(3)	33.3
기 타		(4)	25.0	(3)	33.3
프로그램 유형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206)	<u>29.6</u>	(145)	<u>31.0</u>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173)	<u>33.5</u>	(115)	<u>27.0</u>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597)	17.6	(492)	<u>19.1</u>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554)	11.2	(492)	18.1
	기타	(7)	28.6	(5)	20.0
프로그램 운영 횟수	1~5회	(252)	<u>26.2</u>	(186)	<u>19.9</u>
	6~10회	(206)	16.5	(172)	18.0
	11~20회	(184)	12.0	(162)	<u>19.8</u>
	21회 이상	(256)	18.0	(210)	16.2

※ base : 전체(n=1,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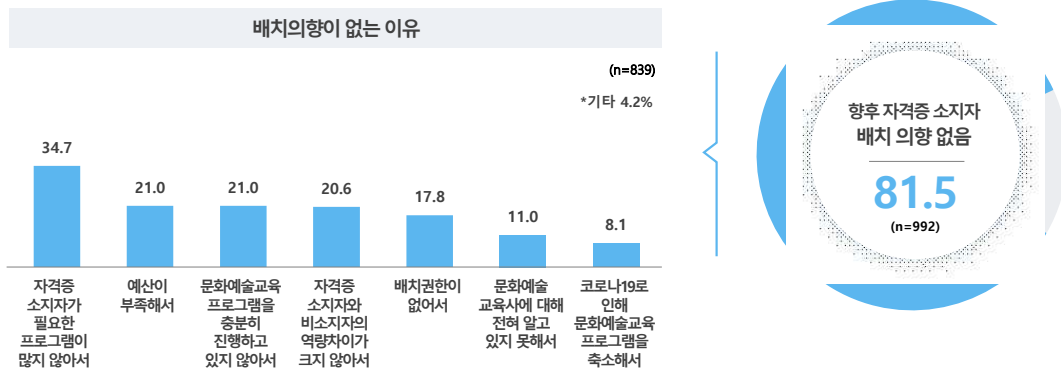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2)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의무배치기관의 81.5%는 향후에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로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산이 부족해서’(2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21.0%) 등의 순이었다.

[그림 17] [의무배치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



[표 262] [의무배치기관]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사례수 (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아서	배치 권한이 없어서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	%	%	%	%	%	%
전 체		(839)	34.7	21.0	21.0	20.6	17.8	11.0	8.1
기관 유형	도서관	(474)	34.6	21.7	12.9	23.8	21.9	15.2	7.2
	박물관	(175)	40.0	16.0	30.3	19.4	12.0	5.7	8.6
	미술관	(21)	14.3	42.9	9.5	33.3	0.0	4.8	9.5
	문예회관	(100)	34.0	19.0	45.0	14.0	11.0	6.0	3.0
	문화의집	(33)	18.2	18.2	21.2	0.0	27.3	3.0	18.2
	전수회관	(32)	37.5	34.4	21.9	15.6	12.5	3.1	25.0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	0.0	0.0	50.0	0.0	0.0	0.0	0.0
	기타	(2)	100.0	0.0	0.0	0.0	0.0	50.0	0.0

※ base :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의무배치기관(n=83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배치율과 배치 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치율과 배치 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관의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배치권한이 없어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63] [의무배치기관] 기관유형별 자격소지자 배치 의향 없는 이유

		배치율	배치 의향률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15.1	15.4	(839)	34.7	21.0	21.0	20.6	17.8	11.0	8.1
기관 유형	도서관	3.0	12.4	(474)	34.6	21.7	12.9	23.8	21.9	15.2	7.2
	박물관	18.2	20.5	(175)	40.0	16.0	30.3	19.4	12.0	5.7	8.6
	미술관	33.3	30.0	(21)	14.3	42.9	9.5	33.3	0.0	4.8	9.5
	문예회관	21.1	10.7	(100)	34.0	19.0	45.0	14.0	11.0	6.0	3.0
	문화의집	23.6	21.4	(33)	18.2	18.2	21.2	0.0	27.3	3.0	18.2
	전수회관	50.0	22.0	(32)	37.5	34.4	21.9	15.6	12.5	3.1	25.0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78.6	33.3	(2)	0.0	0.0	50.0	0.0	0.0	0.0	0.0

- 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② 예산이 부족해서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④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⑤ 배치 권한이 없어서      ⑥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⑦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 base :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의무배치기관(n=83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사.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sup>34)</sup>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16.2%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14.7%, ‘미정이다’ 69.1%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과 문예회관을 제외한 의무배치기관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응답한 14개 기관 중 7개 기관(50.0%)이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264]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

		사례수 (곳)	그렇다		그렇지 않다		미정이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69)	(189)	16.2	(172)	14.7	(808)	69.1
기관 유형	도서관	(558)	(36)	6.5	(97)	17.4	(425)	76.2
	박물관	(269)	(54)	20.1	(35)	13.0	(180)	66.9
	미술관	(45)	(12)	26.7	(1)	2.2	(32)	71.1
	문예회관	(142)	(25)	17.6	(25)	17.6	(92)	64.8
	문화의집	(55)	(20)	36.4	(4)	7.3	(31)	56.4
	전수회관	(82)	(33)	40.2	(9)	11.0	(40)	48.8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4)	(7)	50.0	(1)	7.1	(6)	42.9
	기 타	(4)	(2)	50.0	(0)	0.0	(2)	50.0

※ base : 전체(n=1,16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34) 문화시설이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만 39세 미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 문화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실무경험 확대 및 경력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는 ‘인턴십 지원사업’이었음

## 1) 원활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위한 필요사항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 운영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별 협력체계 강화’(21.2%), ‘컨설팅 강화’(11.6%), ‘대외 홍보 지원’(7.4%)이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표 265] [의무배치기관] 원활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위한 필요사항

		사례수 (곳)	본 사업 운영인력 지원		지역별 협력 체계 강화		컨설팅 강화		대외 홍보 지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89)	(106)	56.1	(40)	21.2	(22)	11.6	(14)	7.4
기관 유형	도서관	(36)	(20)	55.6	(7)	19.4	(5)	13.9	(4)	11.1
	박물관	(54)	(38)	70.4	(5)	9.3	(3)	5.6	(2)	3.7
	미술관	(12)	(9)	75.0	(2)	16.7	(0)	0.0	(1)	8.3
	문예회관	(25)	(12)	48.0	(7)	28.0	(6)	24.0	(0)	0.0
	문화의집	(20)	(9)	45.0	(5)	25.0	(3)	15.0	(2)	10.0
	전수회관	(33)	(15)	45.5	(9)	27.3	(4)	12.1	(5)	15.2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7)	(1)	14.3	(5)	71.4	(1)	14.3	(0)	0.0
	기 타	(2)	(2)	100.0	(0)	0.0	(0)	0.0	(0)	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있는 의무배치기관(n=189)

※기 타 3.7%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2)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52.9%), ‘본 사업 운영인력이 없어서’(41.3%), ‘문화예술교육사 모집이 힘들 것 같아서’(2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6]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사례수 (곳)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본 사업 운영인력이 없어서		문화예술교육사 모집이 힘들 것 같아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72)	(91)	52.9	(71)	41.3	(39)	22.7
기관 유형	도서관	(97)	(39)	40.2	(44)	45.4	(28)	28.9
	박물관	(35)	(23)	65.7	(14)	40.0	(5)	14.3
	미술관	(1)	(1)	100.0	(0)	0.0	(0)	0.0
	문예회관	(25)	(21)	84.0	(8)	32.0	(2)	8.0
	문화의집	(4)	(3)	75.0	(1)	25.0	(1)	25.0
	전수회관	(9)	(4)	44.4	(4)	44.4	(3)	33.3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	(0)	0.0	(0)	0.0	(0)	0.0
	기 타	-	-	-	-	-	-	-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의향 없는 의무배치기관(n=172)

※ 기타 5.2%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Ⅲ. 문화예술 관련 기관\_문화예술 관련 기관

#### 3. 문화예술 관련 기관

##### 가. 기관유형

문화예술 관련 기관 중 응답률은 ‘평생교육기관’(56.1%), ‘지방문화원’(20.8%), ‘생활문화센터’(15.1%), ‘미디어센터’(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7] [문화예술 관련 기관] 소속기관 유형

		사례수	%
전 체		(590)	100.0
기관유형	생활문화센터	(89)	15.1
	지방문화원	(123)	20.8
	미디어센터	(29)	4.9
	평생교육기관	(331)	56.1
	기 타	(18)	3.1

※ base : 전체(n=590)

##### 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전체 응답기관 590곳 중에서 493곳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기관 대비 83.6%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방문화원’(84.6%), ‘생활문화센터’(60.7%)의 순이며, ‘미디어센터’는 29개 기관 중 79.3%인 23개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8]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90)	(493)	83.6	(97)	16.4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89)	(54)	60.7	(35)	39.3
	지방문화원	(123)	(104)	84.6	(19)	15.4
	미디어센터	(29)	(23)	79.3	(6)	20.7
	평생교육기관	(331)	(298)	90.0	(33)	10.0
	기 타	(18)	(14)	77.8	(4)	22.2

※ base : 전체(n=59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1)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횟수는 ‘21회 이상’이 37.9%로 가장 많았고, ‘11~20회’(25.4%), ‘1~5회’(19.5%), ‘6~10회’(17.2%)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센터(40.7%), 지방문화원(29.8%)은 연간 ‘1~5회’ 운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평생교육기관은 ‘11~20회’(47.0%)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69]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사례수 (곳)	1~5회		6~10회		11~20회		21회 이상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93)	(96)	19.5	(85)	17.2	(125)	25.4	(187)	37.9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54)	(22)	40.7	(16)	29.6	(15)	27.8	(1)	1.9
	지방문화원	(104)	(31)	29.8	(14)	13.5	(40)	38.5	(19)	18.3
	미디어센터	(23)	(2)	8.7	(1)	4.3	(3)	13.0	(17)	73.9
	평생교육기관	(298)	(40)	13.4	(52)	17.4	(66)	22.1	(140)	47.0
	기 타	(14)	(1)	7.1	(2)	14.3	(1)	7.1	(10)	71.4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관련 기관(n=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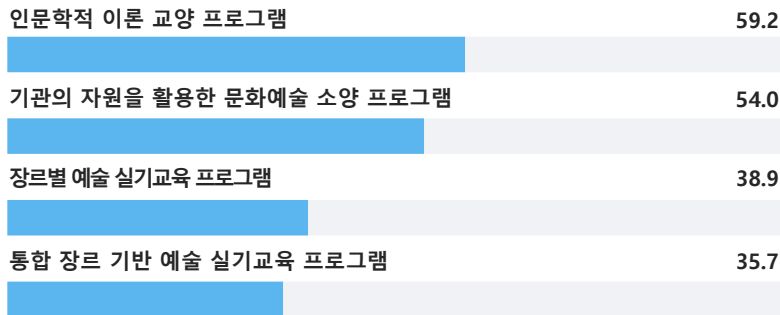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54.0%),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38.9%),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35.7%)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는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48.1%)을, 평생교육기관은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65.4%) 및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58.4%)을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n=493, 복수응답, 단위 : %)



[표 270]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사례수 (곳)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493)	(292)	59.2	(266)	54.0	(192)	38.9	(176)	35.7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54)	(21)	38.9	(16)	29.6	(17)	31.5	48.1
	지방문화원	(104)	(63)	60.6	(52)	50.0	(44)	42.3	25.0
	미디어센터	(23)	(10)	43.5	(18)	78.3	(9)	39.1	26.1
	평생교육기관	(298)	(195)	65.4	(174)	58.4	(120)	40.3	36.2
	기 타	(14)	(3)	21.4	(6)	42.9	(2)	14.3	71.4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관련 기관(n=493), 복수응답

※ 기타 1.0%, 모름/무응답 0.2%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기관유형별 배치 여부에 따라 운영 중인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자격소지자 배치 기관에서는 실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미배치 기관에서는 소양/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71] [문화예술 관련 기관] 기관유형별 배치 여부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유형

			사례수 (명)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전 체			(292)	59.2	54.0	38.9	35.7
기관 유형별 배치 여부	생활문화센터	배치	(13)	46.2	7.7	38.5	<u>46.2</u>
		미배치	(41)	36.6	36.6	29.3	<u>48.8</u>
	지방문화원	배치	(24)	50.0	41.7	<u>58.3</u>	20.8
		미배치	(80)	<u>63.8</u>	52.5	37.5	26.3
	미디어센터	배치	(7)	28.6	<u>85.7</u>	28.6	28.6
		미배치	(16)	50.0	<u>75.0</u>	<u>43.8</u>	25.0
	평생교육기관	배치	(14)	57.1	<u>78.6</u>	28.6	<u>57.1</u>
		미배치	(284)	<u>65.8</u>	57.4	40.8	35.2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배치기관(n=898), 복수응답, 기타 0.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가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기관 외부 전문가’(53.3%), ‘문화예술교육강사’(48.5%),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18.1%)의 순이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지에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교육강사’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9.1%), ‘기관 외부 전문가’(4.9%),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문화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 모두의 자격증 소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7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자격증 소지율

		사례 수 (곳)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기관 외부 전문가			문화예술교육강사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운영인력		자격증 소지율	운영인력		자격증 소지율	운영인력		자격증 소지율	운영인력		자격증 소지율
			사례수	%	%	사례수	%	%	사례수	%	%	사례수	%	%
전 체		(493)	(341)	69.2	9.1	(263)	53.3	4.9	(239)	48.5	16.7	(89)	18.1	3.4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54)	(44)	81.5	20.5	(30)	55.6	0.0	(12)	22.2	25.0	(6)	11.1	0.0
	지방문화원	(104)	(62)	59.6	14.5	(52)	50.0	13.5	(73)	70.2	28.8	(18)	17.3	11.1
	미디어센터	(23)	(12)	52.2	33.3	(11)	47.8	18.2	(13)	56.5	30.8	(5)	21.7	0.0
	평생교육기관	(298)	(214)	71.8	1.9	(164)	55.0	2.4	(132)	44.3	6.1	(58)	19.5	1.7
	기 타	(14)	(9)	64.3	55.6	(6)	42.9	0.0	(9)	64.3	44.4	(2)	14.3	0.0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관련 기관(n=493), 복수응답, 기타 1.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다.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문화예술교육사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49.0%가 알고 있었으며, 51.0%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에 대한 인지율을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61.8%)와 지방문화원(5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생교육기관은 인지하지 못한 비율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73]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사례수 (곳)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90)	(289)	49.0	(301)	51.0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89)	(55)	61.8	(34)	38.2
	지방문화원	(123)	(71)	57.7	(52)	42.3
	미디어센터	(29)	(20)	69.0	(9)	31.0
	평생교육기관	(331)	(128)	38.7	(203)	61.3
	기 타	(18)	(15)	83.3	(3)	16.7

※ base : 전체(n=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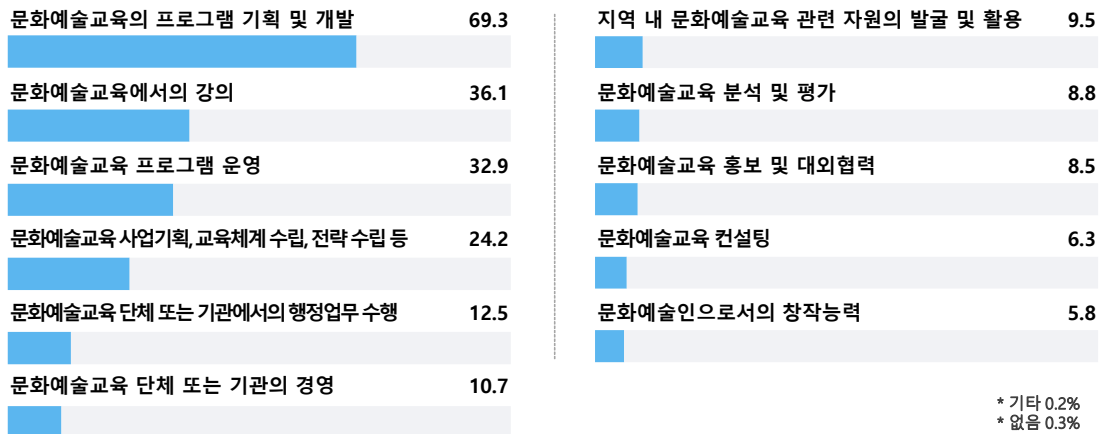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라.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36.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2.9%),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24.2%) 등의 순이었다.

[그림 19]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n=590, 복수응답, 단위 : %)



[표 274]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사례수 (곳)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590)	69.3	36.1	32.9	24.2	12.5	10.7	9.5	8.8	8.5	6.3	5.8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89)	64.0	22.5	32.6	10.1	14.6	7.9	4.5	12.4	9.0	5.6	4.5
	지방문화원 (123)	61.8	38.2	31.7	22.8	7.3	5.7	6.5	4.1	2.4	2.4	2.4
	미디어센터 (29)	48.3	44.8	41.4	44.8	13.8	13.8	6.9	10.3	6.9	6.9	6.9
	평생교육기관 (331)	75.8	38.1	30.8	24.8	12.4	11.8	9.7	8.8	10.3	6.9	6.6
	기 타 (18)	61.1	38.9	66.7	61.1	38.9	33.3	55.6	22.2	16.7	22.2	16.7
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②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⑥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⑧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⑨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⑩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⑪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 능력												

※ base : 전체(n=590), 복수응답, 기타 0.2%, 없음 0.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마. 자격증 소지자 배치 현황

### 1)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전체 응답기관 590곳 중에서 68곳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기관 대비 11.5%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의 배치율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평생교육기관의 배치율이 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75]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90)	(68)	11.5	(522)	88.5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89)	(13)	14.6	(76)	85.4
	지방문화원	(123)	(24)	19.5	(99)	80.5
	미디어센터	(29)	(7)	24.1	(22)	75.9
	평생교육기관	(331)	(14)	4.2	(317)	95.8
	기 타	(18)	(10)	55.6	(8)	44.4

※ base : 전체(n=59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2) 자격증 소지자 인력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배치인원을 살펴본 결과, 배치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17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비정규직이 150명(86.7%), 정규직이 88명(13.3%)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으로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6]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사례수 (곳)	정규직	비정규직	총 배치인원
			합계(명)	합계(명)	합계(명)
전 체		(68)	23	150	173
기관유형	생활문화센터	(13)	4	10	14
	지방문화원	(24)	10	55	65
	미디어센터	(7)	3	23	26
	평생교육기관	(14)	5	30	35
	기 타	(10)	1	32	33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n=68)

### 3)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및 실제 담당 업무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는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52.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1.2%),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39.7%) 등의 순이었다.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담당하는 업무 역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57.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48.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8.2%),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2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담당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과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이 적합한 업무 대비 실제 담당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담당하는 업무별 직무 수행 수준은 대부분 4.00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업무는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4.51점)로 나타났다.

[표 277]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및 실제 담당 업무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자격증 소지자의 실제 담당 업무	GAP <sup>35)</sup>	담당업무별 직무 수행 수준	
	%	%	%p	사례수	점(5점 척도)
사례수(个)	(68)	(68)		(68)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66.2	57.4	-8.8	(39)	4.51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52.9	48.5	-4.4	(33)	4.2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1.2	38.2	-2.9	(26)	4.23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39.7	29.4	-10.3	(20)	4.3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23.5	13.2	-10.3	(9)	4.0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17.6	17.6	0.0	(12)	4.25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14.7	10.3	-4.4	(7)	4.2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0.0	8.8	8.8	(6)	3.8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0.0	7.4	7.4	(5)	4.20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0.0	5.9	5.9	(4)	3.50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0.0	4.4	4.4	(3)	4.33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n=68),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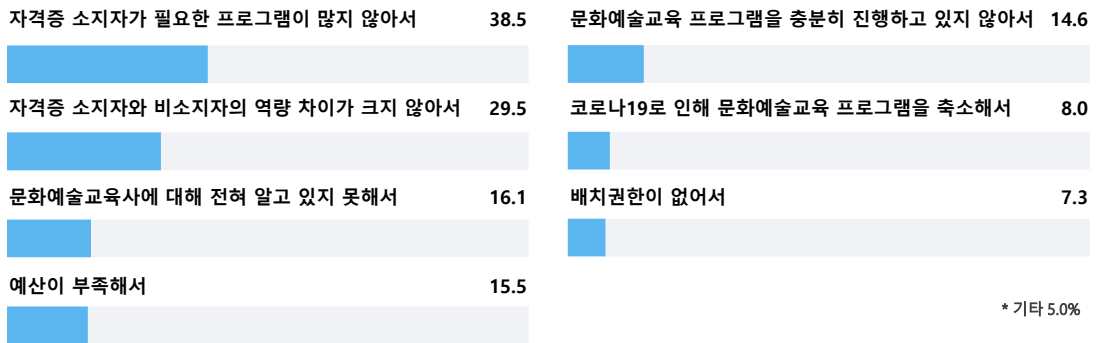
35)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와 실제 담당 업무의 차이(실제 담당업무 - 적합한 업무)

#### 4)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기관을 대상으로 미배치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아서’(29.5%),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16.1%), ‘예산이 부족해서’(15.5%) 등의 순이었다.

[그림 20]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n=522, 복수응답, 단위 : %)



[표 278] [문화예술 관련 기관]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사례수 (곳)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아서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배치 권한이 없어서
		%	%	%	%	%	%	%
전 체	(522)	38.5	29.5	16.1	15.5	14.6	8.0	7.3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76)	40.8	30.3	7.9	19.7	14.5	15.8
	지방문화원	(99)	28.3	24.2	10.1	33.3	8.1	14.1
	미디어센터	(22)	54.5	22.7	18.2	9.1	9.1	4.5
	평생교육기관	(317)	40.1	31.9	19.9	9.1	17.0	5.0
	기 타	(8)	37.5	12.5	12.5	25.0	12.5	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n=522),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바. 자격증 소지자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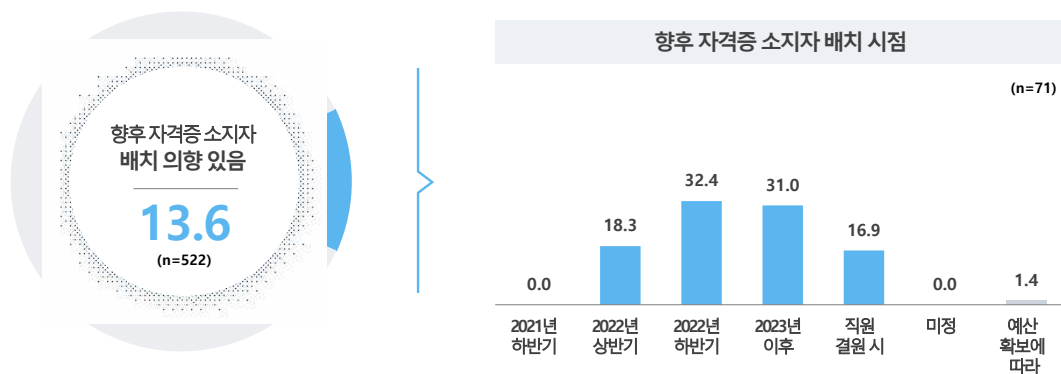
### 1)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의무배치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13.6%가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사가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대다수는 ‘1명’(83.1%)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격증 소지자의 배치시점은 ‘2022년 하반기’가 32.4%로 가장 높고, ‘2023년 이후’(31.0%), ‘직원 결원 시’(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이 있는 기관의 배치 형태를 살펴본 결과, ‘기간제 근로자’(80.3%), ‘전일제 근로자’(54.9%), ‘상근 근로자’(50.7%)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시점

(단위 : %)



[표 279]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사례수 (곳)	배치할 계획이 있다		배치할 계획이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22)	(71)	13.6	(451)	86.4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76)	(14)	18.4	(62)	81.6
	지방문화원	(99)	(24)	24.2	(75)	75.8
	미디어센터	(22)	(1)	4.5	(21)	95.5
	평생교육기관	(317)	(25)	7.9	(292)	92.1
	기 타	(8)	(7)	87.5	(1)	12.5

※ base :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n=52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표 280]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희망 배치 형태

		사례수 (곳)	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직				전일제/단시간			
			상근		비상근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1)	(36)	50.7	(35)	49.3	(57)	80.3	(14)	19.7	(39)	54.9	(32)	45.1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14)	(9)	64.3	(5)	35.7	(11)	78.6	(3)	21.4	(7)	50.0	(7)	50.0
	지방문화원	(24)	(15)	62.5	(9)	37.5	(19)	79.2	(5)	20.8	(14)	58.3	(10)	41.7
	미디어센터	(1)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평생교육기관	(25)	(9)	36.0	(16)	64.0	(23)	92.0	(2)	8.0	(15)	60.0	(10)	40.0
	기 타	(7)	(2)	28.6	(5)	71.4	(4)	57.1	(3)	42.9	(2)	28.6	(5)	71.4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n=71)

[표 28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예상 인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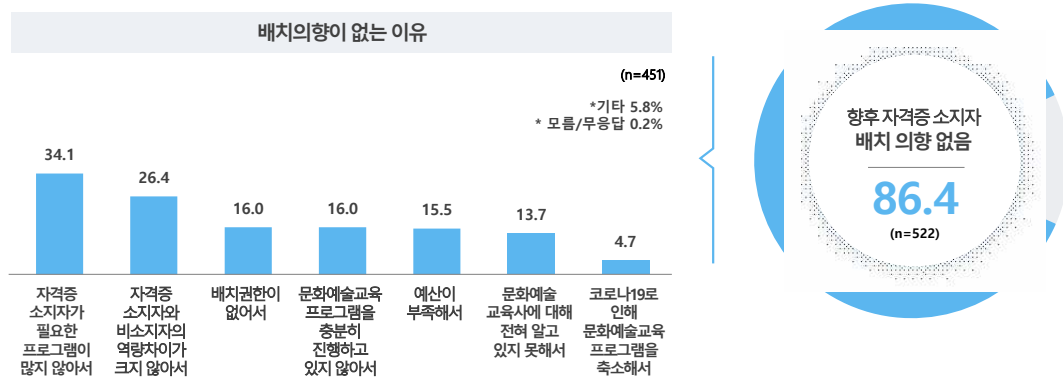
		사례수 (곳)	1명		2명		3명 이상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명
전 체		(71)	(59)	83.1	(9)	12.7	(3)	4.2	1.2
기 관 유 형	생활문화센터	(14)	(11)	78.6	(1)	7.1	(2)	14.3	1.5
	지방문화원	(24)	(21)	87.5	(2)	8.3	(1)	4.2	1.2
	미디어센터	(1)	(1)	100.0	(0)	0.0	(0)	0.0	1.0
	평생교육기관	(25)	(20)	80.0	(5)	20.0	(0)	0.0	1.2
	기 타	(7)	(6)	85.7	(1)	14.3	(0)	0.0	1.1

※ base :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n=71)

## 2)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86.4%는 향후에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로 ‘자격증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아서’(26.4%), ‘배치권한이 없어서’(16.0%) 등의 순이었다.

[그림 22]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



[표 28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사례수 (곳)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차이가 크지 않아서	배치 권한이 없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	%	%	%	%	%	%
전 체		(451)	34.1	26.4	16.0	16.0	15.5	13.7	4.7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62)	37.1	27.4	24.2	17.7	19.4	14.5	8.1
	지방문화원	(75)	25.3	21.3	12.0	8.0	32.0	6.7	6.7
	미디어센터	(21)	47.6	23.8	0.0	14.3	4.8	14.3	9.5
	평생교육기관	(292)	34.6	27.7	16.4	17.8	11.3	15.4	3.1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 base :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n=451)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Ⅲ. 문화예술 관련 기관\_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타 법령상<sup>36)</sup> 의무배치기관에 포함되어 의무배치기관으로 포함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로도 기술하였다.

##### 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에 응답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4곳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13곳(92.9%)로 나타났다.

[표 28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체	(14)	(13)	92.9	(1)	7.1

※ base : 전체(n=14)

##### 1)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횟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횟수를 살펴보면 '21회 이상'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10회'(15.4%), '1~5회'(1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연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횟수

	사례수 (곳)	1~5회		6~10회		21회 이상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3)	(1)	7.7	(2)	15.4	(10)	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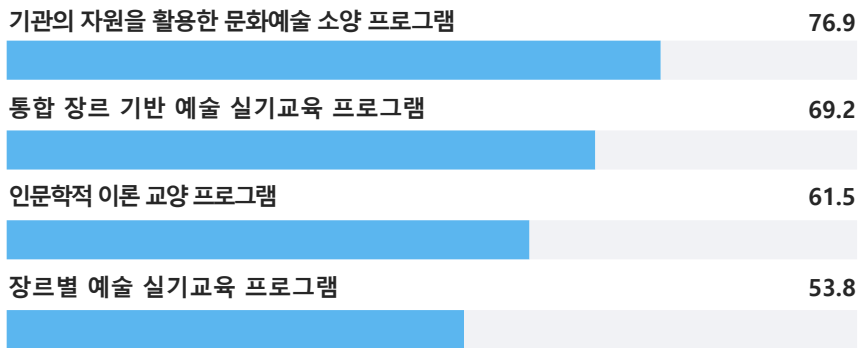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3)

3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1항3호

##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69.2%),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61.5%),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5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n=13, 복수응답, 단위 : %)



[표 28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사례수 (곳)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3)	(10)	76.9	(9)	69.2	(8)	61.5	(7)	53.8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3), 복수응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가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강사’(61.5%), ‘기관 외부 전문가’(38.5%),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2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사례수 (곳)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문화예술교육강사		기관 외부 전문가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3)	(11)	84.6	(8)	61.5	(5)	38.5	(3)	23.1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3), 복수응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은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 외부 전문가’ 40.0%, ‘문화예술교육강사’ 37.5%,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33.3%로 나타났다.

[표 28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율

	사례수 (곳)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지 않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여부를 알 수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11)	(10)	90.9	-	-	(1)	9.1
문화예술교육강사	(8)	(3)	37.5			(5)	62.5
기관 외부 전문가	(5)	(2)	40.0	-	-	(3)	60.0
기관 내부 문화예술 교육 비담당자	(3)	(1)	33.3	(2)	66.7	-	-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복수응답

## 나.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문화예술교육사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14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중 13곳인 92.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8]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인지 여부

	사례수 (곳)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사례수	%	사례수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체	(14)	(13)	92.9	(1)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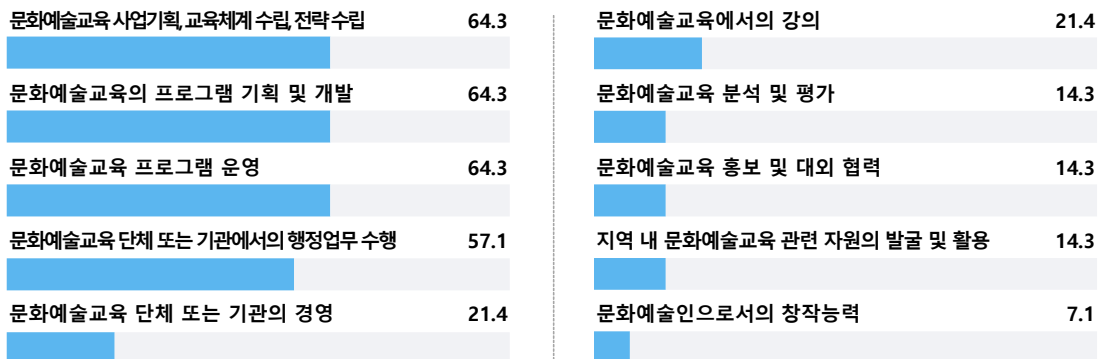
※ base : 전체(n=14)

## 다.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의 역량’과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역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이 각각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역량’(57.1%),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역량’(21.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역량’(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n=14, 복수응답, 단위 : %)



[표 289]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필요 역량

	사례수(곳)	%
전 체	(14)	-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9)	64.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9)	64.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9)	64.3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8)	57.1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3)	21.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3)	21.4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2)	14.3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2)	14.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2)	14.3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능력	(1)	7.1

※ base : 전체(n=14), 복수응답

## 라. 자격증 소지자 배치 현황

### 1)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전체 14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중 11개(78.6%)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0]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여부

	사례수 (곳)	예		아니오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4)	(11)	78.6	(3)	21.4

※ base : 전체(n=14)

### 2) 자격증 소지자 인력 현황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배치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42명이며, 이 중 정규직이 14명, 비정규직이 28명으로 나타났다.

[표 29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인원

	합계(명)
정규직	14
비정규직	28
합계	42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1)

### 3)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및 실제 담당 업무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수립’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63.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54.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5.5%) 등의 순이었다.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는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각각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문화예술 교육 사업기획 그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은 적합한 업무 대비 실제 담당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담당하는 업무별 직무 수행 수준은 모두 4.00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29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및 실제 담당 업무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	자격증 소지자의 실제 담당 업무	GAP <sup>37)</sup>	담당업무별 직무 수행 수준	
	%	%	%p	사례수	점(5점 척도)
사례수(개)	(11)	(11)		(1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81.8	54.5	-27.3	(6)	4.17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63.6	45.5	-18.2	(5)	4.6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54.5	45.5	-9.1	(5)	4.2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5.5	54.5	9.1	(6)	4.33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36.4	27.3	-9.1	(3)	4.00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18.2	18.2	0.0	(2)	4.50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18.2	18.2	0.0	(2)	4.50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18.2	9.1	-9.1	(1)	5.00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9.1	9.1	0.0	(1)	5.0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0.0	9.1	9.1	(1)	5.00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11),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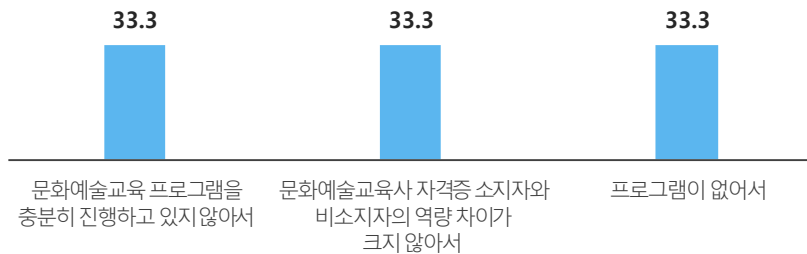
37)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와 실제 담당 업무의 차이(실제 담당업무 - 적합한 업무)

#### 4)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지 않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세 곳은 그 이유로 각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33.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33.3%), ‘프로그램이 없어서’(33.3%)라고 답했다.

[그림 25]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이유

(n=3, 단위 : %)



## 마. 자격증 소지자 배치 계획

### 1)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곳을 대상으로 향후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1개 기관이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사가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향후 배치 시점은 ‘2022년 상반기’, 배치 예상 인원 ‘1명’, 배치 형태는 ‘상근’, ‘무기계약직’, ‘전일제’라고 응답했다.

[그림 2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및 배치 형태

(단위 : %)



[표 29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

	사례수 (곳)	배치할 계획이 있다		배치할 계획이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24)	(71)	13.5	(453)	86.5

※ base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미배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n=524)

## 2)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지 않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2곳은 향후에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각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50%), ‘프로그램이 없어서’(50%)라고 응답했다.

[그림 2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







---

## IV. 심층 인터뷰 결과

---

1. 심층 인터뷰 개요
2. 심층 인터뷰 주요 결과



## IV. 심층 인터뷰 결과

### 1. 심층 인터뷰 개요

#### 가. 심층 인터뷰 설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용 및 교육사 배치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문화예술교육사와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과 연수 운영기관 연구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방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응답자들은 전화로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운영위원 3명은 ZOOM을 활용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연수 운영기관 1명은 ZOOM을 활용하여 일대일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1명은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표 294] 심층 인터뷰 설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 종사자	전문가	
			운영위원	연수 운영기관 연구진
조사 대상	실태조사 응답자		제5기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	21년 교육사 현장 길라잡이 연수 참여 연구진
조사 규모	4명	10명	3명	2명
조사 방법	전화 일대일 인터뷰		ZOOM을 활용한 FGI 3명	ZOOM을 활용한 일대일 인터뷰 서면 인터뷰 1명
조사 기간	2021년 12월 10일 ~ 18일		2021년 12월 10일	2021년 12월 10일

## 나. 심층 인터뷰 조사내용

심층 인터뷰에서는 실태조사 설문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사에게는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 상황, 자격 활용 등을 질문하였으며, 의무배치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는 교육사 배치와 관련 구조적, 환경적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전문가에게는 추가로 문화예술교육자 제도 운영 방향성을 질문에 추가했다.

[표 295] 심층 인터뷰 조사내용

조사 대상	조사내용
문화예술교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취득 관련 사항</li> <li>• 현 경제활동 관련</li> <li>• 자격증 활용도</li> <li>• 의무배치기관 인지</li> <li>• 자격 제도 활성화 방안</li> <li>•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li> </ul>
의무배치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li> <li>• 교육사 배치 / 미배치 이유</li> <li>• 교육사 인지 및 의무배치기관 인지</li> <li>• 의무배치 활성화 방안</li> <li>•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li> </ul>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방향성</li> <li>• 1급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방안</li> </ul>
운영 연수기관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사 자격 활용의 구조적/환경적 요인</li> <li>• 교육사 의무배치 관련 구조적/환경적 요인</li> <li>• 차년도 실태조사 운영 방안</li> </ul>

## 2. 심층 인터뷰 주요 결과

### 가. 자격취득 과정

#### ○ “자격증의 취득 동기, 취득 목적의 불분명성”

##### [교육사]

- 예술전공자: 대학을 졸업하면 교육사 자격증이 자연스레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주변의 비슷한 전공자들 역시 ‘준다고 하니 따두자’ 인식이 강함. 실기(연주, 공연 등) 만으로는 수익이 잘 안 생기니 그나마 전공 분야를 살리는 것 중 그나마 교육이 가장 접근성이 좋으니까 자격증을 취득함
- 무형문화재: 본인의 창작활동에는 자격증 소지 여부가 큰 의미가 없으나, 교과 이수만 하면 되는 것이라 자격취득에 큰 부담은 없었음
- 프리랜서: 표면적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강하는 센터에서 강의료를 더 올려준다고 해서 취득함. 어떤 대학에서는 졸업만 하면 자격증이 나옴. 나중에 강의료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 정도 투자함
- 비전공자: 본인의 (비예술 분야) 전공과 예술의 융복합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 교육사 취득의 필요성을 느낌. 교과과정 중 예술전문성 강의를 특정 분야(디자인)는 잘 열리지 않아 학점은행제를 병행함. 비전공자에 대한 자격증 문턱 높아, 거의 2년 소요됨

##### [전문가]

-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로서는 2급 자격증을 위해서 본인들의 전공 교과목을 조금 더 이수하는 과정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음. 관례적으로 선배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니 ‘나도 해야겠다’ 정도인데, 문화예술교육사를 전망 있는 미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음
- 또한, 대학에서 교수자들 역시 특별히 자격증의 취득 목적이나 활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실정임.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학교 홍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도 문제임.
- 반면 문화예술교육원은 자격증 취득 목적, 동기 등이 뚜렷한 분들이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과정에 들어오고 있어 교육의 질 측면에서 차이가 큼. 대학에서도 문화예술교육원 수준의 자격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

## 나. 자격증 활용성

○ “교육사는 자격증 활용성 낮고, 수요기관은 자격증 보유 여부보다는 개인 전문성 우선”

### [교육사]

- 예술전공자: 공연단체에 속한 예술전공자의 경우 자격증 우대 조건은 특별히 없음. 특별히 교육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격증은 굳이 필요 없음
- 무형문화재: 나중에 행정 쪽으로의 이직을 염두하고 있어 자격증을 취득해두긴 했으나, 아직 활용 기회는 없었음. 강사가 아닌 교육사업의 기획, 행정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한 기관·단체에서는 경력이나 경험이 더 중요. 자격증을 딱히 요구하지는 않음
- 프리랜서: 장기적으로 예술 행정 쪽 관심을 두고 있으나, 현재는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더 많은 상황임
- 비전공자: 교원 자격증 수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함

### [수요기관]

- 도서관: 문화예술교육사 처음 들어봄. 주민센터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1인 사서가 모든 프로그램을 관장함
- 문예회관: 교육사 배치되어 있으나, 교육사 포함 2년 주기로 보직이 순환되는 형태라 자격증 보유 여부보다는 개인의 업무능력이 더 중요함
- 미술관: 소규모 미술관의 학예사로 재직 중이며 관내 모든 프로그램 기획, 운영 다 처리하고 있음. 교육사 알고는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강사 아웃소싱도 하긴 하나 자격증 보유 여부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더 중요함
- 박물관: 프로그램 필요에 따라 외부 강사 초빙하나 자격증보다는 해당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함
- 전수회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되어 있으나 기간제로 근무 중임. 상위기관에서 채용공고를 통해 구인해서 회관으로 배치해줌. 문제는 최대 2년 기간제 계약이라 지속성이 떨어짐
- 생활문화센터: 교육사 배치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함. 교육사 의무 고용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채용했는데 마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음
- 지방문화원(1): 외진 지역이라 외부 강사 섭외 어려워 대부분 지역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받고 있음. 교육사 활용 경험 있으며, 기획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지방문화원(2): 교육사 아웃소싱 경험 있으나 자격소지자와 비소자의 차이를 거의 못 느낌. 자격증 보유 여부보다는 교육대상의 연령대가 매우 높아 그들과의 호응이 더 중요함
- (문화재단 소속) 평생교육원: 본인도 교육사 자격증이 있지만, 최근 대학만 나오면 자격증이 따라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 의문임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교육사 특히 예술강사마다 실력 편차가 매우 커 예술강사들의 재교육(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 [전문가]

- 도서관에는 사서, 박물관에는 학예사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더 많음. 사서, 학예사는 자격 기준 마련되고 도입된 지 매우 오래되었으나, 문화예술교육사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짧아 다른 자격소지자 대비 전문성 인정받기 어려움 현실임
- 문화예술 유관기관에서 교육사를 채용하더라도 채용인원의 제한 때문에 자격증 보유는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경력, 경험이 채용에 더 우선시 되어 신규 자격소지자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임
- 규모가 작거나 지방 소재 기관에서는 교육사에게 단순히 프로그램 기획, 운영만이 아니라 행정업무도 요구되는데 교육사 대부분이 예술전공자이다 보니 오피스(한글, PPT 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육사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 다. 교육사 의무배치

#### ○ “교육사는 의무배치기관 고용 조건 안 좋고, 수요기관은 의무배치 현실적 어려움”

#### [교육사]

- 예술전공자: 의무배치기관 관련 모르고 있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솔직히 대학에서 수업만 들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 자격증이 전문성과 직결되지 않는 상황인데 수요기관에서 개인의 능력을 더 따지지 무조건 의무배치 할 것 같지 않음
- 무형문화재: 의무배치기관 관련 모르고 있음
- 프리랜서: 의무배치기관 채용공고가 났으나, 급여 수준이 낮아서 포기함. 또 공고가 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이라 포기하기도 함
- 비전공자: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의무배치를 염두하고 있었으나, 전공(국어국문학)과 관련해서 문학관(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은 의무배치기관이 아니었음

#### [수요기관]

- 도서관: 의무배치기관 관련 모르고 있음. 개인적으로는 교육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주민센터 도서관 같은 경우 기존 사서가 못하는 획기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의무배치를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함. 큰 규모의 시립도서관에도 이미 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서가 존재함
- 문예회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은 기계(무대장치), 조명, 음향 등 세분화되어 자격증만

보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사 자격증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교육사가 공연 분야인지, 연극 분야인지, 음악 분야인지 자격증만 보고 세부 전공 혹은 전문 분야를 알 수가 없으니 해당 분야 경력을 더 보게 됨

- 미술관: 상위기관에서 배치 관련 공문 내려온 적 있어서 의무배치 관련 알고는 있음. 그런데 권고 수준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리고 배치하려면 인건비 등 예산도 같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 박물관: 상위기관에서 배치 관련 안내를 받은 적 있어서 의무배치 관련 알고는 있으며 교육사도 배치되어 있음. 단, 본인 소속 박물관은 중소 규모 이상이라 가능함. 소규모 박물관에는 이미 학예사가 있는데 교육사 의무배치까지 하게 되면 역할 문제라든가 업무 탄력성이 떨어질 것 같음
- 전수회관: 상위기관으로부터 의무배치 지침 내려와서 2020년부터 교육사 배치되어 있음. 배치 권한은 예산과 더불어 상위기관 권한임
- 생활문화센터: 의무배치 관련 사항 알고 있으며, 교육사 배치되어 있음. 상황에 맞게 1년 단위 계약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 지방문화원(1): 의무배치 관련 사항 모름. 인건비 지원이 병행되어야 가능함. 또, 교육사 채용하려고 해도 지역적 한계로 교육사들이 오지를 않을 것임
- 지방문화원(2): 의무배치 관련 사항 모름. 문화원 예산이 문화예술교육보다는 향토사 발굴이나 편찬 작업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사 배치 여력(예산)이 없음
- (문화재단 소속) 평생교육원: 문화재단의 경우 교육사에게 단순히 강사 역할을 기대하기보다는 행정이나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더 필요로 함. 그러나 그러한 역량을 갖춘 교육사를 구인하기가 쉽지 않음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현장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사 배치함. 사업을 통해 인건비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상황임. 인턴 교육사가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음.

#### [전문가]

-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학예사, 에듀케이터, 도서관에는 사서,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사가 이미 ‘의무배치’가 아닌 ‘의무고용’ 형태로 고용되어 있고, 해당 기관들은 그에 맞는 자격소지가 필요하지, 교육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따라서 의무배치기관에는 분명히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적 혜택이 있어야만 함
- 교육사 의무배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관들이 교육사 자격소지자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교육사의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의무배치기관에서 요구하는 경력 수준이 높아서 신규 자격취득자가 아예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음

- 의무배치 등 강제조항으로는 교육사 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 수요기관에서 교육사가 필요하게끔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문화예술 유관기관에 의무배치해야 한다지만, 이미 존재하는 다른 전문인력(학예사, 사서 등)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배치한다고 해도 교육사들은 프로그램 기획, 실행 등의 하위직 혹은 비정규직 역할 정도밖에 수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 ‘의무배치’를 ‘고용’이 아닌 ‘활용’의 측면으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음. 의무배치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 강사를 섭외할 때 반드시 일회성이든 6개월 혹은 1년 단위 계약이든 교육사를 반드시 ‘활용’하게 하는 정도만이라도 ‘의무배치’를 실현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라. 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방향

### ○ “자격증의 가치, 전문성 강화”

#### [수요기관]

- 수요기관 공통: ‘문화예술교육사’가 어떤 분야의 전문성과 연결되는지 알기 어려움. 강사 활동가 기획/행정 활동가 등 성격이 다르고 요구받는 기대치가 다른 분야를 하나의 자격증 안에서 포괄하다 보니 교육사 자격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겠음

#### [유관기관 종사 교육사]

- 자격제도 초기에는 예술강사의 경력 인정 측면에서 교육사가 배출되었다면, 지금은 대학 졸업한 신규 취득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자격증 취득 목적이 강사 활동과 유관기관 취업의 두 가지로 나뉘고 있음. 후자의 경우 기획 및 행정 능력도 갖추기를 원하며, 기관에서도 그런 능력의 교육사를 원함. 본인은 활동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교과과정에 이론과 실습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이고 단발적이라 강사 쪽이든 기관 취업이든 신규 취득자가 자격취득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 최근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역사, 맥락 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음. 실기 위주 교육만 받다가 단기간 혹은 대학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긴 했는데, 문화예술교육 방향성, 철학 등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본인도 혼란스럽고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가지 못함. ‘문화예술’과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조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전문가]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격증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음. 교육사 자격증으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음. 이는 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이 내실 있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우선 교육사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야 하며 취득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가 지녀야 할 철학적 기초, 지향성 등 자격증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필요함
- 예술강사 등 프리랜서 활동은 본인 선택 사항이라고 해도 최근 신규 취득 희망자들은 최근에 많이 설립되고 있는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으로 진출하려는 의지가 강함. 문화재단 역시 채용공고에 교육사 우대 조건이 생기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은 예술 전문성이 아닌 행정 전문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마찰이 있다고 생각함
- 자격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급수 제도 도입이 필요함. 교육사의 경우 2급 교육사만 존재하며, 이제 1급 교육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사와 비교되는 사서(3급제),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4급제), 무대예술전문인(3급제), 평생교육사(3급제) 모두 3급부터 시작해서 1급으로 나뉘어 있음. 단계별 자격취득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음
- 2013년 자격제도가 생기고 8년이 지나니까 이제야 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인지도가 생기고 있음. 아울러 2020년 교육사 자격증이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등록됨. 더 나아가 학예사나 사서처럼 교육사도 공무원 직렬에 편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V. 결론 및 제언

---



---

## V. 결론 및 제언

---

### [자격소지자]

○ (경제활동)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은 65.5%로 2020년 경제활동 참가율(44.8%)보다 20.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단, 2020년 실태조사는 ‘20년 신규 자격취득자가 조사 대상에 별도로 포함되어 2020년과 2021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동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함

- 연령별로는 30대 이상(30대 75.8%, 40대 78.4%), 50대 73.0%)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46.2%)와 60대 이상(41.6%)에서는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20대는 99.6%가 예술전공자이며, 83.0%가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 미만(1년 미만 32.2%, 1~2년 50.7%)임. 이는 청년 취업률과 무관하지 않으며,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문화예술교육사들을 위한 정책 사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른 자격요건에 비해 고졸/비전공자의 경제활동 참가율(52.4%)이 낮은 편이므로, 고졸/비전공자를 위한 정책 사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교육사의 56.8%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43.2%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대로 20년 조사와 모집단 특성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전년도 기관·시설·단체에 종사자가 38.5%였던 점을 볼 때, 프리랜서 비율은 줄고 기관·시설·단체에 종사자 비율은 증가함

- 연령이 20대(53.7%)인 경제활동자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40대 이상(40대 68.1%, 50대 68.5%, 60대 이상 64.7%)인 경제활동자는 프리랜서 활동 비율이 높음. 자격소지자의 연령에 따라 기관·시설·단체 취업에 대한 유리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자격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자격소지자의 경우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5년 이상인 자격소지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교육사의 82.7%가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였으며, 이중 교육 관련 분야가 52.6%, 비교육 분야는 30.1%였음.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비율은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에서 특히 높았음. 한편, 타 분야는 17.2%로 20년 9.6%에서 7.6%p 증가함

- 경제활동 중인 자격소지자는 56.8%가 프리랜서, 43.2%가 기관·시설·단체에서 종사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 관련 분야(교육 포함) 기관·시설·단체 종사자의 근무 형태는 정규직이 30.8%, 비정규직이 69.2%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 환경 특성으로 볼 수 있음

▶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 관련 분야를 교육 관련 분야와 비교육 분야로 나누어 파악하였는

데, 문화예술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중 교육 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비교육 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을 담당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과거 예술강사 활동 비중이 높았던 반면, 최근 교육사들이 점차 ‘예술 행정’, ‘예술 경영’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해당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3년 이하 자격취득자에서 주 담당 업무가 ‘예술 행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 분야 종사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역시 3년 이하 자격취득자에서 타 분야 진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행정, 기획, 경영 등 교육사의 활동 영역과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 교수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사 교육과정 방향성에 변화가 필요해 보임

○ (비경제활동) 2021년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비경제활동 중인 교육사를 대상으로 구직 활동 여부를 파악함. 비경제활동자는 2,139명(34.5%)이며, 이 중 47.7%가 구직 활동 중이었으며, 52.3%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비경제활동 이유로 과거 국·공립·공공 기관과 정부부처·지자체에서 일했던 교육사의 경우 ‘기존 일자리 계약기간 만료’가, 과거 프리랜서 교육사는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변화로 일자리가 줄어서’가 각각 높았음

- 현재 비경제활동 교육사의 61.3%가 과거에도 경제활동 경험이 없었으며, 과거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교육사가 구직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음
- 현재 비경제활동 교육사 중 구직자의 68.4%가 자격취득 기간이 3년 이하인 교육사로 나타났으며, 과거 경제활동을 했으나, 현재 비경제활동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변화로 일자리가 줄어서’, ‘기존 일자리 계약기간 만료’ 등이 높게 나타나 자격취득 직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 비구직자 또한 71.0%가 자격취득 기간이 3년 이하인 교육사이며, 현재 비경제활동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 ‘학업 지속’, ‘전망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학업 지속’이라는 응답이 높음

- ▶ 올해 처음으로 파악한 비경제활동 교육사 현황 중 눈에 띄는 점은 구직자와 비구직자 간의 비경제활동 이유임. 구직자는 ‘일자리 감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일시적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프리랜서 비중이 높았음. 반면, 비구직자는 ‘학업 지속’, ‘전망이 더 좋은 일자리 탐색’, ‘근로조건이 더 좋은 일자리 탐색’ 등 자발적 성격의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음. 특히 이러한 특징은 3년 미만 자격취득자에서 두드러짐

- (자격증 취득 동기) 자격취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년 이상인 경우는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올해 처음으로 자격증 취득 동기에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항목을 추가함. 해당 항목에 응답이 높은 집단은 3년 미만 자격취득자, 경제활동 전 자격취득자였음. 특히 비경제활동 중이며 비구직자에서 응답이 높음. 이러한 자격증 취득 동기의 불분명성은 교육사 자격소지자로서의 정체성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음. 3년 미만 자격취득자 및 현 비경제활동자 대부분 대학에서 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점과도 연관성이 높아 보임

- (자격증 취득 당시 희망 직무) 교육사 자격증 취득 당시 희망 직무로는 여전히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이 가장 많음

- 단, 교육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술전공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연령이 낮은 교육사일수록, 자격취득 기간이 짧을수록 해당 분야 업무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높음

▶ 교육사 교육과정에 새로 진입하는 교육사의 행정, 기획 쪽의 진출 니즈 파악 및 반영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자격증 업무 도움 정도) 문화예술 교육 분야, 문화예술 관련 비교육 분야 기관·시설·단체 종사자는 모두 자격증이 현업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우세함.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높음

- 단, 자격증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자격취득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자격취득 3년 이하 교육사는 ‘프로그램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5년 이상 교육사는 ‘현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가 주된 이유였음

- 반면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지난 교육사에게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높았으며, 3년 이하 교육사에게는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가 높았음

-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높음. 그 이유에 대해 심층인터뷰 의견과 연계하

여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사’가 여러 영역의 분야를 하나로 포괄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는지 연결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기관들의 의견이 있었음. 의무배치기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를 배치할 때 단순 자격증 소지 여부가 아닌 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운영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는지 등의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는 실제 현장에서 자격증 소지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대부분의 자격소지자가 예술전공자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업무에 필요한 ‘오피스’ 능력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아닌 행정업무까지 포괄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자격소지자가 현장에서 자격증의 도움 정도를 낮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자격취득 기간이 길수록 ‘현장과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강사에서 두드러짐. 반대로 자격취득 기간이 짧을수록 ‘현장에서의 활용성’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자격취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격증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장성’이 필요한 교육사를 위해 보수교육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자격증 구직 시 도움 정도) 자격증이 구직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역시 교육사의 현재 위치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경제활동 전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교육사의 경우 구직에 도움 되었다는 의견이 45.1%로 높음. 반면, 현재 구직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46.3%로 부정적 평가가 약간 높음

- 구직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와 ‘구인 또는 채용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구직자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자격취득 기간별로 보면, 자격취득 3년 이하 교육사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와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가 높았으며, 5년 이상 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과거 경제활동 종사 분야로 살펴보면, 과거 프리랜서 활동 경험자는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가 높지만, 과거 기관·시설·단체 종사자 경험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응답이 높았음. 한편, 과거 공공기관·정부부처·지자체에서 종사했던 구직자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의 고용 조건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높았음

▶ 올해 처음으로 비경제활동자 중 구직자에게 자격증의 구직 시 도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구직자의 과거 종사 분야, 자격취득 기간 등에 따라 도움 여부 및 비도움 이유



등이 다르다는 것이 파악됨. 구직자의 자격 도움 여부에 대한 더욱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구직자의 희망 구직 분야나 종사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의 참여 의향은 2019년 39.3%, 2020년 42.2%, 2021년 41.9%로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1년 기준으로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3,811명의 자격소지자 중 93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간 문화예술교육사 배출자 대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의무배치기관]

- 의무배치기관의 76.8%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0.2%로 나타남. 교육사 배치율은 15.1%였으며, 미배치 기관의 향후 배치 의향률은 15.4%로 나타남. 올해 조사 결과는 2020년 실태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음
  - 기관유형별로 보면, 올해 역시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관과 미술관의 배치율과 배치 의향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도서관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인지도, 배치율, 향후 배치 수요가 매우 낮다는 점이 의무배치기관으로서 문제점으로 확인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이 미배치 이유를 보면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박물관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가 높았음
  - 한편, 교육사 배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은 ‘예산 부족’이라는 구조적/환경적 요인으로 교육사 배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2020년 조사에서 교육사 배치율과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성격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됨. 올해 교육사 미배치 이유에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 역시 해당 항목이 미배치 이유 1순위로 나타남. 도서관과 박물관은 여전히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과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두 기관에 대한 교육사 배치 문제는 여전히 숙제임
- 의무배치기관에서 교육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도서관은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역량’ 응답이 높았으나,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전수회관에서는 ‘강의 역량’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역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기관 인터뷰에서는 의무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예사, 에듀케이터, 사서, 평생교육사

등의 전문인력과 교육사를 비교했을 때 전문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주로 지적됨. 이는 교육사 자격제도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임. 타 전문인력은 3급 혹은 4급부터 1급까지 단계별 취득 조건이 까다로운 데 반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현재 2급만 운영되고 있는 점도 교육사의 전문성 측면에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으로 파악됨

▶ 배치율이 낮은 도서관과 박물관의 경우 교육사에 대해 ‘문화예술교육강사’ 역할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서관에서 향후에도 배치 의향이 없는 이유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다는 점에서 굳이 자격소지자가 아니더라도 대안 인력 풀(Pool)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함

## [문화예술 관련 기관]

-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9.0%였으며, 교육사 배치율은 11.5%였으며, 미배치 기관의 향후 배치 의향률은 13.6%로 나타남
-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현재 미배치 이유와 향후 미배치 의향 이유 모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공통으로 1, 2순위로 나타남. 특히 문화예술 관련 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 평생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가 운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교육사에 대한 잠재 수요는 있다고 판단됨. 다만, ‘평생교육사’라는 또 다른 자격소지자와의 역할 안배, 타 기관 대비 매우 낮은 교육사 인지도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권영임·차수정(20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가치와 발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602-617
- 남기현(2014), 문화예술교육사(Arts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석사논문
- 권정숙(2013),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8(3), 2-24
- 강성룡·이경화(2012),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과 창의성, 「창의력교육연구」, 12(3), 5-27
- 임학순·선결(2012),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개발방향 모색,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6권, 169-223
- 임학순 외(201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이미경(2011), 미국의 예술통합교육과 한국교육에서의 시사점, 「한국교육」, 38(3), 33-52
- 한겨레신문(2015-09-01), “수백만원짜리 ‘장롱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 머니투데이(2014-10-07), “우려가 현실로...시행 1년, 신규채용 전무한 문화예술교육사”
- 양현미 외(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부 록

---

1. 의무배치기관 관련 법령
2. 조사 참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3.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
4.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문화예술 관련 기관
5.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조사
6. 설문지





---

## 부록 1. 의무배치기관 관련 법령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전문개정 2012. 8. 17.]

## 부록 2. 조사 참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 1. 의무배치기관

가곡전수관	강화전쟁박물관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가온도서관	개봉어린이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가평군중앙도서관	개울건강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갈매동도당굿전수관	거마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갈산도서관(서울)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갈산도서관(인천)	거제시립옥포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감골박물관	거제시립장평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감우재전승기념관	거제시립하청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강남 역삼 푸른솔 도서관	거제어촌민속전시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강남구립못골도서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함천도서관
강동구립강일도서관	거창전수교육관	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
강동구립성내도서관	검단도서관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강동구립천호도서관	검단선사박물관	경주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강동구립해공도서관	검재정선미술관	경주시립도서관
강동복지문화예술회관	경기도미술관	계룡문화의집
강릉농악전수교육관	경기도박물관	계림꿈나무도서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계양문화원
강릉시립중앙도서관	경기도자박물관	계양문화회관
강릉아트센터	경기소리전수회관	고구려대장간마을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고남패총박물관
강릉학산오독메기전수관	경남대표도서관	고려청자박물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경남대학교 박물관	고부역사문화관
강서구립 곰달래도서관	경남도립미술관	고산문화의집
강서구립 등빛도서관	경북대학교 미술관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
강서구립가양도서관	경북대학교 박물관	고성교육도서관
강서길꽃어린이도서관	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	고성군각자전수교육관
강서꿈꾸는어린이도서관	경북도서관	고성군립도서관
강서영어도서관	경산시민회관	고성군문화체육센터
강서푸른들청소년도서관	경산자인단오제전수회관	고성농요전수교육관
강원경찰박물관	경상남도 산림박물관	고성박물관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고성탈박물관
강원도디엠센터박물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강원도산림박물관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고양문화의집
강원도탄광문화촌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지혜의바다분관	고양시립가좌도서관
강화문화회관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고양시립대화도서관
강화역사박물관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고양시립덕이도서관
강화자연사박물관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고양시립삼송도서관

고양시립식사도서관	광주광역시 동구청(미로센터)	국립해양박물관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
고양시립주엽어린이도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고양시립풍동도서관	광주북구운암도서관	국토발전전시관
고양시립행신도서관	광주시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고양시립행신어린이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분관 석봉도서관	국립청송야생미술관
고양시립화정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고양시립화정어린이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	군산대학교 박물관
고양어린이박물관	광천공공도서관	군산예술의전당
고양어울림누리	괴산교육도서관	군위송덕박물관
고운남측도서관	괴산문화예술회관	군포부곡도서관
고운동도서관	교하도서관	군포시 산본도서관
고창판소리박물관	구덕민속예술관	군포시 어린이도서관
고촌도서관	구례공공도서관	군포시 중앙도서관
고흥갑재민속전시관	구례군매천도서관	금산다락원
고흥군립도서관	구례잔수농악전수관	금산문화의집
고흥군립북부도서관	구로구립 온누리도서관	금산인삼고을도서관
고흥문화회관	구로구민회관	금양교육도서관
고흥평생교육관	구리시립도평도서관	금일공공도서관
곡성교육문화회관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곡성레저문화센터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금천구립가산도서관
곤지암도서관	구립증산정보도서관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공릉행복발전소	구미문화예술회관	금천구립독산도서관
공주기적의도서관	구미발갱이들소리전수관	금촌3동솔빛도서관
공주대학교 박물관	구미시립민속관	기지사족다리기박물관
공주시 시립도서관 용진관	구미시립상모정수도서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과천시 추사박물관	구미시립선산도서관	김만덕기념관
과천시문원도서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김시습기념관
관교어린이도서관	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	김제교육문화회관 금산분관
관악중앙도서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김제문화예술회관
관촌문화의집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김제우도농악전수교육관
광명문화의집	국립공주박물관	김천금릉빛내농악전수관
광명시 광명도서관	국립광주박물관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
광명시철산도서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김천시립도서관
광명시하안도서관	국립대구박물관	김천시립문화회관
광산농악전수교육관	국립등대박물관	김천시립미술관
광산문화원	국립부여박물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광양공시전수교육관	국립산악박물관	김포시 통진도서관
광양문화예술회관	국립익산박물관	김해기적의도서관
광양시립중마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김해목재문화박물관
광양장도전수교육관	국립중앙박물관	김해민속박물관
광양평생교육관	국립진주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광적도서관	국립춘천박물관	김해올하도서관

김해한림박물관	단양문화의집	대치도서관
꽃바위문화관	달빛마루도서관	대평동도서관
꿈벗도서관	달서가족문화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나주공공도서관	달서구립성서도서관	덕산문화의집
나주문화예술회관	달서어린이도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나주배박물관	달서영어도서관	도담동도서관
나주시립도서관	달성군립도서관	도봉구민회관
낙안읍성자료관	달성문화센터	독도박물관
난계국악박물관	담양공공도서관	독정골어린이도서관
남도소리올림터	담양죽세공예전수관	동강사진박물관
남동소래아트홀	당진문예의전당	동강생태정보센터
남양주시립박물관	당진시립송악도서관	동구문화센터
남양주시별내도서관	당진시립중앙도서관	동래문화회관
남양주시오남도서관	당진시립합덕도서관	동부도서관
남양주시와부도서관	대가야문화누리	동삼동패총전시관
남양주시진접도서관	대관령박물관	동양도서관
남양주시퇴계원도서관	대구 동구 신천도서관	동탄복합문화센터
남원농악전수교육관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	전북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남평공공도서관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동해문화예술회관
남해문화센터	대구광역시북구대현도서관	동해문화의집
남해선구줄꽃기전수회관	대구교육박물관	동해시립발한도서관
남해유배문학관	대구근대역사관	둔전평농악전수회관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	대구보건대학교 보현박물관	둘리뮤지엄
내서문화의집	대구북구태전도서관	드영미술관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구섬유박물관	디오티미술관
노원문화의집	대구콘서트하우스	라디오스타박물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대구향토역사관	레인보우영동도서관
노화공공도서관	대덕문예회관	마도갈방아소리전수관
논산강경도서관	대덕문화전당	마산합포도서관
논산문화예술회관	대륜문화의집	마산회원도서관
논산연무도서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마포아트센터
논산열린도서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마한박물관
농소1동도서관	대잠홀	매곡도서관
농소3동문화의집	대전동구관암도서관	매포도서관
다누리도서관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명곡도서관
다대포민속예술관	대전서구문화원	명성황후기념관
다산도서관	대전시립미술관	명주예술마당
다산미술관	대전시립박물관	모루도서관
단석도서관	대전예술가의집	목면시배유지
단양교육도서관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목포대학교 박물관
단양군사기전수관	대전전통나래관	목포시립도서관
단양문화예술회관	대전중구문화원	목포어린이도서관

목포영어도서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삼성현역사문화관
목포옥장전수관(옥공예전시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삼척교육문화관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보성소리전수교육관	삼척도계도서관
무안공공도서관	보은문화예술회관	삼척문화예술회관
무안군공공도서관	보은향토민속자료전시관	삼척시립박물관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봉곡평생학습센터	삼척원덕도서관
무안문화의집	봉담도서관	삼호도서관
무안옹호놀이전수관	봉황동유적 패총단면전시관	상록도서관
무주곤충박물관	부개도서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
무형문화재 민속예술전수관 (구.마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부경대학교 박물관	상북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상주문화회관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상주자전거박물관
문경도자기박물관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새롬동도서관
문경문화예술회관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서구 비산도서관
문경석탄박물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서구문화회관
문경시립모전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분관 부산영어도서관	서구어린이도서관
문경시립중앙도서관		서귀포도서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수정분관	서귀포시기당미술관
문막교육도서관	부산어촌민속관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
문화예술원 마루홀	부산전통예술관	서귀포예술의전당
민주공원 공연장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밀양백중놀이전수관	부안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밀양법흥상원놀이전수교육관	부안예술회관	서라벌문화회관
밀양시립도서관	부안청자박물관	서북전시관
밀양시립박물관	부천자연생태박물관	서산시 대산도서관
밀양시립영어도서관	부천필벽기념관	서산시립도서관
박동진판소리전수관	부천활박물관	서산시문화회관
박열의사기념관	부평기적의도서관	서산시박침지놀이전수관
박진전쟁기념관	부평아트센터	서운도서관
반달어린이도서관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반월도서관	북삼도서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방촌유물전시관	불암도서관	서울도서관
배봉산 숲속도서관	비봉어린이도서관	서울상상나라
백제역사문화관	비원도서관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백호문학관	빛가람시립도서관	서울약령시한의학박물관
별교공공도서관	빛고을시민문화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사랑샘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강남도서관
벽천미술관	사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별빛도서관	산청한의학박물관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보람동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보령문화예술회관	삼국유사문화회관	서울특별시교육청도봉도서관
보령주산도서관	삼도2동문화의집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
보석박물관	삼산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동작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세종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순천시기독교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순천시립삼산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소나무언덕2호작은도서관	순천시립신대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	소나무언덕잠실본동작은도서관	승의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소담동도서관	숲사랑홍보관
서울특별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	소래도서관	승달문화예술회관
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	소래역사관	신문학파기념관
서울특별시교육청정독도서관	소양도서관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속초교육문화관	시흥시 목감도서관
서창도서관	속초도문농요전수회관	시흥시군자도서관
서창한옥문화관	속초문화예술회관	시흥시대야도서관
서천장항공공도서관	속초시립도서관	시흥시중앙도서관
서초그림책도서관	속초시립박물관	신월음악도서관
서현문화의집	손기정기념관	신정2동문화의집
석남도서관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신탄진문화의집
석장리박물관	솔향공원 소나무전시관	신평면 생활사박물관
석적도서관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심훈기념관
선부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싱글빙글교육센터
선산문화의집	송중문화정보도서관	쑥골어린이도서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송촌문화의집	아람미술관
설문대 어린이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	아르셀생활문화센터(춘천문화재단)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송파책박물관	아름꿈 도서관
설악도서관	송화도서관	아리랑박물관
성남문화의집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아리랑센터
성남시수정도서관	수도박물관	아산시 둔포도서관
성남시중원어린이도서관	수성구립 무학술도서관	아산시 배방도서관
성동구립금호도서관	수성구립 물망이도서관	아산시 어린이도서관
성동구립도서관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아산시 중앙도서관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	수성구립 책숲길도서관	아산시평생학습관
성동구립용담도서관	수성구립 파동도서관	안덕산방문화의집
성동구립청계도서관	수성구립고산도서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성동문화회관	수성구립범어도서관	안동차전놀이전수교육관
성북구립미술관	수영민속예술관	안산단원어린이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수원시대추골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성산아트홀	수원시버드내도서관	안산시 부곡도서관
성산패총전시관	수원시영통도서관	안산시관산도서관
성주군문화예술회관	수원시화서다산도서관	안산향토사박물관
성주군청사도서관	순창공립미술관	안섬풍어당굿전수관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순창문화의집	안성3.1운동기념관
성현동작은도서관	순창장류박물관	안성시립공도도서관
세미원연꽃박물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안성시립보개도서관
세종대왕역사문화관	순천대학교 박물관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세종도서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안성시립진사도서관



안양시립관양도서관	여수시립돌산도서관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안양시립삼덕도서관	여수시립소라도서관	오산시 꿈두레도서관
안양시호계도서관	여수시립쌍봉도서관	오산시 중앙도서관
안양어린이도서관	여수시립울촌도서관	오산시립미술관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여수시립환경도서관	오산시초평도서관
애월도서관	여의샛강마을도서관	오포도서관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여주도서관	옥산도서관
양곡도서관	여주박물관	옥정호수도서관
양구교육도서관	여주시립폰박물관	옥진각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여초서예관	옥천향토전시관
양구돌산령지게놀이전수관	역삼도서관	옥현어린이도서관
양구문화복지센터	연산백중놀이전수교육관	온양민속박물관
양구선사박물관	연수청학도서관	완주군립고산도서관
양구인문학박물관	연제도서관	완주군립삼례도서관
양림미술관	염색장 윤병운 전수교육관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양산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완주문화예술회관
양산문화예술회관	영광우도농악전수관	완주문화의집
양산시립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완판본문화관
양산시립박물관	영동북함문화예술회관	왕궁리유적전시관
양산웅상도서관	영산무형문화재전수관	왕인박사기념관
양양교육도서관	영산작법전수교육관	외암민속관
양주농악전수교육관	영암공공도서관	옥지문화의집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양주별산대놀이전수교육관)	영암도기박물관	용담2동문화의집
	영암삼호문화의집	용비도서관
양주소놀이굿전수교육관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용산 꿈나무도서관
양주시 고읍도서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용인시 동백도서관
양주시 남면도서관	영월Y파크(술샘박물관)	용인포은아트홀
양주시 덕계도서관	영월동굴생태관	운강이강년기념관
양주시덕정도서관	영인산산립박물관	운남어린이도서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영종역사관	울릉한마음회관
양주희망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울산남구도산도서관
양친구 영어특성화도서관	영주문화예술회관	울산남구신복도서관
양천문화회관	영주문화원	울산농소3동도서관
양평곤충박물관	영주시립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
양평군립미술관	영주시민회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양평군립중앙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	울산북구기적의도서관
양평군립지평도서관	영천시민회관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예산군립도서관	울산북구중앙도서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예산군문화회관	울산중구문화의전당
어울림도서관	예산삼교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어진박물관	예주문화예술회관	울산해양박물관
어촌민속전시관	예천군문화회관	울주도서관
엄정꿈터도서관	예천박물관	울주선바위도서관

울주천상도서관	익산시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교육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
울진남부도서관	익산시립부송도서관	전남장애인문화의집
울진문화예술회관	익산예술의전당	전라남도립도서관
웃는얼굴아트센터	익산예술의전당미술관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웅동문화의집	인삼박물관	전라북도교육청고창도서관
웅천도요지전시관	인제교육도서관	전라북도립미술관
원주문화의집	인제산촌민속박물관	전북도청도서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인제하늘내린센터	전북산림박물관
원주시역사박물관	인천개항박물관	전주덕진예술회관
원통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	전주시립건지도서관
월계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전주시립도서관
월롱도서관	인천광역시 울목도서관	전주시립삼천도서관
유관순열사기념관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전주시립서신도서관
육군박물관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전주시립죽구름도서관
윤봉길의사기념관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	전주시립평화도서관
은프락도서관	인천광역시립수봉도서관	전주시립효자도서관
은울탈춤전수관	인천광역시마전도서관	전주역사박물관
은천동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은평구립도서관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주한벽문화관
은평문화예술회관	인천북구문화의집	전통문화의집
을숙도문화회관	인천수봉문화회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응암1동문화의집	일곡문화의집	점동도서관
의령군민문화회관	일도1동문화의집	정남도서관
의병박물관	임실군립도서관	정림사지박물관
의성문화회관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정선교육도서관
의성조문국박물관	입점리고분전시관	정선향토박물관
의암류인석기념관	자양도서관	정읍기적의도서관
의왕문화의집	자인계정들소리전수교육관	정읍문화의집
의왕향토자료관	작전도서관	정읍사예술회관
의창도서관	잠원도서관	정읍시립도서관신테인분관
이강하 미술관	장보고기념관	정읍시립미술관
이랑어린이도서관	장사래어린이도서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이서문화의집	장산도들노래전수관	제8대유엔사무총장반기문 평화기념관
이야기꽃도서관	장성공공도서관	제주 삼양동 유적
이응노미술관	장성군립북도서관	제주4·3평화기념관
이중섭미술관	장성군립삼계도서관	제주교육박물관
이천 어울림 도서관	장성군립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이천시립마장도서관	장수군립도서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이천시립박물관	장유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장흥문화예술회관	제주돌문화공원
이천시립효양도서관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다누리학교)	제주목 관아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전곡선사박물관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제주아트센터	진안문화의집	청주고인쇄박물관
제주추사관	진안역사박물관	청주금빛도서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진주두석장전수교육관	청주기적의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진주시립서부도서관	청주서원도서관
제주향일기념관	진주시립연암도서관	청주시 한국공예관
제주현대미술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
제천국제발효박물관	진천교육도서관	청주시배철전수교육관
제천기적의도서관	진천군립광해원도서관	청주오창도서관
제천문화의집	진천군립도서관	청주청원도서관
제천시립도서관	진천문화의집	청주홍덕도서관
제천시문화회관	진천종박물관	청천도서관
제천유물전시관	진해구민회관	청파도서관
제천학생회관	진해도서관	초월도서관
조원도서관	짜장면박물관	최북미술관
종로구립 고학동미술관	창녕군 영산도서관	최용신기념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창녕문화예술회관	춘성교육도서관
종촌동도서관	창녕비봉리패총전시관	춘천동내도서관
주산문화의집	창원대학교 박물관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춘천시립관서면도서관
죽변면도서관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춘천신사우동도서관
증구문화회관	창원역사민속관	춘향문화예술회관
증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채상장전수교육관	충남대학교 박물관
증랑구립정보도서관	천안박물관	충렬사 유물전시관
증랑상봉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도솔도서관	충무아트센터
증랑숲어린이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성거도서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증랑아트센터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신방도서관	충주박물관
증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아우내도서관	충주시 택견원
증양아트홀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증양도서관	충주시립도서관
증천철학도서관	천안시민문화여성회관 성환문화회관	충주시립호암도서관
즐거운도서관	천안시시민문화여성회관 신부문화회관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도서관	충주청명주전수관
증평교육도서관	천안청수도서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
증평군립도서관	철마도서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유구도서관
증평문화의집	철원갈말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증평문화회관	철원김화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첨단도서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금산도서관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	청계천박물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당진도서관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청도어린이도서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
진도군무형문화재전수관	청도차산농악전수교육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웅천도서관
진도향토문화회관	청라국제도서관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진보공공도서관	청량산박물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
진산도서관	청양군백제문화체험박물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아산도서관
진안가위박물관	청양문화예술회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성환도서관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함양문화예술회관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태안도서관	포천시립소흘도서관	함평군립도서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	포천시립영북도서관	함평군립미술관
충청북도농업과학관	포천시립영중꿈나무도서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치악예술관	포천시립일동도서관	합천군문화예술회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포천시립중앙도서관	합천박물관
칠곡군립도서관	포항문화예술회관	함흥유적지
칠곡호국평화기념관	포항시립동해석곡도서관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기념관
칠백의총관리소(기념관)	포항시립미술관	해군사관학교박물관
칠암도서관	포항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	해남공공도서관
칠평도서관	포항시립영암도서관	해남공룡박물관
콩쥐팍쥐도서관	포항시립오천도서관	해남문화예술회관
탄현도서관	풍기문화의집	해남문화의집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해녀박물관
태백산소드림도서관	하남시 나물도서관	해돋이도서관
태백시립도서관	하남시세미도서관	해밀도서관
태안군립중앙도서관	하남역사박물관	해안동문화의집
태안군문화예술회관	하늘도서관	해오름도서관
통영공예전수교육관	하동문화예술회관	해운대문화회관
통영시립산양도서관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교육관	향기나무도서관
통영시립충무도서관	학마을도서관	향토예술문화회관
통영예능전수교육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허균허난설헌기념관
트라이보울	한국근대문학관	허준박물관
파주금산리민요전수회관	한국대나무박물관	홍길동 전시관
파주시립중앙도서관금촌분관	한국만화박물관	홍성결성농요전수회관
파주시립중앙도서관문산분관	한국미용박물관	홍주문화회관
파평도서관	한국민화뮤지엄	홍주성역사관
판교박물관	한국시집박물관	홍천문화예술회관
평창교육도서관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홍천향토자료관
평창군립대관령도서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화랑관
평창군립대화도서관	한국족보박물관	화랑도서관
평창군립봉평도서관	한국차박물관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평창군립진부도서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평창문화예술회관	한국해양대학교 박물관	화성시남양도서관
평택농악전수교육관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화성시립송산도서관
평택시립 비전도서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화성시삼괴도서관
평택시립 진위도서관	한빛도서관	화순공공도서관
평택시립세교도서관	한산모시짜기전수교육관	화순열린도서관
평택시립안중도서관	한솔동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
평택시립오성도서관	한아름도서관(수원청소년문화센터내)	화천교육도서관
평택시립장당도서관	한울도서관	화천문화예술회관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	한자락 매듭전수관	화천민속박물관
평택시립청북도서관	함안군립칠원도서관	화천어린이도서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효자생활문화센터	W미술관
황영조기념관	흥덕문화의집	
횡성군립도서관	희망샘도서관	
횡성문화예술회관	5·18기념문화센터	
효성도서관	GS칼텍스 예울마루	

##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가산 생활문화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감전 생활문화센터	고창공공도서관	군포시미디어센터
강남도서관	고척도서관	군포시여성회관
강남문화원	고흥문화원	군포시청
강동도서관	공주문화원	군포시평생학습원
강릉교육문화관	공주유구도서관	금곡동 생활문화센터
강릉시청	광명문화원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광산구청	금산도서관
강북문화원	광산구평생교육원	금산문화원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금왕도서관
강서구평생학습관	광양시청	금정구평생학습관
강서도서관	광주 서구 생활문화센터	금천구평생학습관
강서청소년회관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	금천문화원
강원고성문화원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기벌포 생활문화센터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동구장애인복지관	기산리 생활문화센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동구청	기장군청
강진군청	광주문화원	김제 생활문화센터
강화교육지원청	광주시청	김제교육문화회관
강화문화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김제문화원
개포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김제시평생학습관
개항장 문화마당 생활문화센터	광주향교	김천문화원
거제도서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김천시평생교육원
거제문화원	광진문화원	김포문화원
거창군청	광진청소년수련관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거창도서관	괴산 생활문화센터	김포시평생학습센터
검백 생활문화센터	구락 생활문화센터	김해도서관
경기도립김포도서관	구례문화원	김해문화원
경기도립녹양도서관	구로문화원	김해시청
경기도립발안도서관	구로평생학습관제1관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경기도립여주도서관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나름청소년활동센터
경기도립포천도서관	구리문화원	나주공공도서관
경남고성문화원	구리시 평생학습관	나주문화원
경산 생활문화센터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낙동문화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구리시청소년수련관	남구 생활문화센터
경상북도립고령공공도서관	구리지역사회교육협의회	남구 평생학습센터
경상북도립영일공공도서관	구미문화원	남구평생학습관
경주문화원	구미시청	남동구청
계곡생활문화센터	군산교육문화회관	남양주문화원
고령문화원	군산시청(평생학습도시)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고성군 평생학습관	군산시평생학습관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고성도서관	군위 생활문화센터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
고양문화원	군위문화원	남원교육문화회관

남원시청	동두천문화원	부산남구청
남원시평생학습관	동두천시평생교육원	부산동구청
남지도서관	동래구 평생학습관	부산북구청
남평공공도서관	동면 생활문화센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남해군청	동작 평생학습관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남해군평생학습관	동해교육도서관	부산진문화원
남해도서관	동해문화원	부안교육문화회관
노원평생교육원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부안군청
논산문화원	두송 생활문화센터	부안문화원
논산시청	마산문화원	부여 생활문화센터
농성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마이학습장	부여군청
다산서당	마포구평생학습센터	부여도서관
단양군평생학습센터	마포청소년수련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단양도서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부천시평생학습센터
단양문화원	매죽지 생활문화센터	부평구청
달서 생활문화센터 송현점	목동청소년수련관	부평구평생학습관
달서 생활문화센터 장기점	목포공공도서관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달서구청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부평장애인복지관
담양군평생학습관	무안문화원	북구 생활문화센터
담양문화원	무주공공도서관	북구평생학습관
당진 생활문화센터	무주문화원	북구평생학습센터
당진시 평생학습관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당진시청	문경문화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대구남구문화원	문내 생활문화센터	비산5동 생활문화센터
대구시민미디어센터	밀양문화원	사상구청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배방 생활문화센터	사상평생학습관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백산마을 생활문화센터	사천도서관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범일 생활문화센터	사천문화원
대덕구평생학습원	보령도서관	사천시평생학습센터
대전동구청	보령문화원	사하구청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보령시평생학습관	사하문화원
대전평생학습관	보령웅천도서관	산성동복지회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보성공공도서관	산청군청
대치평생학습관	보성문화원	산청도서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보은도서관	산청문화원
도봉문화원	보은문화원	삼국유사군위도서관
동구영상미디어센터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삼례 생활문화센터1
동구청	복사꽃마을 행복학습관	삼척시청
동구평생교육센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삼척시평생학습관(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동구평생학습관	부산 생활문화센터 (한성1918)	삼천생활문화센터
동구평생학습원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삼천포도서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도서관	부산광역시서구평생학습관	상주 생활문화센터
동두천 생활문화센터	부산남구문화원	서구 평생학습관

서구도서관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서구문화원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양정1동 생활문화센터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수영구 평생학습관	양주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수영구청	양주시청
서대문도서관	수원 생활문화센터	양주시평생학습관
서대문문화원	수원미디어센터	양천구청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시청	엠마우스복지관
서산 생활문화센터	수원제일평생학교	여수 예술인촌 생활문화센터
서산문화원	수정 생활문화센터	여수문화원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	여주문화원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순창군Stay20생활문화센터	여주시청
서산시청	순창문화원	연수구청(평생학습관)
서산해미도서관	순천문화원	연제구청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순천시청	연제문화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연천군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영덕 생활문화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영등포평생학습관	시흥문화원	영덕문화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시흥시청	영도구평생학습관
서천도서관	시흥시평생교육원	영도문화원
서초구평생학습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영동도서관
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신안군청	영동문화원
셋골(서3동)생활문화센터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미디어트”
성남문화원	신안문화원	영양문화원
성남미디어센터	신호학습장	영주문화원
성남시청	심곡종합사회복지관	영주시평생학습센터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아리랑정보도서관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아산도서관	영평하동 알무드내 생활문화센터
성북구 평생학습관	안동문화원	예산도서관
성북구청	안동시청	예산문화원
성주 생활문화센터	안산시청	오산시중앙도서관평생학습관
성호 생활문화센터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오산시청
세종문화원	안산시평생학습관	옥천군평생학습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안성문화원	온양문화원 온양생활문화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	안성시평생학습관	완도군청
소사생활문화센터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완도문화원
속초교육문화관	안양YMCA	완주공공도서관
속초문화원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완주문화원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안양시동안평생교육센터	용산구청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안양시민대학	용산문화원
송파구청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용인시청
송파구평생학습원	양산문화원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송파도서관	양산시청	울릉문화원
수성구 평생학습관	양산영상미디어센터	울산동부도서관
수성구청	양양문화원	울산북구 생활문화센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진해문화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창녕군청
울주생활문화센터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창녕도서관
울진문화원	전일 생활문화센터	창녕문화원
웅천 생활문화센터	전주문화원	창원문화원
원당종합사회복지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	창원시청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전주시청	창전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전주시평생학습관	천안성환도서관
유성구청	전포 생활문화센터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유성구평생학습원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비채”
은평 생활문화센터	정읍문화원	철원문화원
은평구청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정읍시청	청도군청
은평문화원	정읍시평생학습관	청도문화원
음성군청	제주문화원	청송문화원
음성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청양문화원
의령도서관	제천문화원	청주문화원
의령문화원	제천시청	청주시청
의왕시평생학습관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의왕청계종합사회복지관	제천학생회관	청주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의정부문화원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종로문화원	춘성교육도서관
이천문화원	주안도서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이천시청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춘천교육문화관
이천시평생학습관	중구문화원	춘천문화원
익산문화원	중구청	충무동 생활문화센터
익산시청	중구평생학습관	충무로영상센터“오!재미동”
인제교육도서관	증랑구청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인제문화원	증랑구평생학습관	충주 생활문화센터
인천 서구 평생학습관	증랑노인종합복지관	충주문화원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증랑문화원	충주시평생학습관
인천북구도서관	증양 생활문화센터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인천서구청	증평도서관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진도문화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진동도서관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임실공공도서관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임실문화원	진안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칠곡군청
장성공공도서관	진양도서관	칠곡문화원
장성문화원	진주문화원	태안도서관
장수공공도서관	진주시청	태안문화원
장수군평생학습센터	진천군청	통영문화원
장수문화원	진천도서관	파주시 평생학습관
장흥문화원	진천문화원	파주시중앙도서관

평성노인복지관	함양문화원	화천문화원
평생학습관	함장 생활문화센터	화천생태영상센터
평창교육도서관	함평공공도서관	원돌종합사회복지관
평창군청	합천군청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
평택문화원	합천도서관	
평택시청	합천문화원	
포천시립중앙도서관	합천영상미디어센터	
포항시 평생학습원	해남공공도서관	
하남도서관	해남군 생활문화센터	
하남문화원	해남문화원	
하남시청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하동군평생학습관	행복북구 생활문화센터	
하동도서관	홍성군청	
하동문화원	홍천교육도서관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홍천군청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화강 생활문화센터	
한국보건복지평생교육원	화도진도서관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화명 생활문화센터	
한밭도서관 생활문화센터	화성문화원	
한수폴도서관	화성시평생학습센터	
함안도서관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함안문화원	화순군청	
함양도서관	화순문화원	

###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원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세종시문화재단)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금수문화예술마을)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주문화재단)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구문화재단)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남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전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북문화재단)

## 부록 3.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문화예술 관련 기관

### 1. 의무배치기관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1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0	12	12
2	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0	1	1
3	도서관	관악중앙도서관	0	1	1
4	도서관	설문대 어린이도서관	0	1	1
5	도서관	성남시수정도서관	0	1	1
6	도서관	세종도서관	0	1	1
7	도서관	수원시화서다산도서관	0	1	1
8	도서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0	3	3
9	도서관	안성시립진산도서관	0	1	1
10	도서관	양평군립지평도서관	0	1	1
11	도서관	여주도서관	0	1	1
12	도서관	오산시 꿈두레도서관	0	1	1
13	도서관	완주군립중앙도서관	0	10	10
14	도서관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0	5	5
15	도서관	제천기적의도서관	1	0	1
16	도서관	청주기적의도서관	0	1	1
17	도서관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보령도서관	0	1	1
18	박물관	경기도자박물관	3	2	5
19	박물관	고양어린이박물관	0	2	2
20	박물관	과천시 추사박물관	0	10	10
21	박물관	국립6.25전쟁남북사기념관	1	0	1
22	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0	4	4
23	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2	0	2
24	박물관	국립산악박물관	1	0	1
25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	0	1
26	박물관	국토발전전시관	0	1	1
27	박물관	군산대학교 박물관	1	0	1
28	박물관	기지사찰다리기박물관	1	1	2
29	박물관	김해한림박물관	0	1	1
30	박물관	남양주시립박물관	5	0	5
31	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0	1	1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32	박물관	대구보건대학교 보현박물관	0	1	1
33	박물관	대구섬유박물관	0	1	1
34	박물관	둘리뮤지엄	0	2	2
35	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	0	1	1
36	박물관	부산어촌민속관	1	0	1
37	박물관	부천자연생태박물관	1	0	1
38	박물관	부천활박물관	1	3	4
39	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1	0	1
40	박물관	세미원연꽃박물관	0	1	1
41	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1	0	1
42	박물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1	0	1
43	박물관	숲사랑홍보관	0	1	1
44	박물관	아리랑박물관	2	0	2
45	박물관	양구인문학박물관	1	0	1
46	박물관	여주박물관	0	2	2
47	박물관	영암도기박물관	0	1	1
48	박물관	영월Y파크(술샘박물관)	2	0	2
49	박물관	영종역사관	1	0	1
50	박물관	예천박물관	0	1	1
51	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0	1	1
52	박물관	울산해양박물관	0	1	1
53	박물관	원주시역사박물관	0	1	1
54	박물관	의암류인석기념관	0	1	1
55	박물관	이천시립박물관	1	0	1
56	박물관	장보고기념관	0	10	10
57	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1	1	2
58	박물관	창원역사민속관	0	1	1
59	박물관	천안박물관	1	0	1
60	박물관	최용신기념관	1	1	2
61	박물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1	0	1
62	박물관	충주박물관	0	1	1
63	박물관	한국미용박물관	0	1	1
64	박물관	한국족보박물관	0	1	1
65	박물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1	1	2
66	박물관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0	1	1
67	미술관	W미술관	0	2	2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68	미술관	겸재정선미술관	0	2	2
69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	3	0	3
70	미술관	다산미술관	1	0	1
71	미술관	드영미술관	2	1	3
72	미술관	디오터미술관	0	1	1
73	미술관	무안군오송우미술관	1	0	1
74	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1	1	2
75	미술관	아람미술관	1	1	2
76	미술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2	0	2
77	미술관	정읍시립미술관	2	0	2
78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0	1	1
79	미술관	청주시 한국공예관	0	1	1
80	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1	0	1
81	미술관	함평군립미술관	1	0	1
82	문예회관	강릉아트센터	1	0	1
83	문예회관	광주광역시 동구청(미로센터)	0	2	2
84	문예회관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0	3	3
85	문예회관	군산예술의전당	0	1	1
86	문예회관	금산다락원	1	0	1
87	문예회관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1	0	1
88	문예회관	남동소래아트홀	1	0	1
89	문예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0	1	1
90	문예회관	달성문화센터	1	0	1
91	문예회관	당진문예의전당	0	1	1
92	문예회관	대덕문예회관	1	0	1
93	문예회관	마포아트센터	1	0	1
94	문예회관	명주예술마당	1	2	3
95	문예회관	서창한옥문화관	0	1	1
96	문예회관	싱글벙글교육센터	0	1	1
97	문예회관	아르쉴생활문화센터(춘천문화재단)	0	1	1
98	문예회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0	2	2
99	문예회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3	0	3
100	문예회관	완판본문화관	0	1	1
101	문예회관	용인포은아트홀	1	0	1
102	문예회관	울산문화예술회관	1	0	1
103	문예회관	울산중구문화의전당	0	1	1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104	문예회관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다누리학교)	0	1	1
105	문예회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0	1	1
106	문예회관	중량아트센터	0	1	1
107	문예회관	중앙아트홀	0	1	1
108	문예회관	충무아트센터	1	1	2
109	문예회관	치악예술관	1	2	3
110	문예회관	향토예술문화회관	0	1	1
111	문예회관	효자생활문화센터	0	1	1
112	문화의집	계양문화원	0	1	1
113	문화의집	광산문화원	1	0	1
114	문화의집	금산문화의집	0	1	1
115	문화의집	노원문화의집	0	1	1
116	문화의집	대전서구문화원	0	1	1
117	문화의집	대전중구문화원	0	1	1
118	문화의집	봉곡평생학습센터	0	1	1
119	문화의집	북구청소년문화의집	0	1	1
120	문화의집	서현문화의집	0	1	1
121	문화의집	성남문화의집	0	2	2
122	문화의집	영주문화원	0	1	1
123	문화의집	완주문화의집	1	3	4
124	문화의집	원주문화의집	0	1	1
125	전수회관	가곡전수관	0	10	10
126	전수회관	강릉농악전수교육관	1	0	1
127	전수회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0	6	6
128	전수회관	경산자인단오제전수회관	1	0	1
129	전수회관	경주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	0	1
130	전수회관	고성농요전수교육관	0	1	1
131	전수회관	광산농악전수교육관	0	5	5
132	전수회관	광양궁시전수교육관	0	1	1
133	전수회관	광양장도전수교육관	1	3	4
134	전수회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0	2	2
135	전수회관	남원농악전수교육관	0	2	2
136	전수회관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0	9	9
137	전수회관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0	1	1
138	전수회관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0	1	1
139	전수회관	대전전통나래관	2	0	2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140	전수회관	마도갈뱅아소리전수관	0	1	1
141	전수회관	목포옥장전수관(옥공예전시관)	1	0	1
142	전수회관	무형문화재 민속예술전수관 (구.마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	0	1
143	전수회관	문경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	0	1	1
144	전수회관	밀양백중놀이전수관	0	5	5
145	전수회관	밀양법흥상원놀이전수교육관	0	1	1
146	전수회관	박동진판소리전수관	0	1	1
147	전수회관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0	1	1
148	전수회관	부산전통예술관	0	1	1
149	전수회관	사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0	2	2
150	전수회관	세종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0	1	1
151	전수회관	양주농악전수교육관	0	1	1
152	전수회관	양주별산대놀이마당(양주별산대놀이전수교육관)	0	2	2
153	전수회관	염색장 윤병은 전수교육관	0	1	1
154	전수회관	영광우도농악전수관	0	1	1
155	전수회관	영산무형문화재전수관	0	1	1
156	전수회관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0	1	1
157	전수회관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0	1	1
158	전수회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0	1	1
159	전수회관	채상장전수교육관	0	1	1
160	전수회관	청도차산농악전수교육관	0	1	1
161	전수회관	청주시배첩전수교육관	0	1	1
162	전수회관	통영공예전수교육관	0	1	1
163	전수회관	통영예능전수교육관	0	1	1
164	전수회관	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0	1	1
165	전수회관	하회별산굿탈놀이전수교육관	0	2	2
166	전수회관	경기문화재단	0	5	5
167	전수회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	6	8
168	전수회관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금수문화예술마을)	1	10	11
169	전수회관	광주문화재단	3	0	3
170	전수회관	대구문화재단	1	0	1
171	전수회관	대전문화재단	1	0	1
172	전수회관	부산문화재단	1	2	3
173	전수회관	인천문화재단	1	2	3
174	전수회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1	1	2

연번	구 분	기관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175	전수회관	충남문화재단	2	0	2
176	전수회관	충북문화재단	1	2	3
177	기타	기관명 확인 불가(기타 기관)	0	1	1
합 계 (177개 의무배치기관)			88	252	340



##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연번	구 분	기 관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1	생활문화센터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1	0	1
2	생활문화센터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터	0	1	1
3	생활문화센터	기벌포 생활문화센터	0	1	1
4	생활문화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0	1	1
5	생활문화센터	북구 생활문화센터	0	1	1
6	생활문화센터	삼례 생활문화센터1	0	1	1
7	생활문화센터	삼천생활문화센터	0	1	1
8	생활문화센터	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0	1	1
9	생활문화센터	성주 생활문화센터	0	1	1
10	생활문화센터	은평 생활문화센터	0	2	2
11	생활문화센터	충주 생활문화센터	1	0	1
12	생활문화센터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1	0	1
13	생활문화센터	행복북구 생활문화센터	1	0	1
14	지방문화원	광진문화원	1	2	3
15	지방문화원	금산문화원	0	1	1
16	지방문화원	김천문화원	0	1	1
17	지방문화원	도봉문화원	2	0	2
18	지방문화원	무안문화원	0	1	1
19	지방문화원	성남문화원	0	1	1
20	지방문화원	신안문화원	0	2	2
21	지방문화원	영주문화원	0	1	1
22	지방문화원	예산문화원	0	1	1
23	지방문화원	음성문화원	0	1	1
24	지방문화원	의령문화원	1	1	2
25	지방문화원	인제문화원	0	15	15
26	지방문화원	장성문화원	0	1	1
27	지방문화원	제주문화원	0	1	1
28	지방문화원	진주문화원	0	1	1
29	지방문화원	진해문화원	0	1	1
30	지방문화원	창원문화원	1	2	3
31	지방문화원	청도문화원	0	5	5

연번	구 분	기 관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원(명)
32	지방문화원	하동문화원	0	1	1
33	지방문화원	함안문화원	0	1	1
34	지방문화원	함양문화원	2	2	4
35	지방문화원	해남문화원	2	1	3
36	지방문화원	화순문화원	1	0	1
37	지방문화원	화천문화원	0	12	12
38	미디어센터	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	1	1	2
39	미디어센터	수원미디어센터	1	5	6
40	미디어센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1	10	11
41	미디어센터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	0	2	2
42	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0	1	1
43	미디어센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비채”	0	3	3
44	미디어센터	화천생태영상센터	0	1	1
45	평생교육기관	군포시여성회관	1	0	1
46	평생교육기관	군포시평생학습원	1	0	1
47	평생교육기관	대덕구평생학습원	0	1	1
48	평생교육기관	동두천시평생교육원	1	0	1
49	평생교육기관	부여군청	0	1	1
50	평생교육기관	서초구평생학습관	1	0	1
51	평생교육기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0	1	1
52	평생교육기관	수성구 평생학습관	0	2	2
53	평생교육기관	수성구청	0	2	2
54	평생교육기관	수원시청	1	1	2
55	평생교육기관	안양YMCA	0	10	10
56	평생교육기관	엠하우스복지관	0	6	6
57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0	4	4
58	평생교육기관	포천시립중앙도서관	0	2	2
59	기타	기관명 확인 불가(기타 기관 18개 합계)	1	32	33
합 계 (68개 문화예술 관련 기관)			23	150	173

## 부록 4.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문화예술 관련 기관

### 1. 의무배치기관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1	도서관	강릉시립중앙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2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3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4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1	2023년 이후
5	도서관	고양시립식사도서관	1	2022년 하반기
6	도서관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	1	2022년 상반기
7	도서관	고양시립화정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8	도서관	고흥평생교육관	1	직원 결원 시
9	도서관	곡성교육문화회관	1	2022년 하반기
10	도서관	곤지암도서관	1	2023년 이후
11	도서관	광양평생교육관	1	직원 결원 시
12	도서관	광적도서관	1	2023년 이후
13	도서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1	2023년 이후
14	도서관	남양주시별내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15	도서관	남양주시진접도서관	1	2023년 이후
16	도서관	남평공공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17	도서관	대평동도서관	1	2023년 이후
18	도서관	모루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19	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20	도서관	무안군공공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21	도서관	보람동도서관	1	2022년 하반기
22	도서관	빛가람시립도서관	1	2022년 하반기
23	도서관	삼산도서관	1	2023년 이후
24	도서관	삼척도계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25	도서관	새롬동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26	도서관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	1	2023년 이후
27	도서관	서천장항공공도서관	1	2022년 상반기
28	도서관	설악도서관	1	2022년 하반기
29	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1	직원 결원 시
30	도서관	소담동도서관	1	2022년 하반기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31	도서관	속초시립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32	도서관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1	2022년 상반기
33	도서관	수성구립범어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34	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1	2022년 상반기
35	도서관	시흥시대야도서관	1	2023년 이후
36	도서관	안양시립삼덕도서관	2	2022년 상반기
37	도서관	양주시 고읍도서관	1	2022년 상반기
38	도서관	연제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39	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2	2022년 하반기
40	도서관	영암공공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41	도서관	옥정호수도서관	1	2023년 이후
42	도서관	월릉도서관	1	2023년 이후
43	도서관	임실군립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44	도서관	장수군립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45	도서관	전주시립건지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46	도서관	전주시립삼천도서관	1	2022년 하반기
47	도서관	재천시립도서관	2	2023년 이후
48	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49	도서관	진주시립서부도서관	1	2023년 이후
50	도서관	진천교육도서관	1	2022년 하반기
51	도서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서천도서관	2	2023년 이후
52	도서관	태백시립도서관	1	2023년 이후
53	도서관	평창교육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54	도서관	평창군립대학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55	도서관	평택시립 진위도서관	1	2023년 이후
56	도서관	평택시립안중도서관	1	2022년 하반기
57	도서관	평택시립오성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58	도서관	평택시립장당도서관	1	2022년 하반기
59	도서관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	1	2023년 이후
60	도서관	포천시립소흘도서관	1	2023년 이후
61	도서관	포항시립오천도서관	1	2022년 상반기
62	도서관	하남시 나물도서관	1	2022년 상반기
63	도서관	한울도서관	1	2021년 하반기
64	도서관	함평군립도서관	1	2023년 이후
65	도서관	화성시 다원이음터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66	도서관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1	2022년 하반기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67	도서관	화천어린이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68	박물관	감굴박물관	1	2023년 이후
69	박물관	경기도박물관	3	2022년 하반기
70	박물관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	1	2023년 이후
71	박물관	고성탈박물관	1	2023년 이후
72	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	2023년 이후
73	박물관	김시습기념관	1	2022년 상반기
74	박물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1	2023년 이후
75	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	1	2023년 이후
76	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	직원 결원 시
77	박물관	독도박물관	2	2022년 상반기
78	박물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3	2023년 이후
79	박물관	명성황후기념관	1	직원 결원 시
80	박물관	백호문학관	1	2023년 이후
81	박물관	부천벌벽기념관	1	직원 결원 시
82	박물관	삼성현역사문화관	2	2022년 상반기
83	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	직원 결원 시
84	박물관	서울약령시한의학박물관	2	2023년 이후
85	박물관	소래역사관	1	2022년 상반기
86	박물관	손기정기념관	2	2022년 하반기
87	박물관	순천시기독교역사박물관	1	2023년 이후
88	박물관	시문학파기념관	2	직원 결원 시
89	박물관	안산향토사박물관	1	직원 결원 시
90	박물관	양구근현대사박물관	2	2022년 상반기
91	박물관	양구선사박물관	1	2023년 이후
92	박물관	양주시립화암사지박물관	2	직원 결원 시
93	박물관	어진박물관	1	2022년 상반기
94	박물관	여초서예관	1	2023년 이후
95	박물관	옥천향토전시관	1	2023년 이후
96	박물관	의성조문국박물관	2	2022년 상반기
97	박물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1	2023년 이후
98	박물관	정선향토박물관	2	2021년 하반기
99	박물관	제주4·3평화기념관	1	2023년 이후
100	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1	2022년 상반기
101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1	2023년 이후
102	박물관	증도갯벌생태전시관	1	2023년 이후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103	박물관	진주창동기문화박물관	1	2022년 상반기
104	박물관	짜장면박물관	1	2022년 상반기
105	박물관	청양군백제문화체험박물관	1	2023년 이후
106	박물관	판교박물관	1	2023년 이후
107	박물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1	2022년 상반기
108	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1	2022년 상반기
109	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2	2022년 상반기
110	박물관	한국차박물관	2	2022년 상반기
111	박물관	홍천향토사료관	1	2022년 상반기
112	박물관	황순원문학촌 소내기마을	2	2022년 하반기
113	미술관	경기도미술관	3	2022년 상반기
114	미술관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1	2022년 하반기
115	미술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1	2022년 상반기
116	미술관	오산시립미술관	1	직원 결원 시
117	미술관	이강하 미술관	1	2022년 하반기
118	미술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1	2023년 이후
119	미술관	전라북도립미술관	1	2022년 상반기
120	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1	2022년 상반기
121	미술관	최북미술관	1	직원 결원 시
122	문예회관	GS칼텍스 예술마루	1	2023년 이후
123	문예회관	구미문화예술회관	1	2023년 이후
124	문예회관	동래문화회관	1	직원 결원 시
125	문예회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1	2023년 이후
126	문예회관	삼국유사문화회관	1	직원 결원 시
127	문예회관	서귀포예술의전당	1	2022년 하반기
128	문예회관	아리랑센터	1	2023년 이후
129	문예회관	익산예술의전당	1	2022년 하반기
130	문예회관	인제하늘내린센터	1	2022년 상반기
131	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1	미정
132	문예회관	해남문화예술회관	2	2022년 상반기
133	문예회관	홍천문화예술회관	2	2023년 이후
134	문화의집	단양문화의집	1	2023년 이후
135	문화의집	영암삼호문화의집	1	2022년 하반기
136	문화의집	이서문화의집	1	2022년 상반기
137	문화의집	인천북구문화의집	1	미정
138	문화의집	제천문화의집	1	직원 결원 시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139	문화의집	증평문화의집	1	2023년 이후
140	문화의집	진천문화의집	1	2022년 상반기
141	문화의집	풍기문화의집	2	직원 결원 시
142	문화의집	홍덕문화의집	1	2022년 하반기
143	전수회관	거창전수교육관	1	2022년 상반기
144	전수회관	고성군각자전수교육관	1	2023년 이후
145	전수회관	구덕민속예술관	1	2022년 상반기
146	전수회관	김천금릉빛내농악전수관	1	직원 결원 시
147	전수회관	둔전평농악전수회관	1	2022년 하반기
148	전수회관	안동차전놀이전수교육관	1	2022년 상반기
149	전수회관	평택농악전수교육관	1	2023년 이후
150	전수회관	한산모시짜기전수교육관	1	2022년 상반기
151	전수회관	한자락 매듭전수관	1	2022년 상반기
15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세종시문화재단	1	2022년 상반기
153	기타	기타 기관	1	미정
합 계 (153개 의무배치기관)			합계 178명, 평균 1.2명	

## 2. 문화예술 관련 기관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1	생활문화센터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1	2022년 하반기
2	생활문화센터	달서 생활문화센터 송현점	1	직원 결원 시
3	생활문화센터	달서 생활문화센터 장기점	1	직원 결원 시
4	생활문화센터	동면 생활문화센터	1	2022년 하반기
5	생활문화센터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1	2022년 하반기
6	생활문화센터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5	2022년 하반기
7	생활문화센터	상주 생활문화센터	1	2023년 이후
8	생활문화센터	성호 생활문화센터	1	2022년 하반기
9	생활문화센터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1	2022년 상반기
10	생활문화센터	중앙 생활문화센터	1	2022년 하반기
11	생활문화센터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1	2023년 이후
12	생활문화센터	함장 생활문화센터	2	2022년 하반기
13	생활문화센터	화강 생활문화센터	1	2023년 이후
14	생활문화센터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3	2022년 하반기
15	지방문화원	강북문화원	1	2023년 이후
16	지방문화원	강원고성문화원	1	2023년 이후
17	지방문화원	거제문화원	1	2022년 하반기
18	지방문화원	경주문화원	2	2022년 상반기
19	지방문화원	김포문화원	1	2023년 이후
20	지방문화원	동두천문화원	1	2023년 이후
21	지방문화원	동해문화원	1	2023년 이후
22	지방문화원	문경문화원	1	2023년 이후
23	지방문화원	밀양문화원	1	2022년 상반기
24	지방문화원	산청문화원	1	2022년 상반기
25	지방문화원	서구문화원	2	직원 결원 시
26	지방문화원	시흥문화원	1	직원 결원 시
27	지방문화원	안동문화원	1	2022년 상반기
28	지방문화원	영도문화원	1	2022년 상반기
29	지방문화원	완도문화원	3	2023년 이후
30	지방문화원	완주문화원	1	2022년 하반기
31	지방문화원	임실문화원	1	2022년 하반기
32	지방문화원	정읍문화원	1	2022년 상반기
33	지방문화원	종로문화원	1	직원 결원 시
34	지방문화원	청양문화원	1	2022년 하반기
35	지방문화원	청주문화원	1	2022년 하반기



연번	구 분	기 관 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인원(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시점
36	지방문화원	칠곡문화원	1	2022년 하반기
37	지방문화원	태안문화원	1	2023년 이후
38	지방문화원	화성문화원	1	2023년 이후
39	미디어센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1	2023년 이후
40	평생교육기관	강서구평생학습관	1	2022년 하반기
41	평생교육기관	거제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42	평생교육기관	고성도서관	1	2022년 상반기
43	평생교육기관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	1	2022년 하반기
44	평생교육기관	광주시청	1	2022년 하반기
45	평생교육기관	남동구청	1	2023년 이후
46	평생교육기관	남원시청	1	2023년 이후
47	평생교육기관	남해군청	1	2022년 하반기
48	평생교육기관	삼척시평생학습관(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2023년 이후
49	평생교육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2	2022년 하반기
50	평생교육기관	수영구청	2	2022년 상반기
51	평생교육기관	수원제일평생학교	1	2022년 상반기
52	평생교육기관	신안군청	1	2023년 이후
53	평생교육기관	심곡종합사회복지관	1	2022년 하반기
54	평생교육기관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1	2023년 이후
55	평생교육기관	여주시청	2	2022년 하반기
56	평생교육기관	오산시중앙도서관평생학습관	1	직원 결원 시
57	평생교육기관	옥천군평생학습원	1	직원 결원 시
58	평생교육기관	완도군청	2	직원 결원 시
59	평생교육기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2	2023년 이후
60	평생교육기관	이천시청	1	2023년 이후
61	평생교육기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1	2022년 상반기
62	평생교육기관	증평도서관	1	2023년 이후
63	평생교육기관	청도군청	1	2022년 상반기
64	평생교육기관	하동도서관	1	직원 결원 시
65	기타	기타 기관	1	예산 확정 시
66	기타	기타 기관	1	2022년 상반기
67	기타	기타 기관	1	2023년 이후
68	기타	기타 기관	1	2022년 하반기
69	기타	기타 기관	1	2022년 하반기
70	기타	기타 기관	2	직원 결원 시
71	기타	기타 기관	1	직원 결원 시
합 계 (71개 문화예술 관련 기관)			합계 88명, 평균 1.2명	

## 부록 5.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조사

###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조사\_자격소지자

#### 가.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희망여부

자격소지자 중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강사’(81.7%), ‘국가무형문화재’(75.7%), ‘고졸/비전공자’(73.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격취득 기간이 오래될수록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96]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희망여부

		사례수 (명)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205)	(3,907)	63.0	(2,298)	37.0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63)	(46)	73.0	(17)	27.0
	예술강사	(922)	(753)	81.7	(169)	18.3
	예술전공자	(4,846)	(2,825)	58.3	(2,021)	41.7
	국가무형문화재	(374)	(283)	75.7	(91)	24.3
성별	남성	(1,189)	(721)	60.6	(468)	39.4
	여성	(5,016)	(3,186)	63.5	(1,830)	36.5
연령별	20대	(2,698)	(1,441)	53.4	(1,257)	46.6
	30대	(1,363)	(954)	70.0	(409)	30.0
	40대	(1,104)	(834)	75.5	(270)	24.5
	50대	(744)	(506)	68.0	(238)	32.0
	60대 이상	(296)	(172)	58.1	(124)	41.9
거주지별	수도권	(3,308)	(1,964)	59.4	(1,344)	40.6
	부산/경남권	(827)	(566)	68.4	(261)	31.6
	대구/경북권	(557)	(342)	61.4	(215)	38.6
	대전/충청권	(610)	(411)	67.4	(199)	32.6
	광주/전라권	(722)	(500)	69.3	(222)	30.7
	강원, 제주	(181)	(124)	68.5	(57)	31.5
자격 취득기간	1년 미만	(1,350)	(803)	59.5	(547)	40.5
	1~2년	(2,127)	(1,177)	55.3	(950)	44.7
	3~4년	(982)	(618)	62.9	(364)	37.1
	5~6년	(765)	(557)	72.8	(208)	27.2
	7년 이상	(981)	(752)	76.7	(229)	23.3

※ base : 전체(n=6,20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나. 자격취득 희망 동기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동기로 ‘지금보다 활동 영역을 넓히거나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56.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54.3%), ‘지금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51.5%), ‘상급 자격취득을 통한 개인적 성장과 성취를 위해서’(39.1%),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에 유리할 것 같아서’(34.6%)가 뒤를 이었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예술전공자는 ‘지금보다 활동 영역을 넓히거나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58.1%), 고졸/비전공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56.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격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자격소지자는 ‘지금보다 활동 영역을 넓히거나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년 이상인 자격취득자는 ‘상급 자격취득을 통한 개인적 성장과 성취를 위해서’,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에 유리할 것 같아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7] [자격소지자] 자격취득 희망 동기

		사례 수 (명)	지금보다 활동 영역을 넓히거나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상급 자격취득을 통한 개인적 성장과 성취를 위해서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에 유리할 것 같아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907)	(2,188)	56.0	(2,121)	54.3	(2,013)	51.5	(1,529)	39.1	(1,351)	34.6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46)	(20)	43.5	(26)	<u>56.5</u>	(16)	34.8	(19)	<u>41.3</u>	(11)	23.9
	예술강사	(753)	(398)	52.9	(407)	54.1	(382)	50.7	(309)	<u>41.0</u>	(288)	<u>38.2</u>
	예술전공자	(2,825)	(1,640)	<u>58.1</u>	(1,545)	54.7	(1,514)	<u>53.6</u>	(1,084)	38.4	(954)	33.8
	국가무형문화재	(283)	(130)	45.9	(143)	50.5	(101)	35.7	(117)	<u>41.3</u>	(98)	34.6
성별	남성	(721)	(379)	52.6	(372)	51.6	(346)	48.0	(290)	40.2	(250)	34.7
	여성	(3,186)	(1,809)	56.8	(1,749)	54.9	(1,667)	52.3	(1,239)	38.9	(1,101)	34.6
연령별	20대	(1,441)	(863)	<u>59.9</u>	(802)	<u>55.7</u>	(825)	<u>57.3</u>	(531)	36.8	(482)	33.4
	30대	(954)	(560)	<u>58.7</u>	(493)	51.7	(539)	<u>56.5</u>	(387)	<u>40.6</u>	(341)	35.7
	40대	(834)	(423)	50.7	(455)	54.6	(400)	48.0	(318)	38.1	(308)	<u>36.9</u>
	50대	(506)	(260)	51.4	(279)	55.1	(193)	38.1	(217)	<u>42.9</u>	(162)	32.0
	60대 이상	(172)	(82)	47.7	(92)	53.5	(56)	32.6	(76)	<u>44.2</u>	(58)	33.7
거주지 별	수도권	(1,964)	(1,158)	<u>59.0</u>	(1,073)	54.6	(1,048)	<u>53.4</u>	(763)	38.8	(718)	<u>36.6</u>
	부산/경남권	(566)	(295)	52.1	(306)	54.1	(290)	51.2	(231)	<u>40.8</u>	(189)	33.4
	대구/경북권	(342)	(185)	54.1	(184)	53.8	(182)	<u>53.2</u>	(149)	<u>43.6</u>	(121)	35.4
	대전/충청권	(411)	(222)	54.0	(224)	54.5	(215)	52.3	(148)	36.0	(128)	31.1
	광주/전라권	(500)	(261)	52.2	(267)	53.4	(219)	43.8	(194)	38.8	(154)	30.8
	강원, 제주	(124)	(67)	54.0	(67)	54.0	(59)	47.6	(44)	35.5	(41)	33.1
자격 취득 기간	1년 미만	(803)	(481)	<u>59.9</u>	(461)	<u>57.4</u>	(450)	<u>56.0</u>	(319)	39.7	(246)	30.6
	1~2년	(1,177)	(677)	<u>57.5</u>	(637)	54.1	(624)	<u>53.0</u>	(440)	37.4	(394)	33.5
	3~4년	(618)	(324)	52.4	(333)	53.9	(302)	48.9	(251)	<u>40.6</u>	(235)	<u>38.0</u>
	5~6년	(557)	(317)	56.9	(282)	50.6	(264)	47.4	(206)	37.0	(209)	<u>37.5</u>
	7년 이상	(752)	(389)	51.7	(408)	54.3	(373)	49.6	(313)	<u>41.6</u>	(267)	35.5

※ base : 1급 자격취득 희망자(n=3,907), 복수응답, 기타 0.6%, 모름/무응답 0.1%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다.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및 시간 지불 의사

응답자의 86.5%(3,378명)는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소정의 비용과 시간적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 중 자격취득에 대한 비용 및 시간에 대해 ‘알고 있으나, 비용과 시간적 노력 소요에 대해 부담이 된다’가 전체 비율의 45.2%를 차지했으며, ‘알고 있으며, 취득을 위해 기꺼이 부담할 것이다’는 전체 비율의 41.3%를 차지했다. 반면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3.5%로 나타났다.

자격요건별로 살펴보면, 고졸/비전공자는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및 시간 지불에 대해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예술강사는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298]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및 시간 지불 의사

		사례수 (명)	알고 있으나, 비용과 시간적 노력 소요에 대해 부담이 된다		알고 있으며, 취득을 위해 기꺼이 부담할 것이다		모른다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907)	(1,766)	45.2	(1,612)	41.3	(529)	13.5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46)	(19)	41.3	(23)	<u>50.0</u>	(4)	8.7
	예술강사	(753)	(380)	<u>50.5</u>	(276)	36.7	(97)	12.9
	예술전공자	(2,825)	(1,249)	44.2	(1,199)	42.4	(377)	13.3
	국가무형문화재	(283)	(118)	41.7	(114)	40.3	(51)	<u>18.0</u>
성별	남성	(721)	(293)	40.6	(316)	<u>43.8</u>	(112)	<u>15.5</u>
	여성	(3,186)	(1,473)	46.2	(1,296)	40.7	(417)	13.1
연령별	20대	(1,441)	(616)	42.7	(600)	41.6	(225)	<u>15.6</u>
	30대	(954)	(438)	45.9	(401)	42.0	(115)	12.1
	40대	(834)	(391)	<u>46.9</u>	(351)	42.1	(92)	11.0
	50대	(506)	(244)	<u>48.2</u>	(196)	38.7	(66)	13.0
	60대 이상	(172)	(77)	44.8	(64)	37.2	(31)	<u>18.0</u>
거주지별	수도권	(1,964)	(902)	45.9	(775)	39.5	(287)	14.6
	부산/경남권	(566)	(236)	41.7	(247)	<u>43.6</u>	(83)	14.7
	대구/경북권	(342)	(136)	39.8	(163)	<u>47.7</u>	(43)	12.6
	대전/충청권	(411)	(185)	45.0	(180)	<u>43.8</u>	(46)	11.2
	광주/전라권	(500)	(251)	<u>50.2</u>	(196)	39.2	(53)	10.6
	강원, 제주	(124)	(56)	45.2	(51)	41.1	(17)	13.7
자격 취득기간	1년 미만	(803)	(336)	41.8	(339)	42.2	(128)	<u>15.9</u>
	1~2년	(1,177)	(496)	42.1	(527)	<u>44.8</u>	(154)	13.1
	3~4년	(618)	(290)	<u>46.9</u>	(249)	40.3	(79)	12.8
	5~6년	(557)	(253)	45.4	(235)	42.2	(69)	12.4
	7년 이상	(752)	(391)	<u>52.0</u>	(262)	34.8	(99)	13.2

※ base : 1급 자격취득 희망자(n=3,907)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라.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급 문화예술사 자격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더 높은 등급의 자격취득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31.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1급 취득으로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7.3%), ‘1급 소지자와 2급 소지자 간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18.8%)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자격소지자는 ‘더 높은 등급의 자격취득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3년 이상인 자격소지자는 ‘1급 취득으로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9]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사례수 (명)	더 높은 등급의 자격취득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		1급 취득으로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급 소지자와 2급 소지자 간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1급 취득이 실제 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급 취득이 문화예술교육사 로서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298)	(717)	31.2	(627)	27.3	(433)	18.8	(318)	13.8	(139)	6.0
자격 요건 별	고졸/비전공자	(17)	(2)	11.8	(8)	47.1	(1)	5.9	(3)	17.6	(2)	11.8
	예술강사	(169)	(25)	14.8	(61)	36.1	(44)	26.0	(23)	13.6	(14)	8.3
	예술전공자	(2,021)	(661)	32.7	(537)	26.6	(368)	18.2	(282)	14.0	(115)	5.7
	국가무형문화재	(91)	(29)	31.9	(21)	23.1	(20)	22.0	(10)	11.0	(8)	8.8
성별	남성	(468)	(158)	33.8	(116)	24.8	(85)	18.2	(65)	13.9	(34)	7.3
	여성	(1,830)	(559)	30.5	(511)	27.9	(348)	19.0	(253)	13.8	(105)	5.7
연령 별	20대	(1,257)	(471)	37.5	(280)	22.3	(245)	19.5	(171)	13.6	(63)	5.0
	30대	(409)	(102)	24.9	(123)	30.1	(85)	20.8	(61)	14.9	(31)	7.6
	40대	(270)	(47)	17.4	(105)	38.9	(54)	20.0	(39)	14.4	(19)	7.0
	50대	(238)	(54)	22.7	(81)	34.0	(33)	13.9	(32)	13.4	(23)	9.7
	60대 이상	(124)	(43)	34.7	(38)	30.6	(16)	12.9	(15)	12.1	(3)	2.4
거주 지별	수도권	(1,344)	(437)	32.5	(363)	27.0	(255)	19.0	(174)	12.9	(84)	6.3
	부산/경남권	(261)	(87)	33.3	(64)	24.5	(42)	16.1	(38)	14.6	(14)	5.4
	대구/경북권	(215)	(64)	29.8	(61)	28.4	(44)	20.5	(29)	13.5	(11)	5.1
	대전/충청권	(199)	(62)	31.2	(48)	24.1	(44)	22.1	(30)	15.1	(10)	5.0
	광주/전라권	(222)	(55)	24.8	(67)	30.2	(36)	16.2	(41)	18.5	(17)	7.7
	강원, 제주	(57)	(12)	21.1	(24)	42.1	(12)	21.1	(6)	10.5	(3)	5.3
자격 취득 기간	1년 미만	(547)	(206)	37.7	(127)	23.2	(110)	20.1	(57)	10.4	(26)	4.8
	1~2년	(950)	(344)	36.2	(212)	22.3	(171)	18.0	(142)	14.9	(58)	6.1
	3~4년	(364)	(88)	24.2	(122)	33.5	(67)	18.4	(50)	13.7	(28)	7.7
	5~6년	(208)	(42)	20.2	(87)	41.8	(31)	14.9	(31)	14.9	(10)	4.8
	7년 이상	(229)	(37)	16.2	(79)	34.5	(54)	23.6	(38)	16.6	(17)	7.4

※ base : 1급 자격취득 비희망자(n=2,298), 기타 2.5%, 모름/무응답 0.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마.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시 희망 직무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시 희망하는 직무로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61.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53.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6.1%)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을, 낮을수록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00]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시 희망 직무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3,907)	61.6	53.2	46.1	36.0	35.6	33.5	27.8	27.3	23.9	20.7	18.7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46)	37.0	50.0	43.5	58.7	39.1	39.1	23.9	30.4	23.9	26.1	19.6
	예술강사	(753)	74.5	50.3	45.9	37.2	35.1	28.7	23.4	31.6	30.7	21.8	17.9
	예술전공자	(2,825)	58.2	55.6	47.4	36.1	35.0	35.1	30.3	25.8	22.7	20.9	19.2
	국가무형문화재	(283)	65.0	36.7	33.9	28.6	41.7	30.0	15.9	29.7	17.7	14.1	15.2
성별	남성	(721)	59.9	49.7	43.6	35.5	42.2	37.9	24.4	27.3	21.6	17.8	18.7
	여성	(3,186)	62.0	54.0	46.6	36.2	34.1	32.5	28.6	27.3	24.4	21.3	18.7
연령별	20대	(1,441)	59.5	55.7	45.2	31.6	37.3	30.6	32.0	22.1	19.3	18.5	19.4
	30대	(954)	59.4	54.7	48.4	39.1	31.2	35.7	28.8	26.6	27.5	24.6	18.6
	40대	(834)	62.5	53.8	47.5	42.0	31.8	35.7	25.4	31.7	28.9	22.3	17.9
	50대	(506)	65.6	49.4	45.7	38.1	41.9	35.0	23.1	34.2	25.1	19.2	18.0
	60대 이상	(172)	74.4	32.0	34.9	20.9	44.8	30.8	12.8	33.1	14.5	12.8	19.8
거주지 별	수도권	(1,964)	63.2	53.8	46.6	36.3	36.9	33.2	27.1	25.1	24.2	21.5	19.0
	부산/경남권	(566)	61.1	53.5	46.6	37.5	34.8	33.0	29.9	30.0	23.0	18.2	15.9
	대구/경북권	(342)	58.8	54.1	47.1	36.0	38.0	38.0	31.3	27.8	19.9	22.8	19.9
	대전/충청권	(411)	60.8	51.8	43.1	33.6	36.3	34.1	28.0	29.9	27.3	20.4	19.5
	광주/전라권	(500)	59.6	49.0	44.6	35.4	29.6	30.6	26.0	28.2	23.4	18.4	18.2
	강원, 제주	(124)	55.6	60.5	48.4	37.1	33.1	38.7	27.4	36.3	24.2	21.8	21.8
자격 취득 기간	1년 미만	(803)	61.3	55.9	48.3	35.7	38.2	32.1	29.9	25.5	22.5	19.4	20.2
	1~2년	(1,177)	57.0	52.4	44.2	33.6	36.3	34.8	29.5	25.0	19.9	19.3	18.2
	3~4년	(618)	59.2	53.7	48.7	35.9	32.0	35.9	29.3	28.0	25.6	23.8	19.4
	5~6년	(557)	63.2	55.8	45.8	39.7	33.8	32.5	24.2	28.4	26.2	20.5	16.9
	7년 이상	(752)	69.8	49.1	44.7	37.5	35.8	31.8	24.5	31.4	28.5	21.7	18.6
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②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⑤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⑥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⑦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⑨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⑩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⑪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base : 1급 자격취득 희망자(n=3,907), 복수응답, 기타 0.3%, 모름 0.3%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기

## 바. 2급 역량 대비,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일반적 역량 수준을 고려할 때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49.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41.3%),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40.6%)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취득 기간이 최근일수록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자격취득 기간이 오래될수록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01] [자격소지자] 2급 역량 대비,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 적합한 직무

		사례수 (명)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전 체		(6,205)	49.9	41.3	40.6	36.4	32.8	32.4	30.1	26.1	20.0	19.3	18.6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63)	47.6	52.4	28.6	38.1	38.1	36.5	30.2	36.5	22.2	20.6	20.6
	예술강사	(922)	58.7	48.4	49.1	35.7	42.6	38.8	33.5	32.0	22.3	23.0	22.3
	예술전공자	(4,846)	48.5	40.3	38.5	37.0	30.9	31.6	29.9	24.7	19.8	18.6	16.8
	국가무형문화재	(374)	47.9	34.8	49.2	29.7	31.6	26.5	24.1	28.1	16.8	19.3	32.6
성별	남성	(1,189)	48.3	37.4	44.0	34.1	33.1	29.7	24.4	22.5	19.3	18.4	23.1
	여성	(5,016)	50.3	42.2	39.8	36.9	32.7	33.0	31.4	27.0	20.2	19.5	17.5
연령별	20대	(2,698)	46.7	34.1	41.5	33.7	30.9	29.0	27.4	22.1	19.8	18.2	16.9
	30대	(1,363)	52.5	43.1	38.2	40.4	32.7	35.4	33.6	25.2	19.4	18.9	15.9
	40대	(1,104)	53.3	51.8	35.0	40.7	33.5	37.9	36.0	32.6	20.9	20.9	17.2
	50대	(744)	54.3	49.9	45.6	34.7	38.3	34.0	28.2	32.4	21.2	21.6	26.9
	60대 이상	(296)	44.6	37.5	52.0	31.4	33.1	24.7	21.3	27.0	18.9	19.3	30.7
거주지 별	수도권	(3,308)	49.0	40.2	41.1	36.3	31.6	32.7	30.4	25.5	19.7	18.6	18.0
	부산/경남권	(827)	52.1	43.3	40.3	36.5	35.1	31.7	29.7	28.3	21.2	20.0	20.2
	대구/경북권	(557)	52.6	41.7	38.1	37.0	32.1	30.9	29.1	26.8	20.6	21.4	19.7
	대전/충청권	(610)	52.0	43.0	42.0	37.0	32.0	34.9	33.6	26.4	20.7	20.7	21.3
	광주/전라권	(722)	47.9	41.0	40.7	35.0	35.6	29.6	25.6	25.3	20.4	19.0	16.5
자격 취득 기간	강원, 제주	(181)	50.3	46.4	34.8	39.2	37.6	35.9	35.9	27.1	16.0	19.9	17.1
	1년 미만	(1,350)	49.3	41.3	39.6	36.3	30.9	32.4	31.7	25.3	18.4	17.9	18.2
	1~2년	(2,127)	45.9	36.1	40.4	35.4	29.6	30.1	27.7	21.7	19.1	18.3	16.9
	3~4년	(982)	47.6	42.1	36.2	36.0	33.2	31.5	28.8	28.0	20.6	20.1	17.9
	5~6년	(765)	60.1	47.1	41.3	36.9	37.3	32.7	30.3	28.8	20.1	20.8	19.6
	7년 이상	(981)	53.9	47.2	46.3	38.7	38.2	38.0	34.1	32.7	23.5	21.3	22.7
①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②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③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④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⑥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⑦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⑨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⑩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⑪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base : 전체(n=6,205), 복수응답, 기타 0.1%, 없음 0.1%, 모름 0.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사.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56.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47.5%),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45.9%) 등이 뒤를 이었다.

[표 302]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 적합한 직무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6,205)	56.6	47.5	45.9	43.3	38.8	37.2	34.8	31.2	26.2	24.9	21.8
자격 요건별	고졸/비전공자	(63)	52.4	55.6	28.6	36.5	34.9	46.0	33.3	30.2	28.6	25.4	20.6
	예술강사	(922)	65.4	55.2	59.2	43.0	51.7	44.0	41.6	36.3	30.7	30.3	25.4
	예술전공자	(4,846)	55.4	46.2	42.9	44.2	36.5	36.4	33.9	29.9	25.6	23.8	20.2
	국가무형문화재	(374)	50.5	43.3	54.8	34.0	37.4	29.9	29.9	35.6	21.7	25.1	34.2
성별	남성	(1,189)	54.0	42.3	47.1	40.7	37.7	33.8	28.8	27.0	23.5	22.7	24.3
	여성	(5,016)	57.2	48.7	45.6	44.0	39.1	38.0	36.2	32.2	26.8	25.4	21.2
연령별	20대	(2,698)	53.8	39.4	46.0	40.3	36.2	33.8	31.5	27.2	25.3	22.3	20.3
	30대	(1,363)	59.5	51.5	43.3	48.1	39.1	39.6	37.4	29.3	27.0	25.5	18.9
	40대	(1,104)	59.9	58.7	42.9	46.7	41.4	44.7	41.2	37.3	29.3	28.7	21.6
	50대	(744)	61.7	55.6	51.1	43.8	45.3	37.6	36.4	39.8	26.5	27.4	29.4
	60대 이상	(296)	43.6	40.2	54.7	35.5	34.5	28.0	25.0	31.8	17.9	24.3	30.4
거주지 별	수도권	(3,308)	56.0	47.5	46.6	44.0	38.5	37.2	34.8	30.1	25.7	24.5	21.4
	부산/경남권	(827)	58.3	49.2	44.9	43.9	40.5	37.4	35.1	33.0	26.6	24.8	22.5
	대구/경북권	(557)	59.1	45.1	43.3	42.9	37.5	36.6	34.3	34.5	26.6	28.5	22.4
	대전/충청권	(610)	59.5	47.0	48.5	43.0	37.9	37.7	36.2	31.3	28.9	25.6	24.4
	광주/전라권	(722)	52.1	46.7	45.0	40.0	40.0	36.1	32.7	30.6	25.9	23.0	20.8
	강원, 제주	(181)	60.2	50.3	39.8	44.8	38.7	40.3	39.2	33.7	24.3	26.0	20.4
자격 취득 기간	1년 미만	(1,350)	56.8	47.6	43.4	44.3	36.1	36.0	35.9	31.0	25.4	23.6	22.4
	1~2년	(2,127)	52.5	40.7	45.3	41.8	35.9	33.2	30.6	26.6	24.4	22.7	19.9
	3~4년	(982)	53.9	48.8	40.6	43.4	38.2	39.4	34.4	32.1	25.8	25.4	20.2
	5~6년	(765)	66.3	54.5	47.3	44.7	44.2	40.0	36.9	35.6	27.1	28.8	23.3
	7년 이상	(981)	60.3	55.1	54.6	44.1	45.3	43.2	41.2	37.0	30.9	27.9	25.8
①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②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③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④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⑥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⑦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⑧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⑨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⑩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⑪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base : 전체(n=6,205), 복수응답, 기타 0.8%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아.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보유해야 할 역량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해야 할 적정한 직무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역량은 ‘실무 경험 및 경력’이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전문성/전문적 지식’(11.1%),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8.8%), ‘사업기획/교육체계 수립/전략 수립’(8.3%)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303] [자격소지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보유해야 할 역량

	사례수(명)	%
실무 경험 및 경력	(939)	15.1
전문성/전문적 지식	(690)	11.1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543)	8.8
사업기획/교육체계 수립/전략 수립	(513)	8.3
강의능력/강사로서의 자질/교육역량	(392)	6.3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308)	5.0
경영/총괄 능력	(273)	4.4
창의성	(194)	3.1
행정업무	(171)	2.8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	(170)	2.7
리더십	(165)	2.7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151)	2.4
프로그램 운영	(144)	2.3
분석 및 평가	(140)	2.3
인성	(139)	2.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치관	(124)	2.0

※ base : 전체(n=6,205), 복수응답

※ 응답률 2.0% 이상만 제시, 없음 12.4%, 모름/무응답 12.8%

## 2.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조사\_의무배치기관

### 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의무배치기관은 355곳(30.4%)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박물관’(35.7%), ‘미술관’(48.9%), ‘문화의집’(36.4%), ‘전수회관’(50.0%)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04] [의무배치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사례수 (명)	계획 있다		계획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169)	(355)	30.4	(814)	69.6
기관 유형	도서관	(558)	(133)	23.8	(425)	76.2
	박물관	(269)	(96)	35.7	(173)	64.3
	미술관	(45)	(22)	48.9	(23)	51.1
	문예회관	(142)	(32)	22.5	(110)	77.5
	문화의집	(55)	(20)	36.4	(35)	63.6
	전수회관	(82)	(41)	50.0	(41)	50.0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14)	(8)	57.1	(6)	42.9
	기 타	(4)	(3)	75.0	(1)	25.0

※ base : 전체(n=1,169)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나. 확대 운영 시, 기관에서 강화되어야 할 업무 영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강화되어야 할 업무 영역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65.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8.9%),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30.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27.0%)이 높게 나타났다.

[표 305] [의무배치기관] 확대 운영 시, 기관에서 강화되어야 할 업무 영역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355)	65.9	38.9	30.4	27.0	15.2	14.9	14.4	8.2	7.9	7.9	7.3
기관 유형	도서관	(133)	60.2	33.1	27.1	24.1	14.3	8.3	12.8	7.5	4.5	8.3	5.3
	박물관	(96)	72.9	34.4	28.1	34.4	11.5	12.5	12.5	4.2	7.3	5.2	5.2
	미술관	(22)	72.7	54.5	45.5	45.5	27.3	9.1	9.1	13.6	13.6	9.1	9.1
	문예회관	(32)	75.0	37.5	34.4	15.6	12.5	25.0	21.9	9.4	12.5	15.6	12.5
	문화의집	(20)	55.0	60.0	20.0	10.0	20.0	35.0	25.0	15.0	15.0	5.0	5.0
	전수회관	(41)	68.3	53.7	34.1	31.7	22.0	22.0	12.2	12.2	9.8	9.8	17.1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8)	37.5	12.5	50.0	12.5	0.0	25.0	0.0	0.0	0.0	0.0	0.0
	기 타	(3)	66.7	66.7	66.7	0.0	33.3	66.7	100.0	33.3	33.3	0.0	0.0
①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④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⑤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⑥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⑧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⑨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⑩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⑪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있는 기관(n=355), 복수응답, 기타 0.6%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다. 확대 운영 시, 1급 문화예술교육사 필요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이 있는 의무배치기관의 60.0%는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수회관’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도서관’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06] [의무배치기관] 확대 운영 시, 1급 문화예술교육사 필요성

		사례수 (명)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355)	(142)	40.0	(213)	60.0
기관 유형	도서관	(133)	(46)	34.6	(87)	65.4
	박물관	(96)	(37)	38.5	(59)	61.5
	미술관	(22)	(12)	54.5	(10)	45.5
	문예회관	(32)	(12)	37.5	(20)	62.5
	문화의집	(20)	(7)	35.0	(13)	65.0
	전수회관	(41)	(25)	61.0	(16)	39.0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8)	(2)	25.0	(6)	75.0
	기 타	(3)	(1)	33.3	(2)	66.7

※ bas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있는 기관(n=35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라.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6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3.0%),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34.5%),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32.4%) 등의 순이었다.

[표 307] [의무배치기관]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142)	68.3	43.0	34.5	32.4	17.6	17.6	14.8	14.1	13.4	11.3	8.5
기관 유형	도서관	(46)	65.2	41.3	26.1	30.4	6.5	13.0	13.0	6.5	10.9	6.5	10.9
	박물관	(37)	73.0	35.1	51.4	32.4	13.5	24.3	8.1	8.1	10.8	8.1	5.4
	미술관	(12)	75.0	58.3	58.3	33.3	41.7	25.0	25.0	41.7	16.7	16.7	8.3
	문예회관	(12)	75.0	50.0	8.3	41.7	25.0	16.7	16.7	33.3	16.7	33.3	8.3
	문화의집	(7)	71.4	42.9	28.6	14.3	42.9	14.3	14.3	14.3	0.0	14.3	0.0
	전수회관	(25)	68.0	52.0	32.0	32.0	20.0	12.0	24.0	12.0	24.0	12.0	12.0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	0.0	0.0	0.0	50.0	0.0	0.0	0.0	50.0	0.0	0.0	0.0
	기 타	(1)	0.0	0.0	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①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⑥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⑦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⑧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⑨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⑩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⑪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base :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1급 자격소지자 필요 기관(n=142), 복수응답, 기타 0.7%는 표에서 제외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마.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필요성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1급 자격소지자가 필요하다는 기관 중, 126곳(88.7%)이 기관에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박물관’은 배치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은 배치할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8] [의무배치기관]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필요성

		사례수 (명)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42)	(126)	88.7	(16)	11.3
기관 유형	도서관	(46)	(37)	80.4	(9)	19.6
	박물관	(37)	(36)	97.3	(1)	2.7
	미술관	(12)	(11)	91.7	(1)	8.3
	문예회관	(12)	(9)	75.0	(3)	25.0
	문화의집	(7)	(6)	85.7	(1)	14.3
	전수회관	(25)	(24)	96.0	(1)	4.0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2)	(2)	100.0	(0)	0.0
	기 타	(1)	(1)	100.0	(0)	0.0

※ base :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1급 자격소지자 필요 기관(n=142)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바.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이 있는 의무배치기관의 배치 형태를 살펴본 결과, ‘상근’(80.2%), ‘기간제’(57.9%), ‘전일제’(80.2%)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과 ‘박물관’이 상반된 배치 형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9] [의무배치기관]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사례 수 (곳)	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직				전일제/단시간			
			상근		비상근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6)	(101)	80.2	(25)	19.8	(73)	57.9	(53)	42.1	(101)	80.2	(25)	19.8
기관 유형	도서관	(37)	(24)	64.9	(13)	35.1	(27)	73.0	(10)	27.0	(22)	59.5	(15)	40.5
	박물관	(36)	(31)	86.1	(5)	13.9	(19)	52.8	(17)	47.2	(32)	88.9	(4)	11.1
	미술관	(11)	(9)	81.8	(2)	18.2	(7)	63.6	(4)	36.4	(10)	90.9	(1)	9.1
	문예회관	(9)	(9)	100.0	(0)	0.0	(4)	44.4	(5)	55.6	(7)	77.8	(2)	22.2
	문화의집	(6)	(6)	100.0	(0)	0.0	(2)	33.3	(4)	66.7	(6)	100.0	(0)	0.0
	전수회관	(24)	(19)	79.2	(5)	20.8	(13)	54.2	(11)	45.8	(21)	87.5	(3)	12.5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2)	(2)	100.0	(0)	0.0	(1)	50.0	(1)	50.0	(2)	100.0	(0)	0.0
	기타	(1)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 base : 향후 1급 자격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의무배치기관(n=126)

향후 배치 예상 인원 수는 ‘1명’(74.6%)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1.3명으로 나타났다.

[표 310] [의무배치기관]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예상 인원 수

		사례수 (곳)	1명		2명		3명		5명		평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명
전 체		(126)	(94)	74.6	(26)	20.6	(4)	3.2	(2)	1.6	1.3
기관 유형	도서관	(37)	(35)	94.6	(2)	5.4	(0)	0.0	(0)	0.0	1.1
	박물관	(36)	(27)	75.0	(6)	16.7	(1)	2.8	(2)	5.6	1.4
	미술관	(11)	(10)	90.9	(1)	9.1	(0)	0.0	(0)	0.0	1.1
	문예회관	(9)	(6)	66.7	(3)	33.3	(0)	0.0	(0)	0.0	1.3
	문화의집	(6)	(2)	33.3	(4)	66.7	(0)	0.0	(0)	0.0	1.7
	전수회관	(24)	(13)	54.2	(8)	33.3	(3)	12.5	(0)	0.0	1.6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2)	(1)	50.0	(1)	50.0	(0)	0.0	(0)	0.0	1.5
	기타	(1)	(0)	0.0	(1)	100.0	(0)	0.0	(0)	0.0	2.0

※ base : 향후 1급 자격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의무배치기관(n=126)



향후 배치 예상시점으로 ‘직원 결원 시’(25.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11] [의무배치기관]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시점

		사례수 (곳)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이후		직원 결원 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6)	(29)	23.0	(22)	17.5	(20)	15.9	(18)	14.3	(32)	25.4
기관 유형	도서관	(37)	(2)	5.4	(6)	16.2	(9)	24.3	(5)	13.5	(15)	40.5
	박물관	(36)	(10)	27.8	(6)	16.7	(4)	11.1	(8)	22.2	(8)	22.2
	미술관	(11)	(1)	9.1	(2)	18.2	(2)	18.2	(1)	9.1	(4)	36.4
	문예회관	(9)	(3)	33.3	(0)	0.0	(2)	22.2	(2)	22.2	(1)	11.1
	문화의집	(6)	(4)	66.7	(0)	0.0	(0)	0.0	(1)	16.7	(1)	16.7
	전수회관	(24)	(7)	29.2	(8)	33.3	(3)	12.5	(1)	4.2	(3)	12.5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2)	(2)	10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1)	(0)	0.0	(0)	0.0	(0)	0.0	(0)	0.0	(0)	0.0

※ base : 향후 1급 자격소지자 배치 의향이 있는 의무배치기관(n=126), 기타 4.0%은 표에서 제외

### 3.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조사\_문화예술 관련 기관

#### 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은 205곳(34.7%)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문화원’에서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평생교육기관’은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2] [문화예술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사례수 (명)	계획 있다		계획 없다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90)	(205)	34.7	(385)	65.3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89)	(29)	32.6	(60)	67.4
	지방문화원	(123)	(57)	46.3	(66)	53.7
	미디어센터	(29)	(14)	48.3	(15)	51.7
	평생교육기관	(331)	(91)	27.5	(240)	72.5
	기타	(18)	(14)	77.8	(4)	22.2

※ base : 전체(n=59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나. 확대 운영 시, 기관에서 강화되어야 할 업무 영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기관에서 강화되어야 할 업무 영역으로 ‘문예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64.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25.9%),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25.9%) 등이 뒤를 이었다.

[표 313] [문화예술 관련 기관] 확대 운영 시, 기관에서 강화되어야 할 업무 영역

		사례수 (명)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전 체		(205)	64.4	34.6	25.9	25.4	14.1	10.7	10.7	9.8	8.3	7.3	7.3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29)	79.3	31.0	10.3	13.8	13.8	6.9	6.9	6.9	3.4	3.4	6.9
	지방문화원	(57)	64.9	33.3	21.1	19.3	10.5	7.0	3.5	0.0	7.0	1.8	3.5
	미디어센터	(14)	64.3	64.3	28.6	42.9	21.4	21.4	28.6	14.3	21.4	14.3	28.6
	평생교육기관	(91)	60.4	28.6	31.9	24.2	14.3	7.7	8.8	9.9	5.5	6.6	5.5
	기타	(14)	57.1	57.1	35.7	64.3	21.4	42.9	42.9	50.0	28.6	35.7	14.3
①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⑥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⑦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⑧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⑨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⑩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⑪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base :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있는 기관(n=205),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다. 확대 운영 시, 1급 문화예술교육사 필요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이 있는 문화예술관련 기관 중, 70.7%는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문화원’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평생교육기관’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4] [문화예술 관련 기관] 확대 운영 시, 1급 문화예술교육사 필요성

		사례수 (명)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205)	(60)	29.3	(145)	70.7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29)	(12)	41.4	(17)	58.6
	지방문화원	(57)	(23)	40.4	(34)	59.6
	미디어센터	(14)	(1)	7.1	(13)	92.9
	평생교육기관	(91)	(16)	17.6	(75)	82.4
	기타	(14)	(8)	57.1	(6)	42.9

※ base :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계획 있는 기관(n=205)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라.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71.7%)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각각 35.0%),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및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각각 18.3%) 등의 순이었다.

[표 315] [문화예술 관련 기관]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	%	%	%	%	%	%	%	%
전 체		(60)	71.7	35.0	35.0	18.3	18.3	16.7	13.3	10.0	10.0	6.7	6.7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12)	83.3	25.0	25.0	16.7	8.3	16.7	8.3	8.3	8.3	8.3	8.3
	지방문화원	(23)	56.5	39.1	39.1	17.4	21.7	8.7	8.7	4.3	0.0	0.0	4.3
	미디어센터	(1)	100.0	0.0	0.0	10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생교육기관	(16)	81.3	31.3	31.3	18.8	18.8	18.8	12.5	0.0	6.3	6.3	0.0
	기타	(8)	75.0	50.0	50.0	12.5	25.0	25.0	25.0	37.5	37.5	12.5	12.5
①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②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⑤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⑥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⑦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⑧ 문화예술교육 건설팅										
⑨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⑩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⑪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base :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1급 자격소지자 필요 기관(n=60), 복수응답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마.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필요성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1급 자격소지자가 필요하다는 기관 중 56곳(93.3%)이 기관에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316] [문화예술 관련 기관]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필요성

		사례수 (명)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0)	(56)	93.3	(4)	6.7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12)	(12)	100.0	(0)	0.0
	지방문화원	(23)	(22)	95.7	(1)	4.3
	미디어센터	(1)	(1)	100.0	(0)	0.0
	평생교육기관	(16)	(13)	81.3	(3)	18.8
	기타	(8)	(8)	100.0	(0)	0.0

※ base : 프로그램 확대 운영 시, 1급 자격소지자 필요 기관(n=60)

※ 타 분류 대비 비율이 높은 수치에 표시

## 바.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배치 형태를 살펴본 결과, '상근'(73.%) '기간제'(82.1%), '전일제'(71.4%)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7]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형태

		사례 수 (곳)	상근/비상근				기간제/무기계약직				전일제/단시간			
			상근		비상근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일제		단시간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6)	(41)	73.2	(15)	26.8	(46)	82.1	(10)	17.9	(40)	71.4	(16)	28.6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12)	(10)	83.3	(2)	16.7	(10)	83.3	(2)	16.7	(10)	83.3	(2)	16.7
	지방문화원	(22)	(15)	68.2	(7)	31.8	(19)	86.4	(3)	13.6	(15)	68.2	(7)	31.8
	미디어센터	(1)	(1)	100.0	(0)	0.0	(0)	0.0	(1)	100.0	(1)	100.0	(0)	0.0
	평생교육기관	(13)	(10)	76.9	(3)	23.1	(11)	84.6	(2)	15.4	(10)	76.9	(3)	23.1
	기타	(8)	(5)	62.5	(3)	37.5	(6)	75.0	(2)	25.0	(4)	50.0	(4)	50.0

※ base :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있는 기관(n=56)

향후 배치 예상 인원 수는 '1명'(83.9%)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1.3명으로 나타났다.

[표 318]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자격증 소지자 배치 예상 인원 수

		사례 수 (곳)	1명		2명		3명		5명		평균 명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6)	(47)	83.9	(6)	10.7	(1)	1.8	(2)	3.6	1.3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12)	(11)	91.7	(0)	0.0	(0)	0.0	(1)	8.3	1.3
	지방문화원	(22)	(19)	86.4	(3)	13.6	(0)	0.0	(0)	0.0	1.1
	미디어센터	(1)	(1)	100.0	(0)	0.0	(0)	0.0	(0)	0.0	1.0
	평생교육기관	(13)	(10)	76.9	(2)	15.4	(0)	0.0	(1)	7.7	1.5
	기타	(8)	(6)	75.0	(1)	12.5	(1)	12.5	(0)	0.0	1.4

※ base :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있는 기관(n=56)

향후 배치 예상시점으로는 '2022년 하반기'가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19] [문화예술 관련 기관]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시점

		사 례 수 (곳)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이후		직원 결원 시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56)	(15)	26.8	(10)	17.9	(5)	8.9	(13)	23.2	(12)	21.4
기관 유형	생활문화센터	(12)	(8)	66.7	(1)	8.3	(2)	16.7	(1)	8.3	(0)	0.0
	지방문화원	(22)	(5)	22.7	(5)	22.7	(0)	0.0	(7)	31.8	(5)	22.7
	미디어센터	(1)	(0)	0.0	(0)	0.0	(1)	100.0	(0)	0.0	(0)	0.0
	평생교육기관	(13)	(2)	15.4	(3)	23.1	(2)	15.4	(5)	38.5	(1)	7.7
	기타	(8)	(0)	0.0	(1)	12.5	(0)	0.0	(0)	0.0	(6)	75.0

※ base : 향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의향 있는 기관(n=56), 기타 1.8%은 표에서 제외

## 부록 6. 설문지

ID				
----	--	--	--	--

###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자격 소지자)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의 경제 활동 현황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자격취득자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쭙는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준하여 귀하의 응답내용은 그 비밀이 보장되며, 주요 조사 자료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 년 10 월

☐ 수 행 : 글로벌알앤씨(주) 정현혜 연구원(☎ 02-3456-1733) / e-mail : hhjeong@globalri.co.kr

☐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 e-mail : aci@arte.or.kr

#### Part A. 일반사항

문0) 귀하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1) 1년 미만      2) 1~2년      3) 3~4년      4) 5~6년      5) 7년 이상

문1) 귀하가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 2) 현재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 3)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 4)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 5) 문화예술 활동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재단의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

- (예. 예술강사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등)
- 7) 문화예술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 8) 취득 동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향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9) 기타 ( )

문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당시, 귀하께서 희망했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문3)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어느 곳에서 이수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원 (☞ 문3-1로 이동)
- 2) 대학 (☞ 문4로 이동)
- 3) 학점은행제 (☞ 문4로 이동)
- 4) 국가무형문화재 (☞ 문4로 이동)
- 5) 기본연수 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교육과정 이수요건 다, 라목에 해당하여 취득한 자\_16년 1차 교부대상자까지 적용) (☞ 문4로 이동)



문3-1) [문3의 1)번 응답자만] 귀하는 어느 문화예술교육원에서 이수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                    |                    |
|--------------------|--------------------|
| 1)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2)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3)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4)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5)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6)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7)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8)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9) 전북문화예술교육원       | 10)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11)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12)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13)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14)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15) 기타( )          |                    |

## Part B. 경제활동

문4) 귀하께서는 현재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십니까?

- 1) 활동하고 있다(프리랜서 포함) (☞ 문5-1로 이동)
- 2) 활동하지 않고 있다/구직 활동 중이다 (☞ 문5-2로 이동)
- 3) 활동하지 않고 있다/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문5-2로 이동)

문5-1) [문4의 1)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과거에도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활동한 적 있었다(프리랜서 포함) (☞ 문5-4로 이동)
- 2) 활동한 적 없었다 (☞ 문6으로 이동)

문5-2) [문4의 2), 3)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과거에는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활동한 적 있었다(프리랜서 포함) (☞ 문5-3로 이동)
- 2) 활동한 적 없었다 (☞ 문4의 2) 응답자는 문13으로 이동/문4의 3) 응답자는 문14로 이동)

문5-3) [문4의 2), 3) & 문5-2의 1)번 응답자만] 과거에는 보수를 받고 활동했으나, 현재는 활동하지 않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1) 기존 일자리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 2) 기존 일자리의 경영상 문제 등 회사(기관) 사정으로
- 3)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 4) 개인적인 이유로 (건강, 결혼 등)
- 5) 전공, 지식, 기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 6) 발전 가능성/전망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 7) 임금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 8)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 9) 특정 시기(계절)에만 일할 수 있어서

- 10)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프리랜서, 재택근무 등)  
 11) 기타 ( )

문5-4) [문5-1 또는 문5-2의 1)번 응답자만] 과거 귀하의 소속기관은 어디였습니까?

[복수응답]

- 1) 국·공립·공공기관      2) 정부부처, 지자체      3) 예술단체  
 4) 사기업      5) 초,중,고등학교      6) 대학교  
 7)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8) 기타( )

#### 설문 로직

문4의 1)번 응답자 → 문5-1로 이동 → 문5-1의 1)번 응답자 → 문5-4로 이동 → 문6으로 이동  
 문4의 1)번 응답자 → 문5-1로 이동 → 문5-1의 2)번 응답자 → 문6으로 이동  
 문4의 2)번 응답자 → 문5-2로 이동 → 문5-2의 1)번 응답자 → 문5-3으로 이동 → 문5-4로 이동  
 → 문13으로 이동  
 문4의 2)번 응답자 → 문5-2로 이동 → 문5-2의 2)번 응답자 → 문13으로 이동  
 문4의 3)번 응답자 → 문5-2로 이동 → 문5-2의 1)번 응답자 → 문5-3으로 이동 → 문5-4로 이동  
 → 문14로 이동  
 문4의 3)번 응답자 → 문5-2로 이동 → 문5-2의 2)번 응답자 → 문14로 이동

문6) [문4의 1)번 응답자만] 현재 귀하는 기관·시설·단체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십니까?

- 1) 기관·시설·단체 종사      2) 프리랜서(예술강사 포함)

문7) [문4의 1)번 응답자만] 현재 귀하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1)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 제외)  
 (☞ 문6의 1) 응답자는 문7-1로 이동)  
 (☞ 문6의 2) 응답자는 문9-1로 이동)  
 2)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 문6의 1) 응답자는 문7-4로 이동)  
 (☞ 문6의 2) 응답자는 문9-1로 이동)  
 3)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 문6의 1) 응답자는 문7-7로 이동)  
 (☞ 문6의 2) 응답자는 문9-1로 이동)

문7-1) [문6의 1] & 문7의 1)번 응답자 귀하 소속 기관·시설·단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
| 1) 국·공립·공공기관 | 2) 정부부처, 지자체 | 3) 예술단체                        | 4) 사기업 |
| 5) 초·중·고등학교  | 6) 대학교       | 7) 기타 (                      ) |        |

문7-2) [문6의 1] & 문7의 1)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 |                 |                  |
|-----------------|------------------|
| 1)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 2)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
|-----------------|------------------|

문7-3) [문6의 1] & 문7의 1)번 응답자 귀하께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신 총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년 (        ) 개월 (☞ 문8로 이동)

문7-4) [문6의 1] & 문7의 2)번 응답자 귀하 소속 기관·시설·단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
| 1) 국·공립·공공기관 | 2) 정부부처, 지자체 | 3) 예술단체                        | 4) 사기업 |
| 5) 초·중·고등학교  | 6) 대학교       | 7) 기타 (                      ) |        |

문7-5) [문6의 1] & 문7의 2)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 |                 |                  |
|-----------------|------------------|
| 1)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 2)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
|-----------------|------------------|

문7-6) [문6의 1] & 문7의 2)번 응답자 귀하께서 문화예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신 총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년 (        ) 개월 (☞ 문8로 이동)

문7-7) [문6의 1] & 문7의 3)번 응답자 귀하 소속기관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 1) 국·공립·공공기관 | 2) 정부부처, 지자체 | 3) 사기업                         |
| 4) 초·중·고등학교  | 5) 대학교       | 6) 기타 (                      ) |

문7-8) [문6의 1] & 문7의 3)번 응답자 귀하께서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 |                 |                  |
|-----------------|------------------|
| 1)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 2)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
|-----------------|------------------|

문7-9) [문6의 1] & 문7의 3)번 응답자 귀하께서 근무하신 총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년 (        ) 개월 (☞ 문8로 이동)

문8) [문6의 1)번 응답자만]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 문8 응답 후, 문10으로 이동

문9-1) [문6의 2)번 응답자] 귀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문9-2로 이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 문10으로 이동)

문9-2) [문9-1의 4)번 응답자] 현재 귀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이십니까?

혹은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이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문9-3) [문9-2의 1)2) 응답자] 귀하께서 예술강사로 활동한 기간은 전체 얼마나 되십니까?

구 분	문9-2	문9-3
1)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	1)	1) 지원사업 참여 ( )년 ( )개월
2) 민간영역(문화센터, 기관, 학원 등)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	2)	2) 민간영역 참여 ( )년 ( )개월

☞ 문9-3 응답 후, 문10으로 이동

문10) [문4의 1)번 응답자만] 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2)	3)	4)	5)

문10-1) [문10의 1),2)번 응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실제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 2)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낮아서
- 3)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이론중심이어서
- 4) 프로그램 기획,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에는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 5) 기타 ( )

문10-2) [문10의 3)번 응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0-3) [문10의 4),5)번 응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현재 업무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이 높아서
-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어서
- 3)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내용으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 4) 예술가와 교육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 5) 기타 ( )

 **문10-1, 문10-2, 문10-3 응답 후, 문11로 이동**

## Part C. 구직 시 도움여부

문11) [문4의 1)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은 활동하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활동한 이후입니까?

- 1) 활동하기 전 자격증 취득 (☞ 문12로 이동)
- 2) 활동한 뒤 자격증 취득 (☞ 문13으로 이동)

문12) [문11의 1)번 응답자] 귀하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 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문12-1) [문12의 1),2)번 응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 2) 구인 또는 채용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 3)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 4)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의 고용조건이 불안정(비정규직)한 곳이 많아서
- 5) 코로나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이 줄어들어서
- 6) 기타 ( )

문12-2) [문12의 3)번 응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는데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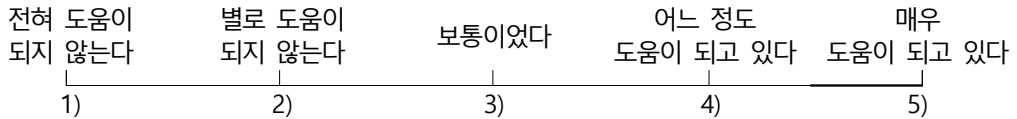
문12-3) [문12의 4),5)번 응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 2)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 3)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 4)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정규직)인 곳이 많아서
- 5) 기타 ( )

☞ 문12-1, 문12-2, 문12-3 응답 후, 문14로 이동

## Part D. 구직 활동 시 도움여부

문13) [문4의 2)번 응답자만] 귀하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구직 활동 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3-1) [문13의 1),2)번 응답자] 구직 활동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 2) 구인 또는 채용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 3)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 4)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의 고용조건이 불안정(비정규직)한 곳이 많아서
- 5) 코로나19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이 줄어들어서
- 6) 기타( )

문13-2) [문13의 3)번 응답자] 구직 활동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3-3) [문13의 4),5)번 응답자] 구직 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도움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경제활동 참여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곳이 많아서
- 2)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일이 많아서
- 3) 배치기관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서
- 4)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기관(단체)의 고용조건이 안정적(정규직)인 곳이 많아서
- 5) 기타( )

#### Part D.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문1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구. 인턴십 지원사업)’은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만 39세 이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 문화시설에 배치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 실무경험 확대 및 경력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1) 그렇다 (☞ 문14-1로 이동)
- 2) 그렇지 않다 (☞ 문15로 이동)
- 3) 미정이다 (☞ 문15로 이동)
- 4) 참여조건(만 39세 이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3년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문15로 이동)

문14-1) [문14의 1)번 응답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구.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 Part E. 1급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조사

[1급 문화예술교육사]

1급 문화예술교육사는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문15) 귀하는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십니까?

- 1) 희망한다 (☞ 문15-1로 이동)      2) 희망하지 않는다 (☞ 문15-3으로 이동)



문15-1) [문15의 1)번 응답자] 귀하께서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지금보다 양질의 일자리(급여, 고용안정 등)로 이동하기 위해서
- 2) 지금보다 활동 영역을 넓히거나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 3) 각종 정책 지원사업 참여에 유리할 것 같아서
- 4)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 5) 상급 자격 취득을 통한 개인적 성장과 성취를 위해서
- 6) 기타 ( )

문15-2) [문15의 1)번 응답자] 귀하는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과 시간적 노력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비용과 시간에 대한 지불 의사는 어떻습니까?

- 1) 알고 있으며, 취득을 위해 기꺼이 부담할 것이다
- 2) 알고 있으나, 비용과 시간적 노력 소요에 대해 부담이 된다
- 3) 모른다

문15-3) [문15의 2)번 응답자] 귀하께서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1급 취득으로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2) 1급 취득이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3) 1급 취득이 실제 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4) 1급 소지자와 2급 소지자 간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 5) 더 높은 등급의 자격 취득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
- 6) 기타 ( )

문16) **[문15의 1)번 응답자]** 귀하가 만일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한다면, 취득 이후에 수행하길 희망하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문17)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일반적 역량 수준을 고려할 때,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

1) 남자                      2) 여자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1) 고등학교 졸업                      2) 전문대 졸업                      3) 대학 졸업(학사)  
4) 대학원 졸업(석사)                      5) 대학원 졸업(박사)                      6) 기타(                      )

부록 | 373

##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의무배치 기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자격취득자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쭙는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준하여 **귀하의 응답내용은 그 비밀이 보장되며, 수요조사 자료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 수 행 : 글로벌알앤씨(주) 정현혜 연구원 ☎ 02-3456-1733) / e-mail : hhjeong@globalri.co.kr

■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 e-mail : aci@arte.or.kr

### Part A. 일반사항

문1) 귀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                 |         |         |
|-----------------|---------|---------|
| 1) 도서관          | 2) 박물관  | 3) 미술관  |
| 4) 문예회관(공연장)    | 5) 문화의집 | 6) 전수회관 |
| 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8) 기타 ( | )       |

문2) 귀 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1) 예 (☞ **문2-1로 이동**)      2) 아니오 (☞ **문3으로 이동**)

**문2-1) [문2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연간 몇 회입니까?**

- 1) 1~5회      2) 6~10회      3) 11~20회      4) 21회 이상

문2-2) [문2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 2)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 3)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 4)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 5) 기타( )

문2-3) [문2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문2-4) [문2의 1)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구 분	문2-3	문2-4		
1)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1)	1)	2)	3)
2)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2)	1)	2)	3)
3) 기관 외부 전문가	3)	1)	2)	3)
4) 문화예술교육강사	4)	1)	2)	3)
5) 기타 ( )	5)	1)	2)	3)

#### 문2-4의 보기항목

-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여부를 알 수 없다

문3)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 시설은 최소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혹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 1) 알고 있었다
- 2) 모르고 있었다

문4)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의 역량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역량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역량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역량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역량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역량(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역량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역량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역량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능력
- 12) 기타 ( )

## Part B.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현황

문5) 귀 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2021년 9월 기준]**

- 1) 예 (☞ **문5-1로 이동**)                      2) 아니오 (☞ **문5-2 응답 후 문8로 이동**)

문5-1) **[문5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 및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근무형태	인원
1) 정규직	( )명
2) 비정규직(상근)	( )명
3) 비정규직(비상근)	( )명
4) 비정규직(기간제)	( )명
5) 비정규직(무기계약직)	( )명
6) 비정규직(전일제 근로자)	( )명
7)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 )명
합계	( )명

문5-2) [문5의 2)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예산이 부족해서
-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 4)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 5)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 7) 기타 ( )

 **문8로 이동**

문6) [문5의 1)번 응답자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일반적 역량 수준을 고려**할 때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문7) [문5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문7-1) [문5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의 직  
무수행 수준은 어떠합니까?

 문7에서 응답한 항목만 제시

구 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1)	2)	3)	4)	5)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1)	2)	3)	4)	5)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	2)	3)	4)	5)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1)	2)	3)	4)	5)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	2)	3)	4)	5)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1)	2)	3)	4)	5)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1)	2)	3)	4)	5)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1)	2)	3)	4)	5)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1)	2)	3)	4)	5)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1)	2)	3)	4)	5)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1)	2)	3)	4)	5)
12) 기타 ( )	1)	2)	3)	4)	5)



## Part C.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문8) [문5의 2)번 응답자만] 귀 기관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배치할 의향이 있다 (☞ 문8-1로 이동) 2) 배치할 의향이 없다 (☞ 문8-4로 이동)

문8-1) [문8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다면 배치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구 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형태	
1) 상근 / 비상근 여부	1) 상근 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2) 기간제 / 무기계약 여부	1) 기간제 근로자	2) 무기계약직 근로자
3) 전일제 / 단시간여부	1) 전일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문8-2) [문8의 1)번 응답자만] 몇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                      ) 명

문8-3) [문8의 1)번 응답자만] 배치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1) 2021년 하반기                      2) 2022년 상반기                      3) 2022년 하반기  
4) 2023년 이후                      5) 직원 결원 시                      6) 기타(                      )

☞ 문8-3 응답 후, 문9로 이동

문8-4) [문8의 2)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예산이 부족해서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4)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5)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7) 기타(                      )

☞ 문8-4 응답 후, 문9로 이동

문9) 귀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문화시설이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만 39세 이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 배치해 현장 실무경험 및 경력 개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함으로써 시도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임

- 1) 그렇다 (☞ 문9-1로 이동)
- 2) 그렇지 않다 (☞ 문9-2로 이동)
- 3) 미정이다 (☞ 문10으로 이동)

문9-1) [문9의 1)번 응답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1) 본 사업 운영인력 지원                      2) 대외 홍보 지원                      3) 컨설팅 강화
- 4) 지역별 협력체계 강화                      5) 기타(                      )

 **문9-1 응답 후, 문10으로 이동**

문9-2) [문9의 2)번 응답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 2) 본 사업 운영인력이 없어서
- 3) 문화예술교육사 모집이 힘들 것 같아서(지역, 위치 등)
- 4) 기타 ( )

 **문9-2 응답 후, 문10으로 이동**



문10-3) [문10-2의 1)번 응답자] 1급 문화예술교육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문10-4) [문10-2의 1)번 응답자] 앞서 언급하신 1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필요함 (☞ 문10-5로 이동)      2) 필요하지 않음 (☞ 개인정보 문항으로 이동)

문10-5) [문10-4의 1)번 응답자만] 몇 명 정도 배치가 필요하니까? ( ) 명

문10-6) [문10-4의 1)번 응답자만] 1급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다면 배치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구 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형태	
1) 상근 / 비상근 여부	1) 상근 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2) 기간제 / 무기계약 여부	1) 기간제 근로자	2) 무기계약직 근로자
3) 전일제 / 단시간여부	1) 전일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문10-7) [문10-4의 1)번 응답자만] 배치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1) 2022년 하반기      2) 2023년 상반기      3) 2023년 하반기  
4) 2024년 이후      5) 직원 결원 시      6) 기타( )

□ 귀 기관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 (문화예술 관련 기관)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의 자격취득자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쭙는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준하여 귀하의 응답내용은 그 비밀이 보장되며, 수요조사 자료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 수 행 : 글로벌알앤씨(주) 정현혜 연구원(☎ 02-3456-1733) / e-mail : hhjeong@globalri.co.kr

■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 e-mail : aci@arte.or.kr

## Part A. 일반사항

문1) 귀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생활문화센터                  2) 지방문화원                  3) 미디어센터                  4) 평생교육기  
관
- 5) 기타(                                  )

문2) 귀 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1) 예 (☞ 문2-1로 이동)

문2-1) [문2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연간 몇 회  
입니까?

- 1) 1~5회                      2) 6~10회                      3) 11~20회                      4) 21회 이상

문2-2) [문2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장르별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 2) 통합 장르 기반 예술 실기교육 프로그램
- 3)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소양 프로그램
- 4) 인문학적 이론 교양 프로그램
- 5) 기타 ( )

문2-3) [문2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문2-4) [문2의 1)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구 분	문2-3	문2-4		
1)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1)	1)	2)	3)
2) 기관 내부 문화예술교육 비담당자	2)	1)	2)	3)
3) 기관 외부 전문가	3)	1)	2)	3)
4) 문화예술교육강사	4)	1)	2)	3)
5) 기타 ( )	5)	1)	2)	3)

#### 문2-4의 보기항목

-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여부를 알 수 없다

문3)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귀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혹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 1) 알고 있었다
- 2) 모르고 있었다

## Part B.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현황

문4) 귀 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습니까? [2021년 9월 기준]

1) 예 (☞ 문4-1로 이동)

2) 아니오 (☞ 문4-2 응답 후 문7로 이동)

문4-1) [문4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 및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근무형태	인원
1) 정규직	( )명
2) 비정규직(상근)	( )명
3) 비정규직(비상근)	( )명
4) 비정규직(기간제)	( )명
5) 비정규직(무기계약직)	( )명
6) 비정규직(전일제 근로자)	( )명
7)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 )명
합계	( )명

문4-2) [문4의 2)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예산이 부족해서
-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 4)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 5)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 7) 기타( )

문5) [문4의 1)번 응답자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의 일반적 역량 수준을 고려할 때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문6) [문4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문6-1) [문4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의 직무수행 수준은 어떠합니까?

 문6에서 응답한 항목만 제시

구 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1)	2)	3)	4)	5)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1)	2)	3)	4)	5)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	2)	3)	4)	5)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문화예술 강사로 활동)	1)	2)	3)	4)	5)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1)	2)	3)	4)	5)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1)	2)	3)	4)	5)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1)	2)	3)	4)	5)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1)	2)	3)	4)	5)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1)	2)	3)	4)	5)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1)	2)	3)	4)	5)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1)	2)	3)	4)	5)
12) 기타 ( )	1)	2)	3)	4)	5)



## Part C.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계획

문7) [문4의 2)번 응답자만] 귀 기관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배치할 의향이 있다 (☞ 문7-1로 이동) 2) 배치할 의향이 없다 (☞ 문7-4로 이동)

문7-1) [문7의 1)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다면 배치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구 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형태	
1) 상근 / 비상근 여부	1) 상근 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2) 기간제 / 무기계약 여부	1) 기간제 근로자	2) 무기계약직 근로자
3) 전일제 / 단시간여부	1) 전일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문7-2) [문7의 1)번 응답자만] 몇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            ) 명

문7-3) [문7의 1)번 응답자만] 배치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1) 2021년 하반기                      2) 2022년 상반기                      3) 2022년 하반기  
4) 2023년 이후                        5) 직원 결원 시                        6) 기타(                                    )

☞ 문7-3 응답 후, 문8로 이동

문7-4) [문7의 2)번 응답자만]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예산이 부족해서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4)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5)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7) 기타(                                    )

☞ 문7-4 응답 후, 문8로 이동

문8)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의 역량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역량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역량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 역량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수행 역량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 역량(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역량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역량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역량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능력
- 12) 기타 ( )

## Part E. 1급 교육사 수요조사

문9) 귀 기관에서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 1) 계획 있다 (☞ **문9-1로 이동**)                      2) 계획 없다 (☞ **개인정보 문항으로 이동**)

문9-1) **[문9의 1)번 응답자]** 사업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할 때, 귀 기관에서 **강화**되어야 할 **업무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문9-2) [문9의 1)번 응답자] 사업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할 때, 아래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교육사〉는 1급 문화예술교육사와 2급 문화예술교육사로 구분됩니다.

1급 문화예술교육사는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1) 필요함 (☞ 문9-3으로 이동)

2) 필요하지 않음 (☞ 개인정보 문항으로 이동)

문9-3) [문9-2의 1)번 응답자] 2급 문화예술교육사와 비교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 1) 문화예술교육 사업기획, 교육체계 수립, 전략 수립 등
- 2)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
- 3)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4)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강의/강사 활동
- 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6)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에서의 행정업무
- 7) 문화예술교육 분석 및 평가(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 8)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 9) 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대외 협력
- 10)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원의 발굴 및 활용
- 11)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창작활동
- 12) 기타 ( )

문9-4) [문9-2의 1)번 응답자] 앞서 언급하신 1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함 (☞ 문9-5로 이동)

2) 필요하지 않음 (☞ 개인정보 문항으로 이동)

문9-5) [문9-4의 1)번 응답자만] 몇 명 정도 배치가 필요합니까? ( ) 명

문9-6) [문9-4의 1)번 응답자만] 1급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다면 배치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구 분	1급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형태	
1) 상근 / 비상근 여부	1) 상근 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2) 기간제 / 무기계약 여부	1) 기간제 근로자	2) 무기계약직 근로자
3) 전일제 / 단시간여부	1) 전일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문9-7) [문9-4의 1)번 응답자만] 배치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              |              |                               |
|--------------|--------------|-------------------------------|
| 1) 2022년 하반기 | 2) 2023년 상반기 | 3) 2023년 하반기                  |
| 4) 2024년 이후  | 5) 직원 결원 시   | 6) 기타(                      ) |

□ 귀 기관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